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길은배(한국체육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최현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 발 간 사 ■ ■ ■

지난 10여년 간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71명이었던 입국자수는 2012년 12월 기준 현재 24,614명에 이르게 되었고, 탈북청소년들도 많아지고 있어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0세 이하의 탈북청소년은 약 20%정도인 3,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입국 후 2~3개월 간의 초기교육을 받은 후 우리사회에 편입하게 되지만, 적응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처는 우리 사회에의 적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탈북청소년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시각과 관심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반(남한)청소년들과의 상호인식 및 관심의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진정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편견 없는 태도형성 및 상호 부정적 고정관념의 제거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적응 이상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정책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가 탈북청소년들의 우리사회로의 통합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과 연구진행과정에서 자문과 지원을 해주신 탈북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담당 공무원, 청소년시설운영 및 관계자 등 전문가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연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정책방안을 도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탈북청소년 관련문헌 분석 및 국외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탈북청소년과 일반청소년,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현장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상호인식과 사회통합관련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워크숍,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등 관련정책을 모색하였다.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탈북청소년 개인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탈북청소년대상 진로·직업지도 내실화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운영이 필요하다. 일곱째,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째,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아홉째,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실시 및 통일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멘토교사 사전연수 실시 및 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 사업 활성화,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4과제,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제도화 등의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7과제,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활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방안 2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어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 연구 요약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탈북청소년 수도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미래 통일세대인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탈북청소년들의 우리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탈북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지원정책, 사회통합 개념 및 이론, 외국의 사회통합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설문-면접조사: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호인식 및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현장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연구방향, 범위, 방법 설정과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 관련 설문 및 면접조사지 개발,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문가워크숍을 개최하였음.
- 콜로키움: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모색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초청,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3. 주요결과

-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깔끔하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 잘 안 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음.

○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탈북청소년에게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는 탈북청소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 38.8%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26.9%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24.3%는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12.4%)’,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11.9%)’, ‘북한사람(4.5%)’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일반(남한)청소년 29.4%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0%는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 못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 ‘경쟁심이 많아졌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적응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의 입국 후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남한생활이 재미있다’,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할 때가 가끔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으며, 남한생활이 재미있고,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학교생활(공부)(3.12), 탈북한 친구들과의 관계(3.62), 이웃과의 관계(3.73), 가족과의 관계(3.83), 학교선생님과의 관계(3.90), 남한친구들과의 관계(3.96) 순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50.7%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 친구(45.8%)’, ‘탈북친구(17.9%)’, ‘담임선생님(17.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비율도 7.0%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탈북청소년 공개 여부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는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이상(55.2%)**

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3정도(38.8%)만이 ‘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남한)청소년** 역시 과반수(50.2%)가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수정도(48.9%)인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111)**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정도(42.3%)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15.3%)’, ‘말할 용기가 없어서(7.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타(19.8%) 세부응답으로는 친구들과 멀어질까봐, 말하기 싫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404)**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1/2정도(64.1%)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23.5%)’,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6.9%)의 세부응답으로는 한민족(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등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3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나의 가족(4.23)’을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은 2.69)’을 가장 못 믿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남한)청소년**은 ‘나의 가족(4.53점)’과 ‘나의 친구(4.20점)’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 내가 모르는 탈북청소년(2.35)’, ‘내가 모르는 탈북 어른(2.19점)’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생활주변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0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3.63)’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3.59)’, ‘법원(3.50)’, ‘정부(3.42)’, ‘지방자치단체(3.36)’, ‘국회(3.35)’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남한)청소년**은 ‘경찰(3.61)’을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3.60)’, ‘법원(3.44)’, ‘학원(3.24)’, ‘군대(3.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밖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직업선택 시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는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등의 도덕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⅔ 정도(61.2%)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남한)청소년은 ⅞ 정도(74.3%)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탈북청소년(3.0%)에 비해 일반(남한)청소년(4.8%)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 및 이유:**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일반(남한)청소년(36.1%) 보다 탈북청소년(37.3%)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75)과 일반(남한)청소년(N=291)에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N=75)의 ⅔ 정도(60.0%)와 일반(남한)청소년(N=291)의 과반수정도(45.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음.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46.8%)’,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35.3%)’,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4.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52.5%)’,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48.6%)’,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38.8%)’,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23.5%)’,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좋은 점에 대한 인식:**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86)에게 탈북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1/3 정도(30.2%)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분야가 다른 것’/‘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24.4%)’,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11.6%)’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좋다’는 응답이 2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더 생겼다/친구가 되었다(10.5%)’, ‘북한말을 배울 수 있다(9.3%)’,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5.8%)’,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다(3.5%)’ 순으로 나타남. 소수의견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이미지로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통일 세대로서의 준비도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탈북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자유응답 하도록 질문한 결과, 연예인이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관련직업(10.4%), 경찰/군인관련직업(9.0%), 음식관련직업(8.5%), 법조계/디자이너관련직업(6.0%), 운동관련직업(5.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개별직종으로는 요리사(14명), 경찰(13명), 가수(11명), 과학자(10명), 교사/디자이너(9명), 검사(8명), 의사(7명) 순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음.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자주 이야기 하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 모두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이 될 때 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사람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이다’에 대한 생각도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오는 탈북청소년 교육지도 현실의 변화에 알맞은 교육현장 사례중심의 연수내용 강화가 필요하며,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및 연수 시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교육시설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로 관계기관의 협회와 워크숍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보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보람은 탈북학생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래친구와 잘 지내고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후 감사의 인사를 할 때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 목적인 교육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탈북청소년과의 관계형성 어려움과 탈북청소년의 태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열악한 근무여건, 예산지원 부족, 탈북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심리불안정으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탈북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교육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편견,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비전 부재 및 교사 지도 능력의 한계, 탈북청소년의 북한식 학교생활 태도로 인한 교우관계 지도의 어려움, 예산지원 부족과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부족, 탈북청소년의 학습동기와 기초학력 부족, 불안한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와 콤플렉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부딪칠 때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탈북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언어교육지원**을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며, 가정을 대신 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돌봄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적 돌봄 기능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탈북청소년의 드러난 문제의 저변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학업과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적응교육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장애(저해)요인:**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밀집거주정책과 탈북학생만의 선별적 분리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과잉증복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립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일반학교의 진로지도의 획일성과 민간교육시설의 학생안전보호중심의 엄격한 규정이 한국학생과의 교류 기회를 차단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이밖에도 탈북청소년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북한에서 형성된 의식과 정체성,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도 남한사회 적응이나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경쟁적인 한국사회 분위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등이 탈북청소년이 적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정책 및 과제:** 탈북청소년의 학업보충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밀집학교에 파견하는 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인 **맞춤형 교육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탈북청소년 가정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직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호와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밀집거주지역 또한 돌봄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생색 내기식 또는 구색 맞추기식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의 실질적 필요에 근거한 전문적인 지원** 및 엄격한 집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통일대비 교육과 정책에 대한 인식:** 청소년 대상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의 변화, 일상적 통합교육을 통한 통일기반 형성,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통일의지 강화 그리고 흥미중심의 통일교육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시사점:** 설문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첫째, 탈북청소년 개인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함. 둘째,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셋째,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시설 지원 및 정규학교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함. 넷째, 탈북청소년대상 진로·직업지도 내실화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교육 제도화가 필요함. 다섯째,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여섯째, 제3국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일곱째,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운영이 필요함. 여덟째,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가 필요함. 아홉째,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함. 열째,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실시 및 통일교육 내실화가 필요함 등으로 나타남.
  
- **정책제언:** 설문·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에 기초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멘토교사 사전연수 실시 및 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 사업 활성화,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4과제,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제도화 등의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7과제,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활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방안 2과제 등을 제안하였음.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추진체계 .....	6
3. 연구내용 .....	7
4. 연구방법 .....	9
II. 이론적 배경 .....	11
1.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동향 .....	13
2. 탈북청소년 개념 및 현황 .....	22
3. 탈북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	28
4.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 .....	41
5. 문제점 및 시사점 .....	54
III.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	57
1. 이스라엘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 .....	59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 .....	69
IV. 상호인식 및 통일관련 의견 조사분석 .....	83
1. 설문조사 개요 .....	85
2. 설문조사 결과 .....	87
3. 면접조사 개요 .....	153
4. 면접조사 결과 .....	155
5. 소결 및 시사점 .....	268

<b>V. 정책제언: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b> .....	293
1. 탈북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	295
2.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308
<b>참고문헌</b> .....	321
<b>부    록</b> .....	333
1. 설문조사지: 탈북청소년용 .....	335
2. 설문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	342
3. 면접조사지: 교사(지도자)용 .....	349
4. 면접조사지: 탈북청소년용 .....	353
5. 면접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	356
<b>Abstract</b> .....	359

## 표 목차

〈표Ⅱ-1〉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2012.4기준) .....	23
〈표Ⅱ-2〉 무연고 탈북청소년 수(2012.4기준) .....	24
〈표Ⅱ-3〉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학교유형별 재학현황(2012.4기준) .....	24
〈표Ⅱ-4〉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출신지별 재학현황(2012.4기준) .....	25
〈표Ⅱ-5〉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지역별 재학현황(2012.4기준) .....	25
〈표Ⅱ-6〉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연도별 재학현황(2012.4기준) .....	26
〈표Ⅱ-7〉 탈북청소년 학업중단현황: 연도별(2012.4기준) .....	26
〈표Ⅱ-8〉 탈북청소년 학업중단현황: 사유별(2012.4기준) .....	27
〈표Ⅱ-9〉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 .....	28
〈표Ⅱ-10〉 하나원의 연도별 아동·청소년 교육생 인원 현황 .....	31
〈표Ⅱ-11〉 정착도우미 업무 흐름도 .....	36
〈표Ⅱ-12〉 전문상담사 운영 실태 .....	37
〈표Ⅱ-13〉 전담코디네이터의 파견 현황 .....	38
〈표Ⅱ-14〉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지역 현황: 2012년도 .....	40
〈표Ⅱ-15〉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	49
〈표Ⅱ-16〉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차이 .....	53
〈표Ⅳ-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	86
〈표Ⅳ-2〉 조사대상자 특성: 일반청소년 .....	87
〈표Ⅳ-3〉 조사대상자 특성: 탈북청소년 .....	89
〈표Ⅳ-4〉 성별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1
〈표Ⅳ-5〉 출생지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1
〈표Ⅳ-6〉 지역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2
〈표Ⅳ-7〉 성적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2
〈표Ⅳ-8〉 가정형편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3

〈표Ⅳ- 9〉 성별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3
〈표Ⅳ-10〉 학교급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4
〈표Ⅳ-11〉 성적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4
〈표Ⅳ-12〉 지역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5
〈표Ⅳ-13〉 탈북청소년 친구 여부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	95
〈표Ⅳ-14〉 성별에 따른 탈북청소년 자기인식 차이 .....	98
〈표Ⅳ-15〉 출생지에 따른 탈북청소년 자기인식 차이 .....	99
〈표Ⅳ-16〉 성별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	99
〈표Ⅳ-17〉 학교급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	100
〈표Ⅳ-18〉 성적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	101
〈표Ⅳ-19〉 지역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	101
〈표Ⅳ-20〉 가정형편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	102
〈표Ⅳ-21〉 탈북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	103
〈표Ⅳ-2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	104
〈표Ⅳ-23〉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106
〈표Ⅳ-2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 정체성에 대한 인식 .....	107
〈표Ⅳ-25〉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	109
〈표Ⅳ-26〉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	111
〈표Ⅳ-27〉 탈북청소년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	112
〈표Ⅳ-28〉 탈북청소년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	113
〈표Ⅳ-29〉 일반(남한)청소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	114
〈표Ⅳ-30〉 일반(남한)청소년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	114
〈표Ⅳ-31〉 일반(남한)청소년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	115
〈표Ⅳ-32〉 일반(남한)청소년 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	115

〈표Ⅳ-33〉 일반(남한)청소년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	116
〈표Ⅳ-34〉 탈북청소년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	117
〈표Ⅳ-35〉 일반(남한)청소년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	119
〈표Ⅳ-36〉 탈북청소년 공개에 대한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120
〈표Ⅳ-37〉 탈북청소년 자기공개에 대한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	122
〈표Ⅳ-38〉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탈북청소년 .....	124
〈표Ⅳ-39〉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일반(남한)청소년 .....	126
〈표Ⅳ-40〉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차이 .....	128
〈표Ⅳ-4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129
〈표Ⅳ-4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	132
〈표Ⅳ-43〉 탈북청소년들의 한국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	133
〈표Ⅳ-4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	135
〈표Ⅳ-45〉 탈북청소년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에 대한 인식 .....	136
〈표Ⅳ-46〉 일반(남한)청소년의 이민의향에 대한 인식 .....	138
〈표Ⅳ-47〉 탈북청소년의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	140
〈표Ⅳ-48〉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	141
〈표Ⅳ-49〉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	143
〈표Ⅳ-50〉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	144
〈표Ⅳ-51〉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 ..	146
〈표Ⅳ-5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좋은 점에 대한 인식 .....	147
〈표Ⅳ-53〉 탈북청소년들의 희망직업 .....	148
〈표Ⅳ-5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희망직업 .....	149
〈표Ⅳ-55〉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	151

〈표Ⅳ-56〉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 .....	152
〈표Ⅳ-57〉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152
〈표Ⅳ-58〉 면접조사 참가 청소년 및 교사(지도자) .....	153
〈표Ⅴ- 1〉 정부 부처의 교육지원 현황 .....	299
〈표Ⅴ-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담기관의 현황 .....	301
〈표Ⅴ- 3〉 탈북청소년 민간대안학교 현황(2013년) .....	302
〈표Ⅴ- 4〉 탈북청소년 방과후공부방 현황(2013년) .....	303
〈표Ⅴ- 5〉 탈북청소년 관련 용어 .....	315

# 그림 목차

【그림 I- 1】 연구추진체계 .....	6
【그림 II- 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프로그램 현황 .....	30
【그림 II- 2】 하나원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 현황 .....	32
【그림 II- 3】 교육지원 절차 .....	34
【그림 II- 4】 대학교 이상 학력인정 절차 .....	35
【그림 II- 5】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인정 .....	35
【그림 II- 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과 위상 .....	39
【그림 II- 7】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내용 .....	40
【그림 II- 8】 사회의 질 사분면 개념도 .....	46
【그림 IV- 1】 조사설계 .....	85
【그림 IV-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상호인식수준 .....	90
【그림 IV-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수준 .....	97
【그림 IV- 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105
【그림 IV- 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입국 후 탈북청소년의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차이 .....	108
【그림 IV- 6】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 차이 .....	110
【그림 IV- 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수준 .....	112
【그림 IV- 8】 탈북청소년들의 고민 의논 상대 .....	117
【그림 IV- 9】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고민 의논 상대 .....	118
【그림 IV-10】 탈북청소년 공개 여부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 .....	120
【그림 IV-11】 탈북청소년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 .....	123
【그림 IV-12】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	125

【그림Ⅳ-1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 127
【그림Ⅳ-1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129
【그림Ⅳ-1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체활동 참여수준	..... 130
【그림Ⅳ-16】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	· 131
【그림Ⅳ-1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국민 자긍심에 대한 인식수준	· 133
【그림Ⅳ-18】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	..... 136
【그림Ⅳ-19】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 139
【그림Ⅳ-20】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	..... 142
【그림Ⅳ-21】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 만나면서 어려운 점	..... 145
【그림Ⅳ-2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	..... 150
【그림Ⅴ- 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	..... 304

# 제 1 장

---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71명이었던 입국자수는 2002~2005년까지는 매년 1천여 명씩 증가하다 2006년 이후부터는 한해 입국자 수가 2천 명을 넘어서 2012년 12월 기준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4,614명에 이르게 되었고, 탈북청소년(6-20세)들도 따라서 많아지고 있어 최근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20세 이하의 탈북청소년은 약 20%정도인 3,000여명(2012. 4월기준)에 이르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입국하면 우선 하나원에서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3개월의 초기 적응훈련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의 특별학급에 편성되어 단기 적응교육을 받고,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청소년들은 하나둘학교에 편성되어 단기 적응교육을 받는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는 초등학교 단계의 아동들은 정착지 초등학교에 편입학하게 되며, 중·고등학교 단계의 청소년들은 정착지의 중·고등학교에 편입학하거나 특성화 중·고등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에 편입하든지, 아니면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단계의 편입학 과정은 본인과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다(한만길 외, 2010a: 3-4).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의 경우 입국 후 2~3개월 간의 초기교육을 받은 후 우리사회에 편입하게 되지만, 적응과정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서불안, 대인관계 부적응 등의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정병호 외, 2006b). 또한 남북한 학제의 차이, 교과목 교육내용의 차이, 교육풍토의 차이, 탈북후 입국까지의 제3국 체류기간동안의 학습공백(백혜정 외, 2006)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부적응, 학습부진, 중도탈락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심리적인

1) 이장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위축감이나 좌절감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처는 우리 사회에의 적응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교육중단연구Ⅲ(이강주 외, 2012: 171)에서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개념적인 틀로는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한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밝히고 있듯이 적응 이상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탈북청소년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시각과 관심이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일반(남한)청소년들과의 상호인식 및 관심의 문제는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진정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반(남한)남한청소년들의 편견 없는 태도형성 및 상호 부정적 고정관념의 제거가 필수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다루는 연구와 관심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큰 틀에서 다문화적 시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지만 일반 다문화와는 다른 한국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볼 때,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양계민 외(2008)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다문화집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토대로 집단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결과 인지적 긍정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국제결혼자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국 조선족, 외국인노동자, 새터민 순이었고, 인지적 부정적 태도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태도가 가장 부정적이었고, 조선족,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노동자 순이었다(양계민 외, 2008: 143-144). 이 연구 결과로 볼 때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인 반면 한민족인 새터민에 대한 태도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과는 다르게 새터민들에 대한 편견이 더 강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터민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필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양계민 외, 2008, 143-144). 더욱이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통일한국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독으로의 이주민에 대한 물적 사회통합 비용과 구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을 위한 투자비용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양 독일인 사이에 마음의 간격이 여전히 남아 있다(최승호, 2010: 162-163)는

독일의 선형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정한 사회통합은 취업지원, 직업교육, 사회보장 등과 같은 물적인 사회제도적 외적 통합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확립, 상호 문화적 이해 등과 같은 내적 통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실질적인 통합으로 갈 수 있다(최승호, 2010: 162-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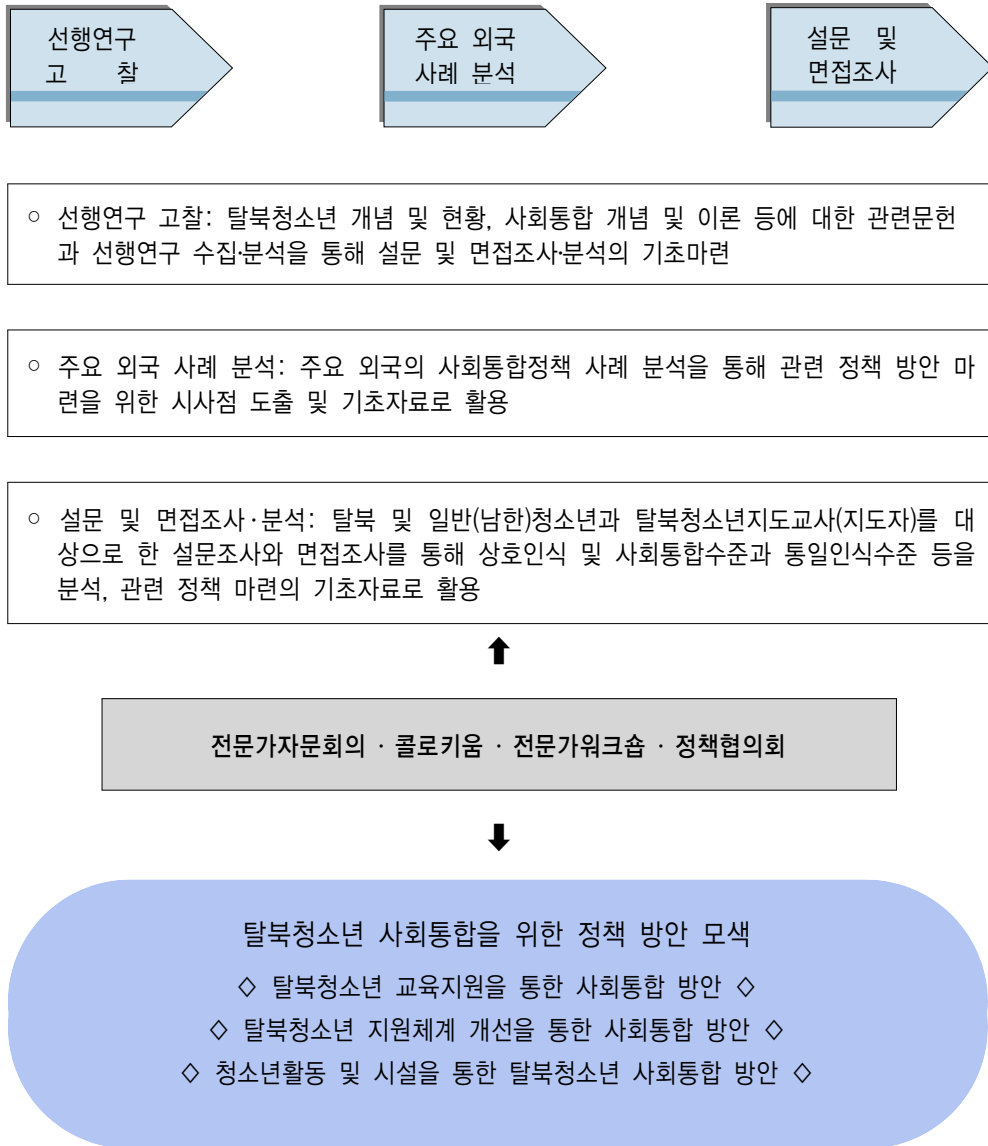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에 대한 윤인진·채정민(20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상호작용과정에서 상당한 괴리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것이 결국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적응의 어려움 가증이나 남한사회의 통합의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윤인진·채정민, 2010: 123)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교육, 주거, 문화 등의 다차원적 사회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의 이해를 증진하며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내적 사회통합이 다른 한편의 노력(최승호, 2010: 186)이라고 할 수 있다. 외적 통합보다 더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한 내적 통합을 위한 사전 노력이 없다면 준비되지 않은 미래 통일국면은 감당하기 힘든 사회통합비용의 지불과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최승호, 2010: 163-186).

탈북청소년의 교육, 진로 및 적응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다수 이루어진 바 있고(문희정, 2012; 교육과학기술부, 2011; 홍순혜 외, 2010; 김형태, 2010; 김윤나, 2008b; 김경준 외, 2008; 백혜정 외, 2006; 길은배 외, 2003),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 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지원 정책의 효과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진행되는 탈북청소년교육종단연구(한만길 외, 2010a; 이향규 외, 2011; 이강주 외, 2012)도 진행되고 있으며, 남한사회 내 다문화가정 또는 탈북자의 사회통합 논의(최승호, 2010; 양계민 외, 2008; 조정아 외, 2006; 김국현, 2003; 길은배, 2001)도 이루어진 바 있으나 탈북청소년 및 남한청소년간의 상호 이해 그리고 이들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이 우리나라에 이주하기 시작한 것도 벌써 20년 정도 되어가고 있지만 이들의 적응을 돕는 지원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제 탈북청소년들의 우리사회로의 통합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을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 및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이해 및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기초로 상호 이해와 통합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2. 연구추진체계



【그림 I-1】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인식 및 가치를 분석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와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과 향후 청소년 통일교육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탈북청소년과 사회통합에 대한 이론적 고찰

탈북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사회통합이론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및 이론적 고찰을 통해 상호 이해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인식 및 가치 관련 설문조사·분석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 2) 외국사례 조사·분석

이스라엘,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주요 사회통합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통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대한 시사점 도출 및 관련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 3)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통일관련 설문/면접 조사·분석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인식 및 가치, 통일관련 설문조사와 면접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조사 대상은 정규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 1,000명이며 조사내용은 ① 남북한 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태도 ②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통합수준(신뢰, 가치관, 정체성 등) ③ 남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관 ④ 인적사항 등이다. 사회통합수준은 사회응집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응집성 구성요소인 신뢰, 공동체참여, 통합적 규범 및 가치, 정체성 등 네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네 요소는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신뢰는 대부분의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일반 신뢰, 가족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 내 집단 신뢰, 타인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개인의 집단 신뢰, 기관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집단 신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공동체 참여는 1년, 한달, 1주일단위로 스포츠, 종교, 봉사, 문화예술활동 등의 각 단체모임에 어느 정도 참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으며, 통합적규범과 가치 영역은 사회적 가치관, 정치적 가치관, 경제적 가치관, 가정적 가치관, 도덕적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체성은 한국인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는 자긍심과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거리감으로 측정되는 소속감으로 나누었다.

면접조사는 상호 접촉 경험이 있는 남북한 청소년과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현장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interview) 핵심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또는 개인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①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은 학업 등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느끼는 장·단점과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를 위한 지원방안,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이며, ② 탈북청소년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나 지도자 대상 면접조사내용은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수준과 적응과정에서의 전환점에 대한 인식과 사례, 사회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한 지원정책,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나 정책 등이다.

#### 4) 탈북청소년 사회통합방안 모색

일반(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현장전문가 등) 대상 면접조사, 외국의 사회통합 사례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워크숍, 콜로키움 등을 통하여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였다. 사회통합 방안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탈북청소년 사회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사회통합자원으로서의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 등 네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탈북청소년의 개념 및 현황, 지원정책, 사회통합 개념 및 이론, 외국의 사회통합사례 등을 살펴보고자 국내외 관련문헌과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문항 개발의 기초자료 및 관련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2) 전문가자문 및 워크숍

연구방향, 범위, 방법 설정과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에 대한 설문 및 면접조사지 개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 등 관련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3) 양적 연구(설문조사)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간에 대한 인식 및 가치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정규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과 중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탈북청소년재학 초·중학교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교육통계자료를 기초로 학생 수와 학교 수에 따라 지역별로 유의표집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은 ①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태도 ②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수준(신뢰, 가치관, 정체성 등) ③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관 ④ 인적사항 등이다.

### 4) 질적 연구(면접조사)

면접조사는 탈북 및 일반청소년과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현장전문가 등)를 대상으

로 반구조화된 핵심집단면담과 개인면담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내용은 ① 청소년 대상 면접조사내용은 학업 등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느끼는 장·단점과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를 위한 지원방안,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이며, ② 탈북청소년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나 지도자 대상 면접조사내용은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수준과 적응과정에서의 전환점에 대한 인식과 사례, 사회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한 지원정책,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나 정책 등이다.

## 제 2 장

---

# 이론적 배경

1.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동향
2. 탈북청소년 개념 및 현황
3. 탈북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4.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
5. 문제점 및 시사점



## 제 2 장 이론적 배경<sup>2)</sup>

### 1.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동향<sup>3)</sup>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입국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데 여성 입국자들은 가족들과 동반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서 탈북청소년이 20%정도에 다다른다. 탈북청소년은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 외상, 학교 부적응,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양육결핍, 청소년기 발달과업이 순조롭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응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적 측면, 교육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나아가 탈북청소년의 적응 양상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동화가 아닌 통합을 통한 적응을 위해 미흡하게나마 탈북청소년 이해에 관한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정책지원방안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이 중심이 되었다. 2009년부터 2010년에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원도 더욱 활발해졌으며, 통일부와 교육부 산하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연구기관이 출범하면서 정책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09년 9월에 출범한 이후 무연고탈북청소년 현황 및 지원방안, 탈북청소년 중단연구, 북한교육이나 탈북교원, 남북한 통합교육에 관한 연구만이 아니라 탈북청소년 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1:1 멘토링 지도 사례, 탈북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진로관련 자료집, 탈북청소년 학부모교육 자료집 등을 활발하게 발간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2) 이 장의 3.4.5절은 길은배교수(한국체육대학교)가 집필하였음.

3) 본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콜로키움 자료집 ‘탈북청소년 연구 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윤혜순, 2013)을 수 정보완하여 윤혜순교수(송실사이버대학교)가 재구성하였음.

있는 측면이 강하지만,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지역사회, 민간단체와의 연계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상호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사회 및 학교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만이 아니라 사회통합 나아가 통일기반조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질적 발전이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 관련 연구를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으로 나누어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과제를 살펴보았다.

### 1) 연구내용중심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 (1) 심리·정서적 적응 관련연구

적응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이 입국 전 즉, 북한 생활이나 경유지인 제3국에서의 삶, 그리고 탈북과정에서 겪은 상흔으로 인해 남한사회에서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탈북과정에서 생겨난 상흔이 입국한 후 적응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외상경험 실태, 외상이 남한 입국 이후 정신건강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 2007; 김윤나, 2008a).

또한 외상이 남한사회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입국 후에 외상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들 즉 불안, 소외감, 소속감 결여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이는 탈북 전이나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이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입국한 후에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탈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새롭게 겪게 되는 외상에 초점을 두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220-235;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2006;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한편, 김윤나(2008a)는 상흔이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흔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성장의 힘이 커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의 문화적응 유형과 적응유연성을 파악한 후에 문화통합 유형으로 분류된 12명의 탈북청소년들을 추적 조사해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유연성과 강화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이순형·조수철·김창대·진미정(2007)도 외상으로 인한 부적응과 문제에 초점을 두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 즉 내면의 힘에 의미를 두고 살펴보았다. 이는 탈북청소년이 외상에 대해 단지, 수동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극복하기도 하며, 오히려 내면의 힘을 키워나가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반응한다는 즉, 능동성과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2) 학교 적응 관련연구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관련해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령기에 있기도 하지만, 학교는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를 배우고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재사회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으로 인해 생겨난 상흔 외에도 학교에서 남북한의 심각한 교육 격차로 인한 학업성취의 어려움, 북한과는 다른 수업분위기, 입시 경쟁, 개인주의, 교우들의 편견과 배타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다. (한만길 외, 1999; 한만길 외, 2000; 이기영, 2001; 정진경·정병호·양계민, 2004; 김미숙, 2005; 정병호 외, 2006a;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이 중에서도 탈북청소년은 입시부담으로 인한 경쟁적인 학교분위기가 학업부적응의 가장 큰 이유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학업성취수준이 매우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다(한만길 외, 1999; 한만길 외, 2000; 김미숙, 2005; 정병호 외, 2006a;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이에 따라 학교 적응과 관련한 연구 중에서도 학업부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의 비중이 가장 크다.

탈북청소년들은 학업성취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고, 학업지체는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심해진다. 학력 격차를 보이는 과목은 입국초기에는 국어 과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학과목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부진이 누적되어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즉 학교에서 기초학력 부진이 계속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미숙, 2005 :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김미숙(2005)은 탈북청소년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즉, 성별, 제3국 체류기간, 북한에서의 성적, 보호자의 직업 지위, 내재적 학습동기, 신분상승 동기, 협력적 학습상황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학습동기유발을 위한 교육적 지원, 협력학습 환경 조성, 방과후 보충수업 및 상담교사 배치, 지역사회 학습자원 활용, 편입학

기준 조정 등 탈북청소년의 특수성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안하였다.

또한 정병호 외(2006a)는 탈북청소년의 성과와 관련된 개인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학교 부적응과 학력격차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해 공교육 교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교사들이 탈북청소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어떤 교육이 이루어졌고 준비되어가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교사를 비롯한 학교 차원에서 어떤 지원들이 필요한지를 제시하였다. 최경자(2008)는 탈북청소년의 학습적응력신장을 위해 탈북청소년의 학습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특성에 알맞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모색 외에도 과학 과목(박명숙, 2006), 사회과목(박하나, 2007)등 교과목 별로 교육 실태와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계속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진단도구를 개발하였다(한만길·이향규·김윤영·채정민·김윤나·김일혁·유제민·이슬기·김지혜, 2010a). 이향규·김윤영·조난심(2010)의 입국 직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 하나원의 중등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연구는 어떤 교과를 어떤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이 학교 편입 후에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둔 것으로써 하나원과 학교교육의 연계과정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2년에는 하나원 하나둘 학교의 영어, 수학, 과학, 도덕 교재를 발간하였으며, 2013년에 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과의 탈북학생 지도용 교육과정표준안 개발보고서도 발간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자료집 발간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2003년부터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 타당성 연구를 통하여 디딤돌 기능을 하는 특성화학교의 필요성과 모형이 제시되었다. 2004년에는 교육부의 전환기 학교 또는 디딤돌 학교로서 역할을 하는 학교 설립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교육지원체제에 대한 정책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2003년과 2004년에 이루어진 특성화학교 설립계획은 2006년에 한겨레 중·고등학교 설립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디딤돌, 전환기로서의 성격은 퇴색되고 탈북청소년들이 일반학교 학생들과 분리된 상태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며 졸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도시형 특성화학교 설립문제가 제기되어 2008년에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오명도·박순용·양희창·박형동·조명

숙·채혜성·김신동, 2008).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청소년 중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렵고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연주(2009), 조명숙(2013) 등은 특성화학교의 사례를 실태, 성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만이 다니고 있는 특성화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회적응 즉 진로를 포함하여 사회통합 차원에서 일반학교를 졸업한 경우와 비교할 때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학교의 대안으로서 모색된 탈북청소년을 위한 특성화학교와 관련된 연구 외에도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들이 나왔다. 김연희(2009)는 탈북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의 영향요인을 환경적 요인 즉, 부모양육의 질, 또래관계, 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중도탈락에 유의한 요인이 아닌 반면, 자이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는 개인내적 특성이 가장 큰 영향요인이라고 밝히고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적 개입전략과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태주·김도혜·윤상석(2010)은 일반학교와 특성화학교에도 속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상 심층면접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이 중도탈락을 하게 되는 이유와 학교 밖에서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중도탈락하게 된 이유는 북한과의 교육 차이로 인한 학습지체, 가치관이나 문화 차이, 정서적 고립감, 교육과정 미비, 전담하는 전문교사 및 제도 부족, 경제적 어려움 등이라고 밝혔다. 연구 성과로 탈북청소년은 ‘학업을 자포 자기한 채 살아가는 위기청소년이자 사회 부적응 청소년’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형태의 ‘배움’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진로를 고민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에 대해 유형별 접근보다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례별 맞춤형 지원방안이 보다 효과적이며 예방을 위한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는 부적응과 더불어 보다 관심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들이 학교 적응에서 나아가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편입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3) 사회문화 적응 관련연구

탈북청소년이 학교를 비롯한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 적응이나 학교 적응만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가족, 후원자, 또래관계 등 사회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기영, 2001 : 김미숙, 2005 : 박윤숙,

2006 : 백혜정 · 길은배 · 윤인진 · 이영란, 2006 : 한만길 · 윤종혁 · 이향규 · 김일혁 · 이관형, 2009). 특히, 가족의 지지는 학교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한다(김형태, 2004 : 한만길 · 윤종혁 · 이향규 · 김일혁 · 이관형, 2009). 부모의 지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줄어들지만, 역기능일 경우에는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즉, 가족관계의 부정적 경험 즉, 가부장적 권위, 남존여비사상, 부모 갈등 등이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이기영, 2001 : 김형태, 2004).

남한사회 적응에 가족의 지지가 주요 변인이 되기도 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더불어 교우관계이다. 북한 출신이라는 것과 말씨 등이 달라 차별이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교우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이수연, 2008). 이처럼 또래문화로의 유입이 어려운 이유는 문화의 차이, 컴퓨터나 게임용어, 방송용어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금명자 · 권해수 · 이희우, 2004). 소외감, 열등감,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은 폭력 등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길은배 · 문성호, 2003). 박윤숙(2006)도 사회적 지지 특성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사회적 지지망 구축,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법적 후견인 제도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탈북청소년들은 교우관계에서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두려워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 정체성 노출을 꺼리는 경향은 남한 거주기간이 길수록 더 높게,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영향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한만길 · 윤종혁 · 이향규 · 김일혁 · 이관형, 2009). 최근에 이루어진 김신희(2012)의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 28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9%(106명)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밀도 있는 분석이 추후연구로 필요하겠지만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이라는 의미가 즉 동화를 통한 통합이 적절한 것인지, 탈북청소년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체성이나 문화 등을 인정받으며 통합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진지한 성찰과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한 단계이다.

#### (4) 적응에서 통합으로의 연구

길은배 · 문성호(2003)는 탈북청소년의 학업적응, 문화적응, 사회적응 등의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탈북청소년은 탈북주민이 경험하는 적응상의 과제뿐만

아니라 한국학교에서의 적응, 가족해체에 따른 보호문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형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심원(2006)은 탈북청소년이 정체성 형성이라는 청소년기 과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체성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은 사회정체성 교섭의 일환으로 ‘한민족-정체성’을 통해 북한사람, 남한사람이라는 구별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였다고 한다. 탈북청소년들은 실패경험을 거치면서 같은 민족을 차별대우하는 남한사람들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이러한 감정들이 한국보다는 중국을 적합한 최종 정착지로 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시기의 발달과업 중에 중요한 부분이 정체성 형성이라고 할 때 탈북청소년 스스로가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사회통합방식을 접근해갈 때 과연 한국사회, 남한청소년들은 이러한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 이러한 방식이 적절한 지 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적응, 탈북청소년들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가고 있으며 남한청소년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선입관 또는 편견을 극복하고 통합을 향한 구체적인 시도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정우(2006)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함으로써 탈북청소년 사회의식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사회의식은 북한 특성보다는 남한의 청소년과 유사하며, 부와 가난의 이유를 오히려 남한 청소년보다 개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다. 평등에 대해서도 남한청소년보다 남한이 평등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청소년이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기존의 선입견은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박정서(2011)의 연구에서도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정치적 태도를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탈북청소년은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이 모두 높은 ‘충성’적 정치성향을, 남한청소년은 정치효능감과 신뢰감이 모두 낮은 ‘소외’의 정치성향을 나타냈다. 이 결과에서도 탈북청소년이 남한청소년과 비교할 때 정치효능감이나 신뢰도가 낮지 않고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탈북청소년의 정치적 태도가 남한 거주기간이

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서 경험했던 정치사회화보다 남한에서 경험하는 재사회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전체적으로 탈북청소년의 정치경제적 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탈북청소년의 의식은 북한사회로의 영향을 받아 강한 사회주의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제3국이나 한국에 거주하면서 겪은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김신희(2012)는 탈북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정치사회화 경험은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 가장 긍정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탈북청소년이 건전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치통합을 통한 내적 통합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탈북청소년과의 통합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재사회화 가능성을 확인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정향진(2005)은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 규범의 차이를 통해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친 탈북청소년의 감정을 남한사회 감정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즉 감정이라는 개인적 표현을 탈북청소년의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인정하는 속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향진(2005)의 연구는 한국사회로의 동화가 아니라 다문화에 대한 접근, 남북한의 통합, 탈북청소년과의 통합을 한국사회가 어떻게 이루어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통합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교 안에서 탈북청소년들에게 작용되는 배제기제와 통합기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탈북청소년을 배제시키는 기제로는 입시위주 교육풍토와 학력결손을 메울 수 있는 체계적 학습지원 시스템의 부재, 연령중심 문화와 학력 위주의 편입정책 사이의 괴리, 문화자본의 부족, 경제적 취약성, 정보부족, 북과 관련된 편견과 차별 등이다. 통합기제 즉 학교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는 교사 지원, 또래들 사이의 지지집단, 그리고 부모와 가족 요인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2008).

이러한 연구들에서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결국,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상호이해를 비롯하여 통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응을 위한 연구 즉, 탈북청소년의 실태, 이해, 적응, 재사회화 가능성 등에 관한 연구들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복이 많은 실정이다. 통합과 관련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인식 비교,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지만, 통합을 위한 방향, 통합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 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 등이 보다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연구방법중심 탈북청소년 관련연구

탈북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방법은 초기에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해 적응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였다. 점차로 개별적인 사례에 의미를 두고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려는 질적 연구가 늘어났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사례(김윤나, 2008a), 대안학교 적응과정(권효숙, 2006; 조명숙, 2013), 학교 밖 청소년(이태주·김도혜·윤상석, 2010), 탈북청소년의 이산경험(김유정, 2012)에 대한 연구들은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과 특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야 할 필요에 의해 연구된 것들이다.

특히, 이태주·김도혜·윤상석(2010)은 심층면접을 통해 중도탈락한 탈북청소년이 북한을 탈출하여 입국하는 적응초기, 학교에서 ‘밀려나거나’, 학교 밖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의 실태, 앞으로의 삶의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교 밖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은 학교 밖의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 어떻게 편입해 들어가는가의 단면을 조명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 측면에서 보다 진전된 것은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종단연구를 시행했다는 것이다. 종단연구는 탈북청소년에 대해 조사하는 시점에 한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적응하고 변화해 가는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2010년부터 6개년에 걸쳐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현재 3차 연구까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1차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 및 조사도구를 개발하고(한만길 외, 2010a), 2차 연구에서는 양적·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이향규·이강주·김윤영·한만길·김성식, 2011). 3차 연구에서는 2차에서 참여했던 학생 257명 중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를 진행하였다(이강주·한만길·이향규·김윤영·윤보영·김은옥·안병훈·장지영, 2012). 탈북청소년 교육종단연구모형은 투입-과정-결과 모형을 따랐는데, 투입변인은 입국 전 경험이며,

과정변인은 가정 및 학교 환경이고, 결과 변인은 학습적응, 관계적응, 심리적응, 사회적응이다. 적응, 부적응이라는 개념 틀로 출발하여 부적응 청소년을 학교에 적응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개념 틀로는 탈북청소년이 경험하는 변화과정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발견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성과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을 가르는 기준에 대해 충분한 모색을 하지 못한 채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성찰을 하면서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조성과 자율성의 획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의 기준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보다 폭넓게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탈북청소년이 동화에 따른 적응인지, 통합에 따른 적응인지, 동화에 따른 적응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지, 통합에 따른 적응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되어가며 적응해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2. 탈북청소년 개념 및 현황<sup>4)</sup>

### 1) 탈북청소년의 개념

탈북청소년의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들을 어떤 명칭으로 부를 것인가의 문제와 이 집단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이강주 외, 2012: 18). 한만길 외(2009) 연구에서는 전체 주민을 통칭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으로 표기하고, 학생이나 청소년 집단을 지칭할 때는 탈북청소년으로 표기하는 통일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명칭 사용 원칙을 따르고 있다(한만길 외, 2010a: 27-29).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통일부, 2013c).

4) 이 절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이 규정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북한청소년이지만 최근 입국하는 청소년 가운데는 중국 출생자가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주로 어머니)이 북한사람으로 중국에서 장기체류하는 과정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통일부의 “보호대상자”에는 속하지 않지만, 이들은 탈북주민의 자녀로서 교육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한만길 외, 2010a: 28).

한만길 외(2010a)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을 양친, 혹은 부모 중 한명이 북한출신으로 북한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한만길 외(2010a)의 연구에서와 같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양친, 혹은 부모 중 한명이 북한출신으로 북한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 2) 탈북청소년 현황

6세에서 20세까지의 탈북청소년은 2012년 4월 기준 3,069명으로 입국 인원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1년에는 501명이 입국하여 다시 증가하였다.

**표 II-1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12.4기준)**

(단위: 명)

대상 \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전체 (입국자수)	71	148	312	586	1,141	1,282	1,898	1,382	2,026	2,551	2,801	2,914	2,401	2,706	22,219
6~20세 (입국자수)	12	22	60	124	211	220	331	224	336	366	378	464	321	501	3,069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하나원 퇴소 당시 만20세 미만의 직계존속 없이 남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 청소년은 무연고 탈북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기준 572명이다.

표 II-2 무연고 탈북청소년 수('12.4기준)

(단위: 명)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남	5	5	22	30	18	25	9	11	16	9	11	19	27	2	209
여	0	2	7	22	19	31	24	15	41	53	50	50	37	15	366
계	5	7	29	52	37	56	33	26	57	56	64	69	64	17	57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 하나원 퇴소 당시 만20세 미만의 직계존속 없이 남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 청소년은 무연고 청소년으로 분류

\* 2012.5.31일 현재 20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145명임

탈북청소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월 기준 2,202명으로 정규학교 재학인원은 초등학교 1,204명, 중학교 351명, 고등학교 437명이며,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탈북청소년 수는 210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같은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자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높다.

표 II-3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학교유형별 재학현황('12.4기준)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현황	602	602	162	189	212	225	210	2,202
	1,204		351		437			
	1,99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12년 4월 기준).

탈북청소년들의 정규학교 재학현황을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2012년 4월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북한출생 재학생이 580명, 중국 등 제3국 출생 재학생이 624명으로 중국 등 제3국 출생 재학생 비율이 높은 반면, 중학교는 북한출생 재학생이 268명, 중국 등 제3국 출생 재학생이 83명으로 북한출생 재학생 비율이 높으며, 고등학교 역시 북한출생 재학생이 436명, 중국 등 제3국 출생 재학생은 1명으로 북한출생 재학생 비율이 높다.

**표 II-4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출신지별 재학현황('12.4기준)**

(단위: 명)

구분	재학생수			합계
	초	중	고	
북한출생	580	268	436	1,284
중국 등 제3국 출생	624	83	1	708
계	1,204	351	437	1,99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탈북청소년들의 재학현황을 2012년 4월 기준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이 서울(30.5%)과 경기(28.6%), 인천(10.1%)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전북(1.3%)과 전남(1.4%), 제주(0.7%)지역은 2%미만의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지역별 재학현황('12.4기준)**

(단위: 명)

구분	학교수 (개교)	재학생수				시도별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183	332	107	169	608	30.5
부산	37	43	9	18	70	3.5
대구	26	48	5	7	60	3.0
인천	39	146	35	21	202	10.1
광주	32	36	11	5	52	2.6
대전	17	15	3	7	25	1.3
울산	17	12	6	2	20	1.0
경기	146	296	110	163	569	28.6
강원	25	34	9	9	52	2.6
충북	31	39	10	0	49	2.5
충남	34	57	13	10	80	4.0
전북	22	11	8	7	26	1.3
전남	19	21	4	3	28	1.4
경북	32	45	7	5	57	2.9
경남	37	61	12	8	81	4.1
제주	7	8	2	3	13	0.7
계	704	1,204	351	437	1,992	10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탈북청소년들의 재학현황을 2012년 4월 기준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의 경우는 2009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2년 다시 증가하고 있다.

표 II-6 탈북청소년 재학현황: 연도별 재학현황('12.4기준)

(단위: 명)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07.4	341	232	114	687
2008.4	495	288	183	966
2009.4	562	305	276	1,143
2010.4	773	297	347	1,417
2011.4	1,020	288	373	1,681
2012.4	1,204	351	437	1,99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표 II-7 탈북청소년 학업중단현황: 연도별('12.4기준)

(단위: 명, %)

구분		초	중	고	계
'08년	07. 4.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학업중단 학생 수	12	30	32	74
	학업중단률(%)	3.5	12.9	28.1	10.8
'09년	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학업중단 학생 수	7	26	26	59
	학업중단률(%)	1.4	9.0	14.2	6.1
'10년	09. 4.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학업중단 학생 수	5	26	25	56
	학업중단률(%)	0.9	8.5	9.1	4.9
'11년	10. 4. 재학생 수	773	297	347	1,417
	학업중단 학생 수	19	13	35	67
	학업중단률(%)	2.5	4.4	10.1	4.7
'12년	11. 4. 재학생 수	1,020	288	373	1,681
	학업중단 학생 수	27	11	18	56
	학업중단률(%)	2.6	3.8	4.8	3.3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 학업중단율 = (연도별 학업중단 학생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 변화 추이('08년 10.8% → '09년 6.1% → '10년 4.9% → '11년 4.7% → '12년 3.3%)

탈북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을 2012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08년 10.8%, '09년 6.1%, '10년 4.9%, '11년 4.7%, '12년 3.3%로 나타나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업중단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를 2012년 4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까지는 학교부적응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2011년에는 가정사정과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2012년에는 이민 등 출국, 진로변경 등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이유가 연도별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8 탈북청소년 학업중단현황: 사유별('12.4기준)

(단위: 명, %)

구 분	2008년 (07.3~08.2)	2009년 (08.3~09.2)	2010년 (09.3~10.2)	2011년 (10.3~11.2)	2012년 (11.3~12.2)	2012년 비율(%)
학교부적응 (기초학력부족, 고연령 등)	21	20	24	8	5	9
장기결석 등				9	13	23
가정사정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10	9	9	16		
진로변경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14	14	6	6	12	21
건강	3	2	3	6		
취업				1		
이민 등 출국	-	-	-	12	24	43
행방불명	-	-	-	4	2	4
기타	26	14	14	1		
미가입				4		
계	74	59	42	67	56	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2012).

### 3. 탈북청소년 대상 지원정책

탈북주민의 입국은 1998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탈북 여건의 악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소하였다(통일부, 2013a: 168). 2012년에는 총 1,509명이 입국하였으며, 2012년 12월 말까지 총 2만 4,614명의 탈북주민이 국내에 입국하였다. 정부는 탈북주민이 분단으로 인해 고통 받는 분단이주민 중 하나로 보고 이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대한민국의 보호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이들을 전원 받아들이는 원칙을 견지해 오고 있다. 또한 국내 입국 후에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통일부, 2013a: 168).

일반적으로 탈북주민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제공하는 정착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9 정착지원제도 주요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사회적응교육	기본교육	하나원 12주 392시간 교육 * 연령대·성별 7개반 운영(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성인남성, 성인여성, 경로) *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우리사회 이해 증진, 진로지도 및 기초직업능력훈련, 초기 정착지원 등 4개 분야
	지역적응교육	전국 하나센터 4주 80시간 교육 및 사후지원 * 지역사회 이해, 진학지도, 건강증진, 취업, 경제교육 등
정착금	기본금	1인 세대 기준 700만원 지급 * 초기지급 400만원, 분기별 100만원씩 3회
	지방거주 장려금	지방 2년 거주시 130만원(지방 광역시), 260만원(기타)
	취약계층 보호 가산금	노령, 장애, 장기치료, 한부모아동 등 최대 1,540만원 * 1인 1개 사유만 인정
주거	주택알선	영구·국민 임대주택 알선(2년간 임대차계약 해지불가, 소유권·전세권·임차권 변경 불가)
	주거지원금	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보증금의 잔액은 거주지 보호기간 종료후 지급)
취업	직업훈련	훈련비 전액 지원 및 훈련기간 중 훈련수당 월 20만원 지급
	직업훈련·	·직업훈련 500시간 이수시 120만원, 120시간 당

구분	항목	내용
	자격취득·취업 장려금	20만원 추가, 최대 740시간 이수시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시 200만원 추가) ·자격취득시 200만원 ·3년간 근속시 수도권 2,210만원, 지방 2,510만원
	고용지원금 (채용기업주에 지급)	급여의 1/2을 50~70만원 한도에서 최대 3년간 지원
	기타	사회적기업설립, 영농정착, 소자본 창업 지원, 공무원 특별임용 등
사회 보장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1인 세대 기준 월 45만 수준
	의료보호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서 본인 부담없이 의료 혜택
	연금특례	입국 당시 50세 이상~60세 미만시 국민연금 가입 특례
교육	특례 편입학	대학진학 희망시 특례입학
	학비 지원	중·고교 및 국공립대 등록금 면제, 사립대 50% 보조
상담	-	하나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을 통한 사후 지원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p.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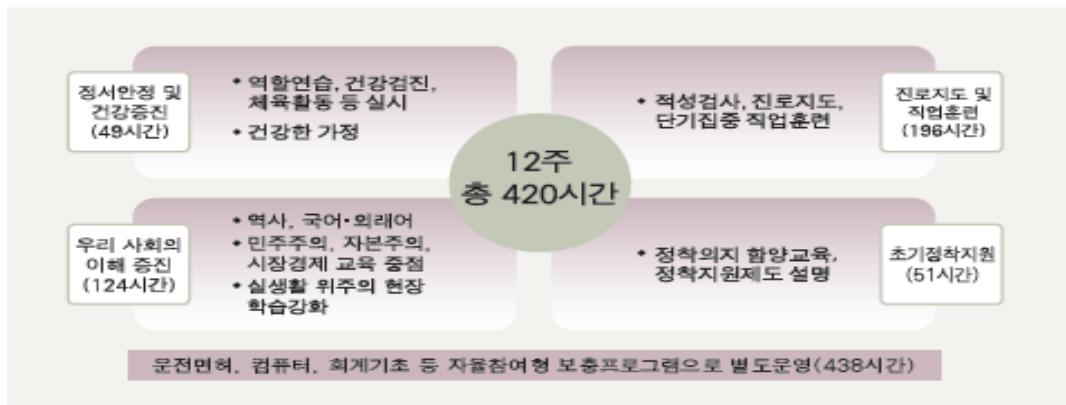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탈북주민 대상의 정착지원 제도는 크게 입국 초기 하나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적응교육과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사회 속에서 이들의 원활한 사회정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초기 정착지원, 거주지에서의 보호 지원,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지원, 생활안정 지원 등이 있다. 이러한 정착지원 제도는 대부분 탈북주민, 즉 성인집단 대상의 지원제도로 탈북청소년 중심의 지원제도는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 무연고청소년 대상의 주거지원, 그리고 학령기에 있는 탈북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특례 편입학 및 학비지원과 상담 등의 서비스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부가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착제도 중 탈북청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들만 선별하여 살펴본다.

### 1) 사회적응 기본교육(하나원 교육)

국내에 입국한 탈북주민은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사회적응교육은 정서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함께 사회·경제적 자립 동기부여를 교육목표로 ①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② 우리 사회 이해 증진, ③ 진로지도·직업훈련, ④ 초기 정착지원제도 안내

과정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규프로그램 외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자율참여형 보충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선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통일부, 2013b: 169). 현행 교육기간 내에서 탈북주민의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을 11차에 걸쳐 개편해 오고 있다. 이번 개편에서는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자유·민주적 법질서 의식 함양, ② 사회적응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실용적 내용 보강, ③ 자율·자립·자활에 필요한 정착의지의 함양에 역점을 두었다. 국가 정체성 및 역사관 확립을 위한 역사교육을 확대·개편하였으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남북한 언어 차이 및 외래어 교육’, ‘실생활 경제교육 및 법률상담’, ‘남한 직장문화 교육’ 등을 확대하고 정착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자립자활 노력이 중요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 소재의 ‘정착사례’ 과목을 확대하였다(통일부, 2013b: 169).

###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프로그램



\* 자료: 통일부(2013b), 2013 통일백서, p. 169.

【그림 II-1】 하나원 사회적응교육 정규프로그램 현황

사회적응 기본교육 중 탈북주민과 다르게 특별히 탈북청소년에게만 제공되는 지원정책은 하나원 내 예비학교인 ‘하나둘학교’에서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의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 더불어 하나둘학교 외에 초등학생의 경우 탈북청소년 위탁교육기관인 ‘삼죽초등학교’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지속하며 정규학교 편·입학 준비과정을 갖는다.

먼저, 하나원내 ‘하나들학교’에서는 탈북주민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 및 학력을 고려한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들학교’는 영아반 1개, 유치반 1개, 초등반 2개(저학년·고학년반), 청소년 반 3개 등으로 분반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10 하나원의 연도별 아동·청소년 교육생 인원 현황**

(단위 :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영아반	8	18	17	28	22	32	36	86	62	46	355
유치반	18	24	14	19	36	23	36	37	43	40	290
초등반	74	139	74	97	88	80	113	82	144	124	1,015
청소년반	97	160	111	169	232	267	220	193	198	113	1,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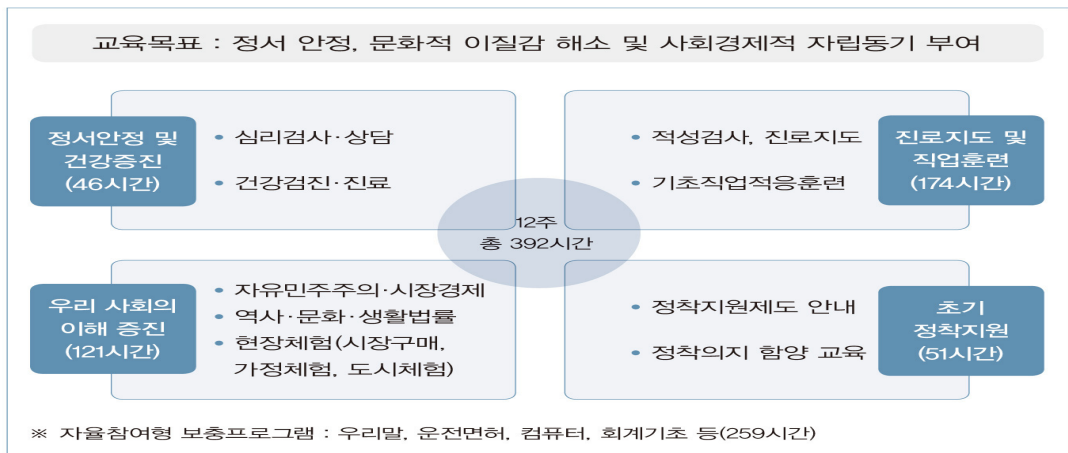
\* 자료: 통일부(2013b), 2013 통일백서, p. 174.

영아반에서는 임신부 및 영아 관리를 위해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영아 보모 및 보육전문가를 채용하여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반 아동들은 하나원 인근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일반 유치원생들과 함께 중일반에서 한글 및 수셈 등의 기초 교육과 유치원 아동에게 맞는 여러 가지 특성화 교육을 받고 있다(통일부, 2013b: 173). 그리고, 병설유치원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하나들학교’에서 동화읽기, 쌓기놀이, 역할놀이 등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놀이와 한글 및 수셈에 대한 보충학습 등의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통일부, 2013b: 173).

한편, 초등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남한 학생들과 함께 교과적용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하교 이후에는 ‘하나들학교’에서 기본 교과목 보충수업과 예체능 수업 등의 방과 후 교육을 받는다. 격주 토요일에는 자원봉사 단체의 협조로 예체능 활동과 축구교실 등의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통일부, 2013b: 173).

청소년 교육을 위해 ‘하나들학교’는 청소년반 전일제 교육을 실시하며 하나원 수료 후 자신의 거주지 정규학교에 용이하게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2년 12월 기준 교육부 파견 교사 6명과 한국교육개발원 파견 심리상담강사 1명, 그리고 자체 강사 1명 등 총 8명의 교사·강사가 청소년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통일부, 2013b: 173). 청소년반 정규 프로그램은 12주 총 399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기초학력증진 및 학력결손 보충’ 212시간(53.1%), ‘우리 사회 및 학교의 이해’ 74시간(18.6%),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70시간

(17.5%), ‘진학·진로 탐색 및 설계’ 43시간(10.8%)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 1일 2시간씩 정보화교육, 음악활동 등의 방과 후 프로그램과 매주 토요일에는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통일부, 2013a: 173-174; 통일부, 2013b: 13).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원에서는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259시간)’을 운영하여 우리사회 적응에 필요한 정규교과 외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매일 일과 전후과정으로 우리말 교실, 영어회화, 컴퓨터 교육, 운전이론, 스트레스 관리 등이 있다, 주말 과정으로는 요양보호사, 정착사례 특강, 체육·문화활동 등이 있다.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15.

【그림 II-2】 하나원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 현황

‘자율 참여형 보충과정’ 중 탈북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은 주로 정서안정 및 건강증진 영역(46시간)의 심리검사상담, 건강검진·진료과정이다. 또한, 진로지도 및 직업훈련 영역(174시간)의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 기초직업적응훈련에도 일부 탈북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나, 이 과정은 비교적 연령이 높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 2) 주거지원

주거지원 정책은 주로 탈북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동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 없이 단독으로 입국한 ‘무연고청소년’은 별도의 주거지원 정책을 지원받고 있다.

먼저, 탈북주민은 우리나라 편입시 임대주택 알선, 주거지원금 지원(1인 세대 기준 1,300만원), 사회편입 후 공공주택 신청시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대상 등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0조). 임대주택 알선의 경우, 하나원은 교육 중인 탈북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SH공사 등)에 임대주택 알선을 요청하여 탈북주민 사회배출 전까지 주택배정을 완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무연고청소년’은 만20세 도달 후 본인 희망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주택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주택을 신청한 ‘무연고청소년’의 생활 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정의 심사를 통하여 주택배정 보류로 분류된 신청자는 보류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 주택 신청이 가능하다. ‘무연고청소년’은 만24세에 이르러 재 주택신청이 가능하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3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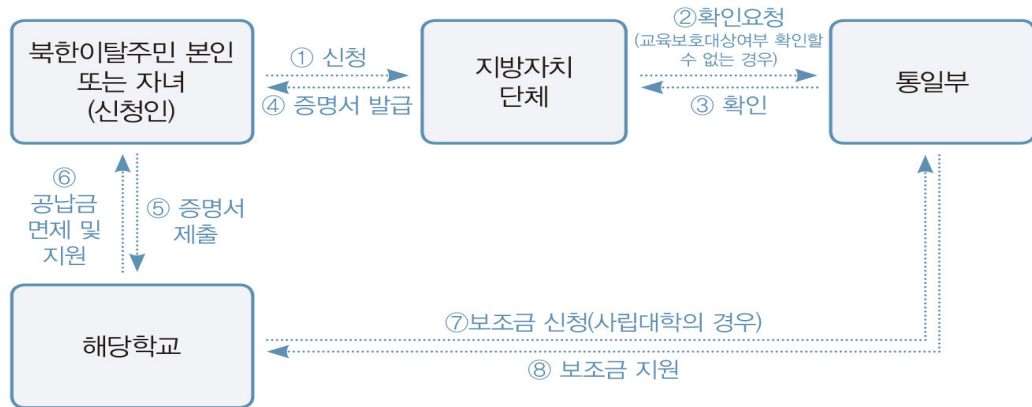
### 3) 교육지원

탈북청소년 중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 받는다. 또한 입학금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받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일반대학(4년제) 및 교육대학은 만 35세 미만의 탈북주민 중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조건을 부여하여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우선 지원기간은 대학 등에 최초(처음)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를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한다. 단,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며,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을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지원 내용은 국공립대의 경우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전액을 면제 받으며,

사립대는 해당 학교가 보조금교부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를 통일부에 제출할 경우 정부에서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하여 지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한편,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제한을 명시하여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면제보조를 제한한다.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되며,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동 법시행령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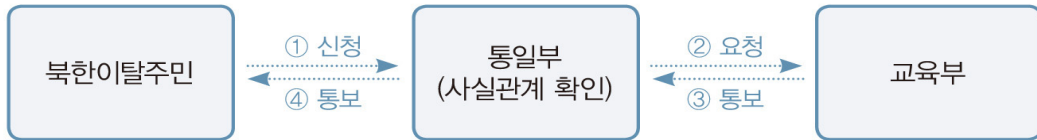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43.

【그림 II-3】 교육지원 절차

#### 4) 학력인정 및 편입학

탈북청소년 및 주민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받는 제도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은 사도 교육감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의 학력 확인을 거쳐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고 있다.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탈북청소년 및 주민이 직접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2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2조, 제89조의2, 제96조~제98조의3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7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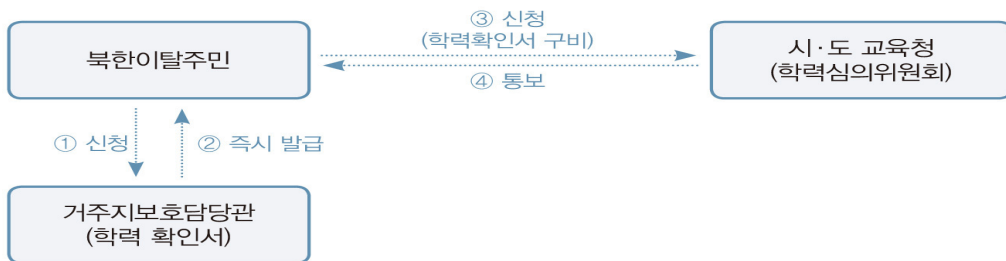


- ※ 성인 학력인정은 주로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대학 입학, 취업 등에도 활용.
- ※ 학력인정 절차는 일정기간(1~3개월) 이상 소요.
-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45.

【그림 II-4】 대학교 이상 학력인정 절차

한편, 탈북청소년이 각급 학교에 편입학시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은 결과에 따라 편입학이 이루어진다. 과거에는 통상 국내의 6:3:3 학제에 의거 기계적으로 학년 배정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각 교육청별 심사기준(재북학력만 고려, 학력·연령 동시 고려, 학력·연령·소양평가까지 실시 등)을 달리하여 지역상황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 ※ 학력인정 절차는 일정기간(1~3개월) 이상 소요.
-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46.

【그림 II-5】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인정

### 5) 정착도우미 제도

탈북청소년 및 주민이 하나원에서 거주지에 도착할 때 까지 그 신변을 보호하고 거주지에서의 생활 안내를 하는 등 보호대상자를 돕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중심의 정착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1조의 2).

정착도우미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전국 28개 ‘하나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하며, 2013. 1월 기준 전국 28개 하나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총 7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초기 거주지 생활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하는 주거밀착형 정착지원체계로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하나원 신병인수, 가정방문(월 2회), 전화상담, 경조사 지원, 지역안내, 명절 함께 보내기 등 초기 정착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실비 차원에서 1회당 2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1조의 2).

표 II-11 정착도우미 업무 흐름도

하나원 수료일	·신병인수 ·하나센터 오리엔테이션
1~2일	·주민자치센터 업무 : 전입신고, 인감등록, 주민등록등본 발급, 임시신분증 발급 후 국민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 : 입주신고, 관리비 납부 ·아파트 입주 지원
2주 내	·집중 가정방문 : 불편사항 점검 및 지원 ·주거환경 구성 : 가스/인터넷/전화 등 설치, 필요 물품구입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및 지역사회 복지관 서비스 이용등록 안내 ·지역사회 편의시설 이용 안내(은행, 병원 등) ·대중교통 이용안내
2월 내	·이웃과 인사 및 공통주택 이용 예절 안내 ·자녀교육 및 진학안내 ·취업 및 직업훈련 안내 ·미래 삶의 계획 수립 독려
지속적인 지원업무	·가족/심리/법률/건강 상의 문제 의뢰 ·정착 모니터링 : 취업 및 직업훈련, 취학 및 진학, 특이사항 등 ·행사 및 경조사 참여 및 지원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정착지원 봉사활동 월보 작성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76.

## 6) 전문상담사 제도

거주지에 전입한 탈북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문상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2조의 2). 동 제도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 후 교육을 실시하여 양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양성된 전문상담사는 하나센터에 배치하거나, 탈북청소년 및 주민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상담사는 2010년도 1월부터 배치하여 2013년 기준 101명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활동 중이다.

**표 II-12 전문상담사 운영 실태**

(단위 : 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4	12	4	3	8	4	3	1	21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3	2	6	3	3	5	4	1	97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p. 78.

## 7) 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제도

전담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탈북학생이 밀집하여 재학 중인 학교 및 지역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인력을 파견하여 탈북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실시한 정책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46).

탈북학생이 20명 이상 재학하거나 거주중인 지역에 전담 인력을 파견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 멘토링 등의 학교내 지원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간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46).

표 II-13 전담코디네이터의 파견 현황

		기관명	지역/연계학교	전담코디네이터	주요사업내용
밀집학교	1차년도	용동초(47명)	서울 노원구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별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li> <li>-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li> <li>-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li> <li>- 학교생활안내서제작</li> <li>- 하나원 재원 초등학생 기초학력부진아 지도 수업 보조(삼죽초)</li> </ul>
		가양초(31명)	서울 강서구	사회복지사	
		경서중(15명)	서울 강서구	사회복지사	
		논현중(22명)	인천 남동구	사회복지사	
거점기관	2차년도	삼죽초(위탁교육)	경기 안성	탈북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전입자 교육 및 편입지원</li> <li>- 지역 내 기초부진학생 지도</li> <li>- 성인 비문해자 한글 지도</li> <li>- 학교-복지관연계 학부모 교육</li> </ul>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서울 노원구 - 신계초 - 연지초 - 청계초 - 태랑초 - 중원중	탈북교사	
		한빛종합사회복지관	서울 양천구 - 장수초 - 지향초 - 은정초	탈북교사	
밀집학교	3차년도	한겨레중·고등학교(특성화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	탈북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수학)</li> <li>- 상담 및 사례관리</li> </ul>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11). 탈북학생 밀집학교·밀집지역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 사업결과보고, p.4.

## 8) 기타

### (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부는 탈북청소년 및 주민의 초기정착 및 생활안정, 자립·자활, 교육·연구, 상호이해 확산 및 통합 등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10.9.27 발효)).



\* 자료: 통일부(2013a).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 실무편람. p. 71.

【그림 II-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역할과 위상

탈북청소년 대상의 주요 지원은 교육·장학사업과 청소년 미래리더 육성 사업으로 구분된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ttp://www.dongposarang.com/>).

- ① 청소년 교육·장학 사업: 장학사업 실시(중고교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탈북 청소년 인터넷 영어화상교육 지원, 탈북아동초등학생 학습지 지원(가정방문 지도, 연중), 대안학교 지원(운영경비, 프로그램 및 임차비), 방과후 공부방 지원
- ② 청소년 미래리더 육성: 제3회 남북 대학생 프리젠테이션 대회, 대학생 활동프로그램 지원 및 리더십 교육, 탈북학생 예비대학 운영, 탈북청소년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학습지도와 진로탐색을 위한 진로진학상담 및 교육,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시범 운영

## (2)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하나원을 수료하고 거주지로 전입하는 탈북청소년 및 주민을 대상으로 3주간의 초기집중교육과 1년간의 밀착형 사후관리서비스를 통해 이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09년에 서울, 경기 2개 지역, 대전, 대구, 광주 등 총 6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이후, 2010년부터 전국 30곳으로 확대(통일부, 2013b: 186)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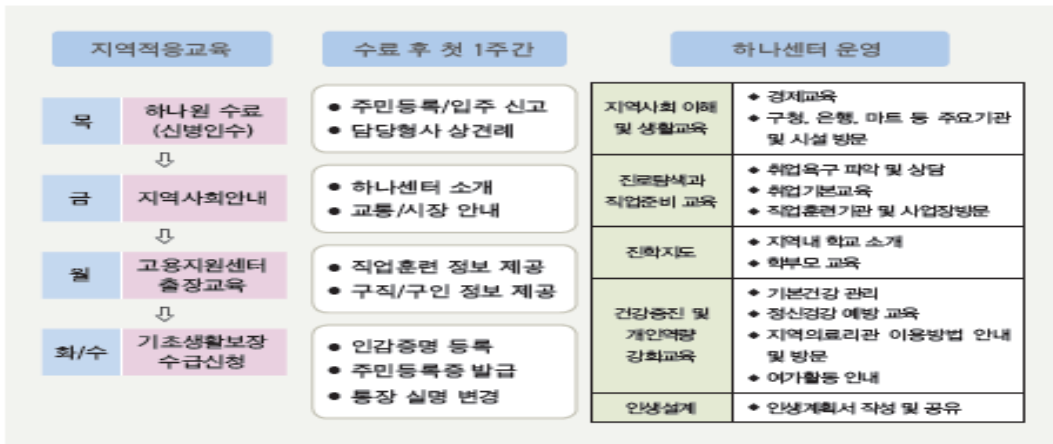
표 II-14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지역 현황: 2012년도

(단위: 개)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6	2	2	2	2	2	2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	1	1	1

\* 자료: 통일부(2013b), 2013 통일백서, p. 187.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 내용



\* 자료: 통일부(2013b), 2013 통일백서, p. 187.

【그림 II-7】 하나센터 지역적응 교육내용

(3)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2011년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의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재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첫 단계인 입국초기 지원사업은 남한사회 정착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사회 적응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원 방문교육, 비교문화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69).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은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으로 분산 거주하

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역정착사업으로는 생활 및 교육정보 안내 및 온·오프라인 상담,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멘토링, 공동체 함양을 위한 통합 캠프, 리더십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인턴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70).

## 4. 사회통합에 대한 이해

### 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관한 논의는 이주민보다 사회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 한 사회체제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이후 국가간의 경계가 점차 약화되고 다양한 이유로 국가 간의 이주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주민 대상의 사회통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개인이나 집단이 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느냐’에 대한 ‘사회적 유대’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발전하였다. 즉, 주류계층과 비주류계층 간에 서로가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것으로 이주민들이 주거, 취업, 교육,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등을 통해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오화영, 2010: 365).

이러한 점에서 사회통합은 단순히 정치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사람들의 국가 정체성, 생활방식,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사회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한국어 능력을 비롯한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소수자로서 기본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으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는 것을 말한다(노정옥, 2011: 14).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우리사회 적응 초기에 언어를 비롯한 학업, 문화, 경제활동 등 그들의 삶의 영역 전반에서 적응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적응의 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사회통합 정책의 초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주류계층의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도 사회통합의 주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원래 사회통합의 개념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배적 가치에 대한 통합(social

integration), 포용(social inclusion),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등이다. 이러한 용어는 일면 상이한 내용과 가치를 갖는 개념으로 보이나, 궁극적 의미에서는 모두가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배적 가치에 대한 통합(social integration)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대명, 2009 참조). 문제는 이러한 개념은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이주민들에게 강제하는 성격을 지닌다면 측면에서 그 한계를 가짐과 동시에 ‘동화’라고 하는 개념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지역 또는 제3의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은 어떤 형태든지 소정의 교육과 삶의 과정을 통하여 나름의 가치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그들이 입국 이후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통합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적 가치에 대한 통합 문제는 ‘동화’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과 맞닿는 문제점이 있다.

포용(social inclusion)은 빈곤과 실업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사회보장제도에 초점을 두어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도록 각종의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지배적 가치에 대한 통합과 다른 성격의 개념이다(노대명, 2009). 그러나 사회통합이라는 것은 사회적 보장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 정체성, 가치 등의 공유를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의 개념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 입국 이후 정부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착초기에 이러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지원이 탈북청소년의 자립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류계층의 의식, 가치관이 포용이 아니라 시혜적 성격에 가깝다면 진정한 의미의 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동의 비전을 갖으며, 동등한 기회 보장 속에서 서로 간에 긍정적 사회관계망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노대명, 2009). 즉, 한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함하는 가치, 관용, 존중, 다원주의 등 사회통합적 가치를 공유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개념 중 여기서 사용하는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에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주민들은 우리 사회 입국 이후에도 오랜기간 동안 한국 사회 내 북한사회라고 하는 이중적 사회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사회통합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공동체의 소속감과 공동의 비전이 아주 낮은 상태일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 역시

탈북주민 밀집지역 내의 탈북주민 간에만 교류가 진행되어 사회적응 과정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이라고 하는 과정은 반드시 공식적 영역의 노력만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 영역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그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개념은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의 개념뿐만 아니라,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내린다. 학문적으로 사회통합의 기원은 두르케임(Durkheim)에 두고 있다. 두르케임은 사회통합의 주요 요인을 ‘공유된 충성심과 연대’(shared loyalties and solidarity)에서 찾는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통합은 전근대적인 ‘기계적 연대’(mechanical solidarity)와 근대적인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로 구분하였다. 기계적 연대란 집합적 가치와 믿음의 통일성에 기초한 연대를 의미하며, 유기적 연대란 사회적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비판적 인성의 발전을 통해 가치, 신념, 상징 등을 공유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Council of Europe, 2005).

사회학자인 락우드(Lockwood)는 사회통합이란 “공동체의 수준에서 친족이나 지역의 자발적 조직과 같은 강한 일차적 네트워크의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동시에 그는 사회통합을 제도적 질서인 시민통합(civic integration)과 함께 사회 내 행위자들 간의 질서정연하거나 혹은 갈등적인 관계와 관련한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으로 구분하였다. 시민통합의 반대가 시민부패(civic corruption)이고, 사회통합의 반대는 사회해체(social dissolution)라고 하였다(Chan-To Chan, 2006). 락우드(Lockwood)의 사회통합 정의는 일차집단과 이차집단 모두를 아우르는 집단 간의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현대 사회의 작동원리가 다원성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다소 협의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통합의 전제는 다원주의를 전제한 것이면 사회통합의 상태는 일치된 가치나 공통의 생활양식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의 학문적 견해보다는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정의되기도 한다. 캐나다는 Policy Research Sub Committee on Social Cohesion에서 사회통합의 개념을 “캐나다인들의 신뢰감 및 희망과 호혜성에 기반하여 캐나다 내부에 공유된 가치와 도전과제, 그리고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였다(Council of Europe, 2005). 또한, Council of Europe(2005)은 현대사회에서 사회통합은 자율적이고도 상이한 성향의 개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꾀하게 만들고, 다원적인 여건들, 이해관계, 정체성을 이해 및 용인하게 유도하는 사회의 역량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찰에

기초할 때 사회통합에 대한 정의는 정책적 필요에 의한 정의가 더 현실성 있어 보인다. 탈북청소년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통합 논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여 균등한 성장과 발전을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의 다원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의 역사가 짧은 우리사회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이주민 등과의 사회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은 대부분 이주근로자, 결혼이민자, 그리고 탈북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문화계층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사회 속에서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의 언어문화, 가치관, 행동양식이 기존의 우리문화와 융합되지 못하고, 이들이 기존의 우리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차별과 편견을 받으며, 경제적, 심리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은 문제들이다.

기존의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우리사회의 주류문화와 전통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주류문화가 왜 이질적인 문화와 통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낮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사회만이 갖는 특징은 아니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를 비롯한 이민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문화사회를 형성해 가는 초창기에 주류사회에 대한 주변문화와의 통합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다. 사회통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에는 이질적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와 동화 또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주류문화가 일정 정도 혼란을 경험하거나 오랫동안 보존되어 왔던 고유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우려의 시각이 개입되면서 부터이다(강휘원, 2006). 주류계층의 문화 정체성을 가능한 한 보존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회통합 문제가 논의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탈북주민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 적응, 갈등 등의 문제를 원활하게 관리하여 그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국가 및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그러한 시각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이상적 목표는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탈북청소년들이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통합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기존의 주류사회 집단과 탈북청소년 집단이 생활하면서 문화차이에서는 발생하는 갈등은 물론, 각종의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기에 발생한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과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이질적이면서도 다양한 인종집단이 공존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김남국, 2005: 98-99).

우선 주류사회의 국민들은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충격, 노동시장

에서의 경쟁심화, 전통문화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우려를 갖게 된다. 따라서 내국인들은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의 생활양식과 가치를 존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이 주류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반해 이주민들은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능력과 자격에 의해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또한, 주류사회에 진입하려는 욕구도 갖고 있다. 동화욕구와 동시에 주류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받고 고유한 문화와 가치를 지키려는 보존 욕구를 지니고 있다.

강휘원(2006)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원칙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어떤 측면에서는 공통의 가치를 설정하여 그 가치에 주류계층과 비주류계층이 새롭게 적응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히 말하면 출생지역과 그간의 경험한 문화적, 사회적 생활양식이 다를지라도 차별과 편견이 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것이 공존의 원칙일 수 있다.

우리사회에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은 출신 지역이 다르고 사회를 바라도 보는 관점, 문화를 이해하는 정도, 학업성취도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청소년들과 다름을 갖고 있다. 이것이 차별과 편견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우리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통합의 출발은 탈북청소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의 지원방안이 포함되지만, 기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편견과 차별을 걷어내는 작업도 사회통합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통합요소와 사회응집성

사회과학영역에서의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는 초기에는 빈곤과 실업 등과 같은 사회적인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고 포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나 이후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통합을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으로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연구들이 Jenson(1998)이나 Bernard(1999) 등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적 포용 개념은 사회적 응집의 구성요소의 하나가 되었으며, 이후 경제적 안전뿐 아니라, 사회의 포용 능력, 사회적 역능성, 사회응집성 네 가지 영역이 사회의 통합정도를 평가하는 사회의 질이론(Social Quality Theory)으로 발전하게 되었다(Maesens and Walker, 2005; 이현주 외, 2012. p.153 재인용).



\* 자료: 이현주 외(2012). p. 154.

【그림 II-8】 사회의 질 사분면 개념도

사회의 질 이론에서 사회경제적 안전성(Socio-Economic Safety)과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시스템 측면에 해당되고, 사회적응집성(Social Cohesion)과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은 생활세계 측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수준 발전 관점에서는 사회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적응집성이 중요시 되고, 개인수준 발전 측면에서는 사회적 포용성과 사회적 역능성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수준 관점에서는 주로 사회적 응집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그 이유는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본디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여건과 사회정책의 측면과 수준, 그 밖에 정치적 측면까지 지표로 구성되지만 이러한 부분은 사회정책의 배경과 사회정책으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사회통합에서 지표 구성은 조건과 결과로 구분되기도 하며 이때 주관적인 인식을 중심으로 하는 결과를 여타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사회정책의 객관적 수준으로 구성되는 조건과 구분하고 통합의 측면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이현주 외, 2012: 154-155).

### 3) 사회응집성의 의미와 구성요소

사회응집성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가치 규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한 사회의 능력을 의미하며, 공동체의 형성·유지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한 사회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사회응집성은 크게 다음과 같이 네 요소로 나누어 평가된다.(이현주 외, 2012. 155-157).

첫째 요소는 신뢰(Trust)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핵심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뢰는 그 대상에 따라 한 사회 일반에 대한 신뢰와, 개인에 대한 신뢰, 기관에 대한 신뢰로 구분되며, 개인 신뢰는 평소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에 대한 신뢰인 내집단신뢰와 낯선 타자에 대한 신뢰인 외집단신뢰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요소는 사회적관계로 대상과 참여양상에 따라 구분 될 수 있다. 즉, 가족간, 친구간, 이웃간의 접촉양상과 단체를 통한 참여양상이 고려되며,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봉사에 대한 참여 및 기부행위도 포함된다.

셋째 요소는 통합적 규범과 가치(integrated norms and values)이다. 사회적 규범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용인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 요소는 정체성으로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주관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소속감과 자부심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 4) 사회통합정책과 대상

사회통합정책은 흔히 이민정책 또는 다문화정책과 혼용되어 사용된다. 이유는 다문화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짧은 한국에서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문화관용어가 소개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이 소개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민정책, 다문화정책, 그리고 사회통합정책은 정책의 대상자, 지원정책의 범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가 다르다.

먼저, 이민정책(migration policy)은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해외이주(emigration)와 외국인의 국내이주(immigration)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민정책의 핵심은 국가간 이주(migration)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먼저, 이주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연합(UN)은 국가 간의 인구이동을 장기이동과 단기이동으로 구분한다. 1년 이상 국경을 넘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을 장기이동,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이주하는 것을 단기이동이라고 명명한다. 국제연합의 기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국경을 넘어 다른 국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국제적 인구이동을 ‘이주’(migration)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민정책은 이러한 인구이동과 관련한 사안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을 자국의 관점에서 통제 또는 조정하고자 하는 국가정책의

하나이다. 즉, 이민정책은 국경관리(border control), 체류관리(residence control) 및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등으로 구분된다(구병모, 2011: 202).

기본적으로 이민정책은 자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구이동을 전제하기에 그 범위는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민정책은 자국민이 이주하려는 외국의 영토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한국의 이민정책은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정책, 국내체류 외국인의 우리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통합정책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노정옥, 2011). 이러한 이민정책의 개념에 기초할 때 탈북주민,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우리사회 적응 지원정책을 이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은 그 대상을 재외동포를 제외한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조성과 더불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 인권보호, 노동권보장, 의료보장, 교육지원, 문화교류 등의 지원정책을 핵심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다문화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사회통합정책은 그 범위 설정에 있어서 이민정책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의 국내이주자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일면 다문화정책과 이민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간적 개념에서도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구성원을 전제로 하며, 대상자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류계층과 새롭게 이주한 비주류계층간의 사회·경제·심리적 통합문제를 다룬다는 것에서 구별이 가능하다.

사회통합이 이주민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내국인과 동등하게 향유하는 것이라면 사회통합정책은 그들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인 동시에 소극적인 측면에서 차별방지를 통하여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일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원은 물론, 이주민과 국민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까지 포함한다(구병모, 2011: 202).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면 탈북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다문화정책으로, 더 큰 개념에서는 사회통합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를 통하여 보더라도 탈북주민은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족 중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문제는 탈북청소년을 다문화정책의 대상으로 이해할 경우 지원 범위를 비롯한 그 정책의 목표가 불확실해지는 한계가 나타난다. 즉, 다문화정책은 탈북청소년을 우리사회의 공동체 일원,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기는 계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향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한된다. 이에 탈북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은 다문화정책 대상보다 큰 의미의 사회통합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 5) 사회통합모형

한 사회가 이주민들을 사회통합으로 유도하는 방법과 타 문화를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사회통합 모형이 다르게 존재한다. 즉, 특정 국가가 이주민들의 정착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균등한 기회 보장을 비롯한 집단 정체성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여부에 따라 사회통합 유형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Castles & Miller(2003)은 차별·배제모형(difference exclusionary model), 동화주의모형(assimilationist model),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으로 구분한다.

표 II-15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유형

구 분	차별·배제모형	동화모형	다문화모형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정책 정향성	국가 및 사회가 원치 않는 이민자의 영주가 능성을 막고 내국인과 차별적 대우를 유지하 려 함	‘국민됨’ 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 고 제도적으로 내국인 과 평등하게 대우 하 려 함	문화다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주 류사회가 존재함을 전 제, 주류사회를 중심으 로 문화다원성 수용함	소수자의 동등한 가치 를 인정하고, 이에 대 한 보존을 지원하여 적극적 조치 등 우대 조치를 마련하려 함
정책목표	인종적 소수자의 제거 및 최소화	소수자의 주류사회동화	다양성 인정과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국가역할	적극적 규제	제한적 지원	자유방임	적극적 지원
이민자에 대한관점	이방인, 위협적 존재	완전한 동화를 전제로 인정	상호 존중과 관용	
정 착 영 주 가능성	불가능	비교적 가능	가능	
국적부여 원칙	속인주의, 엄격한 조건	속지주의, 용이한 조건	속지주의, 이중국적 허용	
사례국가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 자료: 박진경(2010), p. 266; 이로마장서영(2010), p.18 참조.

차별·배제모형이나 동화모형의 접근을 취하는 국가는 주로 문화적 단일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이

다.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순혈주의와 이로 인해 형성된 단일 문화를 중시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타 민족이나 문화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차별배제를 위한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다. 프랑스 역시 자국 중심의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국가로 비주류계층이 주류계층의 문화에 동화되는 정책적 기조를 갖고 있다. 반면, 다문화주의 모형을 수용하는 국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자체를 사회구성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집단 간 상호존중의 질서가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이로미·장서영, 2010). 이처럼 이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각 사회통합정책의 장단점을 취사선택한 결정이라기보다는 각국이 처한 현실적 또는 역사적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사회의 탈북청소년 대상 사회통합정책은 과거 ‘동화모형’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즉, ‘국민됨’을 전제로 조속한 동화를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내국인과 평등하게 대우하려 하였다. 사회적응의 기준이 우리사회의 가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보았다. 탈북청소년이 우리와 다른 북한 어투를 사용하고, 우리의 문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에 이질적 태도를 보이면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확대 해석하며 그들의 동화를 강요하였다. 최근 우리사회 속에 다문화가정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논의가 확산되면서 다문화모형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 (1) 차별·배제모형

차별·배제모형(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은 유입국 사회가 이민자를 자국민의 노동력을 얻기 어려운 직종과 같은 특정한 경제적 영역에만 한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민자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영주 가능성을 차단하는 모형이다(이로미·장서영, 2010: 181). 즉, 이민자에게 국적취득을 보장하여 자국민과 동등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함이 없이 경제적 필요로 일시적 거주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단기거주 노동자는 외국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차별·배제를 원칙으로 한다. 차별·배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임시 거주자를 격려하여 더 높은 노동생산성을 얻기 위한 것과 이들이 유입국에 영주 거주하려는 의사가 적을 것이라는 추측에 기반하기도 한다. 1960년대 독일의 초빙근로자(guest worker system)나 탄광, 간호조무사 등으로 독일에 갔던 우리나라 이주노동자에게 부여한 고용허가제(이로미·장서영, 2010: 181)가 그와 같은 사례이다.

우리사회도 1990년대 노동임금이 낮은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시켜 근로자로 활용하였던 당시의 경험이 차별·배제모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비롯한 의료제도 및 교육제도의 미비 등이 부분적으로 차별·배제 모형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노동시장과 같은 사회영역에서는 교육, 정치참여 등이 허용되었으나 유입국의 복지체계나 시민권 같은 것에는 접근이 거부되었다(Castles and Miller, 2003). 오히려 차별·배제모형의 대상이 되는 소수인종이나 소수민족이 가진 가치 또는 자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도구적 효용성 및 위협의 정도에 따라 오히려 정책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Barry, 2001; 김명성, 2009 재인용). 일시 이주자가 갖는 자격증 등의 가치가 유입국 주류계층의 노동권 등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히터(2004)에 의하면 이러한 모형은 한 국가내의 인종적 소수자는 인정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소수인종과 소수문화를 인식하여 사회적 무시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1950년대까지 그러한 정책을 일관하였다. 최근에는 수단(Sudan)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히터는 강조한다.

과거 이민 선진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동화되지 않으면 차별적인 법률을 통해 주류사회로부터 격리된 임시체류자로 간주하였으나 세계화와 초국가주의가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차별모형을 기본적인 사회통합정책으로 유지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박우순, 2008: 126; 노정옥, 2011: 24재인용). 차별·배제모형은 이주자를 유입국의 완전한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거주를 허용한 집단, 또는 소수민족에 대한 현상 유지적 정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탈북청소년 또는 탈북주민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을 제도적 수준에서만 평가하여 차별·배제모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주거지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제도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다문화모형에 근접하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우리사회 기존 구성원의 의식이 탈북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차별과 배제 의식을 견어내지 않는 한 이들에 대한 제도와 주류계층의 의식 간에는 차별·배제모형과 더불어 동화 또는 다문화모형이 혼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 동화주의모형

동화주의모형은(assimilationist model)은 이민자가 유입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할 것을 강조한다(이로미·장서영, 2010: 181). 이민자는 유입국의 언어, 주류계층이 만들어 놓은 질서, 관습, 규칙 등에 완전히 동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주류계층의 지배문화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단일 문화를 중시하는 국가가 취하는 사회통합 모형이다.

동화는 다시 구조적 모형과 문화적 모형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주류사회의 정치적 제도에 흡수되는 모형이다. 예로 선거제도를 들 수 있다. 이주민이 주류계층의 선거에 도전하여 주민들의 대표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반면에 문화적 동화는 구조적 모형보다 용이하다고 평가된다. 이 모형은 주류계층과 비주류계층 간에 갈등과 대립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사회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된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소수 인종집단들은 문화적으로는 주류사회와 동화되었을지라도 구조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불균형성을 경험하기도 한다.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1940-1950년대까지 지배하던 ‘용광로 모형’과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견지해온 ‘공화주의 모형’ 등이 대표적이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을 거쳐 제3공화정 시기에 만들어진 보편주의 원칙을 따르는 공화주의 모형은 프랑스 국민이 된 이민자들은 그 고유의 민족적·문화적 속성을 버려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프랑스어와 문화교육을 통해 동화에 주력하였다(노정옥, 2011: 25). 인종차별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지만, 합법적인 체류일 경우에만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 혜택이 제공되었다(박진경, 2009: 42). 동화주의를 채택하는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청소년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획득하는 속지주의 정책이 주어지고 귀화절차도 간소하게 주어졌다.

우리사회 역시 탈북청소년 및 주민에 대한 접근이 동화주의모형의 속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탈북청소년 대상의 교육시스템은 공교육을 통한 우리사회의 가치, 문화, 제도를 답습하게 하는 동화모형의 전형이다. 물론, 한겨레학교를 비롯한 일부 대안학교는 우리의 교육시스템과 다르게 그들의 특성을 발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탈북청소년이 공교육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동화를 경험하고 있다.

## (3) 다문화주의모형

다문화주의모형(multicultural model)은 이민자가 그들의 문화를 지키는 것을 인정하고 장려하

며 정책목표를 소수민족이 주류사회와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로미·장서영, 2010: 181)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의 차별·배제모형과 동화모형이 전 지구적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한 다문화사회의 출현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등장한 모형이다. 다문화주의모형은 다시 행위 주체를 기준으로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로 유형화한다.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6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차이**

구 분	국가주도 다문화주의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구현</li> <li>- 다양한 국익을 고려하여 외국인이주관리</li> <li>- 체류외국이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강화로 사회갈등 및 비용 최소화</li> <li>- 외국인과 국민 간 상호문화를 이해 존중하는 사회환경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 공생</li> <li>- 내국인과 이주자들이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공동체적으로 더불어 살아감</li> </ul>
행위주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 시민 단체 및 종교 단체
정책 표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적 동초, 결혼이민자</li> <li>- 외국인여성, 외국인자녀, 난민</li> <li>- 외국인 근로자,</li> <li>- 불법체류 외국인, 국민</li> </ul>	○ 합법적 외국인 및 불법체류 외국인
주 요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li> <li>○ 우수 외국인력 유치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인권보장</li> <li>○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성 증진</li> <li>○ 결혼이민자 가족의 역량강화</li> </ul>
주 요 다 문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li> <li>○ 한국문화교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교육, 다문화축제</li> <li>○ 권익증진, 인권보호</li> <li>○ 역량강화 프로그램</li> </ul>
문 제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외국인의 1/4인 불법체류 외국인배제</li> <li>- 표준화되고 획일적인 인구정책으로 소수집단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움</li> <li>- 정부기관 간 중복투자과 단기적 지원</li> <li>- 순혈주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 인력, 시설 부족으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활동 어려움</li> <li>-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NGO로서의 위상과 역할수행 어려움</li> <li>-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진보적인 주장(불법체류자의 전면적 합법화)으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움</li> </ul>

※ 자료: 윤인진(2007). p. 285.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복수의 문화집단들 간의 공존을 통하여 국가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이념 또는 정책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한국의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는 외국인에 대한 하나의 관리기제로 볼 수 있는데(윤인진, 2007: 265) 반해 시민주도 다문화주의는 국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인해 주변화 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소수집단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보호하고 사회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래로부터의 다문화주의’ 또는 ‘풀뿌리 다문화 주의’라고 할 수 있다(윤인진, 2007: 266). 이 입장은 원주민, 이주민, 소수민족집단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의 이념과 정책을 평가하고 자신들의 욕구와 처지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노정옥, 2011: 26)을 제공한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모형에 기초할 때 탈북청소년 대상의 접근은 국가주도 다문화주의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탈북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 현황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의 지원 사업은 국가의 주도성을 탈피하고 있지 못하다. 물론, 일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복지사업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각종의 물품지원과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향후 탈북청소년 또는 주민 대상의 접근이 시민이 주도하는 다문화주의모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스스로가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정체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체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 5. 문제점 및 시사점

탈북청소년이 우리사회에 입국하여 정부주도의 지원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적응의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우리사회는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탈북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지원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통합정책 대상의 한 계층일 뿐이다. 문제는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지역에서의 성장과정과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경험이 이후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계층과 비교하여 크다는 점이다. 더불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현재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효과성이 통일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하나의 접근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탈북주민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이 주로 물품 지원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우리사회 속에서 자립·자활할 수 있는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역할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에서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통합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은 현재와 더불어 미래를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 노력은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탈북청소년 대상의 지원정책 고찰을 통하여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주로 학교교육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통합의 목표는 구성원이 공동의 가치, 관습, 문화, 질서 등에 대한 의식을 공유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물론,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시스템이 이러한 의식의 형성과 공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민간차원에서의 참여와 지원 노력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즉, 국가주도의 다문화정책과 더불어 시민이 주도하는 다문화모형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편향되어 있는 학교교육지원 제도를 시민교육 차원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탈북주민 지원정책은 제3국 출생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다. 이들은 탈북자 신분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학교교육지원, 직업교육, 편입학, 주거지원 등에서 제외된다. 최근 탈북이후 제3국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탈북자간 또는 제3국 주민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제3국 출생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부모세대의 탈북과정에서 출생한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탈북주민지원 정책에 포함하여 다양한 혜택을 보장받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자칫 출생지역이 탈북청소년 간의 갈등과 차별·배제의 시발점으로 등장한다면 사회통합정책은 또 다른 새로운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

셋째,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미비하다. 현행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마련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원대상이 주로 북한이탈주민으로 나타나 있다. 물론 여기에는 광의적 시각에서 탈북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탈북주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몇몇 지원 내용은 주로 교육지원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 중 진학을

희망하지 않고 직업교육을 희망하거나 탈학교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고려한 지원정책과 더불어 문화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구안이 필요하다.

넷째, 탈북청소년 또는 주민 대상의 지원정책은 여러 부처가 유사 사업을 혼재하여 추진함에 따라 이의 정책을 조정·협력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예로 통일부 주관의 직접 사업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 그리고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사업, 또한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 간에 유사성과 중복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 집행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서비스 대상자의 중복과 누락이라는 문제로 연결된다. 따라서 통일부가 주축이 되어 탈북청소년 대상의 지원 사업을 조정·협력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탈북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자격증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한 학업지원과 심리상담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코디네이터, 전문상담사, 그리고 정착도우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교사 등의 자격증을 구비한 인력이나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및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교육 경험이 미미하여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탈북주민 25,000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을 고려할 때 탈북청소년 및 주민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3 장

---

#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1. 이스라엘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



## 제 3 장

# 외국의 사회통합정책

### 1. 이스라엘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sup>5)</sup>

국제이민은 지구화 시대에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수용국가의 입장과 태도는 천차만별이다. 새로운 인구의 수용 즉 이민은 해당국가나 사회통합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정부통계가 발표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민자가 증가했다는 소식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외가 된다. 이스라엘에서는 사회통합과 발전의 방안으로서의 이민자 수용 및 정착에 대해 다층적 연구를 해오고 있다(Rivak A. Eiskovits & Robert H. Beck, 1999; Larissa Remennick, 2003; Larissa Remennick, 2004).

근대국가 이스라엘은 ‘유대인 이민국가’이다. 근대국가 이전부터 오랜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의 귀향(Aliya: ‘올라간다’는 히브리어)은 (Institute fo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2010) 유대인들의 숙원이었다. ‘알리야’는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 사회를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의식이다. 이것이 1948년 국가 이스라엘(the State of Israel)이 독립을 기폭제로 하여(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을 흡수, 통합하고자 하는 국가적/민간적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영국위임통치시절(1923-1948)에는 팔레스타인으로의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을 포함하여 480,000명이 이주하였다. 이들 가운데 90%이상은 유럽국가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이었다. 1950-60년대에는 동유럽권에서의 이민자 유입은 약화되고, 모로코,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 등과 같은 북아프리카에서 이주민들이 증가하게 되었다. 6일 전쟁 이후(1967) - 1970년대에는 서유럽지역에서 23,900여명 그리고 북미에서 17,900명이 ‘올림’(olim: ‘알리야’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행렬에 뒤를 따랐다. 1984-5년과 1991년에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각각

5) 이스라엘 사례는 김정환박사(University of Haifa)가 집필하였음.

8,000명과 14,200명씩 이스라엘로 후송하는 작전을 실행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연방의 해체로 백만 여명의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대거 이민 오게 되었다<sup>6)</sup>(Central bureau of Statics, 2012 ;Lissitsa S. ,2007).

### 1)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배경 및 현황

유대인들이 더 이상 비자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현실화된 곳이 바로 국가 이스라엘이다. 국가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유대인의 국가’를 표방하는 민족국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수의 유대인들이 영토 밖에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대인들’을 국가 영토 안으로 유인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는 1950년 제정, 공포된 소위 ‘귀환법’(Law of Return)에 잘 나타난다. “모든 유대인은 ‘올레’(Oleh; 본토로 올라가는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로서, 이 국가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sup>7)</sup>고 밝히고 있다. 건국 이래 주변 아랍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 속에서 이민자들의 증가와 안정적 정착은 국가 존재 자체의 문제로 각인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이민자 통합 정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전에는 Jewish Agency for Israel(JAFI)<sup>8)</sup>에서 유대인 이민을 위한 행정 행위를 국가를 갈음하여 담당 했다. 건국 이후에도 지금까지 JAFI는 준국가기관으로서, 이스라엘 국내외에 이민자센타를 운영함으로 유대인 이민을 촉진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68년 이민자 통합부(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를 신설하여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민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오랜 동안 떠나 있다 재정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02년에는 'Masad Klita'라 불리는 통합관리 체계를 만들어, 정부부처, 지방행정조직 그리고 시민단체 등이 함께 이민자 관리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9)</sup>

6) [http://www1.cbs.gov.il/publications12/1483\\_immigration/pdf/e\\_print.pdf](http://www1.cbs.gov.il/publications12/1483_immigration/pdf/e_print.pdf) p.9. 2013년 4월 7일 접속함. 대륙별 이스라엘 이민자 개황을 위해서는 p.10을 참고하라. 러시아어권 이스라엘 이민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issitsa S. (2007)의 논문을 참고하라.

7)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olitics/Other\\_Law\\_Law\\_of\\_Return.html](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olitics/Other_Law_Law_of_Return.html), 2013년 4월 6일 접속함. Right of aliyah 1, Every Jew has the right to come to this country as an oleh.

8) <http://www.jafi.org.il/JewishAgency/English/About/History/>, 2013년 4월 7일 접속함. JAFI는 1929년 16차 시온주의자회의에 의해 설립되었고 건국 이전 국가를 갈음하는 유대인 대표기관으로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9) <http://www2.jdc.org.il/files/olim/masad-2006.pdf> p.47. "sikum peilut 2006 techum masad kelita weshelub olim"(히브리어), 2013년 4월 6일 접속함. Masad Klita는 교육부, 이민자통합부, 복지부 그리고 주택부 등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력하는 프로젝트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이민자 지원은 다차원적이다. 새로운 이민자들은 초기 정착과정부터 안정적인 정착에 이르기 까지, 울판(Ulpan; 히브리어 학습기관), 주택 재정지원(subsidized housing), 직업훈련(vocational training), 직업숙련훈련(professional refresher courses)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게 된다. 이같은 지원내용은 물론 과거 정부 주도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이민자의 선택과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원방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 2) 이주민 대상 사회통합정책 사례

### (1) 이민자 매뉴얼을 통해 본 이민자 수용의 사례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하게 하여 정착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초존재 이유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있어, 또 대내적으로 아랍계(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건국 이래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한 단면으로서 이스라엘 이민자수용부에서 발간한 이민자 매뉴얼을 살펴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12).

#### ① 벤 구리온 공항에서

- 공항에 상주하는 이민자통합부 및 내무부 사무실에서 다음의 서류를 바로 발급 받게 된다.
  - 이민자 등록증 및 등록필증 교부
  - 공항에서 이스라엘 내 목적지까지 가는 차량비용 실비 지원
  - 18개월 동안의 초기 정착비(The Absorption Basket, 생활비, 월세 등) : 모든 이민자들에게는 공항에서 도착 즉시 일부는 현찰로, 일부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불한다.
  - 관세대납
  - 18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모든 이민자들은 어린이 수당을 받게 된다.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이민자'신분을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다.
  - 건강보험 등재 : 특별한 비용 없이 공항에서 신청한다.

## ② 이스라엘에서의 신분

- 내무부에 지정된 서류들을 제출하면 일정기간 후 이스라엘 주민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 서류 가운데는, 신청자가 유대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의 혼인증명서 혹은 출발국가에 있는 유대교 회당 랍비의 서명이 든 편지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 ③ 도착 몇 주 안에 해야 할 일들

- 이민자통합부를 방문해 개인별 이민 상담자를 만난다.
-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 의료보험에 등록한다.
- 히브리어 율판에 등록한다.
- 내무부에 이스라엘 주민증을 신청한다.
- 아이들을 학교에 취학시킨다.
- 고등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은 각 학교의 학생처 상담자에게 문의한다.
- 출신국가의 이민지원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 ④ 이민통합부에서의 첫 번째 방문

- 이민자통합부에 있는 개인별 이민 상담자를 만난다. 이민자들은 이 상담자를 통하여 정착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 ⑤ 은행계좌 개설

: 대부분의 경우 이민자들은 정부 혹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모든 이민자들은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⑥ 의료보험 등록

- 관계법령에 의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초기 6개월 동안은 무료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다.

## ⑦ 히브리어 율판 등록

- 정부는 모든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한 다음날 이후, 18개월 동안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민 상담자는 이민자가 가장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고, 만약 한 곳에 자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거리의 다른 율판을 연결해 주기까지 한다.

### ⑧ 구직 준비

- 히브리어와 영어 이외의 서류는 번역하여 공증을 받는다.
- 전문영역에 따른 히브리어 율판을 수강한다.
- 교육부 산하 학력평가 위원회(The Ministry of Education Bureau for Evaluation of Foreign Academic Degrees and Diplomas)에 자신의 학위와 자격증에 대한 검증을 마친다. 이는 취직 이후 임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학사, 석사 그리고 박사 학위 평가를 위한 관계 서류가 상이함으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⑨ 주민증 신청

- 관계 법령에 따르면, 16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거주자는 내무부에서 발급한 이스라엘 주민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이름, 주소, 생일, 주민번호 그리고 가족관계가 적시된 주민증은 선거를 비롯한 정부관계 업무시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 ⑩ 아이들 취학

-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부서에 아이들을 등록한다.

### ⑪ 기타

- 소득세 면제 신청을 한다.
- 주민세 할인을 지자체에 신청한다(최대90%).
- 집세는, 이민통합부에서 첫 해는 재정하고, 2-5번째는 은행 융자를 통해 해결한다.

#### (2) 이스라엘 이민 방법에 따른 사례

2009년 이민통합부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이민은 정착한 공동체에 대한 만족감, 새로 갖게 된 노동/일에 대한 만족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수준과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적절한 수입,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역시 주요한 요소로 나타났다.(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09) 이스라엘로의 이민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민센타를 통하는 방법, 직접이민 그리고 특별이민 등이 그것이다.

### ① 이민센타를 통한 방법

이스라엘 전역에 18개의 이민센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타는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과 구직 그리고 문화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안정적인 이민을 위해 정부와 JAFI 등과 연계된 각종 언어, 문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 ② 직접이민

이민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정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각자 알아서 정부의 재정 지원<sup>10)</sup> 등을 사용하면 된다.

### ③ 특별이민

정부에서 네게브(남부 사막지역)나 갈릴리(유대인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 지역에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경우, 출발국가에서 사전에 일정한 그룹을 모아 집단으로 이민을 추진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른 이민 방법에 비하여 이민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3) 청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 (1) 청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 배경

앞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성인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들이 정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 구체적 접근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청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들은 비공식, 자율적 기구들에 의해 주도된다는 차이를 들어낸다.(Reuven Kahane, 1986)

이민자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부모 세대에 비하여 더 큰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새로운 이민지 언어와 사회에 보다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이민자들은 능동적인 언어와 문화 습득을 통한 빠른 안착이라는 이점과

10) 재정지원은 가족의 수 등을 토대로 하여 각종 세제혜택, 최소생계비 등을 포함한다.

함께, 부모의 문화와 이민자 문화 사이의 '긴 세대'로서 때로 부모 세대를 위한 단순 통역은 물론 경우에 따라 경제적 부양까지 담당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변환기에 언어를 포함한 새로운 이민자 문화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또래 집단에 대한 상대적 발달감 등으로 자칫 이민자에 대한 저항감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이스라엘 내의 청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은 비공식적 방식(informality)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특성들은 이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공식적 방식과 그 효과들이다.(Reuven Kahane, 1975)

- 자율성(Voluntarism): 새로이 이민 온 청소년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른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현지에 밀착하게 된다.
- 다양성(Multiplexity): 다양한 능력과 관심이 혼재되어 있는 집단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을 알아가게 된다.
- 행동유예(Moratorium): 학교와 같은 공식적 기관에서 발생하는 상벌(賞罰) 혹은 책임등에서 자유로운 가운데, 또래집단과 함께 자율적으로 규칙과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 균형(Symmetry): 새로 이민 온 청소년과 기존 청소년들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한 균형잡힌 규칙을 새로이 확정한다.

이 같은 특성을 내포한 비공식적 기구에 의한 청소년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과정은 기존 청소년과 비교하여 대등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또한 다양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유감없이 뽐낼 수 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처벌이 유예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틀 안에서 정착할 수 있다.

## (2) 청소년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사례

### ① 이스라엘 발견여행 (Taglit<sup>11</sup>)-Birthright Israel trips)

1999년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Leonard Saxe, Michelle Shain, Graham Wright, Shahr Hecht, Shira Fishman & Theodore Sasson, 2012)<sup>12</sup>) 열흘간의 학습여행을 동안 '유대인의 이야기',

11) '발견'(discovery)이라는 히브리어.

12) 브랜디스 대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을 국가별로 정리하여 그 영향력에 대해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http://www.brandeis.edu/cmjs/researchareas/taglit-birthright.html> "Jewish Futures Project, The Impact of Taglit-Birthright Israel: 2012 Update", 2013년 4월 6일 접속함. 2012년 10월에 발간된 "유대인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에 참석한 45%는 유대인 배우자와 결혼한다. 이 학습여행의 영향력은 유대인으로서의 개인적 자

‘현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교의 가치’ 등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된다. 첫째, ‘유대인의 이야기’를 위해서는 유대인의 역사가 담긴 역사적, 민족적 주요장소를 둘러보게 된다. 다음으로 ‘현대 이스라엘’은 문화와 예술, 과학기술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오늘날 이스라엘이 이룩한 성과와 도전 등을 알게 한다. 마지막으로 ‘유대교의 가치’와 관련해서, 긴 역사 속에서 유지되어 온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로서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와 함께 이 여행은 같은 또래의 이스라엘 친구들과의 만남(mifgash/encounter)을 포함한다.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 이해를 심화한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유대인과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 사이의 개인적, 종교적, 정치적 정체성과 견해를 공유하게 된다.

## ② 이스라엘 여행 프로그램(Masa<sup>13</sup>)-Israel Journey)

2003년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모든 유대인 청소년들에게(18-30세) 한 학기 혹은 일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모토로 시작되었다. 다만 앞선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그 기간이 단기가 아닌 중장기(5-10개월)이고,<sup>14)</sup> 학습 여행을 포함한 인턴쉽, 히브리어 학습, 유대학연구, 자원봉사 등 복합적이다. 또한 참가자들이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일단 참가자로 확정이 되고 나면, 적정한 기관으로부터 항공료, 체재비 등의 비용이 장학금으로 지급된다. ‘이스라엘 발견여행’이 기본적으로 민간 펀드에 의해 운영 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여행 프로그램’은 정부와 ‘유대기구’(Jewish Agency for Israel)가 함께 운영한다는 차이가 있다.

## 4) 이스라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특징 및 한국에의 시사점

### (1) 이스라엘 이민자 대상 사회통합정책의 특징

#### ① 정부의 확고한 의지

이민자들의 수용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은 국가 존재의 근간이라는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공심을 넘어 다음 세대에도 자연스럽게 유전되게 된다.

13) ‘여행’(journey)이라는 히브리어.

14) 2013년 3월 6일 이스라엘 중도좌파 일간지인 ‘하아레츠’ 영문판이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실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동질화되는 데는 ‘시간’과 ‘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문은 <http://www.haaretz.com/jewish-world/jewish-world-features/beyond-birthright-jewish-students-return-to-israel-to-do-some-good.premium-1.507363> “Beyond Birthright: Jewish students return to Israel to do some good” 참고.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이민자 수용 문제를 조사하면서 인터뷰한 몇 연구자들은 오히려 내게, 왜 대한민국 정부는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 러시아권 한국 사람들을 수용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유대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이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이민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

이민의 성격상 수용을 하는 입장이 주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새로 이민 온 혹은 올 입장에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민자들의 입국 전 그리고 공항에서 조차(사전에 일정한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곧 바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스라엘에는 히브리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시민권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만 이들의 언어 교육을 이후 적극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 필수적인 이민국 개인상담가들을 이민 출발국 언어 구사자들로 각각 구성하여 언어 미숙이나 의사교환 불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 ③ 교육의 강조

이민 1세대의 언어적, 문화적 한계를 인정하고 다음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적어도 공교육 내에서 얼굴색과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없다.<sup>15)</sup> 초기 이민자 자녀들을 위한 히브리어 언어 프로그램을 거점 도시 중심으로 운용함으로써, 언어 능력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교육부는 유대 전통을 강조하는 ‘히브리어 교육’과 주로 아랍사람들을 위한 ‘아랍어 교육’ 두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sup>16)</sup> 이로 인하여 유대인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유대 전통을 습득, 강화하게 된다.

## ④ 민학관 합작

이스라엘의 이민정책 혹은 사회통합의 문제에 대한 접근은 민학관(民學冠) 총력전이라는

15) 유대인내에서도 주로 유럽국가에서 이민온 ‘아슈케나지’(Ashkenazi Jews) 그리고 스페인과 북유럽에서 이주한 ‘스파르디’(Sephardi Jews) 또 아시아나 아랍국가 등에서 온 ‘미즈라키’(Mizrahi Jews) 간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갈등은 심각한 상황이다. 다만 주변국가들과의 갈등과 전쟁 시에는 이 문제가 약화되어 보이는 것 뿐이다.

16) 히브리어 학교는 아직까지 주 6일 수업을, 아랍계 학교는 주 5일 수업을 한다. 히브리어 학교의 경우, 유대력에 따른 절기를 다 지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랍계 학교에 비해 수업일수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 문제를 주 6일 수업 고수라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점이다. 끊임없는 토론과 피드백(feedback)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최선책을 항상 찾아 간다. 기업체 관련된 기술이나 경제 문제 연구소 뿐 아니라 사회문제를 다루는 민간 연구기관(civil think tanks)이 상당하다.<sup>17)</sup> 주요 대학들과 관련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정부와 함께 사회문제를 다양한 입장을 갖고 조율해 나가고 있다.

## (2) 한국에의 시사점

### ① 인종주의 최소화

뿌리 깊은 민족주의와 남북한 대치라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우리에게서 많다. 하지만 백인 특히 미국에는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부색과 국적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기본 교육에 힘쓴다. 유대인의 나라라는 하나의 역사적, 종교적 가치와 열망으로 이민자들을 하나로 만들고자 (melting pot)하는 이스라엘 안에는 같은 민족끼리 차별하고 배제하는 인종주의는 최소화 되고 있다.

### ②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인문사회연구기관 확대

이스라엘은 비극적 역사를 토대로 형성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근간으로 사회통합 문제를 다룬다. 이를 위해 정부만의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다양한 시각의 존재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사고전환을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다루는 연구기관이 요구된다.

### ③ 이민자 우선 행정

이스라엘은 공항에서 조차 시민권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도 하다. 새롭게 정착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착 매뉴얼을 통하여 행정행위의 개방성을 확보한다. 또한 이민자들이 해야 하는 절차와 소요시간 등에 관한 flow chart를 만들어 공개함으로 예상가능하고 원활한 행정을 집행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대계 이스라엘인과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간의 불공정한 이민 행정 및 사회통합 행정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유대인 이민자들에 대한 적극적 이민 독려 행보에도

17) 대표적인 기관이 '반 리어 연구소'(vanleer.org.il)이다. 유대문화와 정체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민주주의, 교육 문제 해결, 공공영역에서의 여성의 역할 증대 등 사회 전반의 문제를 연구, 모색한다.

불구하고, 아랍계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허락되지 않고 있는 한계가 있다. 심지어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국적의 배우자를 맞는 경우에도 시민권 부여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통합 정책의 입안은 시행 당시의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및 시사점<sup>18)</sup>

### 1)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배경 및 현황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외국인 근로자와 정치적 망명 등으로 유입된 독일 거주 외국인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도 근 15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함께 사는 다문화사회가 된지 이미 오래다. 지구촌이 글로벌화 되면서 이들의 사회통합은 각국에서 국가적으로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국토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초청하였고, 또한 동구권의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독일로 유입되어 일찍부터 사회통합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 독일이 통일되면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던 동독인의 사회통합은 당시 독일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통합보다 우선하여 가장 큰 국가적 과제였음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이미 통일 전에 당시 서독 수상이었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의 신동방정책(新東方政策; Die neue Ostpolitik)에 의해 1973년 양국 간에 교류 조약을 맺고 정치적, 경제적, 인적 교류를 시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적교류 측면에서는 1949년 서독과 동독이 각기 국가를 수립한 이후에도 1954년부터 1957년까지 동독의 연금수혜자들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약 250만 명의 동독인이 서독을 방문할 수 있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에는 인적교류가 중단되었지만 1973년 양국이 조약을 맺은 이후부터 통일까지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김학성, 1996: 7~49). 이러한 일찍 부터의 인적교류는 급작스러운 통일 이후에 그의

18) 독일 사례는 이민희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 후 동독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은 무엇보다 경제적 사회통합이 가장 큰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면 정치적 사회통합은 자연히 큰 문제없이 따라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독일은 동독인의 경제적 사회통합이 최우선의 과제이었다. 하지만 이는 급작스러운 통일비용의 조달과 동서독 간의 양적, 질적 경제격차로 인한 실업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통일 초기에는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독일 전체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동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또한 통일 독일의 미래를 담보하는 중요한 과제였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사회통합의 결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할 수 있다. 통일을 전제로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한국사회에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독일이 통일 직후에 동독청소년들을 위해 어떻게 사회통합정책을 수행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2) 독일의 청소년 사회통합정책 사례

독일의 동독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독일의 「연방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가 1994년 12월 8일 연방의회와 상원의원에 제출한 9번째 「청소년보고서(Jugendbericht)」이다. 연방공화국인 독일(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서의 연방은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지원법」 8조 2항(BmffSFJ, 2007: 72)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sup>19)</sup>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BmffSFJ, 2007: 112)를 따른 것으로, 매번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上院)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시대변화에 따른 현황조사와 분석 외에도 청소년지원의 발전전망과 매 3번째 보고서에는 청소년

19) 연방정부의 「청소년보고서」가 「아동·청소년보고서」로 명칭과 내용이 확대된 것은 1998년 10번째 보고서가 제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정책의 총체적 상황에 대한 개괄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시하고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gesetz)에 따라 1965년에 최초로 독일 연방의회에 제출되었고, 이후 최근에는 2013년 1월 30일에 14번째 「아동·청소년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새로운 연방 주(州)들의 아동 및 청소년의 상황과 청소년지원의 발전에 관한 보고"라는 주제를 가진 9번째 「청소년보고서」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1994년은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만 4년이 지난 직후이다. 통일의 감격과 환호가 잦아들면서 통일의 많은 문제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이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정책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61년 8월 31일 '베를린장벽'이 세워진지 근 30년 후 통일을 맞은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후 통일까지 서로 다른 국가의 이념과 사회체계를 가진 채로 각각 발전해왔고 이러한 분단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세대는 청소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계 속에서 성장해온 동독청소년들은 통일 후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대표적인 서독의 문명과 문화, 교육, 직업 등의 여러 부분에서 통합의 어려움을 가질 수뿐이 없는 시대적, 사회적 구조의 배경을 피할 수 없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구(舊)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이 서독이 흡수 통일한 형태의 사회분위기와 사회의 각 영역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들을 통일된 새로운 사회에 잘 통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통일 독일 정부의 9번째 「청소년보고서」에서 통일 직후 4년 간의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독청소년 사회통합정책과 동독에서의 청소년 상황<sup>20)</sup>

독일의 연방정부는 통일 후 구 동독으로부터 편입된 새로운 주(州) 정부들과 그들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헌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주어진 과제들과 업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민간으로부터의 청소년지원을 구축하고 확대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앞서 많은 재정적 노력을 기울였다(BmfFSFJ, 1994a: IV~V). "독일통일기금", "동독부흥 공동사업", "자치단체 투자총액" 등의 재정적 수단들이 이를 위하여 지원하였다. 여기에서 독일 연방은 과도기적으로 사회, 문화, 스포츠, 여가 영역에서의 주 정부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20) 아래에서 서술하고 있는 글의 내용들은 아래의 정부 보고서 요약본 내용을 발췌해서,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1994), Neunter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Kinder und Jugendlichen und die Entwicklung der Jugend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Bonner Universität-Buchdruckerei, pp. III ~ X XVIII

서비스와 업무수행의 결손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들과 기부금들 그리고 다른 지원들로 만회하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통일 직후인 1991년 「연방여성청소년부」는 「연방청소년계획」에서 민간청소년사업자들과 새로운 주 정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4천7백만 마르크(DM; Deutsche Mark)를 편성하였다. 또한 같은 해 동과 서의 청소년 세대를 위한 “만남의 여름” 프로그램에 2천만 마르크를 책정하였고, 1992~1994년 동안 청소년폭력예방 프로그램에 6천만 마르크를 추가로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동독구축투자지원법」에 따라 연방정부로부터 1995년부터 10년간 매년 66억 마르크가 새로운 구 동독의 주 정부들과 자치단체들에게 지원되도록 하였다.

9번 째 「청소년보고서」는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구 동독 정부아래에서의 청소년 생활 상황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BmffSFJ, 1994a: V).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세대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의 억압적이고 교조적인 동독정부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사회의 요구와 개체의 자유에 대한 욕망 사이에 깊은 심리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으로 정치적 야성을 가지는 동독청소년들은 그 사회에서 소수로 남을 수뿐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1989년 11월 증가하던 청소년들의 불만은 마침내 평화로운 혁명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예전에 겪었던 이러한 깊은 심리적 갈등은 통일 후에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독정부 아래서의 교육도 외부에서 조종된 교육이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조정과 감독, 규제는 청소년의 진취적 정신과 창조성을 위태롭게 하였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이용당했다는 과거 경험에서의 감정으로부터 통일 후에도 동독청소년들은 통일 독일의 정당들과 단체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독재화된 사회와 교육에서 준비되지 않은 채 혁명적인 체제의 변화를 겪게 되는 동독청소년에게는 그들의 삶 전 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요구되었다. 즉, 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새롭게 확장된 환경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길을 잘 찾아가야 하는 자연적인 발달과업들과 새로운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더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위태로운 발달과업들은 이러한 모든 관계들의 급한 변혁들 사이에서 동독청소년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통일 직후 새로운 시장경제에 대한 기회보다는 경제적인 붕괴에 직면했던 동독지역에서는 노동시장의 상황이 동독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염려로 다가왔다(BmffSFJ, 1994a: VI~VII). 통일 후 독일 연방정부는 이러한 노동시장정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커다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의 인식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갈망해왔던 동독청소년들은

새로운 삶에 대하여 다수가 만족을 표하였다. 물론 그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뒤섞인 감정과 어두운 빛 속에 있었지만 1993년 2월과 3월에 걸쳐 13~27세의 동독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POS<sup>21)</sup>에서 조사한 설문조사(IPOS, 1993)에서 다수가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우울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71%의 동독청소년들은 1990년에 결정된 서독의 체제를 따르는 정치적 제도의 결정에 옳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라이프치히(Leipzig)의 시장연구소에서 1993년 동독에 거주하는 15~30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은 결과 '매우 좋다'와 '좋다'가 58%(서독 72%), '그저 그렇다'가 33%(서독 23%)로 나타났으며, '별로 안 좋다'와 '아주 안 좋다'가 8%(서독 5%)로 나타났다. 동독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미래를 확신하는 비율이 39%, 어느 정도 확신이 4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동독청소년은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동독청소년의 가정, 여가시간과 공공에서의 사회통합

### ① 가정에서의 사회통합<sup>22)</sup>

청소년들의 발달기회는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정의 삶의 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가정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따뜻함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부모의 수입에 의하여 결정된다.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의 통합이 이루어진 후 동독에서의 생활 상황은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동독인들의 물질적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 1993년의 "사회보고"에 따르면 1990년에 서독인의 30%정도에 해당되었던 동독 근로자의 소득은 1993년 80%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9번 째 「청소년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의 여성과 여성청소년에게는 취업과 가사 혹은 이들의 통합이 그들의 인생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이들은 향후 자녀의 욕구들과 취업이 통합되는 가정의 미래를 가정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통일 정부의 여성과 가족 정책의 원칙과 노선으로 할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통일 독일정부의 여성과 가족 정책의 확고한 원칙은 동독의 여성청소년들에게는 과거와는

21) Institut für praxisorientierte Sozialforschung

22) BmFSFJ(1994a), p. VII~X 참조

다른 그들의 삶을 개인의 생각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와 기회를 열어준 것이다. 이들에게도 직업과 가족의 과제들이 조화될 수 있도록 즉시 서독의 여성과 여성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교육비와 교육휴가, 산모와 가족 지원법에 따른 탁아소 자리에 대한 권한 등이 부여되었다.

## ② 여가시간에서의 사회통합<sup>23)</sup>

동독에서의 사회주의 체제는 동독청소년들의 존재를 안정시키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와 많은 노력으로 그들을 보살폈다. 그들은 일찍 가정을 꾸리고, 일찍 직업을 가져서 가정과 국가의 교육기관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청소년기는 매우 짧고 약하게 형성될 수뿐이 없었고, 이로 인해 스스로에게 주어져 있는 여가시간에 대한 경험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즉, 학교는 동독청소년들에게 많은 여가시간을 근로공동체와 빠지면 불이익이 주어지는 다른 많은 행사들에게 할애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청소년단체"인 '자유독일청소년(FDJ)<sup>24)</sup>'과 아동단체인 '젊은 개척자(JP)<sup>25)</sup>'에게는 여가시간에 당에서 주어진 교육과업들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이 여가시간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다. 독일통일의 전환점과 함께 동독청소년들은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되었다. 지금까지의 세계관과 가치관의 붕괴, 여가영역에서의 지도적이고 통제적인 기관들의 와해는 그들을 갑자기 자유롭게 하였다. 많은 동독청소년들에게는 이것이 자발적이고, 자의식적인 발달의 시초였다. 생각과 대화의 자유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아형성의 가능성은 방해받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 2월 독일 야당이 정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응답에서 정부가 조사한 결과<sup>26)</sup>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동독청소년들은 집안과 가정, 매체와 결합된 여가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14~27세 동독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19%(남성 24%, 여성 14%)가 청소년단체의 회원이라고 대답하였다. 반면에 서독청소년은 37%(남성 43%, 여성 31%)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청소년들이 서독사회에 통합되면서 서독청소년들의 생활 상황과 점차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 BmFSFJ(1994a), p. X~XI 참조

24) 'Freie Deutsche Jugend'의 약칭

25) 'Jung Pioniere'의 약칭

26)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1994b), Situation der Jugend in Deutschland,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Fraktion der CDU/CSU und der F.D.P.

### ③ 공공에서의 사회통합<sup>27)</sup>

9번 째 「청소년보고서」에 따르면 동독청소년들은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준비가 아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독 후 동독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동독의 정치체제아래에서 겪었던 부정적인 경험의 후유증으로 통일 후의 정치적 기회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고유의 청소년문화 생활환경의 발달은 성인세계와 점차 경계설정과 간격을 두면서 보다 복잡하고, 때로 혼란스러운 성인세계 제도들에의 통합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이들이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대표되는 현상은 폭력, 인종차별, 극우주의를 들 수 있다. 동독청소년들의 외국인 폭력과 같은 이러한 극우적 성향은 1991년 통일 직후부터 급작스럽게 증가하게 되었다. 「청소년보고서」는 폭력의 발생 원인인 대중매체의 의미와 영향력을 간과하였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TV에서의 폭력묘사가 문제청소년들에게는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모방효과를 야기시키면서 폭력을 정당한 갈등해결의 행위로 보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공격성은 많지 않은 자원들, 예를 들면 주거공간, 일자리, 사회복지 등에서의 경쟁이 극심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통합에 결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치 홀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므로 가치관의 결속을 위해 전체 사회가 노력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독일정부는 동독청소년들에게 자기신뢰와 사회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교육과 직업교육의 확대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 (3) 동독청소년의 학교, 대학교, 직업교육에서의 사회통합<sup>28)</sup>

동독청소년들의 통일 전 교육체제는 중앙집권제 형태이었고 사회주의적 교육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구 동독 교육체제에서 동독청소년들은 자신의 교육적 능력과 관계없이 통합학교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가치관과 같은 종류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적 동기 부여가 매우 약했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지 못해, 학생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스스로 다른 교육의 이력을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통독 후 동독지역에서는 학교체제의 개혁이 요구되었다.

27) BmifSFJ(1994a), p. XI~XII 참조

28) BmifSFJ(1994a), p. XIII~XVI 참조

독일 연방과 구 서독의 주 정부들은 이러한 동독지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새로운 교육개혁에 여러 대책들과 프로그램들로 많은 지원을 지속하였다. 동독청소년들은 새로운 교육체계에 만족하였고, 일반적으로 의사발표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실천이 과거 동독의 교육체계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개혁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뿌리를 내린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학교의 교육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사회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도움이 되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개혁의 논의에서 중요한 전제로 일컬어졌던 보다 큰 학교의 자율성과 개방성의 필요는 실천적, 재정적, 인력적 관점에서 학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 성공하는데 있어 결정적이었다. 즉, 정부는 주 정부가 학교와 학교복지사업의 협력이 더욱 개선되는 것에 대하여 중점을 두는 것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였다.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구 동독에서의 교육과정 이수율 그대로 인정해 주거나, 과도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를 함으로서 졸업 후에도 동독출신의 대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독출신의 대학생들과 거의 교육적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다.

반면에 직업교육에 있어서의 서독의 규칙과 구조에 따른 동독 주 정부의 전환은 처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직업에의 진로교육은 사회체계 속에서 산업들의 생산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구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계 속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했던 직업교육의 체계와 방향은 통일 후 많은 변화가 요구되었다. 서독의 직업교육규칙에 따른 직업교육에 대한 교사와 직업교육인력의 정보수준과 지식들이 미흡했다. 또한, 서독에서는 아주 중요한 직업교육영역인 수공업이 동독에서는 오랫동안 무관심했던 경제영역이었다. 이러한 동독에서 서독체제로의 직업교육의 전환은 동독지역의 고용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지원 대책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지원 대책들은 동독지역에서의 새로운 전환과정을 쉽도록 하고, 가속화 시키며, 사회협력체계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고용주와 노동조합, 그리고 국가가 직업교육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청소년들, 배우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연방과 주 정부로부터 다각적인 법제도적인 지원들이 따랐다. 이러한 노력으로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

#### (4) 동독청소년의 노동시장에서의 사회통합<sup>29)</sup>

연방정부는 동독청소년의 실업의 원인이 무엇보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동독청소년의 개별적 고용기회는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들로 개선하거나 기간제 고용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지속적인 청소년실업의 감소와 추가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창조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제와 재정 정책의 일반적인 대책들이 청소년실업과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책들이다. 이와 같은 능동적인 노동시장정책은 1991년과 1992년 가장 심한 일자리 감축의 기간 동안 연평균 약 2백만 명을 실업에서 구제하였고, 1993년에는 160만 명을 구제하였다. 같은 기간에 실업자 수는 연평균 115만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은 세수의 감소로 인해 높은 수준으로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동독청소년들에게 정보와 상담이 아주 긴급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직업과 노동시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에 있어서 동독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은 노동청의 직업상담 서비스이다. 동독의 전지역에 직업상담과 근로상담을 위한 상담소들이 설치되어 촘촘히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24개의 노동청은 일찍부터 직업정보센터를 열고 상담을 원하는 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시장과 관련된 청소년사회사업이 학교사회사업과 협력 하에 확대되어 직업을 찾는 동독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독일 정부는 초기직업교육이 개인적인 취업 성공에 결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독일 연방노동청은 동독지역에 여러 방편으로 교사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젊은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 연방과 동독지역의 공동이니셔티브를 발족하고 유럽의 기금으로 지원하여 동독청소년 14,000 명이 고향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였다. 연방노동청이 「노동지원법 (AFG)<sup>30)</sup>」에 따라 직업교육을 지원하는데 지출한 예산은 1990년에 약 9억 3천만 마르크이었는데 1993년에는 약 2억 1,300만 마르크로 2배가 훨씬 넘게 지원이 되었다.

동독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아주 큰 규모로 지원되었던 직업재교육은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지난해 동안 노동시장의 요구를 고려해서 대책들의 정확한 목표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행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상담의무제의 도입과 시작에 앞서 교육대책의 노동시장정책적인 함목적성에 대한 검토의 도입, 질 조사그룹의 설립, 서비스제공자의 지불능력과 수행능력

29) BmFSFJ(1994a), p. XVIII~ XXI 참조

30) 「Arbeitsförderungsgesetz」의 약칭

의 면밀한 검토 등이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실천되었다. 정부는 이와 독립해서 질적 담보와 질적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모든 부수적인 이니셔티브들을 환영하였다. 이 경우는 특히 규제적인 통제 메카니즘(mechanism)과 규범들에 순응하는 교육제공자들에게 해당되었다.

(5) “청소년지원” 정책의 발전을 통한 사회통합<sup>31)</sup>

지금까지 서술한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 내용은 직접적인 청소년정책이 아닌 이들과 관련된 가족정책, 여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재정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이 단순히 청소년정책이 홀로 떠맡아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위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명하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통합을 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비중을 두고 수행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정책보다 청소년정책인 것을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독일에서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지원”이라는 포괄적 개념 아래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법령도 「아동·청소년 지원법(KJHG)<sup>32)</sup>」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정책은 내용적으로나 명칭에 있어서도 “청소년지원정책”으로 말할 수 있다.

1990년 역사적인 통일을 앞두고 6월 29일 동독의 「청소년·스포츠부」장관인 코르둘라 슈베르트(Cordula Schubert)는 “동독정부는 서독에서 새롭게 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동독지역에도 적용되어야 한다”(BmF/SFJ, 1994a: XXI)라고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동독에서 1990년 7월 20일 「청소년지원조직법(JHOG)<sup>33)</sup>」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서 청소년지원은 미래지향적 발전전망을 가지고 독립적이고, 넓고 차별된 과제영역을 얻게 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동독의 자치단체 관청은 청소년청을 의무적으로 설립하도록 하였고, 이로서 동독지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전제조건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협약의 효력이 시작되기 직전에 독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통일과 함께 그 효력이 동독지역에도 해당되게 되었다.

처음부터 연방정부인 「여성청소년부」의 특별한 바램은 동독지역의 아동, 청소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생활상황의 변화가 면밀히 과학적으로 수반되어 처리되는 것과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신설이 광범위하게 문서화되고 분석되는 것이었다. 동독 스스로의 전문과학에서의

31) BmF/SFJ(1994a), p. XXI ~ XXVIII 참조

32) 「Kinder- und Jugendhilfe Gesetz」의 약칭

33) 「Jugendhilfe-Organisations-Gesetz」의 약칭

변혁과 동독에 대한 서독의 적은 지식들이 이 의도를 어렵게 하였다. 9번 째 「청소년보고서」는 통일 이후 완전히 변화된 청소년지원의 토대는 집중적이고 급하게 전문인력의 배출을 필요로 하게끔 하였다고 옳게 여러 번 지적하였다. 독일의 「여성·청소년부」는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15일 이러한 변혁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청소년지원 정보, 상담, 재교육 서비스(IBFJ)<sup>34)</sup>’ 기관을 신설하였다. 이 기관은 동독지역을 위해서 1994년 12월까지 청소년지원의 46개 사업영역에서 440개가 넘는 세미나를 전역에서 개최하였다. 약 6,800명의 공공과 민간의 청소년지원 기관에 근무하는 지도자들이 이 기관의 연수에 참여하였다.

독일에서는 청소년지원 기관들과 서비스에 있어서 필요에 따른 전문성 있는 제안들의 변혁과 확정을 위한 중심적인 조정요소는 무엇보다 ‘청소년지원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청소년지원 계획’은 각각의 대책들의 양적, 질적 확정을 위한 결정 근거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의 총체적인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동독지역을 포함한 전체 독일의 청소년지원정책의 계획 속에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재정적인 독립자금 확보, 긴급한 가족지원 대책, 모든 사회계층에 대한 교육상담, 문화활동과 청소년여가활동 사업의 안정 및 확대, 새로운 청소년사업의 구축, 동독지역의 위기청소년 사회사업, 또래청소년의 상호지원 등 동독청소년과 서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

### 3) 독일 사회통합정책의 특징 및 한국에의 시사점

독일이 1990년 10월 3일 베를린장벽이 세워진 후 근 30년 만에 다시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을 당시 서독은 서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동독은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 중에서 소련 다음으로 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두 나라가 분단 전의 하나로 통일되었는데도 국가 간의 격차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체제 차이만큼이나 크게 나타나 통일의 후유증은 10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독일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과 또 다른 특징은 독일은 통일되기 전에도 신동방정책으로 일찍부터 국가 정부 간, 민간 간, 청소년 간 상호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일 후 동독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사회인 서독 중심의 사회체제에 통합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4) 'Informations-, Beratungs- und Fortbildungsdienst Jugendhilfe'의 약칭

동독청소년들이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가졌던 원인에는 크고 작은 많은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겠으나 크게 보면 동독과 서독의 양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체제적 측면에서는 경쟁을 통해 발전을 꾀하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와 일정한 노동으로 계획된 목표만을 달성하려는 계획경제 체제 사이의 생산성의 차이에서 오는 경제소득의 격차가 일차적으로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큰 이유는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으로 유지되는 생산체제와 이를 통해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의 지도체제가 통제체제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동독 내의 젊은 청소년세대들에게 다시금 교육체제를 통해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 통합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화된 동독청소년들은 통일이 되면서 서독의 자본주의 중심의 가치관, 행동양식, 규범에 큰 이질감을 가지게 되고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뿐이 없었다.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생산성과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생산성에서 비롯되는 경제소득의 격차는 동독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영역에 걸쳐 서독에 비해 낙후된 인프라를 형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서구의 자본주의체제의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은 구조적으로 통제적인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정치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제에 따른 사회화를 강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향후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는 전체 아래에 동독청소년의 사회통합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과 북한은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과 같은 사회체제와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독일이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하여 겪었던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통일기금(가칭)’을 마련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독일 통일 후 동독청소년들이 겪었던 사회통합의 어려움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북한청소년들은 겪게 될 것이 명확하므로 독일과 같은 급작스러운 통일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북한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배워 익힐 수 있는 과도기적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통일 시기를 조절하여 급한 통일로부터 오는 사회통합 과정의 충격을 완화시키고 지연시켜야 한다. 셋째, 통일이 된다면 정보사회에서 겪는 실업문제는 북한청소년들의 남한사회에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하는 가는 통일 시를 대비한 예비 시험으로 간주하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대한민국 사회에의 통합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연구결과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적 지원이 매우 긴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에서 정부 대책의 키워드는 ‘직업능력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 할 수

있겠다. 넷째, 통일 후 있을 북한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신적,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고,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남북청소년교류를 성사시키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생존을 위한 사회통합이 먼저이겠지만 진정한 사회통합의 완성은 최종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계층적 위화감과 문화적 충격 등으로 부터의 청소년의 심리상태는 우울증, 공격성, 낮은 자존감, 반사회적 행위 등의 청소년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 서독과 동독이 1972년 처음 국가 간 교류협정이 시작된 후 1983년에야 동서독 청소년교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통일 후 동독청소년은 사회통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도 남북한 청소년교류를 통일한국 문제의 중요한 해결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모든 사회통합의 역사는 우리에게 “인내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사회통합은 오래 지속되는, 때때로 세대 간의 문화화 과정과 사회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Bade, 2006: 6) 할 것이다.



## 제 4 장

---

# 상호인식 및 통일관련 의견 조사 ·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면접조사 개요
4. 면접조사 결과
5. 소결 및 시사점



## 제 4 장

### 상호인식 및 통일관련 의견 조사분석<sup>35)</sup>

#### 1.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초·중)을 대상으로 실시된 상호인식 및 통일에 대한 의견조사는 서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통합수준(신뢰, 가치관, 정체성 등), 통일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와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 제외) 초 5~6 / 중1~3학년일반(남한)청소년	전국 15개 광역시도(제주 제외) 초 5~6 / 중 1~3학년탈북청소년
표본수	805명	2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45% Point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6.29% Point <sup>36)</sup>
조사방법	학교 방문을 통한 집단조사(group survey) 및 우편 조사(mailing survey) 병행	
표본추출	학교급별·지역별·학년별·성별에 따른 확률표집(비례층화집락추출법)	탈북청소년 밀집학교 및 대안학교 리스트 활용(유의표본 추출)
조사기간	2013년 5월 27일(월) ~ 6월 21일(금) (총 4주 간)	

【그림 IV-1】 조사설계

35) 이 장은 맹영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6) 탈북청소년의 경우, 모집단 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본 조사에서 표본오차는 2012년 4월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참고하여 일반 초·중학교 학생 인원 수와 대안학교 학생 인원 수의 합에서(1,765명) 약 605명(초1~4학년 및 대안학교의 고등학생 인원 수를 가정)을 제외한 1,160명을 모집단으로 추정함.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중학생이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 학교급별·지역별·학년별·성별에 따른 확률표집(비례층화집락추출법)을 통하여, 탈북청소년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 밀집학교 및 대안학교리스트를 활용한 유의표본추출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학교 방문을 통한 집단조사(group survey) 및 우편 조사(mailing survey)를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최종분석에 사용된 유효표본의 크기는 일반청소년 805명, 탈북청소년 201명이었다([그림 III-1] 참조).

##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①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태도 ②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의 사회통합수준(신뢰, 가치관, 정체성 등) ③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통일관 ④ 인적사항 등이다. 이와 같은 조사항목들은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을 기초로 구성되었으며, 전문가자문 및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설문조사내용의 영역별 하위범주 및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조사영역	세부항목	비고
탈북 · 일반(남한) 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li> <li>○ 탈북이후변화에 대한 인식</li> <li>○ 생활적응수준</li> </ul>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탈북청소년
탈북 · 일반(남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통합(응집)수준: 신뢰</li> <li>○ 사회통합(응집)수준: 공동체참여</li> <li>○ 사회통합(응집)수준: 공통규범/가치</li> <li>○ 정체성</li> </ul>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
탈북 · 일반(남한) 청소년들의 통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에 대한 인식</li> <li>○ 통일대비 교류수준에 대한 인식</li> <li>○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li> </ul>	탈북 · 일반(남한)청소년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학교급, 학년, 지역, 성적, 경제수준 등</li> <li>○ 성, 학교급, 학년, 출생지, 한국정착기간, 성적 등</li> </ul>	일반(남한)청소년 탈북청소년

\* 윤인진 외(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이현주 외(2012),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등을 참조하여 세부사항을 구성하였음

### 3) 분석방법

설문조사 결과 분석은 SPSS 17.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주요 배경변인별 교차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교차분석의 통계는  $X^2$  값을 산정하여 유의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지 살펴보았다. 교차분석과 t-검증, 일원변량분석에서 사용된 주요 배경변인은 성, 학교급, 학년, 출생지, 지역, 성적, 경제수준 등이다.

## 2. 설문조사 결과

### 2-1. 조사대상자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IV-2, 3>).

**일반(남한)청소년:** 조사대상 일반(남한)청소년은 805명으로 남학생은 전체의 51.7%인 416명, 여학생은 전체의 48.3%인 38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06명(38.0%), 중학생 499명(6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17.1%(138명), 인천/경기 34.4%(277명), 충청권 10.9%(88명), 전라권 11.6%(93명), 경상권 11.6%(93명)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위권이 34.4%(269명), 중위권이 48.3%(389명), 하위권이 18.0%(1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은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294명(36.5%),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69명(58.3%),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41명(5.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탈북친구는 대다수(87.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조사대상자 특성: 일반청소년

구 분		사례수(명)	%
전체		805	100.0
성별	남학생	416	51.7
	여학생	389	48.3
학교급/학년	초5~6학년	306	38.0

	중1~3학년	499	62.0
지역	서울	138	17.1
	수도권	277	34.4
	충청권	88	10.9
	전라권	93	11.6
	경상권	209	26.0
성 적	못하는 편	145	18.0
	보통	389	48.3
	잘하는 편	269	33.4
	무응답	2	0.2
가정 형편	어려운 편	41	5.1
	보통	469	58.3
	넉넉한 편	294	36.5
	무응답	1	0.1
탈북친구여부	없다	704	87.5
	있다	86	10.7
	무응답	15	1.9

**탈북청소년:** 조사대상 탈북청소년은 201명으로 남학생은 전체의 53.7%인 108명, 여학생은 전체의 46.3%인 9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생지별로는 북한이 55.7%, 중국이 43.8%인 것으로 제3국을 경유한 탈북인 수가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1명(45.3%), 중학생 109명(54.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일반초등학교 재학생이 80명(39.8%), 일반중학교 재학생이 62명(30.8%), 대안학교 재학생이 59명(2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년도는 2000년~2005년 사이가 10.0%(20명), 2006년~2007년 사이가 17.4%(35명), 2008년~2009년 사이가 23.9%(48명), 2010년~2011년 사이가 25.4%(51명), 2012년~2013년 사이가 12.9%(2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국년도를 모르거나 무응답한 경우도 10.4%(2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32.8%(66명), 인천/경기/강원 58.7%(118명), 충청권 2.0%(4명), 경상권 6.5%(13명)로 나타났다. 입국 후 학교 재학기간은 1년 미만이 16.4%(33명), 1년 이상~3년 미만이 21.4%(43명), 3년 이상~5년 미만이 24.4%(49명), 5년 이상이 36.3%(73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은 상위권이 14.4%(29명), 중위권이 59.2%(119명), 하위권이 26.4%(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은 넉넉한 편이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8명(18.9%),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32명(65.7%),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1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 조사대상자 특성: 탈북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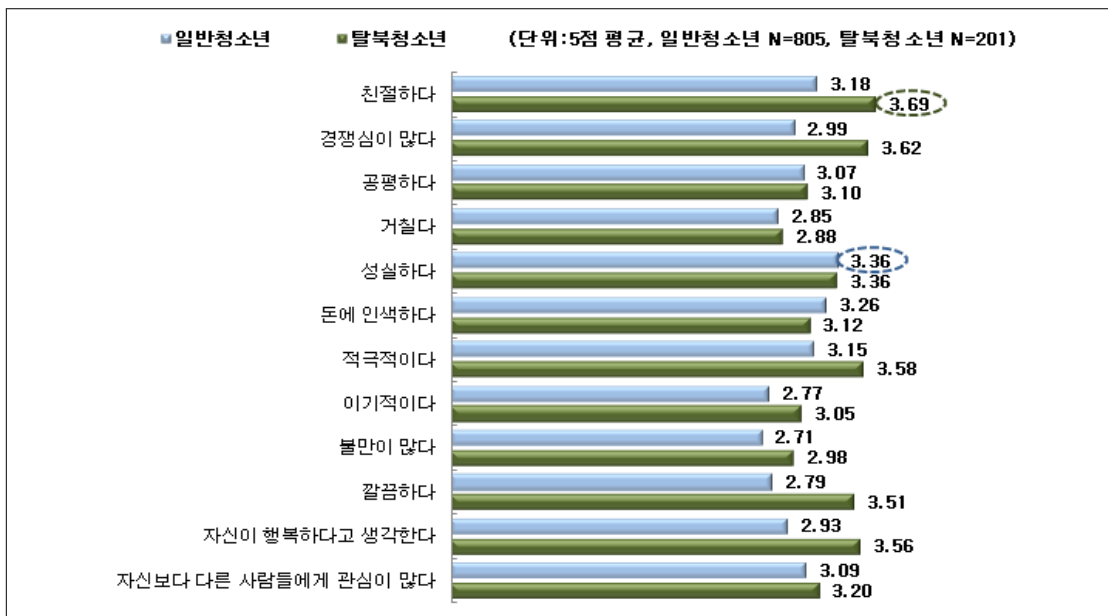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명)	%
전체		201	100.0
성별	남학생	108	53.7
	여학생	93	46.3
출생지	북한	112	55.7
	중국	88	43.8
	모름/무응답	1	0.5
입국년도	2000~2005년	20	10.0
	2006~2007년	35	17.4
	2008~2009년	48	23.9
	2010~2011년	51	25.4
	2012~2013년	26	12.9
	모름/무응답	21	10.4
학교유형	일반초	80	39.8
	일반중	62	30.8
	대안학교	59	29.4
학교급/학년	초5~6학년	91	45.3
	중1~3학년	109	54.2
	모름/무응답	1	0.5
지 역	서울	66	32.8
	수도권(강원 포함)	118	58.7
	충청권	4	2.0
	경상권	13	6.5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16.4
	1년 이상~3년 미만	43	21.4
	3년 이상~5년 미만	49	24.4
	5년 이상	73	36.3
	모름/무응답	3	1.5
성 적	못하는 편	53	26.4
	보통	119	59.2
	잘하는 편	29	14.4
가정형편	어려운 편	31	15.4
	보통	132	65.7
	넉넉한 편	38	18.9

## 2-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적응수준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자기인식수준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수준

탈북청소년에게는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는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12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sup>37)</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는 항목이 3.69점으로 12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는 항목이 3.36점으로 12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이미지에 대한 상호인식수준

37) 전혀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① 탈북청소년의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남한청소년 대부분은 공평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표 IV-4 성별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 체	201	3.10
	남학생	108	<b>3.23</b>
	여학생	93	2.93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 체	201	3.20
	남학생	108	<b>3.34</b>
	여학생	93	3.04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이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남한청소년 대부분은 경쟁심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01)를 보이고 있다.

**표 IV-5 출생지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	전 체	201	3.62
	북한	112	<b>3.84</b>
	중국	88	3.35
	모름/무응답	1	3.00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탈북청소년들이 다른 지역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남한청소년

대부분은 경쟁심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표 IV-6 지역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	전체	201	3.62
	서울	66	<b>3.79</b>
	경기/강원도	118	3.61
	충청도	4	3.25
	경상도	13	3.00
			2.771 0.043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적별로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남한청소년 대부분은 성실하고, 돈에 인색하지 않으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7 성적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	전 체	201	3.36
	못하는 편	53	3.04
	보 통	119	3.45
	잘하는 편	29	<b>3.59</b>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	전 체	201	3.12
	못하는 편	53	2.94
	보 통	119	3.28
	잘하는 편	29	<b>2.79</b>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201	3.56
	못하는 편	53	3.32
	보 통	119	3.61
	잘하는 편	29	<b>3.79</b>
			3.081 0.048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가정형편에 따라 살펴보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남한청소년 대부분은 적극적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표 IV-8**      **가정형편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적극적이다	전 체	201	3.58
	어려운 편	31	3.23
	보 통	132	3.62
	넉넉한 편	38	<b>3.76</b>
			3.121 0.046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친절하며, 거칠지 않으며, 성실하며, 불만이 많지 않으며, 깔끔하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5수준)를 보이고 있다.

**표 IV-9**      **성별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805	3.18
	남학생	416	3.10
	여학생	389	<b>3.26</b>
			6.893 0.009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 체	805	2.85
	남학생	416	2.97
	여학생	389	<b>2.71</b>
			14.308 0.000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	전 체	805	3.36
	남학생	416	3.27
	여학생	389	<b>3.46</b>
			6.998 0.008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불만이 많다	전 체	805	2.71
	남학생	416	2.80
	여학생	389	<b>2.61</b>
			7.932 0.005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깔끔하다	전 체	805	2.79
	남학생	416	2.71
	여학생	389	<b>2.87</b>
			5.945 0.015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친절하며, 거칠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깔끔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10 학교급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805	3.18
	초등학교	306	<b>3.31</b>
	중 학 교	499	3.10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 체	805	2.85
	초등학교	306	<b>2.63</b>
	중 학 교	499	2.98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전 체	805	2.77
	초등학교	306	<b>2.69</b>
	중 학 교	499	2.82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깔끔하다	전 체	805	2.79
	초등학교	306	<b>2.91</b>
	중 학 교	499	2.71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805	2.93
	초등학교	306	<b>3.03</b>
	중 학 교	499	2.87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적별로 살펴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할수록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공평하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11 성적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 체	805	3.07
	못하는 편	145	2.96
	보 통	389	3.02
	잘하는 편	269	<b>3.19</b>
	무응답	2	2.5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친절하며, 거칠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12** 지역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체	805	3.18	3.289 0.011
	서울	138	3.30	
	경기도	277	3.21	
	충청도	88	<b>3.32</b>	
	전라도	93	3.12	
	경상도	209	3.01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체	805	2.85	2.482 0.043
	서울	138	2.81	
	경기도	277	2.82	
	충청도	88	<b>2.68</b>	
	전라도	93	2.76	
	경상도	209	3.01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③ 탈북청소년 친구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

일반(남한)청소년 중 탈북청소년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에서 탈북청소년친구가 없는 일반(남한)청소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절하다’ ‘돈에 인색하다’ ‘이기적이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의 항목에서 탈북청소년친구가 없는 일반(남한)청소년보다 탈북청소년에 대해 ‘친절하며, 돈에 인색하지 않으며, 이기적이지 않으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상호인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II-4> 참조). 이런 결과는 탈북청소년과의 교류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13** 탈북청소년 친구 여부에 따른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체	805	3.18	12.587 0.000
	없다	704	3.13	
	있다	86	<b>3.63</b>	
	무응답	15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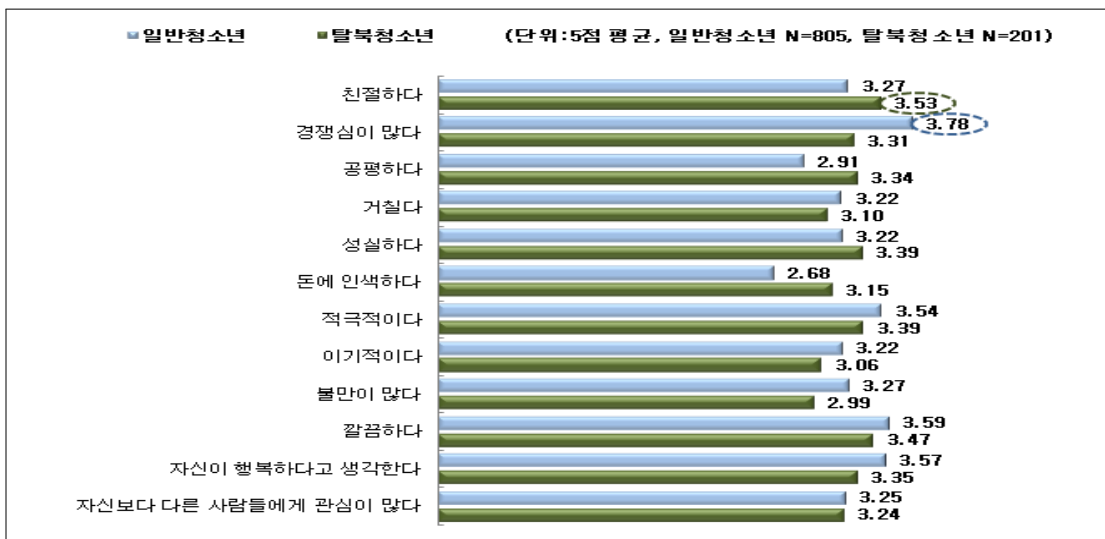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	전체	805	2.99	1.381 0.252
	없다	704	3.01	
	있다	86	<b>2.83</b>	
	무응답	15	2.93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체	805	3.07	2.631 0.073
	없다	704	3.04	
	있다	86	<b>3.28</b>	
	무응답	15	3.13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체	805	2.85	2.035 0.131
	없다	704	2.87	
	있다	86	<b>2.65</b>	
	무응답	15	2.73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	전체	805	3.36	1.725 0.179
	없다	704	3.38	
	있다	86	3.17	
	무응답	15	3.47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	전체	805	3.26	7.700 0.000
	없다	704	3.30	
	있다	86	<b>2.87</b>	
	무응답	15	3.29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적극적이다	전체	805	3.15	2.177 0.114
	없다	704	3.14	
	있다	86	<b>3.22</b>	
	무응답	15	3.60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전체	805	2.77	2.684 0.069
	없다	704	2.80	
	있다	86	<b>2.57</b>	
	무응답	15	2.60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불만이 많다	전체	805	2.71	3.188 0.042
	없다	704	2.73	
	있다	86	<b>2.46</b>	
	무응답	15	2.79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깔끔하다	전체	805	2.79	2.213 0.110
	없다	704	2.76	
	있다	86	<b>2.98</b>	
	무응답	15	2.93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체	805	2.93	7.766 0.000
	없다	704	2.88	
	있다	86	3.33	
	무응답	15	2.93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체	805	3.09	0.161 0.852
	없다	704	3.09	
	있다	86	3.13	
	무응답	15	3.0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수준

탈북청소년에게는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는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12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sup>38)</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대부분 친절하다’는 항목이 3.53으로 12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는 항목이 3.78점으로 12항목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수준

38) 전혀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①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수준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친절하며, 공평하며, 성실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5수준)를 보이고 있다.

표 IV-14 성별에 따른 탈북청소년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201	3.53	4.706 0.031
	남학생	108	<b>3.66</b>	
	여학생	93	3.39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 체	201	3.34	9.548 0.002
	남학생	108	<b>3.51</b>	
	여학생	93	3.14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	전 체	201	3.39	5.212 0.023
	남학생	108	<b>3.51</b>	
	여학생	93	3.24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 체	201	3.24	5.563 0.019
	남학생	108	<b>3.36</b>	
	여학생	93	3.1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출생지별로 살펴보면 북한출생 탈북청소년들이 중국출생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거칠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1)를 보이고 있다.

**표 IV-15** 출생지에 따른 탈북청소년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 체	201	3.10	5.177 0.006
	북한	112	<b>3.29</b>	
	중국	88	2.89	
	모름/무응답	1	2.0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수준**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친절하며, 공평하며, 성실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p<.05수준)를 보이고 있다.

**표 IV-16** 성별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805	3.27	20.672 0.000
	남학생	416	<b>3.40</b>	
	여학생	389	3.13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 체	805	2.91	17.790 0.000
	남학생	416	<b>3.04</b>	
	여학생	389	2.78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성실하다	전 체	805	3.22	9.918 0.002
	남학생	416	<b>3.31</b>	
	여학생	389	3.13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	전 체	805	2.68	5.772 0.017
	남학생	416	2.75	
	여학생	389	2.6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805	3.57	4.231 0.040
	남학생	416	<b>3.65</b>	
	여학생	389	3.49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경쟁심이 많으며, 거칠며, 이기적이며, 불만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반면,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친절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17 학교급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805	3.18	12.580 0.000
	초등학교	306	3.41	
	중 학교	499	3.18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	전 체	805	3.78	8.484 0.004
	초등학교	306	3.67	
	중 학교	499	3.84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거칠다	전 체	805	3.22	10.091 0.002
	초등학교	306	3.10	
	중 학교	499	3.28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이기적이다	전 체	805	3.22	15.599 0.000
	초등학교	306	3.07	
	중 학교	499	3.32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불만이 많다	전 체	805	3.27	27.252 0.000
	초등학교	306	3.07	
	중 학교	499	3.4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805	3.57	56.684 0.000
	초등학교	306	3.92	
	중 학교	499	3.36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적으로 살펴보면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적극적이라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p < .001$ )하는 반면,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돈에 인색하고 불만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 $p < .05$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8 성적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	전 체	805	2.68	2.968 0.031
	못하는 편	145	<b>2.88</b>	
	보 통	389	2.61	
	잘하는 편	269	2.67	
	무응답	2	2.5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적극적이다	전 체	805	3.54	8.163 0.000
	못하는 편	145	3.33	
	보 통	389	3.49	
	잘하는 편	269	3.70	
	무응답	2	4.5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불만이 많다	전 체	805	3.27	2.884 0.035
	못하는 편	145	<b>3.35</b>	
	보 통	389	3.21	
	잘하는 편	269	3.33	
	무응답	2	2.0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돈에 인색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19 지역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공평하다	전체	805	2.91	4.039 0.003
	서울	138	<b>3.16</b>	
	경기도	277	2.90	
	충청도	88	2.94	
	전라도	93	2.81	
	경상도	209	2.81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돈에 인색하다	전체	805	2.68	3.130

	서울	138	2.73	0.014
	경기도	277	2.73	
	충청도	88	<b>2.79</b>	
	전라도	93	2.39	
	경상도	209	2.66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전체	805	3.25	3.163 0.014
	서울	138	3.32	
	경기도	277	3.17	
	충청도	88	<b>3.54</b>	
	전라도	93	3.20	
	경상도	209	3.19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가정형편에 따라 살펴보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 대부분은 친절하며, 깔끔하며, 자신이 행복하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20 가정형편에 따른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한 자기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친절하다	전 체	805	3.18	2.813 0.038
	어려운 편	145	3.10	
	보 통	389	3.23	
	넉넉한 편	269	<b>3.36</b>	
	무응답	2	2.0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깔끔하다	전 체	805	3.59	4.026 0.007
	어려운 편	145	3.48	
	보 통	389	3.52	
	넉넉한 편	269	<b>3.72</b>	
	무응답	2	4.00	
일반(남한)청소년은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805	3.57	3.333 0.019
	어려운 편	145	3.37	
	보 통	389	3.54	
	넉넉한 편	269	<b>3.66</b>	
	무응답	2	1.00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①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깔끔하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1 탈북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상호인식 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친절하다	3.53	3.18	.354	5.061	.000	.070
경쟁심이 많다	3.31	2.99	.324	4.468	.000	.072
공평하다	3.34	3.07	.271	3.801	.000	.071
거칠다	3.10	2.85	.259	3.444	.001	.075
성실하다	3.39	3.36	.023	.326	.745	.071
돈을 잘 안 쓴다	3.15	3.26	-.114	-1.546	.122	.074
적극적이다	3.39	3.15	.234	3.282	.001	.071
이기적이다	3.06	2.77	.285	4.356	.000	.065
불만이 많다	2.99	2.71	.290	3.920	.000	.074
깔끔하다	3.47	2.79	.680	9.731	.000	.070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35	2.93	.417	5.487	.000	.076
자신보다 다른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3.24	3.09	.152	2.293	.022	.066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 잘 안 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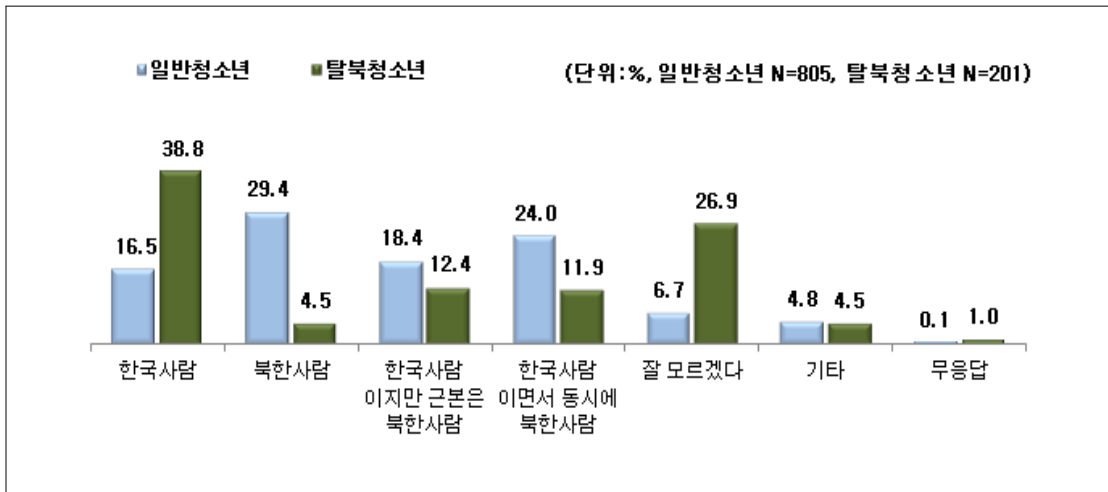
표 IV-2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상호인식 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친절하다	3.27	3.69	-.419	-5.672	.000	.074
경쟁심이 많다	3.78	3.62	.155	2.085	.038	.074
공평하다	2.91	3.10	-.182	-2.277	.024	.080
거칠다	3.22	2.88	.332	5.106	.000	.065
성실하다	3.22	3.36	-.135	-1.882	.061	.072
돈을 잘 안 쓴다	2.68	3.12	-.440	-5.992	.000	.073
적극적이다	3.54	3.58	-.048	-.726	.468	.066
이기적이다	3.22	3.05	.172	2.546	.011	.067
불만이 많다	3.27	2.98	.293	4.080	.000	.072
깔끔하다	3.59	3.51	.082	1.229	.219	.067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3.57	3.56	.013	.171	.864	.074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3.25	3.20	.044	.630	.529	.069

1)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 보통(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4)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탈북청소년에게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는 탈북청소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 ⅓이상(38.8%)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⅓정도(26.9%)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⅓정도(24.3%)는 ‘한국 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12.4%)’,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11.9%)’, ‘북한사람(4.5%)’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응답한 경우 ‘중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일반(남한)청소년** ⅓정도(29.4%)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0%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탈북청소년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 ①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중국출생, 초등학교, 경상도, 학업성적이 보통이상,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북한출생, 중학교, 서울, 학업성적이 낮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와 학교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23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탈북청소년 N=201)

구분	사례수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근본은 북한사람	동시에 북한사람	북한사람	기타	무응답	$\chi^2$ /유의도
전체	(201)	38.8	26.9	12.4	11.9	4.5	4.5	1.0	
성별	남학생 (108)	33.3	31.5	10.2	13.0	5.6	4.6	1.9	7.149 0.307
	여학생 (93)	45.2	21.5	15.1	10.8	3.2	4.3	0.0	
출생지	북한 (112)	33.9	19.6	19.6	17.9	7.1	0.0	1.8	42.901 0.000
	중국 (88)	44.3	36.4	3.4	4.5	1.1	10.2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0.0	0.0	
학교급/학년	초5~6학년 (91)	46.2	26.4	7.7	8.8	2.2	6.6	2.2	33.462 0.001
	중1~3학년 (109)	33.0	27.5	16.5	14.7	5.5	2.8	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0.0	
지역	서울 (66)	47.0	13.6	16.7	10.6	7.6	4.5	0.0	20.340 0.314
	경기/강원 (118)	31.4	33.9	11.0	13.6	3.4	5.1	1.7	
	충청권 (4)	50.0	25.0	0.0	25.0	0.0	0.0	0.0	
	경상권 (13)	61.5	30.8	7.7	0.0	0.0	0.0	0.0	
성적	못하는 편 (53)	26.4	37.7	9.4	13.2	9.4	3.8	0.0	16.002 0.191
	보통 (119)	43.7	24.4	10.9	11.8	2.5	5.0	1.7	
	잘하는 편 (29)	41.4	17.2	24.1	10.3	3.4	3.4	0.0	
가정형편	어려운 편 (31)	29.0	25.8	12.9	16.1	9.7	6.5	0.0	7.579 0.817
	보통 (132)	39.4	28.0	12.1	12.1	3.8	3.0	1.5	
	넉넉한 편 (38)	44.7	23.7	13.2	7.9	2.6	7.9	0.0	

## ②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초등학교, 경상권, 공부를 못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없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사람’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지역, 성적, 탈북친구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수준).

표 IV-2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청소년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N=805)

구분	사례수	북한사람	한국사람 북한사람	근본은 북한사람	한국사람	잘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chi^2$ /유의도	
전체	805	29.4	24.0	18.4	16.5	6.7	4.8	0.1		
성별	남학생	416	28.6	20.2	19.2	18.8	7.9	5.0	0.2	11,197 0.082
	여학생	389	30.3	28.0	17.5	14.1	5.4	4.6	0.0	
학교	초등학교	306	30.4	22.9	14.1	17.6	6.5	8.2	0.3	18,739 0.005
	중학교	499	28.9	24.6	21.0	15.8	6.8	2.8	0.0	
지역	서울	138	23.9	29.7	16.7	18.1	7.2	3.6	0.7	42,342 0.012
	수도권	277	25.6	23.5	18.1	19.9	7.2	5.8	0.0	
	충청권	88	26.1	20.5	23.9	19.3	5.7	4.5	0.0	
	전라권	93	30.1	33.3	11.8	18.3	2.2	4.3	0.0	
	경상권	209	39.2	18.2	20.6	9.1	8.1	4.8	0.0	
성적	못하는 편	145	40.7	15.9	15.2	12.4	10.3	5.5	0.0	48,450 0.000
	보통	389	31.4	23.7	15.9	16.5	7.7	4.6	0.3	
	잘하는 편	269	20.8	28.6	23.8	19.0	3.3	4.5	0.0	
	무응답	2	0.0	50.0	0.0	0.0	0.0	50.0	0.0	
탈북 친구 여부	없다	704	30.8	24.9	17.8	14.9	7.1	4.4	0.1	25,618 0.012
	있다	86	16.3	18.6	24.4	26.7	4.7	9.3	0.0	
	모름/무응답	15	40.0	13.3	13.3	33.3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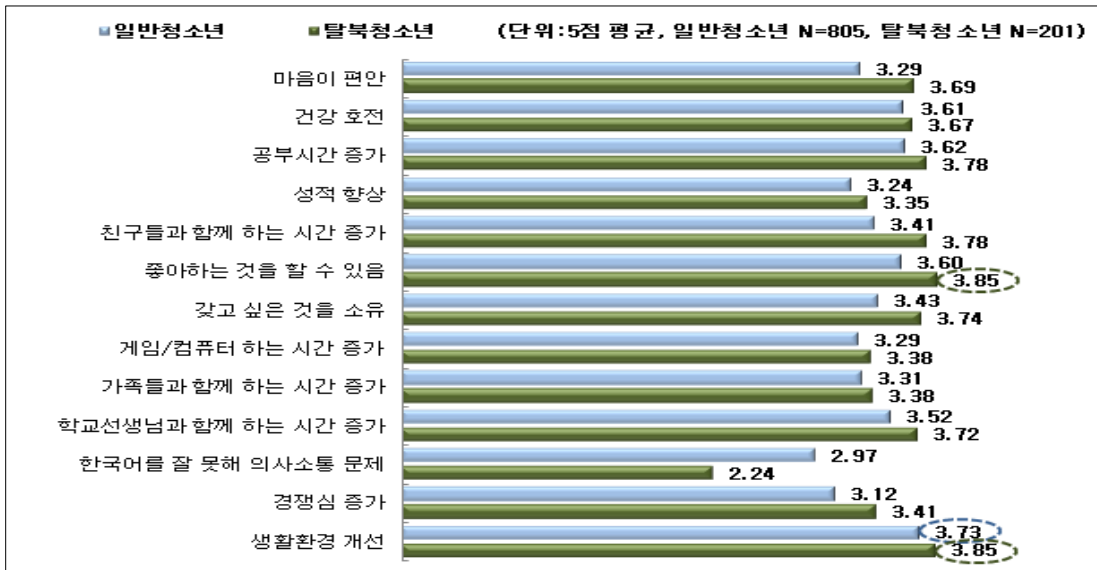
### 3)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수준

#### ①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자기인식수준

한국에 들어온 후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13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생활환경이 좋아졌다'(3.85),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공부시간이 많아졌다'(3.78),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3.7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입국 후 탈북청소년의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수준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 13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생활환경이 좋아졌을 것이다'(3.73), '공부시간이 많아졌을 것이다'(3.62), '건강이 좋아졌을 것이다'(3.61),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3.60)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입국 후 탈북청소년의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차이

### ③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 못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 '경쟁심이 많아졌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5

탈북청소년들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상호인식 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마음이 편안해졌다	3.69	3.29	.392	5.592	.000	.070
건강이 좋아졌다	3.67	3.61	.056	.763	.445	.073
공부시간이 많아졌다	3.78	3.62	.154	2.065	.039	.075
성적이 좋아졌다	3.35	3.24	.106	1.418	.156	0.74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3.78	3.41	.375	4.776	.000	.078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3.85	3.60	.251	3.619	.000	.069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	3.74	3.43	.312	4.231	.000	.074
게임이나 컴퓨터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3.338	3.29	.095	1.121	.263	.085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3.38	3.31	.074	.911	.363	.082
학교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3.72	3.52	.192	2.743	.006	.070
한국어를 잘 못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2.24	2.97	-.728	-7.378	.000	.099
경쟁심이 많아졌다	3.41	3.12	.292	3.683	.000	.079
생활하는 환경이 좋아졌다	3.85	3.73	.116	1.664	.096	.070

#### 4)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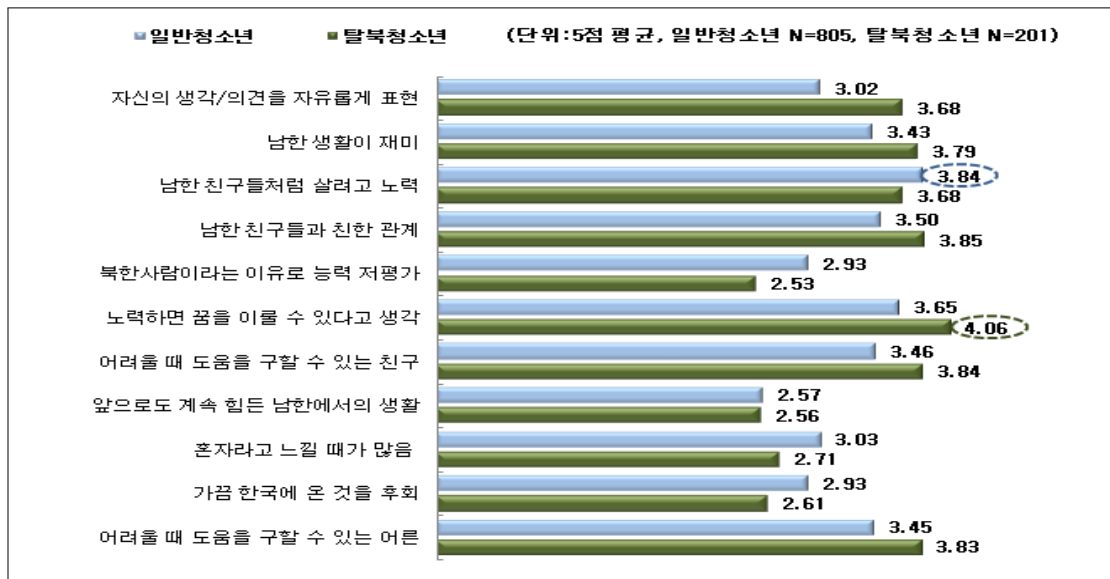
##### ①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입국 후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11가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06)’는 항목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3.85)’,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3.84)’,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3.83)’, ‘남한생활이 재미있다(3.7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탈북청소년 생활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탈북청소년들의 생활적응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탈북청소년들과 같은 항목으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남한 친구들처럼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3.84)’는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3.65)’,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낼 것이다(3.50)’,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이다(3.46)’,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을 것이다(3.45)’, ‘남한생활이 재미있을 것이다(3.43)’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6】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

### ③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남한생활이 재미있다’,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할 때가 가끔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으며, 남한생활이 재미있고,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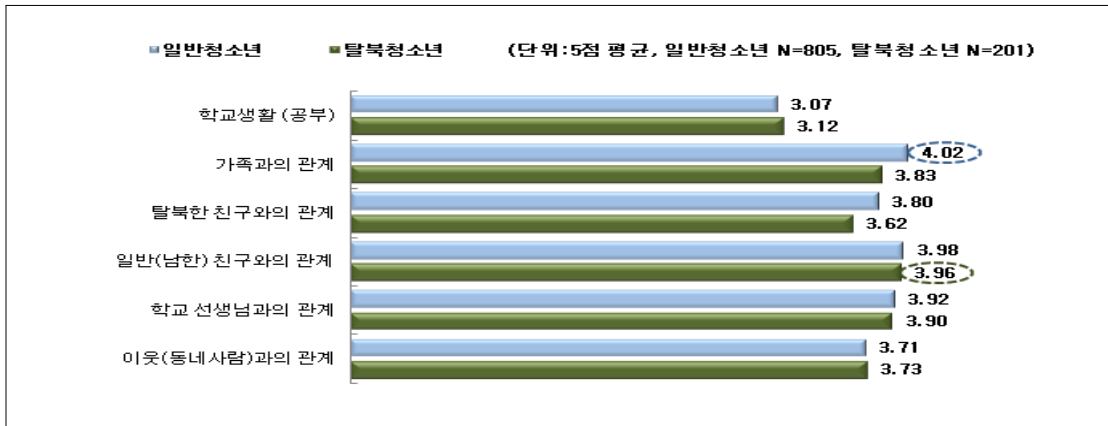
**표 IV-26** 탈북청소년의 생활적응에 대한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평균차이

항 목	자기인식 평균	상호인식 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3.68	3.02	.659	8.749	.000	.075
남한 생활이 재미있다	3.79	3.43	.359	4.954	.000	.073
남한 친구들과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3.68	3.84	-.156	-2.178	.030	.072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	3.85	3.50	.347	4.881	.000	.071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2.53	2.93	-.403	-4.454	.000	.090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06	3.65	.403	6.132	.000	.066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3.84	3.46	.374	5.271	.000	.071
앞으로도 남한에서 생활하는 것이 계속 힘들 것 같다	2.56	2.57	-.010	-.114	.909	.086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2.71	3.03	-.325	-3.685	.000	.088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할 때가 가끔 있다	2.61	2.93	-.320	-3.483	.001	.092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3.83	3.45	.384	5.392	.000	.071

#### 5)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학교생활 및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6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sup>39)</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 모두 학교(공부)생활을 상대적으로 가장 힘들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그림 IV-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 (1)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공부)(3.12), 탈북한 친구들과의 관계(3.62), 이웃과의 관계(3.73), 가족과의 관계(3.83), 학교선생님과의 관계(3.90), 남한친구들과의 관계(3.96) 순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으로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학교생활(공부),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1$ ).

표 IV-27 탈북청소년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구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학교생활(공부)	전체	201	3.12	5.846 0.003
	못하는 편	53	2.75	
	보통	119	3.20	
	잘하는 편	29	3.45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전체	201	3.90	6.400 0.002
	못하는 편	53	3.66	
	보통	119	3.91	
	잘하는 편	29	4.41	

이웃과의 관계	전 체	201	3.73	7.232 0.001
	못하는 편	53	3.45	
	보 통	119	3.73	
	잘하는 편	29	4.21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가정형편에 따라 살펴보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표 IV-28** 탈북청소년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가족과의 관계	전 체	201	3.83	3.369 0.036
	어려운 편	31	3.57	
	보 통	132	3.81	
	넉넉한 편	38	4.11	
이웃과의 관계	전 체	201	3.73	9.083 0.000
	어려운 편	31	3.32	
	보 통	132	3.69	
	넉넉한 편	38	4.19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2) 일반(남한)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공부)(3.07), 이웃과의 관계(3.71), 탈북친구들과의 관계(3.80), 학교선생님과의 관계(3.92), 친구들과의 관계(3.98), 가족과의 관계(4.02) 순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29 일반(남한)청소년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친구와의 관계	전 체	805	3.98
	남학생	416	<b>4.13</b>
	여학생	389	3.82
			23.561 0.000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학교급에 따라 살펴보면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공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30 일반(남한)청소년 학교급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t/유의도
학교생활(공부)	전 체	805	3.07
	초등학교	306	3.31
	중 학 교	499	<b>2.93</b>
			24.477 0.000
가족과의 관계	전 체	805	4.02
	초등학교	306	4.25
	중 학 교	499	<b>3.87</b>
			30.861 0.000
친구와의 관계	전 체	805	3.98
	초등학교	306	4.14
	중 학 교	499	<b>3.89</b>
			15.237 0.000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전 체	805	3.92
	초등학교	306	4.13
	중 학 교	499	<b>3.79</b>
			30.920 0.000
이웃과의 관계	전 체	805	3.71
	초등학교	306	3.86
	중 학 교	499	<b>3.62</b>
			13.955 0.000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성적별로 살펴보면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학교생활(공부), 가족과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31 일반(남한)청소년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학교생활(공부)	전 체	805	3.07	15.986 0.000
	못하는 편	145	2.67	
	보 통	389	3.01	
	잘하는 편	269	3.38	
	무응답	2	2.50	
가족과의 관계	전 체	805	4.02	15.888 0.000
	못하는 편	145	3.79	
	보 통	389	3.93	
	잘하는 편	269	4.28	
	무응답	2	1.50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전 체	805	3.92	11.935 0.000
	못하는 편	1453	3.72	
	보 통	389	3.82	
	잘하는 편	269	4.16	
	무응답	2	4.50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5).

표 IV-32 일반(남한)청소년 지역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친구와의 관계	전체	805	3.98	2.858 0.023
	서울	138	4.18	
	경기도	277	4.00	
	충청도	88	4.00	
	전라도	93	3.90	
	경상도	209	3.86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전체	805	3.92	3.908 0.004
	서울	138	4.04	
	경기도	277	4.01	
	충청도	88	3.94	
	전라도	93	3.84	
	경상도	209	3.74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가정형편에 따라 살펴보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학교생활(공부),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가 힘들다고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표 IV-33 일반(남한)청소년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 차이

구 분		사례수(명)	평균 <sup>1)</sup>	F/유의도
학교생활(공부)	전 체	805	3.07	10.098 0.000
	어려운 편	41	<b>2.49</b>	
	보 통	469	2.98	
	넉넉한 편	294	3.29	
	무응답	1	4.00	
가족과의 관계	전 체	805	4.02	13.858 0.000
	어려운 편	41	<b>3.39</b>	
	보 통	469	3.93	
	넉넉한 편	294	4.24	
	무응답	1	5.00	
친구와의 관계	전 체	805	3.98	8.747 0.000
	어려운 편	145	<b>3.66</b>	
	보 통	389	3.89	
	넉넉한 편	269	4.18	
	무응답	2	3.00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전 체	805	3.92	5.214 0.001
	어려운 편	145	<b>3.76</b>	
	보 통	389	3.83	
	넉넉한 편	269	4.07	
	무응답	2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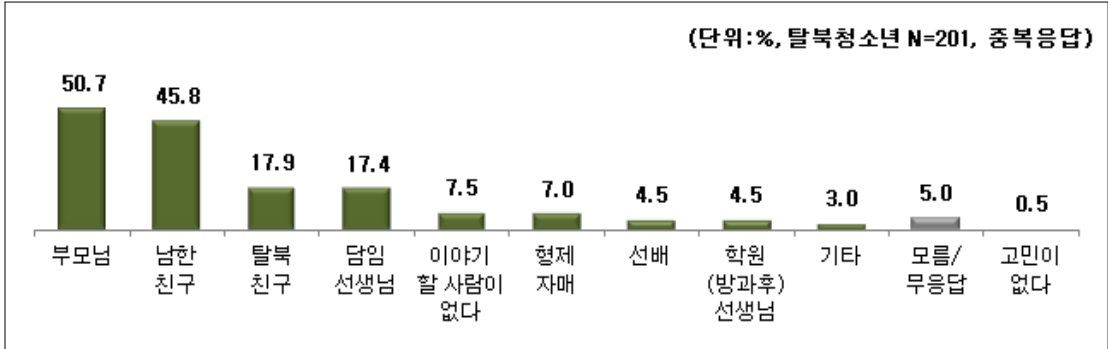
1) 매우 힘들다(1점), 힘들다(2점), 보통(3점), 힘들지 않다(4점), 전혀 힘들지 않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

#### ① 탈북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탈북청소년에게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50.7%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 친구(45.8%)', '탈북친구(17.9%)', '담임선생님(17.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비율도 7.0%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림 IV-8】 탈북청소년들의 고민 의논 상대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부모님’과 의논한다는 응답은 중국 출생, 2000~2005년 입국자, 한국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한 친구’라는 응답은 2000~2005년 및 2008~2009년 입국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한국학교 3년 이상~5년 미만 재학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탈북청소년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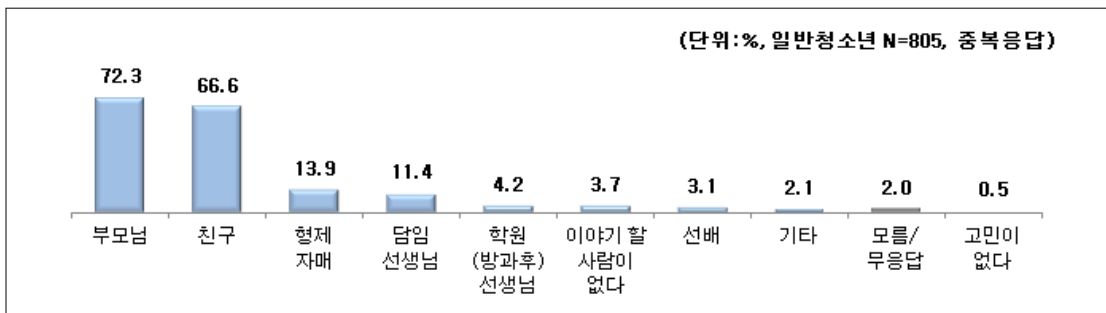
(단위: %, 탈북청소년 N=201,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부모님	남한 친구	탈북 친구	담임 선생님	상대 없음	형제 자매	선배	학원 선생님	기타	모름/무응답	고민이 없다	
전체	201	50.7	45.8	17.9	17.4	7.5	7.0	4.5	4.5	3.0	5.0	0.5	
성별	남학생	108	49.1	49.1	20.4	13.0	8.3	6.5	3.7	1.9	7.4	0.0	
	여학생	93	52.7	41.9	15.1	22.6	6.5	7.5	5.4	7.5	4.3	2.2	1.1
출생년도	1989~1996년	9	22.2	11.1	22.2	66.7	0.0	0.0	11.1	0.0	11.1	0.0	
	1997~1998년	38	63.2	42.1	26.3	15.8	2.6	2.6	5.3	7.9	2.6	5.3	0.0
	1999~2000년	94	45.7	47.9	18.1	17.0	8.5	8.5	5.3	4.3	3.2	3.2	1.1
	2001~2002년	59	55.9	49.2	11.9	11.9	10.2	8.5	1.7	3.4	1.7	6.8	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출생지역	북한	112	42.9	42.0	23.2	20.5	6.3	8.9	5.4	4.5	2.7	7.1	0.9

	중국	88	60.2	50.0	11.4	13.6	9.1	4.5	3.4	4.5	3.4	2.3	0.0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입국 년도	2000~2005년	20	70.0	80.0	0.0	15.0	5.0	10.0	0.0	5.0	0.0	0.0	0.0
	2006~2007년	35	54.3	45.7	20.0	17.1	8.6	2.9	2.9	0.0	5.7	5.7	0.0
	2008~2009년	48	56.3	58.3	18.8	8.3	8.3	8.3	4.2	6.3	2.1	2.1	0.0
	2010~2011년	51	51.0	41.2	23.5	19.6	5.9	5.9	3.9	5.9	0.0	0.0	2.0
	2012~2013년	26	26.9	19.2	26.9	34.6	7.7	11.5	11.5	3.8	3.8	11.5	0.0
	모름/무응답	21	42.9	28.6	4.8	14.3	9.5	4.8	4.8	4.8	9.5	19.0	0.0
	학교 유형	일반초	80	55.0	53.8	18.8	12.5	6.3	10.0	2.5	2.5	1.3	5.0
일반중	62	58.1	51.6	17.7	12.9	8.1	3.2	0.0	6.5	1.6	3.2	0.0	
대안학교	59	37.3	28.8	16.9	28.8	8.5	6.8	11.9	5.1	6.8	6.8	1.7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36.4	15.2	15.2	36.4	12.1	12.1	12.1	3.0	3.0	9.1	0.0
	1년이상~3년미만	43	44.2	41.9	27.9	18.6	2.3	4.7	7.0	7.0	2.3	2.3	2.3
	3년이상~5년미만	49	46.9	57.1	18.4	8.2	10.2	8.2	2.0	2.0	2.0	4.1	0.0
	5년 이상	73	63.0	53.4	12.3	15.1	6.8	5.5	1.4	4.1	4.1	5.5	0.0
	모름/무응답	3	66.7	66.7	33.3	0.0	0.0	0.0	0.0	33.3	0.0	0.0	0.0

## ② 일반(남한)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66.6%), 형제자매(13.9%), 담임선생님(11.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고민 의논 상대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부모님’과 의논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라는 응답은 여학생, 중학생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일반(남한)청소년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단위: %, 일반청소년 N=805,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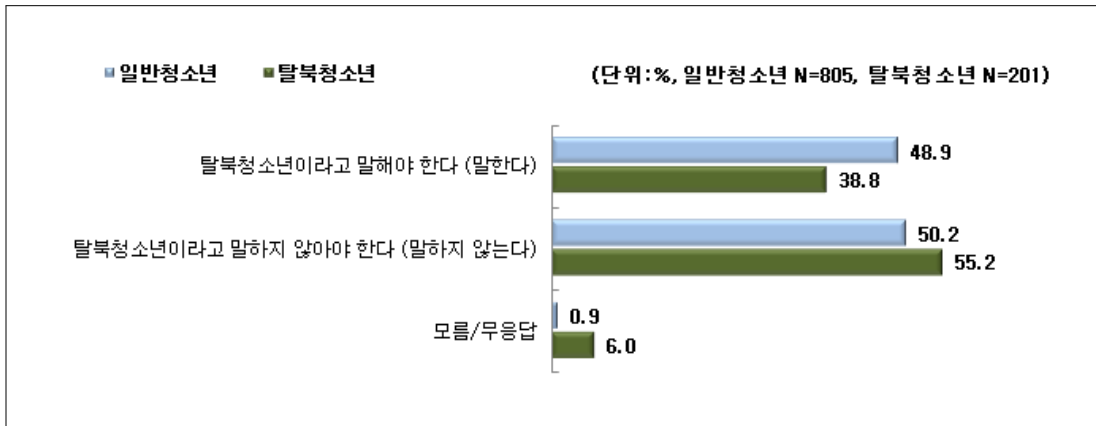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부모님	친구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원 선생님	상대 없음	선배	기타	모름/ 무응답	고민이 없다	
전체	(805)	72.3	66.6	13.9	11.4	4.2	3.7	3.1	2.1	2.0	0.5	
성별	남학생	(416)	74.3	61.3	12.0	14.7	4.8	3.6	2.2	1.0	1.9	0.5
	여학생	(389)	70.2	72.2	15.9	8.0	3.6	3.9	4.1	3.3	2.1	0.5
학교급	초등학교	(306)	77.8	58.2	15.7	15.7	1.6	2.6	1.3	2.9	2.3	1.3
	중 학교	(499)	68.9	71.7	12.8	8.8	5.8	4.4	4.2	1.6	1.8	0.0
성적	못하는 편	(145)	61.4	66.9	15.2	9.7	0.7	9.0	3.4	2.8	2.1	0.7
	보통	(389)	70.4	64.8	17.0	11.8	4.9	3.1	3.1	1.8	2.6	0.0
	잘하는 편	(269)	81.0	69.1	8.9	11.5	5.2	1.9	3.0	1.9	1.1	1.1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50.0	0.0	0.0	0.0	50.0	0.0	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41)	48.8	65.9	26.8	14.6	0.0	9.8	4.9	7.3	0.0	0.0
	보통	(469)	70.4	69.3	12.8	10.7	4.5	3.8	4.1	2.3	1.3	0.6
	넉넉한 편	(294)	78.6	62.2	13.9	12.2	4.4	2.7	1.4	1.0	3.4	0.3
	모름/무응답	(1)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 6) 탈북청소년 공개여부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인식 및 이유

#### ① 탈북청소년 공개 여부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는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이상(55.2%)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3정도(38.8%)만이 ‘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남한)청소년** 역시 과반수

(50.2%)가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수정도(48.9%)인 것으로 나타나 두 의견 차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0】 탈북청소년 공개 여부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응답은 남학생, 북한 출생, 중학생, 경상도지역,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학생, 중국 출생, 초등학생, 충청도지역,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생지, 학교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36 탈북청소년 공개에 대한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단위: %, 탈북청소년 N=201)

구 분	사례수	말한다	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전체	$\chi^2$ / 유의도
전체	(201)	38.8	55.2	6.0	100.0	-

성별	남학생	(108)	40.7	50.0	9.3	100.0	5.608 0.061
	여학생	(93)	36.6	61.3	2.2	100.0	
출생지	북한	(112)	47.3	45.5	7.1	100.0	10,043 0.040
	중국	(88)	28.4	67.0	4.5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입국 년도	2000~2005년	(20)	30.0	70.0	0.0	100.0	22,963 0.011
	2006~2007년	(35)	45.7	51.4	2.9	100.0	
	2008~2009년	(48)	33.3	64.6	2.1	100.0	
	2010~2011년	(51)	43.1	52.9	3.9	100.0	
	2012~2013년	(26)	53.8	30.8	15.4	100.0	
	모름/무응답	(21)	19.0	61.9	19.0	100.0	
학교 급	초5~6학년	(91)	30.8	62.6	6.6	100.0	20,618 0.000
	중1~3학년	(109)	45.9	49.5	4.6	100.0	
	무응답	(1)	0.0	0.0	100.0	100.0	
지역	서울	(66)	39.4	57.6	3.0	100.0	4,033 0.672
	수도권(강원 포함)	(118)	38.1	53.4	8.5	100.0	
	충청권	(4)	25.0	75.0	0.0	100.0	
	경상권	(13)	46.2	53.8	0.0	10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45.5	39.4	15.2	100.0	8,264 0.408
	1년 이상~3년 미만	(43)	39.5	55.8	4.7	100.0	
	3년 이상~5년 미만	(49)	34.7	61.2	4.1	100.0	
	5년 이상	(73)	38.4	57.5	4.1	100.0	
	모름/무응답	(3)	33.3	66.7	0.0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53)	45.3	49.1	5.7	100.0	3,544 0.471
	보통	(119)	33.6	59.7	6.7	100.0	
	잘하는 편	(29)	48.3	48.3	3.4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31)	32.3	58.1	9.7	100.0	1,782 0.776
	보통	(132)	38.6	56.1	5.3	100.0	
	넉넉한 편	(38)	44.7	50.0	5.3	100.0	
자신의 정체성	한국사람	(78)	38.5	59.0	2.6	100.0	22,995 0.028
	북한사람	(9)	44.4	44.4	11.1	100.0	
	근본은 북한사람	(25)	40.0	60.0	0.0	100.0	
	동시에 북한사람	(24)	54.2	45.8	0.0	100.0	
	잘모름	(54)	31.5	53.7	14.8	100.0	
	기타	(9)	44.4	55.6	0.0	100.0	
	무응답	(2)	0.0	50.0	50.0	10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교, 서울지역,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탈북친구가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7 탈북청소년 자기공개에 대한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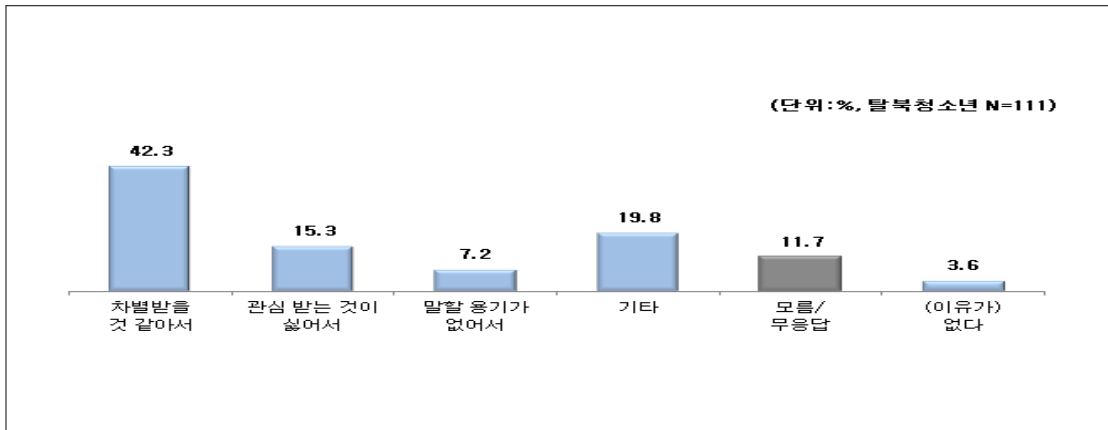
(단위: %, 일반청소년 N=805)

구 분		사례수	말해야 한다	말하지 않아야 한다	모름/무응답	전체	$\chi^2$ / 유의도
전체		(805)	48.9	50.2	0.9	100.0	-
성별	남학생	(416)	49.3	49.8	1.0	100.0	0.135
	여학생	(389)	48.6	50.6	0.8	100.0	0.935
학교급	초등학교	(306)	<b>54.6</b>	44.4	1.0	100.0	6.511
	중 학교	(499)	45.5	53.7	0.8	100.0	0.039
지역	서울	(138)	46.4	<b>52.9</b>	0.7	100.0	6.426 0.600
	수도권	(277)	50.5	48.0	1.4	100.0	
	충청권	(88)	47.7	52.3	0.0	100.0	
	전라권	(93)	49.5	48.4	2.2	100.0	
	경상권	(209)	48.8	51.2	0.0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145)	44.8	53.1	2.1	100.0	4.677 0.586
	보통	(389)	48.6	50.6	0.8	100.0	
	잘하는 편	(269)	51.7	48.0	0.4	100.0	
	무응답	(2)	50.0	50.0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41)	41.5	<b>58.5</b>	0.0	100.0	4.869 0.561
	보통	(469)	<b>51.2</b>	48.2	0.6	100.0	
	넉넉한 편	(294)	46.6	52.0	1.4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탈북 친구 여부	없다	(704)	<b>49.6</b>	49.7	0.7	100.0	6.968 0.138
	있다	(86)	44.2	<b>54.7</b>	1.2	100.0	
	모름/무응답	(15)	46.7	46.7	6.7	100.0	
탈북 청소년 정체성	한국사람	(133)	<b>51.9</b>	46.6	1.5	100.0	15.214 0.230
	북한사람	(237)	51.1	48.5	0.4	100.0	
	근본은 북한사람	(148)	48.0	51.4	0.7	100.0	
	동시에 북한사람	(193)	43.0	<b>56.5</b>	0.5	100.0	
	잘모름	(54)	46.3	50.0	3.7	100.0	
	기타	(39)	64.1	35.9	0.0	10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 ② 탈북청소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111)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정도(42.3%)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15.3%)’, ‘말할 용기가 없어서(7.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19.8%) 세부응답으로는 친구들이랑 멀어질까봐, 말하기 싫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1】 탈북청소년들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

‘차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여학생, 북한 출생, 2000~2005년 입국자집단, 초등학교, 한국학교 1년이상-5년미만 재학집단,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행각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2006~2007년 입국자집단, 자신의 정체성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할 용기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2010~2011년 입국자집단,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가정형편도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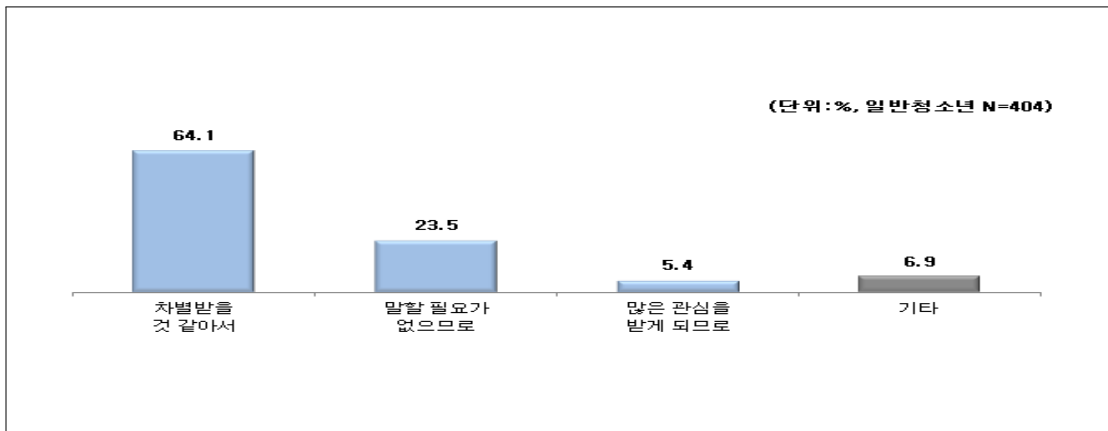
표 IV-38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탈북청소년

(단위: %, 탈북청소년 N=111)

구분	사례수	차별받을 것 같아서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	말할 용기가 없어서	기타	무응답	없다	전체	$\chi^2$ /유의도	
전체	(111)	42.3	15.3	7.2	19.8	11.7	3.6	100.0	-	
성별	남학생	(54)	37.0	14.8	7.4	24.1	14.8	1.9	100.0	3.442
	여학생	(57)	47.4	15.8	7.0	15.8	8.8	5.3	100.0	0.632
출생지	북한	(51)	51.0	17.6	3.9	17.6	9.8	0.0	100.0	32.860 0.000
	중국	(59)	35.6	13.6	10.2	22.0	13.6	5.1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0.0	0.0	100.0	100.0	
입국 년도	2000~2005년	(14)	57.1	7.1	14.3	21.4	0.0	0.0	100.0	36.456 0.065
	2006~2007년	(18)	27.8	33.3	0.0	11.1	22.2	5.6	100.0	
	2008~2009년	(31)	48.4	9.7	0.0	19.4	16.1	6.5	100.0	
	2010~2011년	(27)	44.4	11.1	18.5	22.2	3.7	0.0	100.0	
	2012~2013년	(8)	12.5	25.0	12.5	5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13)	46.2	15.4	0.0	7.7	23.1	7.7	100.0	
학교급 /학년	초5~6학년	(57)	47.4	12.3	7.0	17.5	14.0	1.8	100.0	3.367 0.644
	중1~3학년	(54)	37.0	18.5	7.4	22.2	9.3	5.6	100.0	
	모름/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100.0	
학교 소재지	서울	(38)	47.4	15.8	10.5	10.5	13.2	2.6	100.0	24.598 0.056
	수도권(강원 포함)	(63)	39.7	17.5	3.2	27.0	7.9	4.8	100.0	
	충청권	(3)	0.0	0.0	0.0	33.3	66.7	0.0	10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경상권	(7)	57.1	0.0	28.6	0.0	14.3	0.0	100.0	31.610 0.048
	1년 미만	(13)	30.8	23.1	15.4	30.8	0.0	0.0	100.0	
	1년~3년 미만	(24)	50.0	4.2	12.5	29.2	4.2	0.0	100.0	
	3년~5년 미만	(30)	50.0	20.0	0.0	10.0	20.0	0.0	100.0	
	5년 이상	(42)	38.1	14.3	4.8	19.0	14.3	9.5	100.0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26)	26.9	15.4	11.5	26.9	11.5	7.7	100.0	12.894 0.230
	보통	(71)	46.5	16.9	2.8	19.7	11.3	2.8	100.0	
	잘하는 편	(14)	50.0	7.1	21.4	7.1	14.3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18)	55.6	22.2	5.6	11.1	0.0	5.6	100.0	9.300 0.504
	보통	(74)	37.8	14.9	5.4	23.0	14.9	4.1	100.0	
	넉넉한 편	(19)	47.4	10.5	15.8	15.8	10.5	0.0	100.0	
자신의 정체성	한국사람	(46)	41.3	17.4	4.3	15.2	15.2	6.5	100.0	26.452 0.652
	북한사람	(4)	50.0	25.0	0.0	25.0	0.0	0.0	100.0	
	근본은 북한사람	(15)	46.7	6.7	0.0	40.0	6.7	0.0	100.0	
	동시에 북한사람	(11)	54.5	18.2	9.1	18.2	0.0	0.0	100.0	
	잘모름	(29)	41.4	10.3	13.8	17.2	13.8	3.4	100.0	
	기타	(5)	20.0	40.0	20.0	20.0	0.0	0.0	100.0	
	무응답	(1)	0.0	0.0	0.0	0.0	100.0	0.0	10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404)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⅔정도(64.1%)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23.5%),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6.9%)의 세부응답으로는 한민족(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2】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차별 받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은 충청권 및 경상권, 탈북친구가 없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라는 응답은 서울,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탈북친구가 있는,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라는 응답은 전라도지역,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탈북친구여부,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39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일반(남한)청소년

(단위: %, 일반청소년 N=404)

구분	사례수	차별받을 것 같아서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	기타	전체	$\chi^2$ /유의도
전체	(404)	64.1	23.5	5.4	6.9	100.0	-
성별	남학생 (207)	60.9	25.6	5.3	8.2	100.0	2.503 0.475
	여학생 (197)	67.5	21.3	5.6	5.6	100.0	
학교급	초5~6학년 (136)	66.9	18.4	5.1	9.6	100.0	4.625 0.201
	중1~3학년 (268)	62.7	26.1	5.6	5.6	100.0	
지역	서울 (73)	49.3	31.5	5.5	13.7	100.0	23.624 0.023
	수도권 (133)	63.9	25.6	6.8	3.8	100.0	
	충청권 (46)	71.7	19.6	2.2	6.5	100.0	
	전라권 (45)	64.4	15.6	13.3	6.7	100.0	
	경상권 (107)	71.0	20.6	1.9	6.5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77)	68.8	11.7	7.8	11.7	100.0	15.337 0.082
	보통 (197)	66.0	23.4	5.1	5.6	100.0	
	잘하는 편 (129)	58.9	30.2	4.7	6.2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24)	58.3	12.5	8.3	20.8	100.0	10.425 0.317
	보통 (226)	65.9	22.6	5.3	6.2	100.0	
	넉넉한 편 (153)	62.1	26.8	5.2	5.9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탈북 친구 여부	없다 (350)	66.6	21.4	6.3	5.7	100.0	18.762 0.005
	있다 (47)	44.7	40.4	0.0	14.9	100.0	
	모름/무응답 (7)	71.4	14.3	0.0	14.3	100.0	
탈북 청소년 정체성	한국사람 (62)	53.2	29.0	1.6	16.1	100.0	45.037 0.000
	북한사람 (115)	72.2	20.9	3.5	3.5	100.0	
	근본 북한사람 (76)	69.7	17.1	9.2	3.9	100.0	
	동시 북한사람 (109)	61.5	27.5	5.5	5.5	100.0	
	잘모름 (27)	55.6	25.9	14.8	3.7	100.0	
	기타 (14)	57.1	21.4	0.0	21.4	100.0	
	무응답 (1)	0.0	0.0	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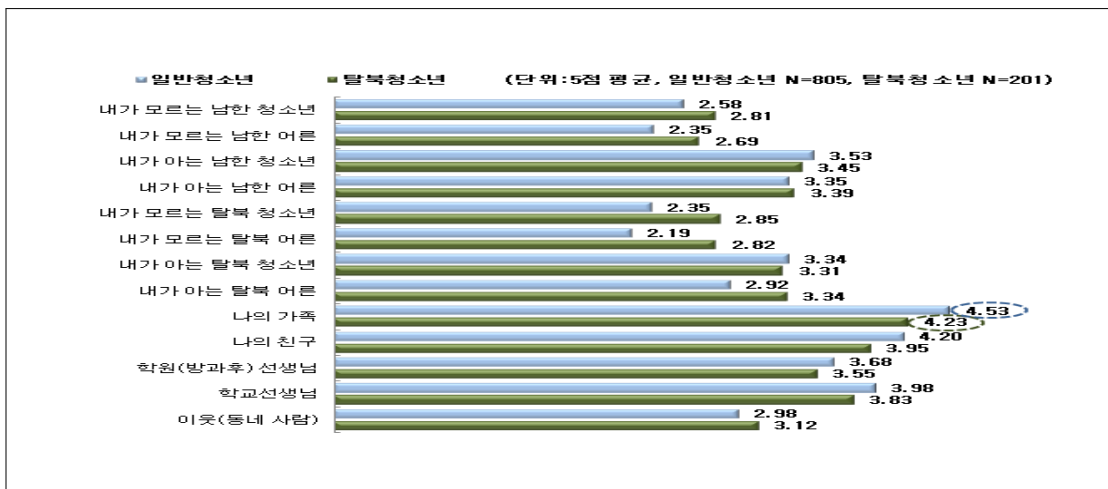
### 2-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응집)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응집)수준은 크게, 주변사람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공동체 참여수준, 공동규범 및 가치 인식수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등의 네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 및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3항목에 대해 5점 척도(40)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나의 가족(4.23)’을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은 2.69)’을 가장 못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은 ‘나의 가족(4.53점)’과 ‘나의 친구(4.20점)’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 내가 모르는 탈북청소년(2.35)’, ‘내가 모르는 탈북 어른(2.19점)’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40) 평균 점수는 전혀 믿지 못한다(1), 믿지 못한다(2), 보통(3), 믿는다(4), 많이 믿는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이하 동).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은 내가 모르는 남한청소년과 남한어른, 내가 모르는 탈북청소년과 어른, 내가 아는 탈북어른, 이웃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학교선생님에 대해서는 탈북청소년에 비해 일반(남한)청소년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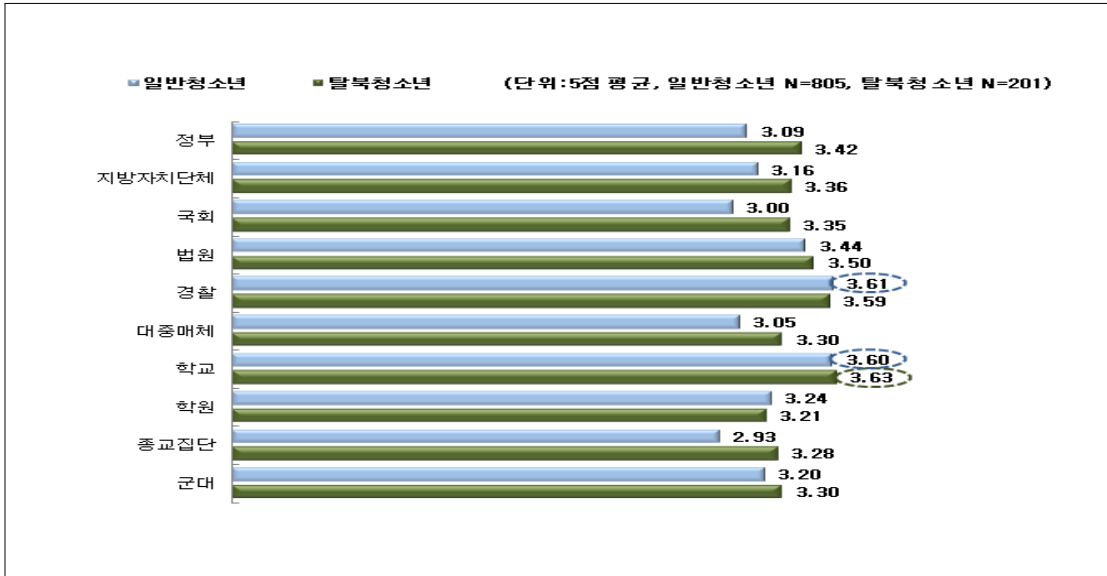
표 IV-40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평균	남한청소년평균	평균차이1	t	Sig.	SD
내가 모르는 남한 청소년	2.81	2.58	.227	3.286	.001	.069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	2.69	2.35	.342	4.750	.000	.072
내가 아는 남한 청소년	3.45	3.53	-.080	-1.140	.255	.070
내가 아는 남한 어른	3.39	3.35	.039	.528	.598	.073
내가 모르는 탈북 청소년	2.85	2.35	.500	7.394	.000	.068
내가 모르는 탈북 어른	2.82	2.19	.621	8.984	.000	.069
내가 아는 탈북 청소년	3.31	3.34	-.039	-.367	.714	.106
내가 아는 탈북 어른	3.34	2.92	.419	4.391	.000	.095
나의 가족	4.22	4.53	-.307	-4.772	.000	.064
나의 친구	3.95	4.20	-.248	-3.721	.000	.067
학원 (방과후) 선생님	3.55	3.68	-.124	-1.721	.085	.072
학교 선생님	3.83	3.98	-.156	-2.245	.025	.070
이웃 (동네 사람)	3.12	2.98	.147	2.031	.043	.072

1) 전혀 믿지 못한다(1), 믿지 못한다(2), 보통(3), 믿는다(4), 많이 믿는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생활주변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0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3.63)’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3.59)’, ‘법원(3.50)’, ‘정부(3.42)’, ‘지방자치단체(3.36)’, ‘국회(3.35)’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은 ‘경찰(3.61)’을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3.60)’, ‘법원(3.44)’, ‘학원(3.24)’, ‘군대(3.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 신뢰수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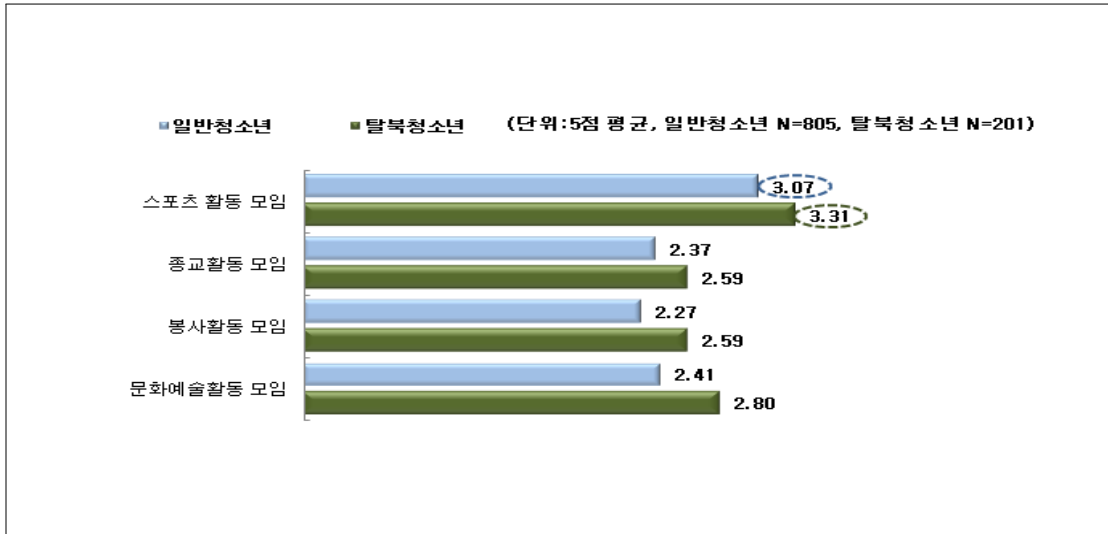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대중매체, 종교집단에서 일반(남한)청소년에 비해 탈북청소년의 신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4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항 목	탈북청소년평균	남한청소년평균	평균차이 <sup>1)</sup>	t	Sig.	SD
정부	3.42	3.09	.323	4.108	.000	.079
지방자치단체	3.36	3.16	.202	2.722	.007	.074
국회	3.35	3.00	.343	4.911	.000	.070
법원	3.50	3.44	.050	.705	.481	.071
경찰	3.59	3.61	-.022	-.280	.780	.078
대중매체	3.30	3.05	.255	3.555	.000	.072
학교	3.63	3.60	.025	.370	.711	.068
학원	3.21	3.24	-.029	-.417	.677	.071
종교집단	3.28	2.93	.348	4.231	.000	.082
군대	3.30	3.20	.108	1.594	.112	.068

1) 전혀 믿지 못한다(1점), 믿지 못한다(2점), 보통(3점), 믿는다(4점), 많이 믿는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체 참여수준



【그림 IV-1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체활동 참여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4영역의 공동체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5점 척도<sup>41)</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3.31)과 일반(남한)청소년(3.07) 모두 스포츠활동모임에의 참여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일반(남한)청소년보다 탈북청소년의 공동체활동 참여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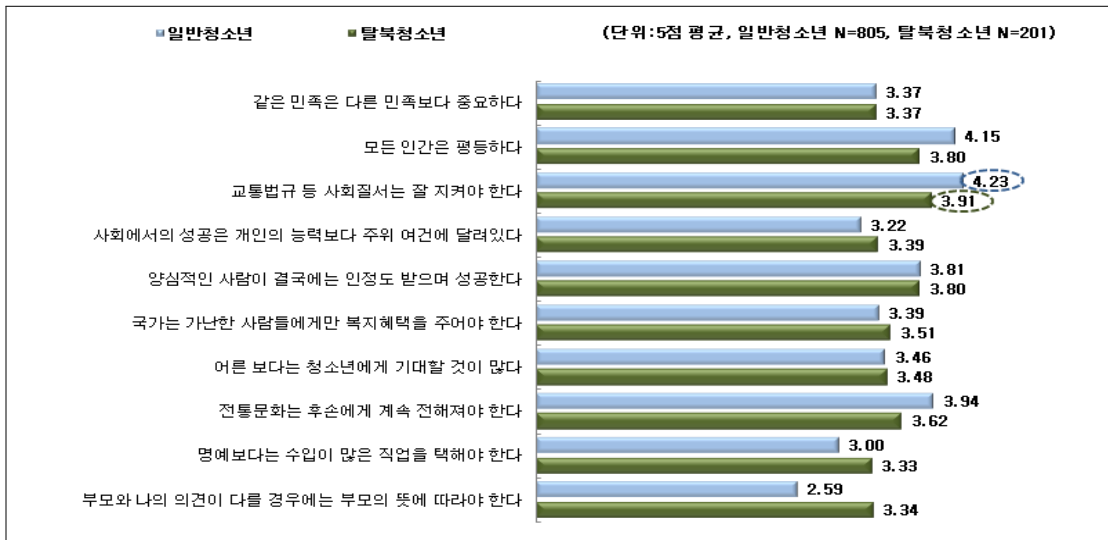
##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10항목에 대해 5점 척도<sup>42)</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3.9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양심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도 받으며 성공한다(3.80)’,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41)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참가 안함(1), 일년에 한두번참가(2), 세달에 한두번 참가(3), 한달에 한두번 참가(4), 일주일에 한 번 이상참가(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42)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전해져야 한다(3.6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 역시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는 항목이 4.2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4.15)’,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3.94)’, ‘양심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도 받으며 성공한다(3.80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6】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

###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직업선택 시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는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등의 도덕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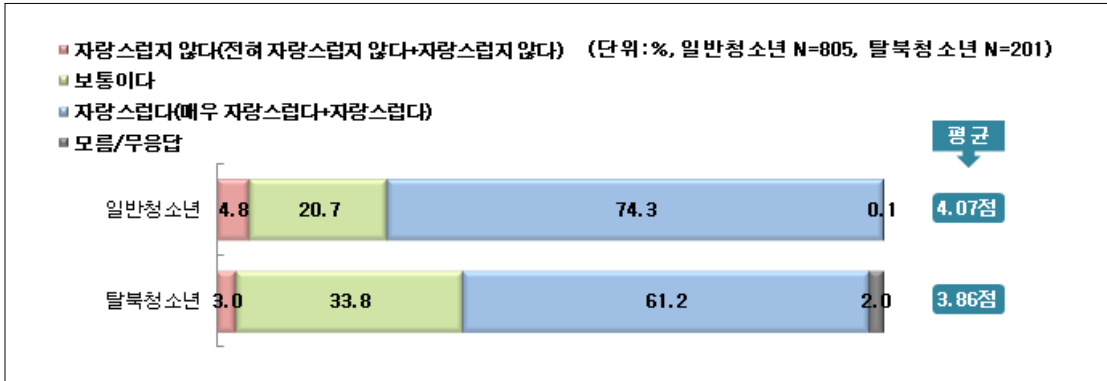
표 IV-4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 평균	남한청소년 평균	평균차이	t	Sig.	Std. Error Difference
같은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중요하다	3.37	3.37	.003	.040	.968	.075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3.80	4.15	-.351	-4.853	.000	.072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3.91	4.23	-.316	-5.266	.000	.060
사회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 주위여 건에 달려있다	3.39	3.22	.175	2.428	.016	.072
양심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도 받으며 성공한다	3.80	3.81	-.010	-.137	.891	.073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 어야 한다	3.51	3.39	.119	1.579	.115	.076
어른 보다는 청소년에게 기대할 것이 많다	3.48	3.46	.021	.285	.776	.073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 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3.62	3.94	-.315	-4.687	.000	.067
명예보다는 수입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3.33	3.00	.333	4.458	.000	.075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 에 따라야 한다	3.34	2.59	.751	9.114	.000	.082

#### 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및 이민에 대한 인식수준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⅓정도(61,2%)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남한)청소년은 ⅔정도(74,3%)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탈북청소년(3.0%)에 비해 일반(남한)청소년(4.8%)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국민 자긍심에 대한 인식수준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000~2005년 입국자, 한국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입국년도, 한국학교 재학기간, 성적,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5$ ).

표 IV-43 탈북청소년들의 한국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단위: %, 탈북청소년 N=201)

구분	사례수	자랑스럽지 않다	보통이다	자랑스럽다	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201)	3.0	33.8	61.2	2.0	100.0	-
성별	남학생 (108)	1.9	32.4	63.0	2.8	100.0	3.567
	여학생 (93)	4.3	35.5	59.1	1.1	100.0	0.060
출생지	북한 (112)	1.8	30.4	64.3	3.6	100.0	0.570 0.567
	중국 (88)	4.5	37.5	58.0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100.0	
입국년도	2000~2005년 (20)	0.0	15.0	85.0	0.0	100.0	2.994 0.013
	2006~2007년 (35)	2.9	31.4	65.7	0.0	100.0	
	2008~2009년 (48)	2.1	25.0	72.9	0.0	100.0	
	2010~2011년 (51)	3.9	45.1	49.0	2.0	100.0	
	2012~2013년 (26)	3.8	42.3	46.2	7.7	100.0	
	모름/무응답 (21)	4.8	38.1	52.4	4.8	100.0	

학교 급	초등학교	(91)	2.2	30.8	64.8	2.2	100.0	1.316 0.271
	중학교	(109)	3.7	36.7	57.8	1.8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지역	서울	(66)	1.5	31.8	65.2	1.5	100.0	0.904 0.440
	경기/강원	(118)	4.2	34.7	58.5	2.5	100.0	
	충청권	(4)	0.0	25.0	75.0	0.0	100.0	
	경상권	(13)	0.0	38.5	61.5	0.0	10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6.1	42.4	45.5	6.1	100.0	3.055 0.018
	1년 이상~3년 미만	(43)	4.7	41.9	48.8	4.7	100.0	
	3년 이상~5년 미만	(49)	2.0	34.7	63.3	0.0	100.0	
	5년 이상	(73)	1.4	24.7	74.0	0.0	100.0	
	모름/무응답	(3)	0.0	33.3	66.7	0.0	100.0	
성적	못하는 편	(53)	5.7	37.7	54.7	1.9	100.0	3.168 0.044
	보통	(119)	1.7	36.1	59.7	2.5	100.0	
	잘하는 편	(29)	3.4	17.2	79.3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31)	3.2	41.9	51.6	3.2	100.0	1.525 0.220
	보통	(132)	2.3	32.6	63.6	1.5	100.0	
	넉넉한 편	(38)	5.3	31.6	60.5	2.6	100.0	
자신 정체 성	한국사람	(78)	2.6	21.8	75.6	0.0	100.0	2.300 0.036
	북한사람	(9)	0.0	55.6	44.4	0.0	100.0	
	근본은 북한사람	(25)	4.0	32.0	64.0	0.0	100.0	
	동시에 북한사람	(24)	0.0	45.8	54.2	0.0	100.0	
	잘모름	(54)	3.7	42.6	48.1	5.6	100.0	
	기타	(9)	11.1	44.4	44.4	0.0	100.0	
	무응답	(2)	0.0	0.0	50.0	50.0	10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남학생, 중학교, 경기도,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탈북친구가 있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급( $p<.001$ ), 성적( $p<.05$ ), 가정형편( $p<.01$ ), 탈북친구 여부( $p<.05$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4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국민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단위: %, 일반청소년 N=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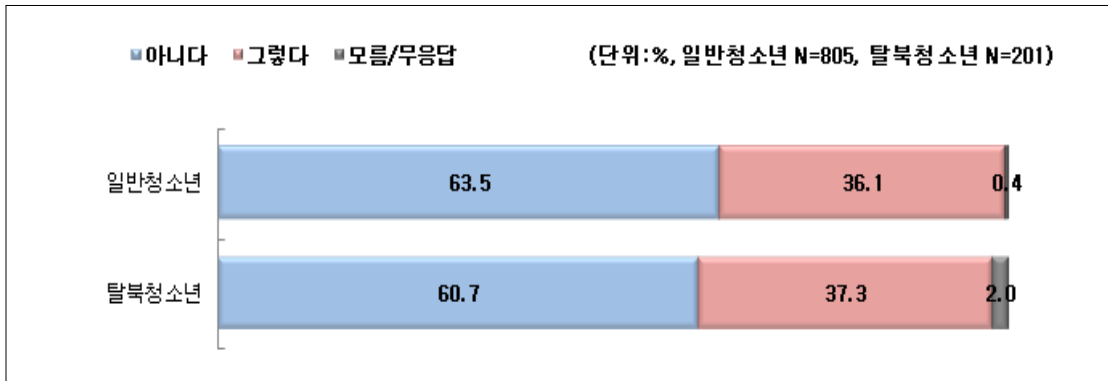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랑스럽지 않다	보통	자랑스럽다	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805)	4.8	20.7	74.3	0.1	100.0	-
성별	남학생 (416)	5.8	20.9	73.1	0.2	100.0	0.127
	여학생 (389)	3.9	20.6	75.6	0.0	100.0	0.721
학교급	초등학교 (306)	3.3	9.8	86.6	0.3	100.0	99.623
	중학교 (499)	5.8	27.5	66.7	0.0	100.0	0.000
학교소재지	서울 (138)	5.1	18.8	75.4	0.7	100.0	0.784 0.536
	수도권 (277)	6.1	21.3	72.6	0.0	100.0	
	충청권 (88)	2.3	15.9	81.8	0.0	100.0	
	전라권 (93)	3.2	17.2	79.6	0.0	100.0	
	경상권 (209)	4.8	24.9	70.3	0.0	100.0	
성적	못하는 편 (145)	8.3	28.3	63.4	0.0	100.0	3.179 0.023
	보통 (389)	3.1	22.6	74.0	0.3	100.0	
	잘하는 편 (269)	5.6	14.1	80.3	0.0	100.0	
	모름/무응답 (2)	0.0	0.0	100.0	0.0	100.0	
가정형편	어려운 편 (41)	7.3	34.1	58.5	0.0	100.0	4.685 0.003
	보통 (469)	5.3	22.4	72.1	0.2	100.0	
	넉넉한 편 (294)	3.7	16.3	79.9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100.0	0.0	100.0	
탈북친구여부	없다 (704)	4.8	21.9	73.2	0.1	100.0	4.077 0.017
	있다 (86)	5.8	12.8	81.4	0.0	100.0	
	모름/무응답 (15)	0.0	13.3	86.7	0.0	100.0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 및 이유에 대한 인식

①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일반(남한)청소년(36.1%) 보다 탈북청소년(37.3%)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75)과 일반(남한)청소년(N=291)에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N=75)의 %정도(60.0%)와 일반(남한)청소년(N=291)의 과반수정도(45.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V-18】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에 대한 인식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청소년 중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한 ‘아니다’는 응답은 초등학교,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중학생, 공부를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자신이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신의 정체성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p < .01$ )를 보였다.

표 IV-45 탈북청소년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에 대한 인식

(단위: %, 탈북청소년 N=201)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201)	60.7	37.3	2.0	100.0	-	
성별	남학생	(108)	60.2	37.0	2.8	100.0	0.743
	여학생	(93)	61.3	37.6	1.1	100.0	0.690
출생지	북한	(112)	56.3	41.1	2.7	100.0	4.354

	중국	(88)	67.0	31.8	1.1	100.0	0.36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입국 년도	2000~2005년	(20)	55.0	45.0	0.0	100.0	9.790 0.459
	2006~2007년	(35)	71.4	28.6	0.0	100.0	
	2008~2009년	(48)	58.3	41.7	0.0	100.0	
	2010~2011년	(51)	56.9	39.2	3.9	100.0	
	2012~2013년	(26)	73.1	23.1	3.8	100.0	
	모름/무응답	(21)	47.6	47.6	4.8	100.0	
학교급 /학년	초5~6학년	(91)	67.0	30.8	2.2	100.0	3.885 0.422
	중1~3학년	(109)	55.0	43.1	1.8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100.0	
학교 소재지	서울	(66)	65.2	33.3	1.5	100.0	3.660 0.723
	수도권(강원 포함)	(118)	55.9	41.5	2.5	100.0	
	충청권	(4)	75.0	25.0	0.0	100.0	
	경상권	(13)	76.9	23.1	0.0	10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66.7	30.3	3.0	100.0	6.391 0.604
	1년 이상~3년 미만	(43)	48.8	46.5	4.7	100.0	
	3년 이상~5년 미만	(49)	59.2	38.8	2.0	100.0	
	5년 이상	(73)	65.8	34.2	0.0	100.0	
	모름/무응답	(3)	66.7	33.3	0.0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53)	50.9	47.2	1.9	100.0	3.944 0.414
	보통	(119)	64.7	32.8	2.5	100.0	
	잘하는 편	(29)	62.1	37.9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31)	51.6	41.9	6.5	100.0	6.858 0.144
	보통	(132)	59.8	39.4	0.8	100.0	
	넉넉한 편	(38)	71.1	26.3	2.6	100.0	
자신의 정체성	한국사람	(78)	71.8	28.2	0.0	100.0	27.664 0.006
	북한사람	(9)	66.7	33.3	0.0	100.0	
	근본은 북한사람	(25)	64.0	36.0	0.0	100.0	
	동시에 북한사람	(24)	37.5	62.5	0.0	100.0	
	잘모름	(54)	46.3	46.3	7.4	100.0	
	기타	(9)	88.9	11.1	0.0	100.0	
	무응답	(2)	100.0	0.0	0.0	10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일반(남한)청소년 중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아니다’라는 응답은

초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는 응답은 중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01).

**표 IV-46 일반(남한)청소년의 이민의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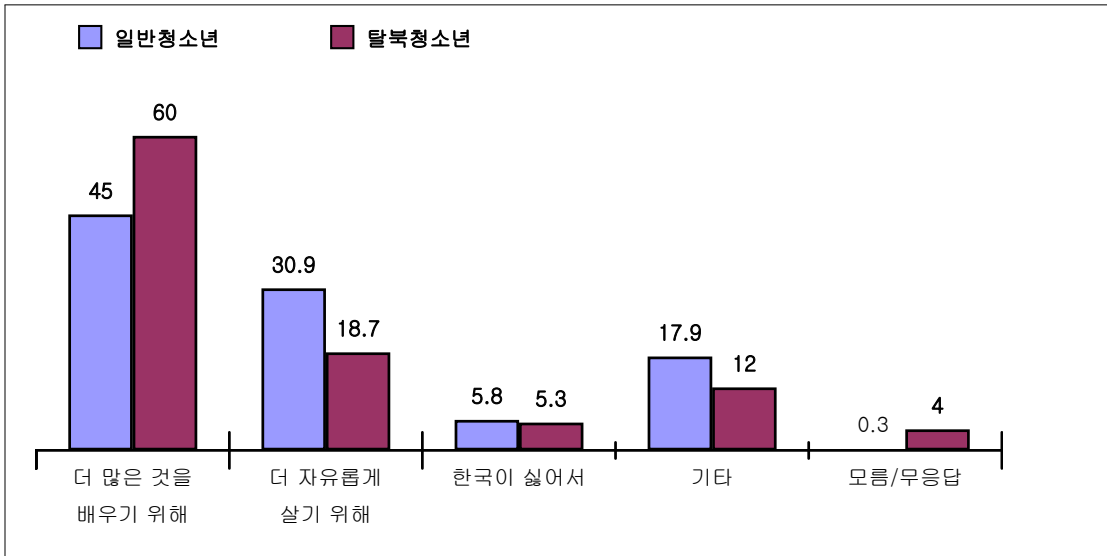
(단위: %, 일반청소년 N=805)

구분	사례수	아니다	그렇다	모름/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805)	63.5	36.1	0.4	100.0	-	
성별	남학생	(416)	63.5	36.1	0.5	100.0	0.272
	여학생	(389)	63.5	36.2	0.3	100.0	0.873
학교급	초등학교	(306)	<b>71.6</b>	27.5	1.0	100.0	20.314
	중학교	(499)	58.5	<b>41.5</b>	0.0	100.0	0.000
지역	서울	(138)	58.0	40.6	1.4	100.0	10.864 0.210
	수도권	(277)	62.8	37.2	0.0	100.0	
	충청권	(88)	64.8	35.2	0.0	100.0	
	전라권	(93)	62.4	36.6	1.1	100.0	
	경상권	(209)	67.9	32.1	0.0	100.0	
성적	못하는 편	(145)	63.4	36.6	0.0	100.0	4.412 0.621
	보통	(389)	63.5	35.7	0.8	100.0	
	잘하는 편	(269)	63.2	36.8	0.0	100.0	
	모름/무응답	(2)	100.0	0.0	0.0	100.0	
가정형편	어려운 편	(41)	61.0	39.0	0.0	100.0	4.167 0.654
	보통	(469)	63.1	36.2	0.6	100.0	
	넉넉한 편	(294)	<b>64.6</b>	35.4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100.0	
탈북친구여부	없다	(704)	64.2	35.5	0.3	100.0	2.994 0.559
	있다	(86)	59.3	39.5	1.2	100.0	
	모름/무응답	(15)	53.3	46.7	0.0	100.0	

②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 중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75)과 일반(남한)청소년(N=291)에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N=75)의 60%정도와 일반(남한)청소년(N=291)의 과반수정도(45.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IV-19】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이유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75)에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60%정도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18.7%)’, ‘한국이 싫어서(5.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는 12.0%로 이에 대한 세부응답으로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엄마, 아빠가 다른 곳에 있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내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리움 때문에, 다른 문화를 더 경험해 보고 싶어서(가보고 싶어서), 아이들이 괴롭혀서 등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북한 출생, 공부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은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중국 출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할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이 싫어서’라는 응답은 남학생, 북한출생, 한국학교 재학기간 1년미만, 자신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출생지에 따른 차이(p<.05) 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7 탈북청소년의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단위: %, 탈북청소년 N=75)

구분	사례수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한국이 싫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75)	60.0	18.7	5.3	12.0	4.0	100.0	-	
성별	남학생	(40)	60.0	20.0	10.0	5.0	5.0	100.0	7.296
	여학생	(35)	60.0	17.1	0.0	20.0	2.9	100.0	0.121
출생지	북한	(46)	67.4	13.0	6.5	13.0	0.0	100.0	16.342 0.038
	중국	(28)	50.0	28.6	3.6	7.1	10.7	100.0	
	모름/무응답	(1)	0.0	0.0	0.0	100.0	0.0	100.0	
입국 년도	2000~2005년	(9)	55.6	22.2	0.0	11.1	11.1	100.0	22.997 0.289
	2006~2007년	(10)	60.0	20.0	0.0	20.0	0.0	100.0	
	2008~2009년	(20)	70.0	15.0	0.0	10.0	5.0	100.0	
	2010~2011년	(20)	65.0	10.0	5.0	15.0	5.0	100.0	
	2012~2013년	(6)	50.0	50.0	0.0	0.0	0.0	100.0	
	모름/무응답	(10)	40.0	20.0	30.0	10.0	0.0	100.0	
학교급	초5~6학년	(28)	60.7	17.9	7.1	7.1	7.1	100.0	2.276 0.685
	중1~3학년	(47)	59.6	19.1	4.3	14.9	2.1	100.0	
	모름/무응답	(0)	0.0	0.0	0.0	0.0	0.0	100.0	
지역	서울	(22)	68.2	13.6	4.5	13.6	0.0	100.0	4.060 0.982
	수도권(강원 포함)	(49)	55.1	20.4	6.1	12.2	6.1	100.0	
	충청권	(1)	100.0	0.0	0.0	0.0	0.0	100.0	
	경상권	(3)	66.7	33.3	0.0	0.0	0.0	10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10)	40.0	30.0	30.0	0.0	0.0	100.0	19.669 0.236
	1년~3년 미만	(20)	65.0	10.0	5.0	15.0	5.0	100.0	
	3년~5년 미만	(19)	68.4	15.8	0.0	10.5	5.3	100.0	
	5년 이상	(25)	56.0	24.0	0.0	16.0	4.0	10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성적	못하는 편	(25)	56.0	16.0	12.0	12.0	4.0	100.0	6.531 0.588
	보통	(39)	59.0	23.1	0.0	12.8	5.1	100.0	
	잘하는 편	(11)	72.7	9.1	9.1	9.1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13)	38.5	30.8	15.4	7.7	7.7	100.0	7.927 0.441
	보통	(52)	63.5	17.3	1.9	13.5	3.8	100.0	
	넉넉한 편	(10)	70.0	10.0	10.0	10.0	0.0	100.0	
자신의 정체성	한국사람	(22)	59.1	18.2	0.0	18.2	4.5	100.0	19.450 0.493
	북한사람	(3)	33.3	33.3	33.3	0.0	0.0	100.0	
	근본은 북한사람	(9)	55.6	11.1	0.0	33.3	0.0	100.0	
	동시에 북한사람	(15)	73.3	13.3	13.3	0.0	0.0	100.0	
	잘모름	(25)	56.0	24.0	4.0	8.0	8.0	100.0	
	기타	(1)	100.0	0.0	0.0	0.0	0.0	100.0	
	무응답	(0)	0.0	0.0	0.0	0.0	10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291)에게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과반수정도(45.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30.9%)’, ‘한국이 싫어서(5.8%)’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17.9%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세부응답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싫어서, 교육때문에, 여행하고 싶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싶은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는 응답은 초등학교, 전라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중학생,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48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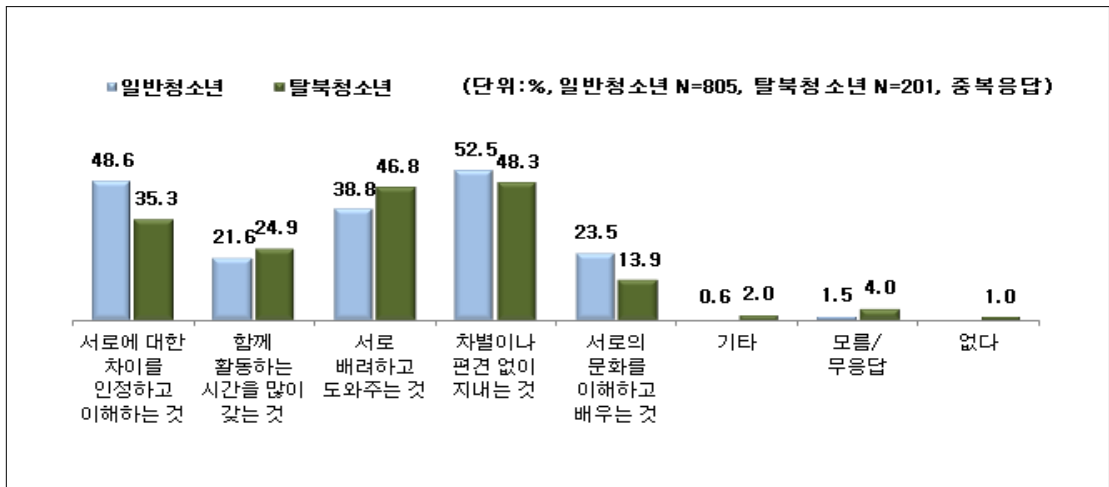
(단위: %, 일반청소년 N=291)

구 분	사례수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한국이 싫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F/유의도
전체	(291)	45.0	30.9	5.8	17.9	0.3	100.0	-
성별	남학생 (150)	40.7	34.7	4.7	19.3	0.7	100.0	4.744 0.315
	여학생 (141)	49.6	27.0	7.1	16.3	0.0	100.0	
학교 급	초등학교 (84)	53.6	22.6	4.8	19.0	0.0	100.0	5.289 0.259
	중학교 (207)	41.5	34.3	6.3	17.4	0.5	100.0	
지역	서울 (56)	32.1	39.3	8.9	17.9	1.8	100.0	24.532 0.079
	수도권 (103)	42.7	32.0	5.8	19.4	0.0	100.0	
	충청권 (31)	51.6	32.3	0.0	16.1	0.0	100.0	
	전라권 (34)	64.7	5.9	2.9	26.5	0.0	100.0	
	경상권 (67)	46.3	34.3	7.5	11.9	0.0	100.0	
공부 실력	못하는 편 (53)	34.0	47.2	5.7	11.3	1.9	100.0	15.169 0.056
	보통 (139)	43.9	28.8	6.5	20.9	0.0	100.0	
	잘하는 편 (99)	52.5	25.3	5.1	17.2	0.0	100.0	
	모름/무응답 (0)	0.0	0.0	0.0	0.0	0.0	100.0	
가정 형편	어려운 편 (16)	50.0	31.3	6.3	12.5	0.0	100.0	4.433 0.974
	보통 (170)	44.7	31.2	4.7	18.8	0.6	100.0	
	넉넉한 편 (104)	45.2	29.8	7.7	17.3	0.0	100.0	

	모름/무응답	(1)	0.0	100.0	0.0	0.0	0.0	100.0	
탈북 친구 여부	없다	(250)	44.8	31.2	5.6	18.0	0.0	100.0	1.757 0.988
	있다	(34)	47.1	26.5	8.8	17.6	0.0	100.0	
	모름/무응답	(7)	42.9	42.9	0.0	14.3	0.0	100.0	

5)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46.8%)’,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35.3%)’,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4.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52.5%)’,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48.6%)’,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38.8%)’,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23.5%)’,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V-20】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

### 탈북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은 공부를 잘하는 편일수록, 자신이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자신이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49**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단위: %, N=201)

구분	사례수	차별편견 없이지냄	배려하고 도와줌	차이인정 및 이해	함께활동 시간많이	상호문화 이해습득	기타	무응답	없다	
전체	(201)	48.3	46.8	35.3	24.9	13.9	2.0	4.0	1.0	
성별	남학생	(108)	42.6	44.4	31.5	27.8	14.8	2.8	4.6	1.9
	여학생	(93)	54.8	49.5	39.8	21.5	12.9	1.1	3.2	0.0
출생지	북한	(112)	48.2	37.5	33.9	30.4	17.9	0.9	3.6	0.0
	중국	(88)	47.7	59.1	37.5	18.2	8.0	3.4	4.5	2.3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0.0	100.0	0.0	0.0	0.0
입국 년도	2000~2005년	(20)	65.0	40.0	50.0	15.0	10.0	0.0	0.0	0.0
	2006~2007년	(35)	45.7	54.3	31.4	17.1	14.3	5.7	8.6	0.0
	2008~2009년	(48)	60.4	47.9	43.8	14.6	6.3	4.2	2.1	2.1
	2010~2011년	(51)	47.1	54.9	31.4	23.5	15.7	0.0	3.9	2.0
	2012~2013년	(26)	30.8	38.5	23.1	57.7	26.9	0.0	3.8	0.0
	모름/무응답	(21)	33.3	28.6	33.3	33.3	14.3	0.0	4.8	0.0
학교 급	초5~6학년	(91)	49.5	53.8	37.4	20.9	13.2	2.2	4.4	2.2
	중1~3학년	(109)	47.7	40.4	33.9	27.5	14.7	1.8	3.7	0.0
	무응답	(1)	0.0	100.0	0.0	100.0	0.0	0.0	0.0	0.0
지역	서울	(66)	50.0	39.4	33.3	25.8	13.6	1.5	6.1	0.0
	수도권(강원 포함)	(118)	46.6	47.5	37.3	26.3	15.3	1.7	2.5	1.7
	충청권	(4)	50.0	50.0	25.0	25.0	0.0	0.0	25.0	0.0
	경상권	(13)	53.8	76.9	30.8	7.7	7.7	7.7	0.0	0.0
한국 학교 재학 기간	1년 미만	(33)	39.4	33.3	24.2	51.5	21.2	0.0	3.0	0.0
	1년~3년 미만	(43)	46.5	53.5	34.9	23.3	23.3	0.0	2.3	0.0
	3년~5년 미만	(49)	49.0	46.9	36.7	16.3	8.2	2.0	6.1	4.1
	5년 이상	(73)	52.1	49.3	39.7	19.2	9.6	4.1	4.1	0.0
	모름/무응답	(3)	66.7	33.3	33.3	33.3	0.0	0.0	0.0	0.0
성적	못하는 편	(53)	43.4	47.2	39.6	22.6	13.2	1.9	1.9	0.0
	보통	(119)	46.2	44.5	32.8	28.6	16.0	1.7	5.9	1.7

가정 형편	잘하는 편	(29)	65.5	55.2	37.9	13.8	6.9	3.4	0.0	0.0
	어려운 편	(31)	58.1	29.0	48.4	19.4	9.7	3.2	3.2	3.2
	보통	(132)	43.2	49.2	33.3	27.3	15.2	0.8	4.5	0.8
	넉넉한 편	(38)	57.9	52.6	31.6	21.1	13.2	5.3	2.6	0.0
자신 의 정체 성	한국사람	(78)	50.0	55.1	30.8	21.8	14.1	1.3	3.8	1.3
	북한사람	(9)	11.1	33.3	11.1	66.7	22.2	11.1	11.1	0.0
	근본은 북한사람	(25)	68.0	36.0	40.0	12.0	16.0	4.0	0.0	0.0
	동시에 북한사람	(24)	58.3	16.7	50.0	29.2	16.7	0.0	0.0	0.0
	잘모름	(54)	38.9	50.0	35.2	29.6	13.0	0.0	5.6	1.9
	기타	(9)	44.4	77.8	55.6	11.1	0.0	11.1	0.0	0.0
	무응답	(2)	50.0	50.0	0.0	0.0	0.0	0.0	50.0	0.0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경상권, 탈북친구가 없는 학생, 탈북청소년은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는 응답은 남학생, 초등학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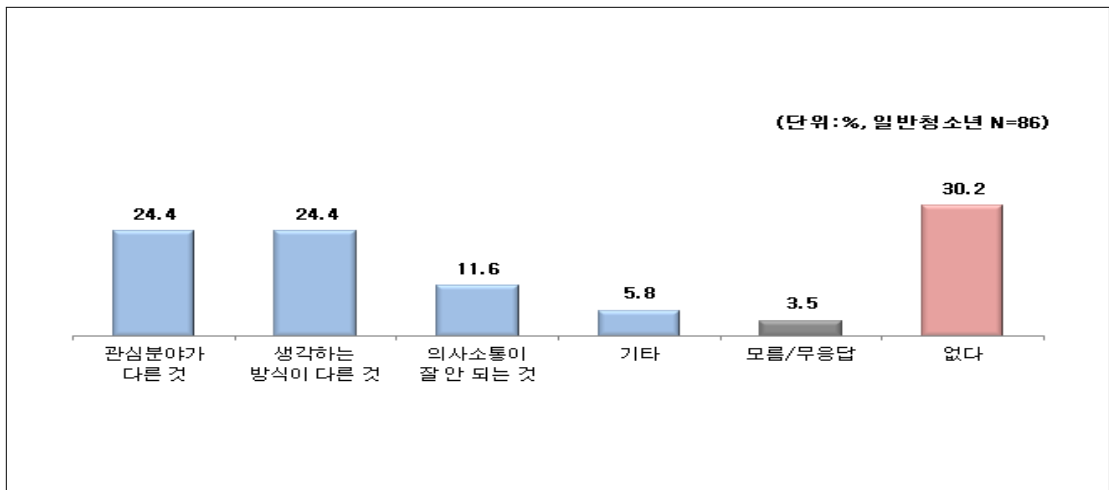
(단위: %, N=805)

구	분	사례수	차별편견 없이지냄	차이인정하 고이해	배려하고 도와줌	상호문화이 해습득	함께활동 시간많이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805)	52.5	48.6	38.8	23.5	21.6	0.6	1.5
성별	남학생	(416)	49.3	43.3	41.8	22.8	22.8	1.2	1.9
	여학생	(389)	56.0	54.2	35.5	24.2	20.3	0.0	1.0
학교급	초등학교	(306)	49.3	44.4	45.8	26.5	16.0	0.7	2.6
	중학교	(499)	54.5	51.1	34.5	21.6	25.1	0.6	0.8
지역	서울	(138)	55.1	52.2	34.8	22.5	17.4	0.0	2.2
	수도권	(277)	54.5	45.5	40.1	23.8	19.9	1.1	2.2
	충청권	(88)	43.2	42.0	40.9	27.3	31.8	1.1	0.0
	전라권	(93)	52.7	45.2	37.6	23.7	21.5	0.0	2.2

	경상권	(209)	52.2	54.5	39.2	22.0	22.5	0.5	0.5
탈북 친구 여부	없다	(704)	52.7	50.4	36.9	23.4	22.2	0.4	1.4
	있다	(86)	53.5	36.0	47.7	23.3	18.6	2.3	2.3
	모름/무응답	(15)	40.0	33.3	73.3	26.7	13.3	0.0	0.0
탈북 청소년 정체성	한국사람	(133)	47.4	45.9	42.1	21.1	21.1	0.8	1.5
	북한사람	(237)	61.2	47.7	34.2	22.4	21.5	0.0	0.8
	근본은 북한사람	(148)	50.7	55.4	40.5	23.6	21.6	0.7	0.7
	동시에 북한사람	(193)	49.7	50.3	35.8	27.5	23.8	0.0	1.6
	잘모름	(54)	38.9	37.0	53.7	24.1	22.2	1.9	3.7
	기타	(39)	59.0	46.2	43.6	17.9	12.8	5.1	2.6
	무응답	(1)	0.0	0.0	0.0	0.0	0.0	0.0	100.0

## 6)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좋은 점에 대한 인식

### (1)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



【그림 IV-21】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 만나면서 어려운 점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86)에게 탈북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1/3정도(30.2%)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분야가 다른 것’/‘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24.4%)’,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11.6%)’, 기타 5.8%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세부응답으로는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 탈북 친구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 일반(남한)청소년 응답자 특성별 분석

탈북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어려운 점이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 중학생, 가정형편이 보통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분야가 다른 것’이라는 응답은 여학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라는 응답은 공부를 못하는 편일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편일수록, 탈북청소년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라는 응답은 초등학생, 가정형편이 넉넉한 편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어려운 점에 대한 인식

(단위: %, 일반청소년 N=86)

구분	사례수	없다	관심분야 다른 것	생각방식 다른 것	의사소통 잘 안 되는 것	기타	모름/ 무응답
전체	(86)	30.2	24.4	24.4	11.6	5.8	3.5
성별	남학생 (44)	43.2	15.9	25.0	11.4	4.5	0.0
	여학생 (42)	16.7	33.3	23.8	11.9	7.1	7.1
학교급	초등학교 (59)	23.7	27.1	22.0	16.9	6.8	3.4
	중학교 (27)	44.4	18.5	29.6	0.0	3.7	3.7
성적	못하는 편 (7)	14.3	14.3	57.1	0.0	0.0	14.3
	보통 (41)	36.6	22.0	24.4	9.8	4.9	2.4
	잘하는 편 (36)	27.8	27.8	16.7	16.7	8.3	2.8
가정 형편	모름/무응답 (2)	0.0	50.0	50.0	0.0	0.0	0.0
	어려운 편 (7)	14.3	14.3	57.1	0.0	0.0	14.3
	보통 (44)	43.2	15.9	22.7	4.5	9.1	4.5
	넉넉한 편 (35)	17.1	37.1	20.0	22.9	2.9	0.0
탈북 청소년 정체성	모름/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한국사람 (23)	34.8	26.1	17.4	8.7	8.7	4.3
	북한사람 (14)	14.3	35.7	42.9	7.1	0.0	0.0
	근본은 북한사람 (21)	33.3	19.0	19.0	19.0	4.8	4.8
	동시에 북한사람 (16)	31.3	25.0	25.0	6.3	6.3	6.3
	잘모름 (4)	25.0	25.0	25.0	25.0	0.0	0.0
	기타 (8)	37.5	12.5	25.0	12.5	12.5	0.0
무응답 (0)	0.0	0.0	0.0	0.0	0.0	0.0	

(2)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좋은 점에 대한 인식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86)에게 탈북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좋다’는 응답이 2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더 생겼다/친구가 되었다(10.5%)’, ‘북한말을 배울 수 있다(9.3%)’,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5.8%)’,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다(3.5%)’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이미지로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통일 세대로서의 준비도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좋은 점에 대한 인식

(단위: %, 일반청소년 N=86)

자유 응답	빈도	비율(%)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다	19	22.0
친구가 더 생겼다/친구가 되었다	9	10.4
북한어를 배울 수 있다	8	9.3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	5	5.8
서로의 문화/전통을 알 수 있다	3	3.5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1	1.2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1	1.2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1	1.2
좋은 이미지로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1	1.2
중국의 문화를 알 수 있다	1	1.2
통일이 된 기분이다	1	1.2
다양한 가치관을 알 수 있다	1	1.2
기타	14	16.2
없다	13	15.1
무응답	8	9.3
계	86	100.0

## 7)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 (1) 탈북청소년들의 희망직업

탈북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자유응답 하도록 질문한 결과, 연예인이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관련직업(10.4%), 경찰/군인관련직업(9.0%), 음식관련직업(8.5%), 법조계/디자이너관련직업(6.0%), 운동관련직업(5.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직종으로는 요리사(14명), 경찰(13명), 가수(11명), 과학자(10명), 교사/디자이너(9명), 검사(8명), 의사(7명) 순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표 IV-53 탈북청소년들의 희망직업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음식관련: 요리사(14), 바리스타(1), 파티쉐/제빵사(1), 푸드스타일리스트(1)	17	8.5
경찰군인: 경찰/경찰특공대(13), 군인(1), 경호원(1), 교관(1), 탐정(2)	18	9.0
연예인: 가수(11), 배우/연기자/뮤지컬배우(6), 연예인(6), 모델(3), 개그맨(1)	27	13.5
디자이너: 디자이너(9), 메이크업아티스트(1), 코디네이터(1), 스타일리스트(1)	12	6.0
과학계: 의사(7), 과학자(10), 발명가(2), 간호사(1), 우주항해사(1)	21	10.4
법조계: 검사(8), 변호사(4)	12	6.0
운동계: 축구선수(5), 태권도선수(3), 야구선수(1), 농구선수(1), 태권도사범(1)	11	5.5
기술건축: 엔지니어(6), 건축가/건축설계사(2), 일러스트레이터(2)	10	5.0
회사(사업): 사업가(3), 회사원(2)	5	2.5
공직: 공무원(3), 외교관(2), 교사(9), 사회복지사(1)	15	7.5
컴퓨터계: 프로그래머(2), 프로그래머(1)	3	1.5
예술: 만화가(2), 화가(2), 방송작가(2), 사진작가(1), 발레리나(1)	8	3.9
방송: 아나운서(2), 통역사/통시통역가(2)	4	1.9
기타: 종교인(1), 사육사(2), 승무원(2)	5	2.5
없다	8	3.9
무응답	25	12.4
계	201	100.0

## (2)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희망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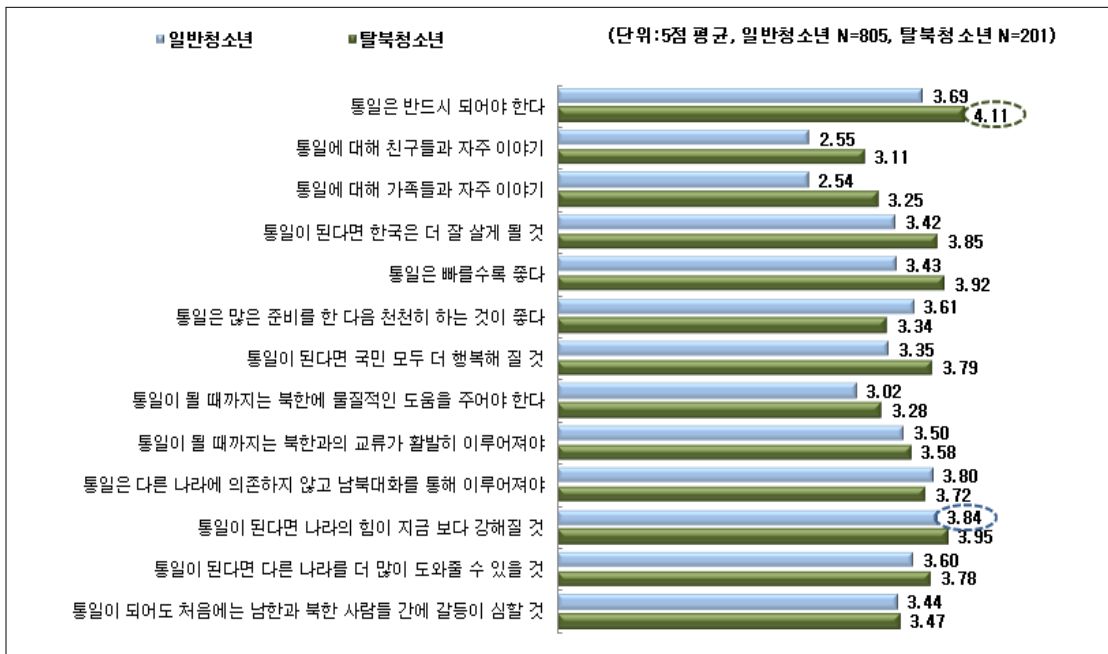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자유응답 하도록 질문한 결과, 교사, 공무원 등이 2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관련직업(15.4%), 운동관련직업(7.3%), 예술관련직업(6.5%), 음식관련직업(6.2%), 연예인(6.0%), 디자이너관련직업(5.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의 희망직업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직종으로는 교사(79명), 의사(53명), 요리사(35명), 과학자(38명), 디자이너(35명), 경찰/경찰특공대(31명), 프로게이머(20명) 순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54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희망직업**

희망직업	빈도(명)	비율(%)
음식관련: 요리사(35), 바리스타(6), 파티쉐/제빵사(5), 푸드스타일리스트(4)	50	6.2
경찰군인: 경찰/경찰특공대(31), 군인(5), 교관(1), 과학수사대(1)	38	4.7
연예인: 가수(17), 배우/연기자/뮤지컬배우(16), 모델(6), 연예인(7), 개그맨(2)	48	6.0
디자이너: 디자이너(35), 메이크업아티스트(2), 코디네이터(2), 스타일리스트(1)	40	5.0
과학계: 의사/수의사(53/7), 과학자(38), 간호사(7), 비행기조종사(8), 로봇공학자(9), 발명가(2)	124	15.4
법조계: 검사(9), 변호사(7), 판사(5), 국회의원(4), 법조인(1)	26	3.2
운동계: 축구선수(19), 운동선수(22), 야구선수(14), 테권도관장(3), 스포츠과학자(1)	59	7.3
기술건축: 엔지니어(6), 건축가/건축설계사(3), 기관사(2), 일러스트레이터(2)	13	1.6
회사(사업): 사업가(15), 회사원(22)	37	4.6
공직. 교수: 공무원(19), 외교관(15), 교사/유치원교사(79/15), 사회복지사(9), 교수(4), 강사(3), 연구원(7), 회계사(6), 심리상담가(5)	162	20.1
컴퓨터계: 프로게이머(20), 프로그래머(9), IT계종사자(5)	34	4.2
예술: 피아니스트(10), 방송작가(8), 만화가(8), 소설가(5), 작곡가(5), 화가(5), 기타리스트(3), 영화감독(3), 마술사(3), 발레리나(2)	52	6.5
방송: 아나운서(4), 통역사/통시통역가(6), PD(5), 카피라이터(2), 기자(1)	18	2.2
기타: 사육사(8), 조련사(4), 승무원(6), 종교인(5), 호텔리어(3), 바리스타(6)	32	4.0
없다	18	2.2
무응답	54	6.7
계	805	100.0

## 2-4.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의식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통일대비 상호교류수준에 대한 인식, 통일 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등 통일의식과 관련된 13가지 항목에 대해 5점 척도<sup>43)</sup>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4.11)’는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반면, 일반(남한)청소년은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3.84)’는 항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남한)청소년에 비하여 탈북청소년이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2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수준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남

43)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자주 이야기 하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그러나,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 모두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5**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 평균	남한청소년 평균	평균 <sup>1)</sup> 차이	t	Sig.	SD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11	3.69	.423	5.596	.000	.076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3.92	3.43	.490	5.874	.000	.083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3.72	3.80	-.077	-.988	.324	.078
통일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3.11	2.55	.558	6.858	.000	.081
통일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3.25	2.54	.706	8.420	.000	.084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3.34	3.61	-.270	-3.528	.000	.076

1)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 $p < .01$ )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이 될 때 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6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 평균	남한청소년 평균	평균 <sup>1)</sup> 차이	t	Sig.	SD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28	3.02	.260	3.095	.002	.084
통일이 될 때 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58	3.50	.079	1.050	.294	.075

1)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사람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이다'에 대한 생각도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7 탈북청소년 및 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항 목	탈북청소년 평균	남한청소년 평균	평균 <sup>1)</sup> 차이	t	Sig.	SD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 보다 강해질 것이다	3.95	3.84	.108	1.410	.159	.076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거라고 생각한다	3.79	3.35	.440	5.449	.000	.081
통일이 된다면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3.78	3.60	.177	2.354	.019	.075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3.85	3.42	.428	5.173	.000	.083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사람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이다	3.47	3.44	.027	.357	.721	.074

1) 5점 평균 점수는 전혀 아니다(1), 아니다(2),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임.

### 3. 면접조사 개요

#### 1) 조사목적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 주변의 관찰자(교사 및 지도자 등)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interview) 핵심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또는 개인면담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설문조사 결과를 보충하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및 시사점을 도출해 내었다.

#### 2) 조사대상

**청소년:** 학교급별(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중학생)로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 2~3명을 선정, 총 1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사 및 지도자:** 학교급별(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탈북청소년 담당 교사나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 1~2명을 선정, 총 9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IV-58**      **면접조사 참가 청소년 및 교사(지도자)**

#### 일반(남한)청소년

이름	학교급	학년	성별	탈북청소년친구교제기간
양○○	초등학교	5학년	남	1년
유○○	초등학교	6학년	남	1년
남○○	초등학교	6학년	여	3년
박○○	초등학교	5학년	여	2년
이○○	중학교	2학년	남	4년
고○○	중학교	2학년	여	7년
양□□	중학교	1학년	여	3년
허○○	중학교	3학년	여	1년2개월

## 탈북청소년

이름	학교급	학년	성별	입국연도
이△△	초등학교	5학년	남	2011년
유○○	초등학교	6학년	남	2007년
김○○	초등학교	5학년	여	2008년
엄○○	초등학교	6학년	여	2004년
전○○	중학교	2학년	여	2006년
이○○	중학교	2학년	여	2004년
이□□	중학교	2학년	여	2007년
장○○	중학교	3학년	남	2005년
주○○	중학교	3학년	여	2012년

## 교사(지도자)

이름	학교(기관)	나이	성별	탈북청소년지도경력
박△△	초등학교 교사	46	여	6년
진○○	초등학교 교사	58	여	12년
이△△	초등학교 전담코디네이터	39	여	3년
이○○	중학교 교사	51	남	9년
김△△	중학교 교사	45	여	1년 3개월
김○○	대안학교 교사	27	여	1년 2개월
박○○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자	32	남	8년
이□□	지원센터 지도자	35	여	6년
전○○	민간지원센터 지도자	56	여	7년

### 3) 조사내용

**청소년:** 상호 접촉 경험이 있는 탈북 및 일반(남한)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업 등의 일상생활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느끼는 장·단점과 잘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를 위한 지원방안, 통일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의견을 청취·분석하였다.

**교사 및 지도자:** 탈북청소년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들의 적응수준과 적응과정에서의 전환점에 대한 인식과 사례, 사회통합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및 필요한 지원정책, 통일을 대비한 교육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 4) 분석방법

면접조사는 피면접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전사한 후 주요 내용을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핵심내용은 부분적으로 인용하였으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직접 인용 제시하였다.

### 4. 면접조사 결과

#### 4-1. 일반(남한)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 1)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 (1) 학교에서의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일반(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을 처음 만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곳은 우선 학교였다. 같은 반이 되어서 알게 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이 원래 친하게 지내던 남한 친구가 탈북청소년을 새로운 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친구가 되는 과정은 학교생활과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탈북청소년을 잘 챙겨주라고 특별히 한국청소년에게 또래 도우미의 역할을 부탁해서 관계가 처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알고 지내는 탈북청소년은 대체로 1~2명 정도였고 탈북청소년에 따라 친소(親疎)관계가 달랐지만 1명 정도와는 비교적 친한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자신이 원래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탈북청소년을 새로운 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반이 아니어도 친해지게 된다.

- 허○○(중학교, 여): 친한 (탈북청소년) 언니가 있는데 작년에는 반이 달라서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반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다른 반 친구의 친한 친구그룹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 그룹에 ○○언니(탈북청소년)도 같이 있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 양○○(초등학교, 남): (처음 만난 건 작년 2012년 제가 4학년 때이고) 학교 복도에서 (만났어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탈북학생은) ○○밖에 없어요. 아직은... 그냥 조금 친한 정도... 자주 놀기도 하고 자주 같이 안 놀기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탈북청소년을 잘 챙겨주라고 특별히 또래도우미의 역할을 부탁해서 관계가 처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 허○○(중학교, 여): 처음에 ○○언니랑 같은 반이었던 제 친구가 당시에 담임선생님한테 그 언니를 잘 챙겨주란 부탁을 받았습니다. 반의 다른 친구들은 “야”라고 부르지만, 그 친구와 그룹의 친구들이 다 “언니”라고 불러서 저도 언니란 호칭이 익숙해졌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성격이 좋아서 반 아이들과 두루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

같은 반이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도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게 되면서 친구관계로 발전하기도 한다.

- 유○○(초등학교, 남): 탈북친구는 2명인데 같이 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로 축구를 합니다. 축구부는 아니고 축구로 같이 놀기만 합니다. 같은 반이어서 얼굴만 아는 사이였고 당시에는 북한에서 온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6학년 되고, 몇 개월 지나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2) 지역사회에서의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학교 다음으로 탈북청소년과 만나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곳은 지역사회복지관이었다.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단체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학교에서 안면을 익힌 탈북청소년과 보다 친하게 되고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탈북청소년과 알고 지내는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 최장 7년 정도로 길었고 알고지내는 탈북청소년의 수도 2~4명 정도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 가게 되면 관계는 소원해 지기도 한다.

- 이○○(중학교, 남): 저는 ○○랑은요, 4년이고요. □□이하고는 (웃음) 그렇게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5학년 때 ○○이를 처음 만났어요. ... 친하게 지낸 것은 그 학원에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 양□□(중학교, 남): 탈북청소년을 알고 지낸 기간은 2-3년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알게 되었는데 4학년과 6학년때 방과 후에 단체활동을 같이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는 아이들은 3,4명이고 1명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같은 학교가 아니고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하는 활동도 없어 중학교 이후에는 못 만났습니다.

## 2)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로 인한 북한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대부분의 청소년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한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거나 열등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사례를 접하면서 탈북청소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다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알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도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와 의식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청소년과 다른 탈북청소년의 의식과 행동방식의 유형이 있음을 간파하게 되는 학생도 있다.

### (1) 오랜 기간 또래관계 유지를 통한 신뢰 형성

처음으로 이들이 중국에서 왔고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말이 잘 안통하거나

문화적 차이 등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오랜 기간 또래관계를 지속해오면서 서로에게 신뢰가 생기고 편견이 없어지고 편하게 느끼고 있다. 자신들과 출신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래관계를 유지하는데도 평소 어울릴 때는 이 친구가 중국하고 관련이 있다거나 북한하고 관련 있다는 식의 의식이나 구분은 전혀 없이 그냥 일반 친구들과 사귀는 것과 전혀 다름없이 똑 같다고 느끼고 있다.

- 고○○(중학교, 여):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안통하거나 문화적 그런 게 말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만나고, 지내다 보니까 생각도 똑같고, (믿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편견 다 없이, 믿음도 있고, 편하고. ○○도 그렇고요. □□이도 그렇고요.... 중국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건 없고, 이 친구를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라는 그런 거 사실 아무것도 안 들고 남한, 한국사람. 그냥. 처음에는 (중국사람인지 북한사람인지) 그런 걸 몰랐었는데. 듣고 나서 애가 중국 사람이라고 알게 되는 거지...

- 이○○(중학교, 남): 북한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하고 좀 뭐라고 해야하지? 좀 교육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거라는, 분위기 같은 것도 서먹서먹하고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랑 친해지면서 그런 건 없어졌어요. 편견이라든지 그런 건 없어졌어요. (북한이) 약간 공산주의? 약간 그렇게 (무조건) 안 좋은 그런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를 통해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 (2) 탈북청소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대한 편견 해소

초등학생의 경우 북한은 가난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삶도 비교적 가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탈북청소년을 사귀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다고 느끼기도 한다. 자신이 사는 곳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 지역이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초등학생의 기준에 비추어보았을 때 탈북청소년의 경제적 환경이 자신들과 비교해봤을 때 별로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가난할 것이라는 편견도 어느 정도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양○○(초등학교, 남): 만나기 전에는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은. 북한 친구

들이. 북한에 사는 친구들이. (만나고 보니까)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성격이 안 좋을 거라고도 생각했었어요. 뭔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 (만나고 보니까) 정반대에요.

### (3) 탈북청소년의 적극성으로 인한 북한에 대한 편견 해소

탈북청소년의 활발한 성격이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 친한 친구가 되고 탈북청소년과 북한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원래 한국친구들과의 또래관계가 없는 외로운 학생이었는데 탈북청소년이 먼저 친구가 되어주고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 준 경우였다. 친한 탈북청소년이 먼저 북한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않는 배려를 하고 있고 비교적 소원한 다른 탈북청소년에게 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있다. 북한사람들이 모두가 다 똑같이 김정일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듣고 북한사람에 대한 생경함이 누그러지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초등학교, 남): 책에서 보면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은 말도 안하고 소심할 것 같았는데, ○○는 많이 활발해서 좋았습니다. 다른 탈북학생들은 같이 놀긴 하지만 말이 별로 없습니다. 북한하면 어릴 때에 군사훈련 같은 것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본 것과 달랐습니다. ○○와 친해지면서 북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대해 물어보고 알기보단 ○○와 가까이 지내면서 느꼈습니다. 묻지 않으면 ○○가 북한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 남○○(초등학교, 여): 저는 무서울 줄 알았는데, (탈북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서 더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똑같았습니다.

### (4)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적응 사례를 통한 북한에 대한 편견 해소

TV 등 언론의 보도 내용이나 영화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고 탈북청소년은 무섭다거나 말투가 다르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탈북청소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주변의 탈북청소년의 긍정적 적응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과 같은 사람이고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언론보도처럼 모두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 허○○(중학교, 여): 초등학교 때도 탈북남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당시에 만화가 유행해서 스티커 모으기를 했는데 그 탈북남학생도 스티커를 모으고 해서 (그 아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게 인식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니 (북한)사투리가 심할 줄 알았는데 별로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적응을 잘합니다. TV에서 보면 적응을 못하는 탈북학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언니는 그 뉴스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 (5) 탈북청소년의 행동방식과 의식 차이에 대한 인지

탈북청소년과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전반적으로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별다른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행동방식의 차이와 의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탈북청소년만의 의식과 행동방식의 유형이 있음을 간파하는 학생도 있다. 지역복지관에서만 탈북청소년을 접촉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말투가 달라 탈북청소년들끼리 하는 말은 못 알아듣는 때가 있지만 게임이나 공부를 못 따라오는 경우는 없고 같이 1박2일의 캠프를 갔다 오면서 무서움도 없어지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직접 어울리면서 우리와는 다른 탈북청소년만의 특징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신체가 나이에 비해 비교적 작고,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려는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고 이기고자하는 승부욕과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혼자 노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에 탈북청소년들은 어울려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협동심이 강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정확한 관찰이다.

- 양□□(중학교, 남): 그 전에는 남북한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북한이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전에는 그냥 북한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탈북청소년을 처음 봤을 때에는 생소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다고 느껴 같이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직접 만나보니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탈북친구

들의 부모님을 본 적은 없고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북한사투리 때문에 탈북친구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탈북친구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게임할 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기고 싶어합니다. 게임에서 질 때에 자존심 상해하고, 남한 친구들에 비해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싸운 아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놀린 아이였습니다. 우리가 놀리면, 무조건 반격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친구들은 덩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보다 어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협동심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냥 따로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탈북친구들이 왜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하는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을 만나고 개인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무섭다거나 나쁘다거나 자신들과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언론보도나 영화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으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편견을 해소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섬세한 남북한의 행동과 의식의 차이 또한 인식하고 나름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 3)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에 대해서는 특별히 좋은 점도 특별히 어려운 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자들이 알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이 대체로 아주 어릴 때 입국하여 한국에 정착한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평소 학교생활에서 일반청소년들과 뭔가 다르다고 느낄만한 두드러진 ‘북한적 특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섬세한 행동과 의식의 차이를 인식하고 진술했던 학생은 학교에서는 탈북학생이 없어서 꺾어보지 못했고 복지관에서만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 (1) 학업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인 학생들의 대답은 대체로 긍정적이거나 개인적인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다.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가 그 친구가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출생해서 한국에 왔다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 일뿐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오히려 탈북청소년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학업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모르는 것을 묻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고○○(중학교, 여):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 친구가 중국에서 온 것과 공부는 상관없지요.

- 유○○(초등학교, 남): 평범합니다. 다 같이 놀고, (우리들과) 다른 점이 없습니다. ○○가 사교성이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부할 때 어려워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보다 사회과목을 잘합니다. 전 체육을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합니다....

- 양○○(초등학교, 남): ○○는 공부에도 잘 적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 허○○(중학교, 여): 학업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득을 볼 듯합니다. 학기 초에는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수학시간에 모르는 문제풀이도 해주었습니다. 중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는 좀 힘든 것 같지만 딱히 불편해 하지는 않고 반 친구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 반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아이한테도 가서 수학을 물어보는 것 같고....

탈북청소년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거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발표를 한국학생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남○○(초등학교, 여): (탈북친구들이) 공부는 조금 하는 편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 방해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지적해서 학습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없이 발표도 더 잘합니다.

- 박○○(초등학교, 여): ○○이가 판짓을 해서 저희가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피해를 주진 않고, 그냥 있습니다.

(2) 또래관계 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일반 학생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점도 특별히 좋은 점도 없으나 학급의 분위기에 따라 또래관계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다.

- 고○○(중학교, 여): 그냥 그렇게 막,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그래요.

- 양○○(초등학교, 남): 어려운 점은 그리 딱히 없는 것 같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울렸어요. 친구들과하고 막 다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친근감 느끼는 것 같아요.

- 남○○(초등학교, 여): 제가 약간 소심했는데, 탈북친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친해보니 재밌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바로 왔다고 하는데 북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 허○○(중학교, 여): 오히려 다른 친구들한테 중국어를 잘한다고 부러움을 받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성격상 모범이 됩니다. 또래 관계에 대해서도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의 영향을 받는데, 지금은 사회성 좋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는 반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제 친구 그룹하고만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투가 다르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초등학교 탈북아동의 경우 주로 혼자 노는 외톨이가 되거나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등 또래관계 형성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

- 박○○(초등학교, 여): 거의 혼자 놀았고, 지금도 혼자 늡니다. 몇 명의 친구가 놀아주긴 하는데, 먼저 놀자고 하는 친구도 별로 없고, 먼저 놀러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놀림받은 적은 없습니다.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며 잘 놀지 않고 말을 해도 조금 어설피고 잘 안 통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왔다고는 하는

데, 말을 잘 못했습니다...

### (3) 교사관계 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점은 거의 없고 오히려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생님의 호의에 대해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질투하지는 않는다.

- 남○○(초등학교, 여): 어려운 점은 없고,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차별하진 않고 조금만 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라 특별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 허○○(중학교, 여): 다른 선생님은 모르겠지만 담임선생님과 불편해보이지 않았습니다.

### (4)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학교 내 방과후활동 시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학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방과후 활동을 탈북청소년과 함께 해 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반청소년들 대부분이 방과 후에는 학교 밖 학원 등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내 방과후 활동 참여율이 낮고 탈북청소년 또한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 따로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충학습을 받기 때문에 방과후에 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방과후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 이○○(중학교, 남): 저는 연극과 탁구를 하는데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연극반했다가 그만 두었지만 괜찮은 것 같았어요.

- 양○○(초등학교, 남): 역사교실을 방과 후에 했어요. 근데 탈북학생 방과후 학습 때문에 자주 빠지고 그러니까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 4)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 밖 방과후 활동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학교 밖에서 탈북청소년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는 방과후 학교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지역 복지관에서 활동프로그램을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 유○○(초등학교, 남): 학교 밖에서 같이 하는 활동은 노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로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발로 하는 놀이를 합니다. 족구랑 비슷한 놀이로 원바운드라는 놀이를 합니다. 지면 한 명을 세워놓고 공으로 맞춥니다.
- 양□□(중학교, 남): 복지관에서 활동을 같이 하면서 많이 친해져서 재밌었습니다. 함께 다 같이 뛰어놀아보니 활발했습니다. 남한친구들과 비교해서 탈북청소년이 사귀기에 어렵거나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고, 똑같았습니다. 복지관 선생님과도 친해보였고 선생님을 어려워하거나 힘들어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 5)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및 적응 노력

대부분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무엇보다 대단하게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정도로 탈북청소년들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업향상을 위해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해서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1) 특별한 적응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적응한 경우

일부 중학생들은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온지 오래되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적응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실제로 자신들 주변의 탈북청소년이 학교생활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 이○○(중학교, 남):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별로 특별히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적응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은) 그런 건 없는데요.

- 고○○(중학교, 여): 잘 지내요. (노력하는 것은 특별히) 없지요.
- 유○○(초등학교, 남): 네. 특별히 노력한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니다. 다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 (2) 스스로 적극적인 적응 노력을 하는 경우

한편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특히 또래 친구를 사귀고 잘 지내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이다.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기 때문에 관계가 원만하고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 양○○(초등학교, 남):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적 하신) 글씨체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 남○○(초등학교, 여): 일부러 적응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에도 활발합니다. 체험 같은 것이 있으면 본인이 먼저 하겠다고 나섭니다. 다른 친구들도 활발하다고 말합니다.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발표도 잘하고, 잘 따르기 때문에 선생님도 예뻐하십니다. 방과후에 노래방에서 놀거나 놀이터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놀입니다.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 허○○(중학교, 여): 일단, 제가 아는 친구는 먼저 나서서 본인을 어필하는 편입니다. 전학생에게 이름도 묻고 자기소개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고 말했습니다. 처음 본 친구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걸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친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3) 부당한 대우에는 적극적인 항의를 하는 경우

적응을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인정받고 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부당하게 놀리는 남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직접 가서 항의하는 등 매우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남한청소년은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대처방법을 매우 인상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 있는 태도는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 허○○(중학교, 여): ... 그리고 가끔 북한에서 왔다고 놀러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체육시간에 남자아이들이 북한에서 왔다고 놀러왔는데 그 언니가 혼내줘야겠다고 뛰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말로 잘 혼내주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때에 보통 무시하고 맙니다. 선생님과도 거리낌 없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는 공간이 약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4) 과도한 동화 노력에 대한 배려 필요

한편 탈북청소년이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너무 과도한 동화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다. 탈북청소년이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무조건 남한의 또래청소년 말을 따르고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우리들이 배려해서 의견을 들어주어야하고 실제로 탈북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 양□□(중학교, 남): 남한친구들의 비위를 일방적으로 맞춥니다. 일단 우리가 무엇을 하자고 할 경우에 눈치를 보면서 따릅니다. 그런걸 보면 무언가 미안합니다. 우리말만 무조건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탈북친구들의 의견도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친구들이 제안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복지관에서는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학교 친구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도 안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못 봐서 모르지만 지금은 지내는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탈북청소년은 적응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그러한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거나 모든 남한학생의 이해와 공감을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인가로 인해 여전히 불편해하거나 또는 그들의 노력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박○○(초등학교, 여): ○○이도 노력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다른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노력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6)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

### (1)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스스로 노력해야할 점

#### ① 탈북청소년이 노력해야 할 점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으로 적극적으로 친구 사귀기,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하기 등을 생각하고 있다.

#### ㉠ 적극적으로 친구 사귀기

주로 혼자 조용히 있거나 남한 친구들을 보면 피하는 탈북친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같이 놀러가자고 할 때도 안 간다고 고집부릴 때는 좀 어렵지만 탈북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용기있게 물어보는 것이 낫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한다.

- 유○○(초등학교, 남): 본인이 잘하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어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알려주면 됩니다. 특별한 장점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말을 걸고, 같이 놀자고 하면서 다가가야 합니다. 어렵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 박○○(초등학교, 여): 남한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수업시간에 주로 그림을 그리거나 탄 것을 합니다. 수업에 집중도 못하고,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 ○○이는 주로 혼자 다닙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러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고집부릴 때 좀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도 다른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는 (여러 명의)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본인이 다가가도 다른 친구들이 '재, 뭐야?'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초등학교, 여): 좀 적극적이면 좋겠습니다.

- 양○○(초등학교, 남): 남한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 양□□(중학교, 남): 축구 같은 운동을 같이 하고,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과 친해 집니다. 혼자 놀지 않고 단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 양□□(중학교, 남): ... 잘 지내려면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합니다.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한심하게 봐서 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안되고, 누군가에게 말을 걸면서 친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남한친구들은 탈북친구들이 전학 왔을 때에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탈북친구는 마음을 열어주는 아이를 친구로 만들어서 (그 친구를 통해) 친구를 계속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귀찮아합니다. 대부분, 귀찮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 이○○(중학교, 여): 우리들 만나면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적극적인 동화 및 학업 향상 노력

우리들과 다르면 차별을 받기 쉽기 때문에 북한말투나 억양이 나오지 않도록 말투도 바꾸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양□□(중학교, 남): 북한말투나 억양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단 눈치를 주기 때문에...다르면 뭔가 차별을 받습니다. ...탈북아이들은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말투가 다르고, 멍청하거나 바보같다고 생각해서 똑같이 (취급)되지 않으려고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킵니다.

- 고○○(중학교, 남): 북한에서 조금 오래 살다가 온 아이들은 글자도 좀 떨어지고 공부도 좀 그러니까, 따로 그런 부분들을 채워서 어느 정도 맞춰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견도 없어질 거고...

- 양○○(초등학교, 남): 쉬는 시간에 딱지나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공부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딱지 가지고 맨 날 노니까... 그 시간에 공부를 좀...

## ②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노력해야 할 점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남한)청소년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은 친구 되어주기, 편견을 버리고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려 주기 등이라고 생각한다.

### ㉠ 친구 되어주기

- 양○○(초등학교, 남): 친해져서 어울려서 같이 놀면 좋겠고,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하겠고. - (남한청소년이) 더 많이 북한청소년과...

### ㉡ 놀리거나 왕따시키지 않기

- 남○○(초등학교, 여): 저는 그 친구가 남자아이들에게 놀림을 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남자아이들도 편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 와서 우리와 다르다고 놀립니다...

- 박○○(초등학교, 여): 북한친구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안했는데 (같이) 놀기 싫다고 합니다. 또, 잘해주고 싶은데, ○○이가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도 합니다. 남자아이들은 놀리지 말고, 같이 놀아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놀리지 말고, 공부를 가르쳐주는 아이한테 “재하고 놀지마”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양○○(중학교, 남): 다른 친구들과 같이 북한에서 왜 왔냐고 놀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림을 당한 탈북친구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왔을까’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살기 힘들어 탈출했고, 그래서 남한에 왔는데 놀림을 당하기 때 문입니다. 죽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잘해주었습니다. 만약 놀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탈북친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말투만 다를 뿐,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냐요? 탈북청소년과 함께 게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습니다. ...

- 고○○(중학교, 여): 전학 온 탈북친구(중국)가 있는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따돌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왕따 같은 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2)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해야 하는(하고 싶은) 것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운동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수 있는 피구같은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 학교에서 조별활동이나 수련회 같은 활동을 함께 해도 서로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고 생각한다.

- 양○○(초등학교, 남): 운동장 나가서 다 같이 공 가지고 던지면서 놀거나 차면서 놀거나. 공놀이. 요즘은 학교에서 체육 할 때는 피구를 많이 해요. 피구를 함께 하면 협동하려고 하고...(하니까 서로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남○○(초등학교, 여): 학교에서 남북한 친구들이 같이 조별활동을 하면 친해질 것 같습니다.

- 허○○(중학교, 여):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련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 붙어 있으면 사이가 나빠지는데, 보통은 오래 붙어있으면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오래 붙어 있어야 서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3)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학교의 지원 정책

① 국가 지원정책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국가지원정책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기본적인 생계 지원과 신상보호

- 고○○(중학교, 여): 만약에 탈북자 애들이요, 아무것도 없이, 집도 돈도 없이 그냥 오면요. 살 곳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탈북한 사람들이 괜히 탈북 했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온 걸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점점, 탈북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잖아요. 저번에도 개(탈북한 사람들) 왔다가 걸린 사람들 좀 있는데. 그런 사람들 걸리면 여

기서 보호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건너오는 거를요, 동영상을 찍어 놓은 걸 뉴스에서 봤어요. 만약에 건넌 것도, 건너온 것도 걸리면 그 북한 사람이 (탈북한 사람들을) 개네들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도록, 우리들이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어요.

- 이○○(중학교, 남): 우리들과 말이라던가, 아니면 옷이라던가, 아니면 차림새, 문화적 그런 차이 같은 것들을 개선할 수 있게 불러 모아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 ㉠ 북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노력

- 양□□(중학교, 남): 일단 의식주를 해결해주어야 되고... 국가에서도 적응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특혜를 준다고 해도 사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잘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양○○(초등학교, 남): 국가에서 우선 탈북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배려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무시하면) 국가에서 그런 걸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탈북사람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유○○(초등학교, 남): 우리 사회가 북한에 대한 편견을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섭거나 아니면 (탈북한) 사람들이 다 김정일, 김일성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중학교, 남): '북한 애들은 다 그렇다'는 편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 ② 학교 지원정책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배려와 탈북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 및 학업보충교육, 탈북청소년 멘토 친구 맺어주기,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사 배려

- 유○○(초등학교, 남): 학교는 그냥 두면 될 듯합니다.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탈북학생만 특별히 잘해주면 다른 아이들이 질투할 듯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것 없이 평범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게 없지만, 더 잘해줄 경우에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아니고 약간 더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약간 봐주고.....몰래 봐주어야 합니다. 다른 친구들이 질투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남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㉔ 탈북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 및 학업보충교육

- 유○○(초등학교, 남): 탈북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언어인 것 같습니다.
- 남○○(초등학교, 여): 말투도 다르고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잘 알려주어야 됩니다.
- 허○○(중학교, 여):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도 학교에서 과외 같은 것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양□□(중학교, 남): ...학교에서는 방과후에 공부를 더 가르쳐주어야 됩니다.
- 고○○(중학교, 여): 지금 1:1 맞춤처럼, 제가 1:1을 하고 있는데요. 성적이 떨어져서. 한국어나 수학, 영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방과 후에 대학생 선생님 한분이랑 탈북청소년 한 명이랑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㉕ 탈북청소년 대상 멘토 친구 맺어주기 및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교육

- 양□□(중학교, 남): 학교에 막 전학 온 탈북친구가 있다면 잘해줘야 됩니다. 학교생활을 알려주고, 반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정보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전담친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양□□(중학교, 남): 남한친구들이 북한친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교육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박 2일 캠프를 가서 서로 아는 활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7)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

### (1)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좋았던 점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생각한다.

- 유○○(초등학교, 남):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물어보면 알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탈북친구들을 만나면서 다르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아이들은 다 잘 적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초등학교, 여): 가끔 북한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것을 듣는 게 재밌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때가 조금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고 너무 깊게 말하는 것은 싫었습니다.

### (2)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어려웠던 점

북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끔 알아듣기 힘든 경우와 처음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노는 것을 싫어했던 점 등을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 이야기를 해도 중간에 못 알아들을 때는 좀 어렵습니다.
- 양□□(중학교, 남): 뭔가 다르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싫었습니다. 말하는 것도 듣기 귀찮았고,,, 하지만 복지관에서 만나서 놀아보니 괜찮았습니다.

## 9) 통일관련 의식

### (1) 통일에 대한 관심

교과시간이나 뉴스 등을 통해 북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피상적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 고○○(중학교, 여): 아침마다 뉴스 보면은 북한 애들에 관한 뉴스가 잠깐 나와요. 그걸 보면요, 재네들이 너무 이렇게 깐깐하게 살거나 아니면 규칙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그래서, 우리랑 통일을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이○○(중학교, 남): 통일에 대해 생각안 해 보려고 해도 학교에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거 다 보여주면서 하니까 하게 되요.

- 허○○(중학교, 여): 도덕시간에 통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6·25를 겪은 분들은 실감이 나겠지만, 저는 제가 가보지 않은 외국나라를 묘사하는 느낌이 듭니다. 남한이 돈이 많으면 지원을 좀 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통일이 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 통일이 되면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 (2)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차원, 남한의 군사적 평화와 안전, 경제 발전, 국토 확장 등 국력 신장과 편익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과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중학교, 여): 할머니가 북한에서 오셨는데, 할머니가 북한 사람들 TV에서 보면서 재네는 바로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도 애네가 불쌍해 보여요. 통일이 되면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이○○(중학교, 남): 불쌍해 보여요. ... 통일이 되면, 개네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렇게 되니까.

- 양○○(초등학교, 남): ... (통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가끔씩 해요. 맨날 미사일 쏘고 그러니까 쉽게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은 통일이 돼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생활 모습을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남○○(초등학교, 여): 통일이 되면 세금손실이 많아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남한의 군사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중학교, 여):... 만약에 (통일을) 안하면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 지금도 북한에서 뭐 썩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그랬잖아요. 통일을 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지니까. 개네는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몸싸움이나 전쟁 같은 거 그런 거 없어도 되니까...

남북한 경제 발전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중학교, 남):... (통일을) 하면은요. 어느 동영상이나 어디 기사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도 좋은 점이 많대요. 국방비 같은 것도 좀 줄어 들고, 사람들 (인구)도 많아지니까 좀 더 이렇게 상업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빠르게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점들도 많대요...

국토 확장 등 국력 신장과 편익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양○○(초등학교, 남): 통일. 통일이 되면 영토가 넓어지고 친구들도 많아지니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 유○○(초등학교, 남): 네. 군대도 안가도 되고.....제 생각입니다. 군대를 가면 힘들어서 왠지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가 넓어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행기가 아닌 기차를 타고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 양□□(중학교, 남): 많은 비용을 소요하지 않고 유럽에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 (3) 바람직한 통일 방식

전쟁을 통한 통일은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고○○(중학교, 여): ... (전쟁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몸싸움 같은 거 말고. 말로만. 말로 이렇게 하는 통일(을 해야해요).
- 이○○(중학교, 남): 통일을 위해 몸싸움 벌어지면 우리들도 피해야 되잖아요.
- 양○○(초등학교, 남): (통일방법은) 그냥 전쟁하지 말고. 평화 통일. 무력 말고 평화 통일 했으면 좋겠어요.
- 양□□(중학교, 남): 서로 합의해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폭탄을 날리기 때문에...

### (4) 통일을 위한 노력(개인 차원, 국가차원)

#### ① 통일을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

통일관련 글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남북교류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하고 탈북자들에게 잘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고○○(중학교, 여):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통일하라는 그런 글을 네이버 그런데다가 올려 놓거나, 카페나 블로그 그런데다 올려놓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 이렇게 퍼지니까. ...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일 관련된 글) 쓰면은 사람들이 '통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통일하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 이○○(중학교, 남):...동영상을 만들어요 ...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 유○○(초등학교, 남): 남·북한청소년이 같이하는 통일 글짓기, 통일캠프를 한다면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 양□□(중학교, 남): 통일을 위해서 저는 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정부에게 알리고, 주변의 탈북친구들에게 잘해주겠습니다.

## ② 통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만남과 타협 등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간 또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고○○(중학교, 여): (국가에서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요. 북한사람들과도 (대통령이) 만나고, 타협도 하고, 말 통하게도 하고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노력은 해봐야지요. 될 때까지.

- 양○○(초등학교, 남): ‘어떻게 하면 통일 할 수 있나’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 유○○(초등학교, 남): ... 대통령들이 잘 협의해야 합니다.

- 양□□(중학교, 남):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가 만나서 서로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점을 맞추려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4-2. 탈북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 1) 입국 및 정착과정

(1) 제3국 경유 유무 및 동반입국 가족

#### ① 입국 시 제3국 경유 유무

입국 전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엄마가 탈북 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태어난 후 입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2~3개국을 거쳐(중국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입국한 경우도 있었고 탈북과정에서 발각되어 감옥행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

- 전○○(중학교, 여): (저는) 태어날 때부터 (중국에 있었어요). 2006년? 7년? 그 정도쯤에 (한국에 입국했어요). 중국에서 바로 온 것 같아요. 기차 탄 것 같은데. 기차 탄 다음에 비행기(타고 왔어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왔어요.

- 이○○(중학교, 여): 엄마가 엄마만 탈북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와서 아빠를 만났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태어난 거예요. (엄마는 북한에서) 2000년 대 초반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엄마는 중국에서) 쪽 몇 년 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는 2004년에 들어왔는데) 원래는요. 엄마가 먼저 오시고, 아빠랑 (저랑) 같이 와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오시고, 아빠랑 저랑 비자 발급하다가 제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빠가 먼저 오시고, 제가 한 두 달 쯤 있다가 왔어요. 그냥 중국에서 만(있다가) 비행기 타고(한국으로 왔어요).

- 이□□(초등학교, 남): (북한에서) 2010년 12월(에 중국으로 나와서) 맨 처음에 차 타고 가다가 태국 갈 때는 배타가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비행기 타고 2011년 2월에 들어왔어요.

- 유○○(초등학교, 남): 2007년11월 7살에 왔습니다. 1999년생이고 지금 14살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1살 많습니다.) 탈북은 2007년 1월, 추울 때에 했습니다. 저는 중국을 넘어오는지 몰랐습니다. 다 얼어 있어서 눈만 치우고 (강을) 넘어왔더니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형, 저 이렇게 셋이 입국했는데, 먼저 입국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갔습니다. 영사관에서 보통은 2년 정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2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비행기 타고 바로 편하게 왔습니다. 한국에 오는지 몰랐고...

- 김○○(초등학교, 여): (사전정보) 8살에 입국. 북한에서 8살때까지 산에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다고 함. 엄마는 아빠와 3살 때 헤어짐. 탈북과정에서 2차례 잡혀 북한 감옥에 있었다고 함. 중국에는 잠시 경유, 살았다는 기억은 없음.

- 엄○○(초등학교, 여): (사전정보) 한국에 4살 때 입국. 2살 때 북한에서 나와 경유지 베트남, 캄보디아를 거쳐 04년 1월에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함.
- 이△△(중학교, 여): (사전정보) 중국에서 출생 10년 생활. 일반학교 재학기간 7년. 중국에서 초3학년까지 다님. 한국에서 초2학년부터 다님.
- 장○○(중학교, 남): (사전정보) 4살 때 중국으로 건너감. 초등학교 1학년 때 입국. 9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음.
- 주○○(중학교, 여): (사전정보) 9살 때 중국으로 가서 2012년부터 한국에서 생활

## ② 현재 가족관계

탈북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가족이 해체되어 새로운 가족이 구성된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전○○(중학교, 여): 외할머니와 사촌동생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는 큰이모네 쪽에서 일해 가지고 자주 만나고, 아빠는 만난 지 오래 됐는데. 친아빠가 아니라서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요. 친아빠는 중국에 있을 거예요...
- 이○○(중학교, 여): 동생 한 명 있어요. 원래는 아빠,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엄마 아들은 아니어서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아빠랑 엄마랑 저 초등학교 때 이혼해서 가지고 지금은 같이 안 살고, 오빠는 중국에서 오빠 엄마랑 살고 있고. 저랑 동생이랑 엄마랑만 살아요.
- 이□□(초등학교, 남): (북한에서 나올 때) 엄마, 아빠, 형이랑 (함께 나왔고, 현재도 4식구가 같이 살고 있어요).
- 유○○(초등학교, 남): 할머니와 형과 함께 왔고 지금도 할머니와 형과 삽니다. 엄마는 한국 오다가 다시 가셨고, 아빠는 처음부터 나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은 안합니다. 부모님이 북한에서 이혼을 하셔서 지금은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집에 돈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사전정보)현재 엄마, 동생, 새아빠와 살고 있음/ 엄마가 3살 때 먼저 한국에 와 계셔서 (북한에서) 할머니랑 둘이 살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엄마를 처음 만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무를 타고, 나무에서 놀고, 풀에서 뛰어놀면서 거의 사내처럼 살았습니다. 여기 오니 여러 가지 새로운 물건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북한에) 저 혼자 남게 되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 엄○○(초등학교, 여): (사전정보)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새아빠, 외삼촌, 1살짜리 동생과 같이 살고 있음/ 엄마는 여기에서 재혼을 하셨다고 함/

- 장○○(중학교, 남): 다 같이 오지 않고, 형과 왔습니다. 부모님은 따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엄마와 형 2명과 같이 삽니다. 아버지는 형 2명을 데리러 (북한으로) 가셨다 오다가 다시 잡혀가셨습니다. 현재 연락이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주○○(중학교, 여): (사전정보) 가족은 엄마만, 아빠와는 3세 때 이혼하여 모름/

(2) 입국 전 교육경험 유무 및 교육기간

탈북이후 입국까지 중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닌 경우, 입국하기까지 옮겨 다니는 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북한에서의 학교경험만이 전부인 경우도 있다.

- 전○○(중학교, 여): (중국에서) 초등학교, 유치원. 두 군데 다 다닌 것 같은데요. 2학년(까지) 다녔고, 중국어로 말하고 한국어를 배웠어요).

- 이○○(중학교, 여): 유치원 조금 다녔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사진, 저도 사진을 보고 다녔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 이□□(초등학교, 남): 옮겨 다니는 동안은 학교에서 공부 같은 거는 안 했어요.

- 유○○(초등학교, 남): 북한에서는 유치원을 다녔고, 중국의 (한국)영사관에서는 구구단만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을) 한국에 와서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에 살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도 탈북하신 분입니다.

- 이△△(중학교, 여): (사전정보) 중국에서 초3학년까지 다님
- 장○○(중학교, 남): 유치원을 9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기억이 약간 있습니다.
- 주○○(중학교, 여): (사전정보) 북한에서 유치원 2년, 초 1학년 1학기 다님

### (3) 입국 후 교육기간

입국 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해서 잘 적응해 가고 있지만 일부는 학교적응이 쉽지 않아 여러 학교를 전전하기도 한다.

- 전○○(중학교, 여): 몇 달간 집에서 그냥 한국어 배우고요. 한 몇 달 있다가 바로 캐나다 가서 유치원 다니다 다시 3학년 때 한국에 와서...다니고 있어요.
- 이□□(초등학교, 남): 입국한 뒤 삼죽초등학교에서 세 달 정도 교육을 받고 현재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 유○○(초등학교, 남): 입국하고 다음 해 3월부터 다녔습니다. 학교 다닌지는 6년 됐습니다. 하나원 당시에 삼죽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초등학교로 전학 와서 다시 1학년을 다녔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사전정보) 9살 때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함. 학교부적응으로 다른 학교에 다니다 다시 지금 학교로 전학와서 4학년부터 다님.
- 엄○○(초등학교, 여): (사전정보) 지금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계속 다님. 그 전의 유치원, 학교 경험은 없음.
- 이△△(중학교, 여): (사전정보) 한국에서 초 2학년부터 다님.

- 장○○(중학교, 남): 여기 있는 초등학교 나왔고 이곳에 살다가 이사 왔습니다.

- 주○○(중학교, 여): (사전정보)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다님. 초6학년 2학기부터 중2학년 1학기는 다니지 않아 학업에 어려움이 있음. 한국어와 영어가 거의 처음 이어서 더 어려움. 한국어는 엄마와 일상회화 정도. 초1-초6학년 1학기까지 중국학교 다님.

## 2) 한국에 대한 생각

### (1)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경우

입국하기 전에 부모가 좋게 말해주어 좋은 인상을 가진 경우와, 중국에서 위성TV 등으로 한국에 대해 미리 알고 좋은 인상을 가진 경우가 있다.

- 이○○(중학교, 여): 엄마가 좋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되게 싫은 감정이 없었어요. 엄마가 좋은 나라(라고 했어요.). 그냥 (한국에) 가면은 편한, 여기사(중국) 보다 편하게 지내고. 농사 안 짓고 ... 그렇게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생각이 변한) 그런 것 없어요. 거기서도 좋았고, 와서도 좋았어요.

- 이△△(중학교, 여): 입국 전에 중국에서 위성TV로 볼 때에 한국은 신기한 게 많고, 컴퓨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여기서 컴퓨터도 별 게 아니고, 스마트폰도 널려 있고 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스마트폰의 세계에 익숙해져서 지금 중국에 놀러가면 중국이 너무 시시하고 (중국에) 가도 재밌는 게 없었습니다. 중국엔 가끔 갑니다. 아빠 쪽에 친척이 있습니다. 아빠는 조선족 교포시고, 엄마는 북한 사람입니다. ... 처음 한국에 대한 생각은 TV를 보면서 ‘한국은 건물도 높고 멋있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곳에 익숙해져보니 별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 장○○(중학교, 남): 엄마가 한국에 먼저 와 계실 때라서 엄마의 “매우 좋다.”는 말에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중국보다는 편했습니다. ... 우선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느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리면 안 되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면서 지냈습니다.

## (2)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었던 경우

- 전○○(중학교, 여): 그 때(중국에서는)는 그냥 엄마가 먼저 여기 한국에 와 있었으니까. 그냥 엄마 보고 싶다(는 생각만 있었어요). (입국해서는) 그냥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 김○○(초등학교, 여): 한국에 온다는 것을 예상한 적이 없고, 한국이나 중국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산에서 할머니와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어떤 사람을 엄마로 착각한 적도 있었으며, 엄마의 얼굴도 몰랐습니다. 또 한국 땅이 있는지, 한국으로 오는지,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 유○○(초등학교, 남):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전 세계에 북한 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중국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한국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북한방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곳이 한국이라는 사실을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알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여기가 북한의 다른 지역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은 와서 보니 좋습니다. 그냥 편합니다.

## (3) 한국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졌던 경우

- 이□□(초등학교, 남): 북한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조선에는) 나쁜 놈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도 많아요. 좀 잘 사는 것 같고...

## (4) 한국에 대해 입국 후 실망한 경우

- 이△△(중학교, 여): 제가 중국에 산 곳은 시골지역이라서 마을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웃집 사람들과 저녁에는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친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냉정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같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면 다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집도 큼니다. (그런데) 한국은 집값도 너무 비싸고 집도 작아서 처음에 (한국에 와서) 집에서 지낼 때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 학원비도 너무 비쌉니다.

- 주○○(중학교, 여): 한국은 바쁜 나라, 그리고 깔끔한 나라, 영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학원도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빠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느릿합니다....사람들이 예쁘고, 옷도 잘 입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순수함은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깜짝 놀랐던 게, 치마를 핫팬츠보다 짧게 입고 다니고, 화장을 떡칠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쁜긴 하지만, 문화의 다름에 대해 느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면 중국아이들은 대부분 똑바로 앉아서 듣는데, 여기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할 일을 하고 시장판인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왕따라는 말을 처음 들어 봤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이들이니까 싸웠다가도 다시 노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싸우면...

- 엄○○(초등학교, 여): (입국 전에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 범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뉴스에서 실종, 살해사건 등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 3) 학교생활에서의 재미있는 점과 어려운 점

#### (1) 학교생활이 흥미있는 경우

학과공부는 힘들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

- 전○○(중학교, 여): 재미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애들이랑 놀고 그러면 재미있어요.

- 유○○(초등학교, 남): 우리반 아이들이랑 노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 엄○○(초등학교, 여): 친구를 많이 사귀었습니다. 재밌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주○○(중학교, 여): 2학년 때에 살짝 왕따를 당했는데, 3학년 올라와서 보니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자신감이 떨어지고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내가 바지를 입든, 치마를 입든, 짹짹이를 신든 길거리에 나가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자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나만의 자책이었구나.’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어울리면서 다니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서 점점 즐겁습니다.

## (2)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

### ① 학과공부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학과공부로 그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를 힘들어 하고 있다.

- 김○○(초등학교, 여): 공부는 중간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0점을 맞았었는데, 요즘에는 (좀 나아졌습니다). 이번에 수학점수는 97점을 받았습니다. 5학년 때는 수학과 사회, 과학이 재밌습니다. 5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어를 잘 못해서 영어가 어렵습니다.

- 이□□(초등학교, 남): 옛날보다는 성적이 올랐어요. 지금은 80점 정도. 수학과 영어가 공부할 때 힘들어요.

- 유○○(초등학교, 남): 공부는 못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은 못하진 않지만 재미가 없습니다.

- 장○○(중학교, 남): 학교 생활은 재미있는데 공부는 어렵습니다. 수업하는 중에도 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나 역사는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수학과 국어, 영어가 어렵습니다. 물어보고 알려고 합니다(다른 친구들에게). 수업시간에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그 답을 듣습니다.

- 이○○(중학교, 여): (공부는) 그냥 뭐 학년이 오를수록 그냥 공부가 어려워지니까. 그거 말고는 딱히 힘든 건 없는 것 같은데.

- 이△△(중학교, 여): (학업관련 점수는?)3점. 수업시간에 말(단어)이 어렵습니다. 외래어가 많아서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영어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 엄○○(초등학교, 여): 어려운 과목은 사회와 영어입니다.

- 주○○(중학교, 여): 제가 중국에서 공부하다보니 영어가 잘 안됩니다. 영어가 잘 안되다보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것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엄마는 워낙 바쁘시니까 힘들고, 선생님은 저 혼자한테만 신경쓰기는 힘듭니다. 영어말고도 어려운 과목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안 다니고 건너 뛰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상반기까지만 다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글도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에 올려놓으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

- 전○○(중학교, 여): 수학,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영어는요. 뭐지. 그냥 어려워요. 예전에는 (과외를) 하다가요. 지금은 안 해요.

## ②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지만 중국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선생님들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간혹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힘들어 하기도 한다.

- 이○○(중학교, 여): (학교생활에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은) 중국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학기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쪽 갔습니다. 중학교도 쪽 갑니다. ... (그런데) 한국에 오니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선생님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저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 다르니까 (힘듭니다). 선생님들도 탈북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담임선생님은 좋으십니다.

- 전○○(중학교, 여): 선생님은요. 막 그런, 뭐지. 북한에서 오고 그런 애들은요. 방과 후에 성적이 좀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쌤이랑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게

싫어요. 웬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빠요. (남아 있는 자체가 싫어요.) 솔직히, 배울 건 저도 다 배웠는데요, 중국에서 오거나 북한에서 온 애들만 남겨 놓고, 일 대일 과외로 수업을 하니깐 싫어요.

- 유○○(초등학교, 남): 북한에서 온 걸 다 알고 계시지만 더 잘해주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해줍니다. 똑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더 잘해준다면 반 친구들이 좀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재한테만 잘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질투 할 거 같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는 다 좋습니다.

- 장○○(중학교, 남): 선생님들과 친합니다.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 주○○(중학교, 여):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족합니다. 처음부터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처음에 영어를 못한다고 하니깐 영어자습서를 주시면서 “이것으로 공부하라.”고 하시고, 수학선생님은 점심시간이나 개인시간을 빼고 수학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국어선생님은 책을 사다주시면서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족한 점과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시고, 진로상담도 해 주십니다.

### ③ 또래관계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서로 배려해주는 과정을 통해 나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힘들어하고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주○○(중학교, 여): 저도 2학년 때에 살짝 왕따를 당했는데, 3학년 올라와서 보니 제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어울리면서 다니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져서 점점 즐겁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여자아이들과 달리) 여성스럽지 않고, 사내처럼 놀아서 좀 불편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주변에) 아이들이 2명 정도 밖에 없어서 쉽게 친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남한에 와서는 아이들이 많아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다가가는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져서 당황스러웠습니다.

- 전○○(중학교, 여): (친구는) 한 네다섯 명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같이 지내는 애들 말고 다른 애들은요. 뭐지. 친해지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애들에게 거부감이 들고 좀 그래서. 뭔가가 안 맞아요. (제가 중국출생이고, 엄마가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애가 딱 한 두 세 명 알고, 애들은 대부분 잘 모를걸요. (남한친구는) 노는 게 달라요. 뭔가가. 거의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막 놀다보면 달라요. 느낌이. ... 한국 애들은 그런 고정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친하지 않아요. ...탈북친구들은 뭔가가 편해요.

- 이○○(중학교, 여): (친한 친구는) 같이 다니는 친구는 한 다섯 명(정도),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 애는 많이 다니는 거 싫어해서 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다니는 거 싫어해서 저희 둘이서만 다니고, 학교 끝나고는 많이 놀아요. (친구들하고는) 특별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수다 떨고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 이□□(초등학교, 남): 친구 관계는 어려운 점이 없어요. 싸운 적은 있어요. 그냥 말하다 보니까 싸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화해가 됐어요.

- 유○○(초등학교, 남): 친구를 사귄 때에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탈북학생이란 걸 밝히기 전에, 다른 친구들이 먼저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 경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알든 모르든 똑같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알고 나서도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놀림 당한적도 없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전부 다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북한아이라는 말은 안합니다. 3학년 때는 많이 놀렸습니다.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리고 탈북친구들은 많지만 친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싫어합니다.

- 엄○○(초등학교, 여): 친구를 많이 사귀었으며, 친하게 지냅니다. 불편하게 하거나 놀림을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 이△△(중학교, 여):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아이들이 외모에 관심을 많이 쏟는데, 저는 외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아이들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외모에 대한 관심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외에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 장○○(중학교, 남): 초등학교 1,2학년때는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 주○○(중학교, 여): 친구와 관계가 좋고, 나쁘고는 완전히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관계에서 처음 어려웠던 점은 심리적으로 제가 스스로 위축되어서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까? 내가 북한에서 왔다고 놀리지 않을까? 내가 촌스럽다고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게 순수한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왜 내가 굳이 스스로를 위축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 ④ 방과후 학교 내에서의 활동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연극, 밴드, 운동, 중국어 동아리 등에서 재미있게 열심히 활동하기도 하지만 이해속도가 느리거나 진도가 빨라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간혹은 동생을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전○○(중학교, 여): 모듬 북(을 하고 있어요). 난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잘은 못 쳐요. 2학년 될 때부터 쳤으니까 (4개월이 다 되었는데 재미있어요).

- 이○○(중학교, 여): 모듬북이랑 연극반 했었는데, 둘 다 끊으려다가 모듬북은 선생님이 끊는 거 없다고 1년 하라고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말씀 드렸더니 시간 낭비할 바에는 공부나 하라고 해가지고. 연극은 우선 그만 뒀고. 모듬북도 엄마는 그만두라고 했는데...지금은 모듬북만 하고 있어요.

- 유○○(초등학교, 남): 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전 국가대표 감독이셨습니다. 축구감독으로 한국에도 오신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축구가 재밌습니다. 저는 뛰는 게 좋습니다. 축구부는 한지 2년입니다. 대회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에서만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축구선수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 축구선수 중에는 기성용 선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 김○○(초등학교, 여): 바둑이나 컴퓨터를 했습니다. 재미는 그냥.. 중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말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는데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선생님들은 친전하시긴 하시는 데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뭐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대로 배운 것이 없어서 다 엉망입니다.

- 엄○○(초등학교, 여): 예전에는 놀이과학과 블록 만들기를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방과후활동을) 하지 말고 집에서 동생을 돌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만두었습니다.

- 장○○(중학교, 남): 네. 전 운동을 합니다. 배드민턴과 농구를 합니다. 수업에 관한 건 하지 않습니다. 운동은 재밌습니다.

#### 4) 학교 밖 생활에서의 재미있는 점과 어려운 점

##### (1) 학교 밖 방과후 활동에서 재미있는 점과 어려운 점

###### ① 학교 밖 방과 후 활동 시 재미있는 점

학교 밖 방과후 활동은 중학생의 경우 주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을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밖 방과후활동에서도 공부하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

- 전○○(중학교, 여): 복지관에서 하는 야간 보호대라고요. 한 저녁 여섯시에 가서 아홉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는 거예요. 월요일은 기타 배우고요. 화요일 목요일은 공부하고 수요일은 영화 다운 받아서 보고, 금요일은 체육활동이라서 막 놀아요. 체육은 강당에서 놀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피구나 그런 거 알아서 (해요). 공부 할 때는요, 봉사 쌤 고등학생이 와요. 좋은 점은 그냥 집에서. 집에 나와 있다는 게 좋아요. 공부 빼고 전부 다 (좋아요).

- 이○○(중학교, 여): 복지관에서 하는 야간보호 해요. (야간 보호는 보통 이제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늦게 오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전 엄마가 집에

있긴 있는데. 엄마가 그냥 가라고 해서(가요). (복지관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그냥 그저 그래요. 근처 중학교 언니, 오빠들 오기 전까지는 되게 조용했는데, 오고 나니까 계속 언니, 오빠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졌어요. (저는) 제일 싫은 건 월요일 날 기타 싫어요. 중학교에는 거의 아는 사람 없었는데, 언니, 오빠들이랑 친해졌고. 그런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가 다니라고 해서 (가요). 엄마가 아프고 그러니까, 저녁 같은 거 해야 하는데, 제가 있으면요. 엄마가 좀 더 신경을 쓰거든요...

- 이□□(초등학교, 남): 방과 후에는 그냥 공부방 가서 9시까지 공부해요. (공부방에서 간식을 먹고, 저녁밥은) 집에 와서 먹어요.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냥 친구들이랑 쉬는 시간 한 시간 동안 아파트 옆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놀아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은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연주하러 가요. 바이올린은 TV 보다가 소리가 좋아서 배우고 싶어서 배운지가 1년 되었어요. 오케스트라는 그냥 공부방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지관에서 연습해요.

- 유○○(초등학교, 남):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은 매일 갑니다. 모든 과목을 알려줍니다. 재밌습니다. 선생님은 5명이고 숙제를 다 해결하고 갑니다.

- 엄○○(초등학교, 여):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춧불학교> 다니는데 1교시는 영어, 2교시에는 수학을 배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공이나 마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고 있는데 멘토 선생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일요일) 만납니다. 토요일에는 동생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놀니다.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처음 온 탈북친구들이 잘 적응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 이△△(중학교, 여): 초등학교 때 탈북학생들만 모여 있고 탈북학생의 인권을 공부했습니다. 영어나 수학은 과외를 했는데 성통만사에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문화 활동을 여러 곳에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장소로 가고, 과외는 선생님집 근처 카페나 저희집 근처 카페에서 1-2시간씩 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온 탈북언니·오빠들을 보면 막혀있고, 자신만 사랑하는데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통만사에서 보면 온 지 1년 정도 된 언니·오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니·오빠들이 누구한테

말도 안 걸고, 혼자 문화활동만 하고 갑니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혼자서 또는 개인교습 등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활동들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과외교사는 대부분 교사 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다.

- 장○○(중학교, 남): 예전에는 학원도 다녀보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는 장래 희망이..... 요리사입니다. 초등학교 때 다녔고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 주○○(중학교, 여): 복지관은 안 다니고, 학원은 다녔는데 한국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데, 저와 수준이 달라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패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학원보다는 과외선생님을 만들어서 저의 수준에 맞게 한 단계씩 올라가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거의 매일 과외선생님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입니다. 토요일마다 영어도 배우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고민도 털어 놓습니다. 월요일엔 학교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주십니다...

## ② 학교 밖 방과 후 활동 시 어려운 점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활동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흥미를 잃기도 하고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서운해 한다.

- 김○○(초등학교, 여): 무지개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와 뮤지컬,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 다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는 체험이 아니라, 미술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주제만 정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것입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좀 더 예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다....

- 주○○(중학교, 여): 목요일은 대학생 멘토링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수학을 가르쳐주시고, 금요일은 자유시간이고, 토요일은 복지관에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합니다. 하루에 한 프로그램 정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을 췌는데, 갑자기 떠나시니까 허전하고, 좀 서운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이 와도 몇 달 하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 (2) 가족관련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가족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을 걱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 다툼이 많은 경우 힘들어 하며, 동생을 돌보아 주어야 하거나 엄마의 잔소리가 심할 때에도 힘들어 한다.

- 주○○(중학교, 여): 엄마랑 같이 사는데 엄마가 일을 많이 해서 119에 실려 가서 집에서 두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나 이 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밥은 밥솥에 하고, 엄마가 밑반찬을 해놓고 가면 혼자서 그것을 먹거나 심심할 때는 언니들도 불러서 같이 놀니다.

- 전○○(중학교, 여): 사촌동생이랑 나이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돌봐줘야 해서 싫어요).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영상통화 하는데요.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요. (엄마는) 집 치우라고 막 그러고요. 할머니네 집에서 사니까. 눈치 있게끔 하라고 (잔소리 해요). (엄마는) 선릉 쪽에 (사는데), 제가 주말 마다 거기 갈 때가 많아요.

- 이○○(중학교, 여): 아빠는 혼자 살아요. (연락은) 가끔 해요. 엄마가 아빠를 되게 싫어해요. 엄마 몸이 아프니까 계속 저한테 짜증을 내고, 저도 좀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엄마한테 계속 짜증을 내고. 동생이 애기니까 매일 투덜투덜 거리고 앵앵 떼고, 매일 시끄러웠었는데, 그래도 야간 보호를 다니니까, 엄마 얼굴 보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별로 안 싸우는 것 같아요.

- 이□□(초등학교, 남): 엄마, 아빠 두 분 다 직장생활 하셔서 함께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형이랑 같이 놀아요. 축구하고 형 친구들과 놀아요. (형도 친구가 많아요.) (초등학교 때는 형하고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형이 저를) 안 때려요. (주말에는) 형이랑 놀러가요. 사촌형도 주말 마다 와서 사촌형이랑 영화 보러 가요. (가족들이 많이 챙겨줘요.)

## (3) 일상생활관련 만족수준 및 어려운 점

입국이전에 힘든 생활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특히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또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못 알아 듣는 것, 중국을 경유해서 온 경우 중국과 달리 이웃과의 교류가 별로 없는 것, 밀집지역 특성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 전○○(중학교, 여): (이 동네 산 지가) 이 삼 년 된 것 같아요. 이 동네는요. 오 단지에 범죄가 많데요. 성폭행 범죄 있고 막 그러는데.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지만 놀 때는 별로 없어도 애들이 많고요. 개네들이랑 놀게 되면요 놀게 많아져요. 가끔 할머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저한테 잘 해주세요). 만나면 용돈 같은 거 주고...

- 이○○(중학교, 여): 저희 동네 사람들 중에서 저희 또래, 친구들이 별로 그렇게 다 질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선배들 보면 놀이터에서 계속 애기들 노는데서 담배피고, 저희 동네가 제가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아파트 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요...

- 이□□(초등학교, 남): 처음엔 그냥 그랬어요. 힘들지는 않고, 어려운 낱말 같은 것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려웠어요. (어른들 말 보다) 친구들 말이 이해하기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알아들어요(예를 들면, 인터넷은 한국에 와서 처음에 봐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가 어려웠어요).

- 엄○○(초등학교, 여): 동네 새터민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고 만나는 친구도 많습니다. 좋습니다. 불편한건 마트랑 편의점이 집에서 멀리 있고, 놀이터도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습니다.

- 이△△(중학교, 여): (중국과 달리) 이웃과의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 장○○(중학교, 남): 이웃들과는 대화를 별로 안해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활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생활해서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가 더 어려웠던 점이 많았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서 그런 데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생활했던....

- 주○○(중학교, 여): 심심하긴 하지만, 그 덕분에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잘 안됩니다. 중국에서 탁구를 치다가 체육선생님에게 뽐혀서 시에 나가서 2등도 했습니다. 이웃과는 그냥 보고 인사만 하면 끝입니다. 엄마가 7남매인데, 다들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엄청 외로워하셔서 어떤 날은 자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습니다. 엄마와 둘이만 탈북했습니다...

## 5)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과 결과

### (1)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결과

중국말을 사용했던 경우에는 한글을 좀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고, 학과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져 힘들어 하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가고 있기도 하며, 대중문화와 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 전○○(중학교, 여): 처음에 왔을 때 중국말만 (했어요). 차 타고 지나가면 간판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읽었어요.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웠으니까. 가끔씩은 모르는 단어들 많이가지고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말 잘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랑 얘기해서 통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이○○(중학교, 여): 학교생활은 1학년 때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2학년 올라오니까 공부 조금 어려워 진 것도 좀 힘들고... 친구는 원래 1학년 때 같이 다닌 친구랑 같이 올라왔는데, 별로 안 친했던 친구인데 친해졌어요.

- 이□□(초등학교, 남): 친구들 말을 못알아 듣거나 하면 그냥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제가 모르는 것을 놀리는 친구는 없었어요.) 공부방도 열심히 다녔어요. (내가 낱말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도서관에서 낱말 백과사전을 찾아서 봤어요.

- 유○○(초등학교, 남): 저는 그냥 제 맘대로 (행동)했습니다. 노력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 엄○○(초등학교, 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 이△△(중학교, 여): 억양이 달라서 억양을 (바꾸기 위해) 애썼습니다. 억양이 좀 세지 않습니까? 엄마도 탈북인이고 아빠도 조선족이시기 때문에 들어보면 억양이 좀 셉니다. 중국어를 전에는 잘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중국어를 할 사람도 없고 해서 이제는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압니다.
- 장○○(중학교, 남):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예습, 복습은 잘 하지 않습니다.
- 주○○(중학교, 여): 문화이해 밖에 없습니다. TV를 보고 연예인 이름만 알아놓아도 아이들과 가까워집니다. 내 장점을 많이 키웁니다. 제가 장점이 많으면 다른 아이들이 “이 아이는 놀아도 내가 배울 수 있는 애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을 잘 치거나 체육을 잘한다고 하면 “아, 애는 대단하다.”, 그 다음에 “아, 이거 잘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거니?”하고 물어보면 제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의 장점은 체육이고 성취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2) 또래관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결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친구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 이○○(중학교, 여): 맨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잘 지내기 위해서) 성격을 조금 다듬었지요. 되게 말도 없고, 소심했었는데, 조금 말도 늘리고. 제가 먼저 좀 다가갔어요.
- 이○○(중학교, 여): (노력해서 친구가 많아지니까) 그 전에 친구 없어서 힘들었던 것들이 그냥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되게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먼저 다가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있는 과목은 집중이 잘되기 때문에 그런 과목은 잘 듣고 있습니다.

- 장○○(중학교, 남): 성격이 나쁘신 선생님도 있었지만, 거의 다 좋습니다.
- 주○○(중학교, 여): 선생님들이 처음부터 잘해주시고, 친절하십니다.
- 이○○(중학교, 여): 초등학교 때까지는 선생님들이 다 좋았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깐. 초등학교 때 보다 (선생님) 대하기가 어려워요...
- 전○○(중학교, 여): 담임선생님이랑 친해지면 어려워요. 막 힘들어요. (선생님들은) 맨 날 성적에 대해서 짜르고요. 심부름 같은 거 친하면 막 시키잖아요. (선생님이랑 친해지기 싫었어요.)

(4)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결과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등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하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기도 하며,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한 청소년들은 중국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와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한다.

- 전○○(중학교, 여): 할머니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저한테 잘 해주세요).
- 이○○(중학교, 여): 옛날에는 그 (비행청소년) 무리에 있던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은 중학교 올라오면서, 중학교 올라오면서 되게 (비행 청소년으로) 변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앞에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니깐. 그냥 엄마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버틴 거지요.
- 이△△(중학교, 여):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경로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저희 엄마를 보고 사람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 장○○(중학교, 남): 이웃과는 거의 대화를 안하고 특별히 한 노력이 없습니다.

- 주○○(중학교, 여):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합니다.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없습니다. 중국은 차 마실 시간도 있고, 장기도 두기 때문에 그때 이웃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춤도 춥니다.

## 6)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

### (1) 탈북청소년 스스로 해야 할 노력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도 먼저 열고 다가가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전○○(중학교, 여): 저희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나? 몰라요. 어쨌든 그래요. 고정 관념을 깨야 되요. 먼저 낮을 가리면 안 돼요.

- 이○○(중학교, 여): 탈북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나 밖에서 움츠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움츠려 있는 걸 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변해야 할 것 같고...

- 유○○(초등학교, 남): 저는 전학을 오거나 가는 친구들한테 먼저 말을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애 집에서 같이 자고 놀기도 해서 지금은 친합니다. 처음 봤을 때에 눈에 띄게 말이 많고 활발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본인이 선생님이 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꺼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중학교, 여): 서로 잘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하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주○○(중학교, 여): 공부를 잘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잠은 줄여서 잔다. 지금은 7시간 잡니다. 학생이니까 공부입니다...

(2) 적응을 위해 남한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고 싶은 것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과 운동이나 여행, 캠프 등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도 싫고 함께 하는 것을 서로 싫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 유○○(초등학교, 남): 캠프 정도는 좋을 듯합니다. 어정쩡하게 친해지기 보다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축구, 피구 같은 체육도 좋습니다.
- 엄○○(초등학교, 여): 아이들이랑 디스코팡팡(놀이기구)에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용돈을 안 주셔서 못 갑니다. 또 게임장이나 워터파크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용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 이△△(중학교, 여): 지나친 관심이 너무 (부담 됩니다.)
- 장○○(중학교, 남): 여행입니다.
- 전○○(중학교, 여): 같이 하면 애들이 더 싫어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예요. 이거는. (남한 아이들, 북한 아이들) 둘 다 서로 싫어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이 하자고 하면 제가 드러나서 싫어할 것 같아요.)
- 이○○(중학교, 여): 아이들은 모두 다 끼리끼리 놀아요. 몇몇 애들을 빼고는 다 그래요. (북한 애들은 북한 애들끼리, 한국 애들은 한국 애들끼리 모여 놀아서 소용이 없어요.)

(3) 학교나 지역사회,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탈북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 기회를 주어 자신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 이○○(중학교, 여):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그런 거 의견 받아 가지고 (배우고 싶다는 것을 지원해 줬으면 해요).

- 이□□(초등학교, 남): (북한에서 온 친구들의 학업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쉽게 (학습내용을) 쉽게 설명해서 (그 친구들을) 도와줬으면 하고요. (일상생활 적응에 있어서는) 남한 친구들이 북한친구들이 모르는 거 물어보면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엄○○(초등학교, 여): 다른 친구들은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벌 어오시는 돈이 적어서 생활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못 다닙니다. 학교 환경시설 이 깨끗하면 좋겠고, 체육관에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 이△△(중학교, 여):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탈북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도 피해가 될 수 있다 는 것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이 다를 게 없으며 한민족 이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은데,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 좋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도 만들고,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는지도 알려주면서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이해교육이 아닌 탈북 주민 이해...(탈북주민에 대 해 잘 모르면서 피하는 것 같으니까...)

- 장○○(중학교, 남): 발음하는 것에서 거리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니까 생활 부분에서 더 알려주고, 친구관계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안됩니다.

- 주○○(중학교, 여):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좀 더 긴 시간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복지관에서는 초등학생만 가르쳐주잖아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초등학생반, 중학 생반, 고등학생반을 나눠서 가르쳐주면 부모도 좋아하고 학생도 좋아합니다. 복 지관에 가서 보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밥도 먹고, 학원갈 시간도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쳐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을 줄이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바뀌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 7) 한국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

### (1) 가장 좋았던 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학생은 자신이 점점 예뻐지고 있다고 느낀다.

- 전○○(중학교, 여): 좋았던 점은 되게 전부 가깝고. 슈퍼나 그런 게 가깝고요. (생활시설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경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먹을 게 많아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한 동네에 애들이 많아서) 놀 사람이 많잖아요.
- 이△△(중학교, 여): 가장 좋았던 점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이 놀고, 여기 와서도 언니, 오빠들을 많이 아는 게 좋습니다.
- 이□□(초등학교, 남): 여기는 자동차 타고 다녀서 편리하게 다니는 게 좋아요.
- 주○○(중학교, 여): 제가 예뻐집니다. 스스로 느낍니다. 아마도 선크림을 바르고 다녀서 그런 것 같습니다.

### (2) 힘들었던 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과 학습이나 활동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 남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것이라고 느낀다.

- 이△△(중학교, 여): 가장 어려운 점은 학부모님들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모두 똑 같은 것 같습니다. 탈북학생들을 보면 학교생활도 힘든데, 부모님들이 공부만을 강조하니까 힘듭니다. 공부만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힘듭니다.
- 주○○(중학교, 여): 제가 2학년 때에 적응을 잘 못해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9) 통일 의식

### (1)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심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통일이 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가 되어서 잘 어울려질지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전○○(중학교, 여):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된다면 좋겠어요.

- 유○○(초등학교, 남): 통일이 됐으면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안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요?

- 장○○(중학교, 남):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중학교, 여): 통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통일이 됐다고 해도 한반도의 한 나라를 누가 책임을 지고 총괄을 해야 하는지? 한국은 민주국가이고 북한은 인민공화국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통치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나라가 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어떻게 잘 어울려질지 고민입니다.

### (2) 통일의 필요성

아직도 북에 남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중학교, 여):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평화라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마의 가족이 있어서...엄마쪽 가족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많이 보고 싶습니다.

- 김○○(초등학교, 여): 통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큰

이모와 친척언니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되면 먼저, 큰이모를 보고 싶습니다.

- 이□□(초등학교, 남): 북한의 가족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 주○○(중학교, 여): 엄마의 형제분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당연히 (통일을) 생각합니다.
- 이○○(중학교, 여): 엄마가요 힘들 때마다 자꾸 울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마는요. (엄마) 가족들은요. 다 북한에 계시고 엄마만 딱 혼자 있어요. 엄마 형제만 아홉 명인데, 그래 가지고 엄마가 가족을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힘들 때 마다...
- 전○○(중학교, 여): (북한에 대한) 느낌이. 엄마 얘기로는 살기 힘들다고, 이모할머니가 아직 거기서 안 왔는데요... 거의 아프서 가지고요. 못 오고 그래가지고. 통일 되면요,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 (3) 바람직한 통일방식

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주○○(중학교, 여): 저는 김정은 일가의 나라는 멸망되고,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모습을 만들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다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서 손을 잡고 부족한 점을 채워가면서 친구처럼 지내면 좋겠습니다.
- 이△△(중학교, 여):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평화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흡수통일이 되면 그러면 나라를 통치하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또 모여서 다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흡수통일하는 건 별로입니다.
- 이□□(초등학교, 남): 남한과 북한이 대화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유○○(초등학교, 남): 전쟁하면 피해가 크지 않나요? 통일을 하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을 듯합니다. 외교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 김○○(초등학교, 여): 한국과 북한이 싸우지 않고 친해져서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중학교, 여): 제 생각으로는 전쟁 같은 거 말고, 말로 타협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전쟁 나면은 다 무너지니까.

#### (4)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남북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탈북과정을 알려주어 통일이 된다면 필요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한다.

- 이○○(중학교, 여): 북한을 너무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해 나쁜 감정을 없애지) 없으면 통일 되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한테 (남한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잘 대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북한은 나쁘다는) 그런 편견 같은 거 좀 없애고...
- 전○○(중학교, 여): (빨리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통일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 유○○(초등학교, 남): 그냥 북한과 한 나라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듯합니다. 우리나라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하기 때문에 한민족...다른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는 비행기를 타면 갈 수 있는데, 북한은 아예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이 북한에 대해 잘 모릅니다.
- 이△△(중학교, 여): 주변 사람들에게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주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도 너무 관심이 없고 통일이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 이△△(중학교, 여): 북한과 대화나 회담을 많이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 장○○(중학교, 남): 한국 사람들에게 탈북과정을 설명하면서 통일을 하면 더 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 주○○(중학교, 여): 이산가족상봉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나면 감정이 쌓여서 헤어질 때에 더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족들이 통일을 바래서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 일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막지 못할 듯합니다.

### 4-3. 교사(지도자) 면접조사 결과

#### 1) 탈북청소년 지도 경력

조사대상 교사(지도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탈북청소년들을 정규수업시간이나 교과지도 시간에 교사나 담임으로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와 방과후 탈북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 복지관 또는 방과후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한출신교사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대상 교사(지도자) 총 9명 중 ⅔(6명)는 탈북청소년 지도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3년에서 10년 이하이었으며, 10년 이상은 1명, 1년 이상 2년 미만은 2명 이었다.

#### 2)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게 된 이유나 계기 및 교사 1인당 지도하는 학생 수

##### (1)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게 된 이유나 계기

학교 내 교사의 경우는 근무하던 학교에 탈북청소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교사의 전공이나 학문적 배경에 의한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밖 교사(지도자)의 경우에는 근무하던 기관의 업무 배정에 의해, 대학생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북한주민지원활동을 하다가 탈북청소년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다. 탈북지도

자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탈북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NK 교사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탈북청소년이 밀집한 학교의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배정받은 경우와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다.

## (2) 교사(지도자) 1인당 지도하는 학생 수

교사(지도자) 1인이 담당하고 가르치는 탈북청소년의 수는 학교 안의 경우 최소 5명부터 학교 밖의 경우에는 최대 14명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 ①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수와 지도교사의 수

밀집학교인 ○○중학교는 탈북청소년이 10명 재학 중인데 업무담당교사가 1명, 담임교사가 7명으로 총 8명이다. △△중학교는 탈북학생교육정책연구학교로 10명이 재학 중이며 전담코디네이터외에도 담임교사, 멘토링 담당 교과지도교사, 부장교사 등 7명이 업무를 담당한다. □□초등학교는 전체 탈북청소년은 11명인데 6명이 탈북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으므로 나머지 5명을 1명의 전담코디네이터가 방과후 지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북한이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없고 탈북민 자녀로 외부에 드러나 있는 학생이 4명,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학생이 3명이다.

### ② 학교 밖 탈북청소년의 수와 지도교사의 수

대안학교는 전체 탈북청소년은 54명인데 선생님 4명, 교장선생님 1명 포함 총 5명이다. 복지관은 관할 지역 총 7개구 탈북청소년을 담당하는데 직원은 전문상담사 포함하여 11명이다. 민간지원센터는 35명의 탈북청소년이 있고 교사는 5명, 자원봉사자가 25명이어서 거의 1청소년 당 1교사의 지도형태로 1:1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원센터에서 생활지도를 맡고 있는 탈북청소년은 총 30-40명 정도이나 현재 진행중인 탈북청소년대상 프로그램은 없다.

## 3)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도(지원)내용과 교사(지도자)의 실제 지도사례

### (1) 학교 안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청 지원 프로그램 및 지도사례

### ①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청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를 탈북학생의 멘토로 정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연간 학생 1인당 30시간의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멘토링사업은 대체로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탈북학생의 학업지도를 1대1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초기에는 멘토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북한에서 배우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나 거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일회용 활동으로도 진행되었다. 연간 30시간의 멘토링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법과 한 달에 3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매달 일정한 시간을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탈북청소년 멘토링사업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탈북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충학습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학업향상 효과를 보기도 한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시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연간 30시간씩 공부시킬 수 있는 멘토링 비용이 나옵니다.....연간 30시간이면 한 달에 3시간인데, 3시간 가르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주면서 돌아다니고 10시간 수업했다고 하면 한 달에 1시간 남는데 어떤 지원을 하겠습니까? 형식입니다. 그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중략).....저는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밥을 해먹고 저녁 9시까지 공부한 이후에 집에 데려다주었습니다. 하루는 데려다주고, 하루는 자는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데리고 해보니 학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국어사전으로 맞춤법을 공부하고, 수학은 카드놀이로 공부했더니 해결이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링사업이 일회성 문화체험행사로 그치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비판이 일고 학교 밖 기관에서 지원하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중복되면서 예산집행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게 되자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회성 문화체험활동을 금지하는 교육청의 지시가 일선 학교에 전달되기도 하였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이천 몇 년도 때는 절대로 밖에 나가서 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아무튼 그 때 제가 처

음으로 우리 학교에 왔을 때 ‘올해는 그 돈을 아이들 가르치는 지도비로만 사용하고 어디 나가서 문화체험 한다든지 그런 데는 일체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요.

## ② 탈북청소년 학습보충 캠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단체가 주관하는 탈북청소년학습보충 캠프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에 열리고 있다. 4박5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중학습캠프로 청소년들이 보충학습을 원하는 과목을 전공교사가 1:1로 지도하는 캠프이다. 면접대상자 중 오랫동안 탈북청소년 교육업무를 담당해온 초등학교 교사(여)는 이 단체의 임원으로 방학마다 학습보충캠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 ③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의 교육활동 지원(통일교육 포함)

탈북청소년 밀집학교에는 전담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보충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 남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와 북한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공통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나타났다. 공통활동은 탈북청소년과 학부모 상담활동과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교육지도 활동이다. 남한 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경우 북한교육에 대한 전공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거나 다년간 탈북청소년 교육업무에 종사한 현장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통 초임의 경우는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간의 편견을 해소하는 상호이해교육을 하기는 어려워 1년 정도 근무한 남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교육지원 활동은 학생에 대한 학업지원과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김△△(중학교, 여: 남한출신코디): 가정과 학교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며, 또 학생들의 심리, 학업 등 전반적인 부분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합니다. 중학생이 마음의 문을 많이 열지 않을 시기이지만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투입이 된 것입니다. 대하기 어려운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마다 특성이 다른데, 대부분 (학생의) 엄마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엄마들은 탈북과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가 하면, 어떤 엄마들은 — 조선족 엄마와 탈북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의 엄마 같은 경우는 친정엄마 만난 것 같다고 눈물도 흘리십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학생의 배경과 가정환경을 알게 되면 그 학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북한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남한학부모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교육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하고 있다.

- 이△△ (초등학교, 여, 탈북교사 전담코디): 오전에는 탈북학생들 외에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통일교육 한 시간씩. 학급마다 들어가지요. 2학년 이상부터 프로그램을 넣었지요. (통일교육은) 한 학기 동안 두 번을 들어가요. 오후에는 두 시간씩 탈북 학생들 지도(를 해요.) 학부모들을 한 학기 동안 두 번씩 학교 내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어요. 그 때 우리 학교에는 탈북학생이 있고, 정책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이런 거. 탈북 학부모들도..... 학교에 오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 불러서 일반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줘요.) 학부모회장이거나 일반학부모들에게 협조를 구해 학부모들끼리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탈북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은 교사와 남한학생과 남한 학부모의 탈북청소년과 탈북학부모에 대한 편견 해소와 상호이해 및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 이△△ (초등학교, 여, 탈북교사 전담코디):...그리고 저희 학교는 교직원이 백 명이 넘어요. 그래서 교직원 대상으로 북한교육이해. 담임교사로서 탈북학생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북한교육이 이리이러하고..... 이러면 선생님들도 재미있어 하고 ‘아, 그랬었구나’ 관심....그런데 아이들한테도 5, 6학년 정도는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해요. (탈북)아이들이 ‘아, 되게 가까워졌다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친구가 많아졌어요’라고 대답을 하지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왜 부모들이 그런 거 종종 들어요.... ‘엄마가 북한 애들 하고 놀지 말래요’ 그런데 부모한테 들어 보면 북한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석 달 만 지내봐라,’ ‘이런 애들은 이래서 이래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3개월 후에 만나면 ‘괜찮다. 부모들도 따뜻하더라.’ (라고 해요).

#### ④ 탈북청소년 학부모 상담 및 남북청소년 상호이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업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활동이외에도 자발적으로 탈북청소년 학부모부모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는 등 탈북청소년대상 상담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상담과 가정방문을 하기도 하고 남북학생간 상호이해와 어울림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교육활동 외에도 관계되는 일들을 많이 하지요. 예를 들면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나 고민도 들어서 해결해 주고...

- 진○○(초등학교, 여교사): 밖에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외출할 때는) 잘 갖춰입고 나와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 방문해보면 집안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수시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북한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경우는 자신이 전담하는 탈북학생과 학교내 남한학생과의 상호이해와 어울림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음악을 통해 남북한 학생이 하나 되는 통합교육을 하고 방학 때는 북한요리 등 요리를 함께 만드는 교실과 목공예수업 등 문화예술을 활동을 함께 하면서 남북한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초등학교, 여, 탈북교사 전담코디): 제가 한 게 뭐냐면. 홈스밴드라는 음악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난 탈북 애야'(라고) 당당히... 밝히라는 스타일이거든요. 학교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구요. '네가 마음에 들고 같이 하고 싶은 애를 데리고 와라'해서 22명이 음악을 했는데..... 방학 때 마다 일주일 동안 남북한 학생이 함께 하는 요리 프로그램과 목공예 수업도 하고 있어요.

## (2)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원

학교 밖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설에는 대안학교와 방과후 공부방 및 그룹홈 등이 있다. NGO로 운영되는 곳과 민간시설이지만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복지관이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운영하는 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숙형 방과후 학교는 탈북청소년이 부모가 없거나 있더라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대신 맡아 하면서 교육까지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사는 탈북청소년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에서 일상생활을 돌보는 역할을 주로 한다. 민간단체로서 기본적으로 후원회에 의존하여 운용되고 있고 정부의 직접적 지시는 받지 않고 자체적인 설립취지와 교장선생님의 운영방침에 따라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은 모두 교육부의 직접 관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의 직접적 지원이나 지도를 받지 않고 있고 주로 사업을 공모하거나 위탁하는 기관의 지도지침을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에 들어와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 종료되어 사업 또한 중지된 경우가 많다.

- 김○○(대안학교, 여): 우리 대안학교가 기숙형 방과 후 학교 시스템이라. 애들이 정규교육을 한국학교에서 받고 오면, 기본은 그냥 어머니다운거지요. .... 우리 학교가 NGO라서 사회적인 뭐 이렇게 정부적인 강요는 당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냥 교장 선생님하고 NK지식인연대 산하 학교니까, 후원회에 따라서 교장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자체 예산이 부족하여 외부의 지원을 받기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예산지원에 따르는 서류준비를 위한 행정업무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그나마도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의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이 2013년에 들어와서 많이 종료되어 교육 사업 또한 중지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청소년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외부 공모사업의 경우 주로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같은 사업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침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복지관은 관할부서가 보건복지부이므로 교육청에서 예산이나 지침이 나오는 것은 없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무지개(학교)를 10년 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부나 외부지원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너무 포화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지개학교가) 문을 닫게 된 것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과부, 산업은행, 지원재단 등 3군데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3군데가 다 공모사업이었습니다. 3군데가 양식이 달랐는데,

매월 보고를 하는 곳도 있고, 분기보고를 하는 곳도 있고, 상하반기 보고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행정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모사업의 특징이 사업비만 있고 인건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쓸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사업을) 하면서 행정업무도 하고 아이들도 케어하고, 지도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생님들이 오래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동안에) 예산이 풍부하니까 다양한 시도들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교과부도 지원을 종료했고, 산업은행도 지원을 종료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지원재단 뿐인데, 지원재단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1년 사용이 아니라 4월부터 12월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공백기간은 별도의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 (3) 운영기관의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지원수준

#### ① 학교의 지원수준

학교의 교장, 교감 등 관리자나 기관장의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지원수준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자가 속한 학교가 대부분 탈북학생관련 연구학교나 정책학교로 지정된 학교이거나 탈북청소년이 밀집된 지역의 학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자의 관심도나 지원수준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중학교, 남교사): 워낙 공문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다 믿고 맡기는 편이예요. .... 탈북학생들의 모듬북 활동에 대한 지원을 올해는 다문화 예산으로 잡아 대부분 무료로 참여할 수 있게 하지요. (그런 것들을 개설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기관장들의 지원이라고 봅니다.)

- 김△△(중학교, 여교사): 교장선생님께서 (탈북학생에 대해)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위해 좀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학생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저희 학교는 탈북청소년정책연구학교라서 엄청 잘 해 줘요. 뭐 해 주세요'라고 하면 100% 다 해주시지요. 이번에도 탈북코디들 재단에서 워크숍 할 때, 우리학교에서 공개수업을 좀 보고 싶는데 협조해 줄 수 있냐고.

학교장님이 당연히 해 줄 수 있다고. 협조해줬잖아요.

그러나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과 같은 관리자의 경우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교육지원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관리자의 의식 전환을 위한 연수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 관심이 많으셨어요. 연수도 받으러 다니시고...

- 진○○(초등학교, 여교사): 교장, 교감선생님들이 탈북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장, 교감연수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수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을 옥죄는 일 밖에 못합니다. .... 교장, 교감 선생님이 너 참 귀한일 한다, 필요한 일한다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학생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장, 교감선생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연수를 해야 합니다.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탈북,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 ② 학교 밖의 지원수준

학교 밖 민간시설의 경우 기관장이나 이사들이 학교운영을 위한 재정이나 다양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외국어는 원어민 강사분들이 따로 오셔서 하세요. .... (원어민 강사는)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십니다.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거는 봉사하는 선생님들 데려오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또 돈을 쥐가지고 이렇게 데려 오시고. (이런 일을) 교장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하시고. 지금은 아마 후원회 이사분들이 또 많이 데려와서 그냥 봉사하듯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 (4) 탈북청소년을 지도하지 않는 다른 교사(지도자)들의 인식 및 지도에 대한 지원수준

학교 내 탈북청소년을 지도하지 않는 교사나 기관의 다른 직원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나 지원 수준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적으로 정책연구학교 등으로 지정이

되거나 탈북청소년이 밀집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수준이 높아서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탈북청소년에 대해 우호적이고 지원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에서도 개인적으로 교사나 기관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경우도 있지만 탈북청소년과의 접촉시간이 길어지거나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오해가 풀리면서 인식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혁신학교나 정책연구학교 및 밀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분위기나 관리자의 전폭적 지원으로 인해 일반 다른 교사들의 인식이나 지원수준이 높은 편이다.

- 이○○(중학교, 남교사): 그래도 많이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셈이지요. ‘불쌍하다’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상황이 어렵구나’ ‘힘들구나’ 다 이해를 해주지요. 도와주는 편이지요. 또 혁신학교니까. 선생님들이 다 열정이 있으니까...

- 김△△(중학교, 여교사): 협조를 많이 하시고, 수행평가 때에 오히려 편의를 봐줍니다. 예를 들어서 탈북학생이 PPT를 몰랐을 경우에, 배워서 해오라고 마감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배려해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수준에서 배려를 해줍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 선생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100% 모든 걸 다 스톱하고 학교생활에 보강해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다른 교사들이 지원을 잘 해 주시는 편이에요.)

교사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학교의 경우도 탈북청소년과 탈북학부모의 현실에 대한 이해교육과 연수프로그램 등의 제공으로 이해하게 된 후에는 인식과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청소년과 직접 부딪치면서 생활하거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연수를 통한 인식개선이 이후 교육지원업무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역사회복지관 기관장들도 처음의 막연한 편견은 접촉이 지속되면 개선 될 수 있다고 한다. 연수와 접촉 기회 제공은 인식수준 제고와 지원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탈북학부모님들에게도 반감을

갖는 첫 번째 이유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준비를 다해주지만, 과거에 “왜 아이가 준비물이 없어요.”하고 아침 9시경에 전화를 하면 학부모가 졸린 듯한 목소리로 “아, 몰라요,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하고 말하니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제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절대 안해 보내고 이런 모습들이 이해가 안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 후에는 좀 더 따뜻하게 아이를 돌봐줬을 걸 하고 (그 선생님이) 후회했습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다른 교사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좋지요. (연수 등을 받고나면 교사들의 인식 및 지도 등이) 달라지지요. 그 때 연수가 굉장히 좋았고. 그런 인식이 한 번 있는 선생님들이라면 그 다음 업무를 추진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 이□□(지원센터, 여교사): 공부방을 운영할 때도 ‘탈북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 기가 세고, 산만하고 정리가 안된 아이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의 다른 아이들과 연합프로그램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아이들이 제일 통제가 잘되고, 말도 잘 듣고, 의사소통도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탈북청소년은 어려운 존재, 다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왔을 때는 그렇지만, 그것은 한 두달이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의 모든 선생님에게 어느 학생이 탈북학생인지를 밝히지 않는 경우 학생이 탈북청소년인줄 모르는 선생님들은 특별한 배려를 할 수 없으므로 동등하게 학생을 대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밝히더라도 전교의 모든 교사에게 사전에 특정 학생의 출신을 알리고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또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항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김△△(중학교, 여교사): 직접 담당하지 않으시면 탈북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학생들을 대합니다. 따라서 탈북학생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아 개가 탈북학생이구나.”하고 뒤늦게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의 탈북사실을 알리진 않고 있습니다.

#### (5) 탈북청소년지도 관련연수·교육 경험

탈북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의 성격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규학교 내의 교사와 전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있고 민간교육시설의 교사나 기관지도자에 대한 연수와 탈북교사에 대한 연수가 있다. 또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서울시교육청 및 대학의 관련 연구소 그리고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지원재단이 있다.

##### ① 정규학교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참여경험

정규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수와 서울시교육청과 대학교 주관 연수, 그리고 탈북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획운영 하는 연수가 있고 이러한 연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학교에 근무하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프로그램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의해 정기적으로 제공되었고 통일부에서도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부기관 및 대학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연수와 시도교육청 주관 연수와 대학에서 실시하는 교사대상 연수는 대부분 오프라인 연수였지만 온라인 연수프로그램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정규학교 교사 대상 연수는 처음으로 탈북청소년 학급의 담임을 맡게 된 교사와 탈북청소년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교사 및 부장교사 또는 교장,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매년 학년 초에 1박2일로 하는 기본연수와 어느 정도 탈북청소년 교육활동에 경험이 있는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2박 3일의 심화연수가 있다. 면접대상자들 중 정규학교 교사는 이 두 가지 연수를 모두 연수생으로 수료하였고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과 지도의 전문적인 교사로서 인정되어 연수의 강사로도 참여하고 있다.

- 이○○(중학교, 남교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하는 거 다 받았고요. 케디(KEDI) 심화연수, 기초 연수 두 번 다 받았어요. 서울시 교육청 거는 두 번 받았어요.

- 진○○(초등학교, 여교사): (한국교육)개발원, 서울교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다 했습니다. 탈북학생 이해입니다. ... 연수는 기본과정, 심화과정 나뉘어 있습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국단위, 지역단위도 다했고, ... 서울시 직무연수는 제가 4년째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10월 11월 가을학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학교자체 연수 프로그램

탈북청소년이 집중되어있는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기획한 탈북학생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탈주민과 탈북청소년 관련 외부 전문가 들을 초청한 직무연수 뿐만 아니라 탈북학생을 담임하거나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하는 일상적 연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가 기획한 직무연수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학교의 교사가 탈북청소년을 지도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제가 2007년도에 우리 학교에 왔을 때, 그 때 저희 학교에서 맞춤형 연수 같은 걸 (몇 날 며칠을) 했어요.

- 김△△(중학교, 여교사): 새터민 담당선생님 외에 일반선생님들도 <탈북학생들 이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학교가 아니라도 저희 학교는 탈북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담당선생님이 직원회의시간에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 전담코디네이터 대상 연수프로그램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는 탈북학생이 밀집한 곳에 파견되는 교사로서 교육청의 예산을 위탁받아 운영한다. 초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채용하여 파견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학교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채용은 학교에서 직접 하기도 했으나 2013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정규학교에 근무하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2달에 1번 정도 1일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 2달에 한번 씩 전담코디네이터의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하기도 하고 업무관련 협의회를 하는 시간으로 포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탈북교사출신 전담코디

네이터와 한국출신 코디가 함께 학교의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도사례를 발표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지도방식의 노하우를 알아가고 남북한의 교육현실과 의식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남한출신 코디에게는 탈북청소년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북한출신 코디에게는 남한의 학교문화와 교사의 생각을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김△△(중학교, 여교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두 달에 한 번씩 교육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교육이 있었는데, 규칙적으로 두 달에 한 번이었지만 중간에 사례발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의 사례발표가 실질적인 도움이 컸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교육받는 횟수가 7,8번 정도, 4, 5시간 정도입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연수나 교육을 너무 받았지요. 주관기관이 주로 KEDI였어요. ... 당일치기로 여섯 명 정도가 함께 교육을 받았는데, 내용은 주로 상담, 탈북청소년의 상담뿐 아니라 일반학생들의 상담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 교과서에 있는 한국의 역사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담코디네이터 사업이 2013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올해 처음 통일부에서 전담코디네이터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강원도 화천에 새로 건립된 제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일명 제2하나원)에서 여름방학을 이용해 2주간 숙박하면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이번에 화천에 있는 제2하나원에서 하는 교육에 7월 말부터 8월 둘째 주까지 2주 동안 (참여할 예정입니다.)

#### ㉠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원격연수 프로그램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의 전국적 확대와 이에 따른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전국적으로 분포된 교사 연수의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오프라인 교사들의 연수 참여에 대한 지역적 제한과 연수 시기 및 참가자의 수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11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개발을 의뢰하고 서울시과학기술연수원에 운영을 위탁하여 2012년 4월부터 1달에 1회씩 현재까지 매회 400명씩 매년 4천명을 대상으로

‘탈북학생 교육의 이해’라는 15차시의 교사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탈북청소년을 처음 지도하게 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는 연수프로그램이어서 조사대상중 탈북청소년 지도업무에 근무한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전담코디네이터는 원격연수 내용이 탈북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 그리고 인터넷으로 교육연수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용은 탈북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이고, 교육체제의 차이점, 진로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기간은) 16시간이었습니다. ... 교육내용은 새터민 이해뿐만 아니라, 남한에서 기반을 잡는 과정과 교육체제, 지원네트워크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 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㉞ 탈북교사(NK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북한에서 학교교사로 근무한 탈북교사를 대상으로 ‘NK교사 아카데미’라는 연수프로그램을 3기까지 운영하였다. 1기는 30시간 2기부터는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탈북학생 밀집학교의 전담코디네이터로 채용하거나 한국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한국 교육내용에 익숙치 않은 탈북청소년 1:1 과외지도 프로그램에 교사로 채용하여 탈북교사의 역량강화 및 한국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였고 탈북청소년의 학업보충을 위한 사업으로도 활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에서는 존경받는 교사였으나 한국에서는 자신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고 적응에 곤란을 겪던 탈북교사들에게 매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고 이 프로그램을 수료한 탈북교사들이 전담코디네이터가 되고 대학교와 대학원을 진학하여 다양한 방과후 탈북청소년 공부방과 대안학교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하면서 탈북청소년의 학업보충과 학교 적응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NK교사아카데미에서 제가 3기 수료고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루의 결석 지각도 없이 그냥 부지런히 갔어요. .... 한 5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한국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애들 가르치는. ‘한국애들 이렇게 가르친다.’ 이런 것 정도. 북한교육과 남한교육의 차이점을 가르쳐 주시고.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 어떤 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

시고 또 거기에 관련된 문제도 토론해가지고 공부했었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우리가 1:1멘토 자격을 받아 가지고 애들 공부시키는 그런. (학교에 취업된 게 이 교육과 연관이 있고, NK아카데미에서 교육받은 것이 제게는 도움이) 일단은 많이 되었어요. 자격증 같은 것은 주지 않지만, 수료증을 주지만 그래도 한국시스템 같은 것을 제가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 ② 민간단체 대상 연수프로그램 참여 경험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민간교육시설이나 기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정기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 주로 관계기관에서 주최하는 민간교육시설 지도자의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관련 전문가들의 강의를 제공되기도 하고 대체로 현재 탈북청소년의 교육 상황의 어려움과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한 교육지도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와 향후 정책방안에 대한 협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고 1년에 2회 이상 참가하고 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지원센터에서 가끔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면 가긴 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같고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진행하는 방과후 공부방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부나 재단이나, 민간단체 등) 외부에서 하는 탈북청소년 관련 사업들에 대한 외부 교육들이 있으면 참여하고요. ... 분기마다 1회 정도씩은 있는 것 같아요.

- 이□□(지원센터, 여교사): 저희는 연수나 교육보다 워크숍이 주입니다. 복지관이나 대안학교에서 탈북청소년을 만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많습니다. 일년에 1-2번입니다. 적응의 어려움과 극복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학교 외에 민간기관에서 마련하길 바라는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6)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① 교육현장 사례중심의 연수내용 강화 필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의견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교사가 부딪치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상황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구체적으로 통일 관련해서 탈북학생들의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딘지, 지원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연수를) 시작하고 하니까 달라지지요.

반면에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처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의 연수여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수와 학자 등 전문가들의 강의나 연구자들이 만든 교재를 보급하기보다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도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지도 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도방법을 탐색해가는 방식의 연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내용이나 형식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서울교대나 개발원에서 하는 연수는 보편적인 것이라 그냥 일반이해를 구하는 쪽이라서 실제로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편안한 위크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서울시 직무연수는 제가 4년째하고 있는데 ... 앞으로 직무연수 내용이 지도하고 있는 학교들이 참여를 해서 지도사례 나눔을 해야 합니다.

## ②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연수내용 변화 필요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도 사례집이 발간되어 보급되고 있고 연구보고서 등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는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여 현재 초등학교의 탈북청소년이라고 분류되는 학생들의 절반이상이 중국출신인데다가 부모 중 한명은 중국 국적인 한족이거나 조선족 동포로서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에 기인한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탈북청소년으로 분류되는 학생들의 절반이상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법적으로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고 사실상 '탈북청소년'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거나 유창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부모중의 한명이 대체로 엄마가 북한출신이고 한국에서 북한출신 엄마의 가정교육의 영향으로 '북한적 특성'이 어느 정도 나타나기 문에 탈북청소년과 같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육부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탈북청소년으로 통계하고 있을 이지 이전의 북한출생 탈북청소년과는 교육지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다른 집단이다. 탈북자와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오는 탈북청소년 교육지도 현실의 변화에 알맞은 교육 지침과 연수 내용의 변화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시간적으로 늦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와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의 공급 내용 차이가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와 개선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탈북아이들 사례집이 연구된 곳마다 많이 있습니다. 교육개발원 자료도 이미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분들이 써서, 보면 초기에 바라봤던 모습들이 아직까지도 같이 가고 있어서....최근에 입국학생이 북한출생보다는 중국출생이 많아지는 추세의 변화가 반영이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정책토론회 같은 거 하기는 하셨는데 발표내용이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 ③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및 연수 시 다양한 구성원 참여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업을 운영하던 2012년까지는 전담코디네이터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한국의 교사나 복지사, 북한출신 교사 등으로 다양했는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재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북한출신 교사만이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다양한 배경의 전담코디네이터가 함께 연수를 받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탈북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즉, 탈북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와 한국출신 코디가 함께 학교의 다양한 탈북청소년 지도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도방식을 배워가고 남북한의 교육현실과 의식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남한출신 코디에게는 탈북청소년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북한출신 코디에게는 남한의 학교문화와 교육방법 등을 알아가는 유익한 정보공유와 교육의 시간이

되었는데 북한출신 교사만으로 이루어지면 그러한 다양함이 줄 수 있는 이점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목표와 단체의 성격상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탈북교사만으로 전담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담코디네이터의 직무연수나 워크숍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한국출신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토론이나 실제 교육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교육실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실무중심의 교육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NK교사만 되다보니까 사회에서 부적응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탈북교사로 한정하는 것이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왜냐하면, 탈북 학생들을 위하여, 일반(남한출신) 교사도 그 탈북학생이나 북한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서로 보완하면 좋다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코디로써 내(탈북교사)가 할 수 있는 거하고 상대(남한출신)가 할 수 있는 코디하고 정보 교환이 되면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 이△△(초등학교, 여교사): 왜냐면 그 사람들(남한출신)이 코디로서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들어보면 ‘나는 이렇게 말고 또 이렇게 돌아가서 해 볼 수 있겠구나’ 이거를 터치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서로 공부呀. 그런데 탈북교사들끼리 정보교환을 하면..... 한계가 있지요.

#### ④ 민간교육시설 지도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

민간교육시설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로 관계기관의 협의회와 워크숍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교사용 지도매뉴얼 개발보급,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정형화된 매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특수성을 적용한 사례매뉴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게 배포가 되면 좋겠습니다. 상담부터 진학지도방법, 학습지도방법, 그리고 아이들이 취약점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문화체험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는데 없습니다.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모아놓은 것은 대부분 연구자료로 많습니다. ...매뉴얼화된 책은 없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인터넷 교육도 주관해서 교육하는 곳이 필요한데 그런 곳이 없습니다. (만약) 한다고 하면 통일부나 (북한이탈주민)재단인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꼭 이수해야 되는) 필수교육도 없습니다.

#### 4)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보람

##### (1) 탈북청소년 지도 교사(지도자)로서 개인적인 어려움과 보람

###### ①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보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보람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지도하는 탈북학생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래친구와 잘 지내고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마지막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할 때이다.

###### ㉠ 탈북청소년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을 때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학업성적이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 부진이 가장 큰 고민이어서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자신이 직접 방과후 보충학습을 지도하거나 멘토링했던 탈북청소년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어 기뻐하고 공부에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재밌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이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지도하면서 가장 큰 보람은 회장이 되거나 성적을 많이 줌 받아서 '선생님 저 성적 됐어요' 이러면 되게 좋지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을 써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금방금방 좋아지는데.. 그런 경우 보람이 있지요.

- 김△△(중학교, 여교사): 00와 △△이란 아이가 있는데, 수학 점수가 00는 20점대였고, △△이는 60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역네트워크와 연결이 되어서 학원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수학전문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현재) △△이는 96점, 00는 86점까지 올랐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오른 성적입니다. 그럴 때는 보람을 느낍니다.

㉔ 탈북청소년이 원만하게 적응하고 사회에 통합되었을 때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온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학교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해 가면서 한국사회에서 자기 인생의 희망을 찾아 학업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즉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보람을 느끼는 또 하나의 순간은 이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한 일원으로 통합되어가고 있다고 느낄 때인 것이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지나가다가 (보면) 탈북애가 있는데, 주위에 친구들과 같이 놀아요. 그럴 때 보면, 되게 좋지요.

- 이□□(지원센터, 여교사): 아이들이 공부가 재밌다고 하거나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할 때가 좋습니다. 눈에 확 보이는 성과보다는 아이들이 “남한에 오길 잘한 것 같아요.”, “공부가 하고 싶어졌어요.”라고 말할 때입니다.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을 나누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방을 마무리할 때에 5,6학년 아이들은 별도로 개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개별욕구에 맞추어서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 보람이 크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하고, 또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한국땅에서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 ㉔ 인성교육 효과가 나타나고 감사를 표시할 때

부모의 탈북과 한국 입국으로 북한이나 중국에서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서 살았던 탈북청소년이 한국에 와서도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서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는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는 심리적인 불안정으로 행동과 관계형성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의 일반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에서도 일상생활태도나 또래관계 형성 및 학습지도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인성발달에 문제가 있었던 탈북청소년이 대안학교 교사의 1년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개선되어 정상적인 태도와 인간관계 형성이 가능해져서 큰 문제없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또한 지도해준 선생님을 따르고 감사의 인사를 할 때 교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 애가 너무 불안해 가지고 저희 말을 막 안 들었어요.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막 앉고. 그래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독였는데 안 되가지고, 제가 진짜 매도 안겨봤어요. 개 손바닥을 아주 약한 걸로 때려도 봤었고. 붙들고 울기도 했었고. 약속도 했고, 사정도 했고, 비판서도 써봤고. ... 정말 한 6개월은 제가 교사를 때려 치고 싶은 정도로. 학교 선생님도 저를 인정해 줬어요. 선생님들도 '개는 안 된다' 이랬는데 저는 그냥 마냥 불쌍한 거예요. ... 1년 만에 바뀌었어요. 지금 제가 교사를 관둔 다음에 맨날 맨날 저한테 계속 울면서 전화와요. '선생님 안 오냐고, 언제 오냐고' 어제 저녁에도 문자오고. 맨 날 맨 날 전화오고 문자 오고해요.

#### ②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

##### ㉕ 목적한 교육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교사가 나름대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지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교사는 이를 자신의 무능력함이라고 여기면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 이○○(중학교, 남교사): 능력부족. 현실적으로 어떠한 결과물들이 썩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그렇고.

㉠ 탈북청소년과의 관계형성 어려움과 탈북청소년의 태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에서의 삶과 탈북과정 및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한국사람들을 만나면서 받은 상처와 관계의 패턴에 의해 형성된 사람을 대하는 냉담한 방식과 쉽게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마음을 열지 못하는 특징이 남한출신 교사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다. 탈북청소년과 같은 눈높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초기에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났을 때에 지속적으로 따뜻하게 하기보단, 다시 만나면 “선생님, 누군데요?”, “왜 그런데요?”하고 생경하게 대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 처음에 겪는 분들은 한 4-5년 갑니다. 정을 주지 않고 4-5년이나 가고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벽을 뚫기가 힘듭니다. 그게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과 다른 부분입니다. 빨리 마음의 문을 못 여는데는 각 단체마다 지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단순한 놀이식의 지원이기 때문입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아이들과) 관계를 맺으려면 (교사가)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 저는 처음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시선이 조금씩 맞춰졌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맺는 게 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선생님들도 솔직히 성인보다 아동청소년과 의사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감하고 대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선생님이 항상 기복이 없이 평온을 유지해야 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언어 소통이 잘 됐으면 탈북학생들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들이 (언어지원과 관련해서) 그런 정보가 정말 없어요. 연수를 받아보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뭘 어떻게 찾아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난감했던 것 같아요.

탈북청소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적인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태도와 무기력한 태도로 인해 교사가 지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특성은 탈북청소년만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에게서도 대체로 나타나는 것이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고 미리 예고 없이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행동방식은 자신이 무엇인가 난감할 때 그러한 상황을 제대로 말로 전달하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연락을 두절하는 것으로 행동한다고 한다. 처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거나 접촉할 때 사전 지식이 없는 선생님의 경우 매우 당황하거나 편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 김△△(중학교, 여교사): ...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핸드폰으로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끌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아이들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이끌어주는 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해결이 안됩니다.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무엇인가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하는 점이 없이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 부족 등으로 무기력하게 행동하는 것이 지도할 때 힘든 점이라고 한다. 무기력한 경우에는 어떤 것에도 동기부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학업 뿐만아니라 다른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원인이 가정이나 탈북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트라우마 등과 같이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도상의 큰 장애가 되기도 한다.

#### ㉔ 근무여건의 열악함

탈북학생을 지도할 시간의 부족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많거나 하루종일 24시간 탈북학생과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 피로감과 너무도 긴 근무시간으로 가정생활을 희생해야하는 등 근무여건이 급여에 비해 너무 열악한 것도 어려운 점이다.

- 이○○(중학교, 남교사): 시간부족. 하야간 하고자 하는 것만큼 시간투자를 못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하지요.

- 김△△(중학교, 여교사): 주말에 시간을 내야할 때가 힘들고,...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 저희 방과후 공부방이 오후 두 시부터 열 시 까지예요. 밤 열시까지. 근데 월급 130만원이에요.
- 전○○(민간지원센터, 여교사): 어려움은 어떤 일로써 끝나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 년) 365일... 교육을 떠나서 아이들의 생활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 예산 지원 부족

교사가 탈북청소년 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열의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서 문화체험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제적인 부담도 어려운 문제이고 정부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지만 예산이 학생 수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인력부족 등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특히 민간교육시설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돌보는데 드는 경제적 지원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는 것을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얼마 전에도 많은 아이들과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뮤지컬 관람 후, 식사시간에 제 개인 경비로 밥을 사줘야 했습니다. 저도 아직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힘듭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돈이 없으니까 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없고, 점점 없어지고... 저희도 서울에서 탈북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하는 곳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방과후 공부방 다 내려놨잖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좋은 사람을 뽑을 수도 없고, 예산은 또 한계가 맞춰져 있고. ...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케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자원을 이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 탈북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심리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

탈북청소년의 가정은 탈북과정에서 가족이 해체되고 중국에서의 거주기간 중 형성된 가정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어머니가 아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으로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방치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은 반항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들에게는 사적을 고려하게 만들 정도로 상당한 고민이 되고 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 어릴 때 부모님을 떠나 있던 애를 부모님이 정착해서 데리고 온 애들은 부모한테 정이 없고, 학교에도 정이 없는 상태, 버려진 아이 같은 상태잖아요. 애 자체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애들하고 계속 싸웠어요. 아니면 수업시간에도 자버리고. 제일 처음에는 사랑으로 다독였는데 안 되가지고, 제가 진짜 매도 안겨봤어요. 붙들고 울기도 했었고. 약속도 했고, 사정도 했고, 한 6개월은 제가 교사를 때려 치고 싶은 정도로 힘들었어요.

#### ㉞ 탈북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교육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한국사회와 학교의 운영방식과 교육문화를 잘 모르는 탈북학부모를 상담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 그리고 교육적 관점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의 교육방향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탈북부모들에게는) 일일이 전화해야 하고, 체크해야 되니까(제일 힘들어요.)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어려운 점은 어떻게 보면, 교육관의 차이(공부만이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교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과 공부를 우선시 하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이 달라서 교사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서 이해 받지 못하는 것..)

### (2)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어려움

#### ①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

탈북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진학하는 경우나 선생님의 노력으로 결국은 문제행동이 수정되거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한국사회

에 통합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

- 이○○(중학교, 남교사): 그래도 좋은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보람이겠지요. 뒤편. 결과에 대한 보람보다는 좋은 일. 그래도 하여간 학교 그만 둘 것 같은 애들이 이번에 고3 마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기쁘지요. 사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저희 학교에서 유예를 받았던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보니까 다 해결되었다고 할 때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학급에서 담임 맡았던 경우에 학급에서 치유험동을 통해서 가정에서 울곤계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살아난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학습이 해결되면서 가정간의 관계까지도 풀어져 갈 때입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 6개월 되고, 애들 모습이 바뀌니까 자신감이 생겨 가지고 애들하고 휩쓸리고 잘 놀더라고요. 그게 6개월 정도부터는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1년 정도, 애들의 과도기는 그냥 1년? 6개월에서 1년 사이, 빠른 애들은 6개월도 상당하고. 힘든 애들은 1년?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겠지요. (1년 만에 많이 바뀐 아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보람이 있어서) 행복해요.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남북청소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②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 학부모와 지역사회 의견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가 일반학부모와 탈북학부모가 함께 하는 상호이해교육을 시도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일반학부모들이 탈북자에 대한 편견을 나타내면서 탈북교사인 코디네이터도 한사람의 탈북자로만 대하여 무시하고 편견을 드러내고 협조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일 때 상당히 지존심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또한 학교와 학급에서 교사가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편견을 가지고 이들을 배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교사로서도 교육적으로 무력하게 느끼게 된다고 한다. 특히나 어른끼리만의 배제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나 상호이해 노력은 진정한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받은 교육과 편견의 영향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교육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치관에 혼란과 충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의 멘토교사와 같이 지역사회에도 멘토가정을 연결해주고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교사연수와 같은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자존심이 되게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학부모들이 저를 탈북인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탈북 학부모하고 일반 학부모하고 연결해서 서로가 오고 가고 지내(게 해 주고 싶잖아요). 탈북아이들이 친구들과 사귀고 싶은데 못 사귀는 거예요. 부모가 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려고 일반 학부모들에게 다가가면, 일반 학부모는 '네가 뭔데' 이런 태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너도 똑같은 탈북인이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분이 안 좋지요. ... 그리고 경직되지요...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하고 다른 탈북자 하고 또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거....

- 진○○(초등학교, 여교사): 부모님들이 탈북아이들과 놀지 말라고 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가정과 일반가정이 묶여질 수 있도록 멘토가정이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들 직무연수처럼 마을단위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 ㉠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비전 부재 및 교사 지도 능력의 한계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의 변화로 인해 중국태생의 탈북부모를 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교육방법 등에 대한 고민과 청소년들의 상황이 교사가 학교에서 해결해줄 수 없는 심각한 경우가 많은 것도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다. 북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경우는 학교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업무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수과정이 전혀 없어 혼자 학교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배워야하는 현실이다. 또한 북한에서 배운 교과지식이 한국에서는 무용지물이어서 자신의 지식수준으로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탈북학생, 특히 중국에서 태어난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비전,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많이 답답하고, 실제적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 장래를 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아이들의 상황이 내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 많아 그런 부분이 어렵지요...

- 이△△(초등학교, 여교사): 학교에서 근무할 때, 학교시스템이 너무 달라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데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학교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북한에서 내가 사대를 나오고 교사를 하고 학생들 가르쳤지만, 여기 와서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어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국문학 전공으로 북한의 중고등학교 국어문학, 교수안, 지도안까지도 거의 암기하고 있는데 여기 국문학은 이게 문학인지 역사인지...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지식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요.

#### ㊤ 탈북청소년의 북한식 학교생활 태도로 인한 교우관계 지도의 어려움

북한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감시한 내용을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서로 ‘호상비판’이라는 이름으로 고발하게 하고 또한 자신의 잘못도 ‘자아비판’이라는 이름으로 동료들 앞에서 고백하고 반성해야 한다. ‘생활총화’라고 하는 이러한 상호비판과 자아비판에는 전국민이 예외가 없고 누구나 죽기 전까지 한평생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교사에게 누군가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행동이나 말 또는 자신에게 행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보고하는 것은 장려되는 행동이고 국가와 당에 충성하는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교육받는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의 행동방식과 문화를 잘 모르고 북한에서 생활하던 습관 그대로 한국의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친구들의 행동을 일러바치는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가 입국초기에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행동은 남한학생들에게는 ‘고자질’하는 행동으로 친구로서는 최악의 행위이며 학급에서 왕따 당하기 쉬운 행동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를 모르는 탈북청소년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여 더욱더 선생님께 ‘고자질’을 하게 되고 선생님도 학생들도 이런 탈북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초기 지도과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 실수나 잘못을 해도 관대하게 대하는 선생님의 태도를 다른 학생들이 질투하거나 특별 대우한다고 문제 삼는 등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학급 전체를 지도하는데도 어려움을 느낀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아이들이 탈북학생을 부당하게 대해 준다고 생각되

면 저에게 와서 이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남한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니꼽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애들은 자기들이 불공평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내가 (북한에서 온)애는 말을 잘 못하니까 숙제를 안 해 와도 다음에 다시 해 와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다른 애들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그 부분 있어서 다시 쓰라든지, 숙제를 해 오라든지 남겨져서 청소를 시킨다든지 응당의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니까,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북한식 말투나 어눌한 한국어로 인해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까봐 말을 하지 않거나 학교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친구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교사는 지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영리한 애들은 일반친구랑 사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자격지심으로 북한어나 중국어에서 한국말로 바뀌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왕따를 시켜요. ... 말을 시켜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 ㉠ 예산지원 부족과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부족

탈북청소년 지도를 위한 정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예산 지원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탈북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탈북 연구정책 학교라서 플러스알파(+α)비용이 있는데, 연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지원이 없어집니다. 만약, 지원이 끊기면 아이들에게 지원되던 문화활동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얼마 전, 진로상담교사가 생겼듯이 탈북 학생 밀집지역에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라는 자리도 안정적으로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지원되던 사항들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각 정부부처와 기관이 각자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예산은 조금씩 따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살아가야하는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결국 충분하지 못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전시성인 행사 위주의 활동이 지원의 주된 내용이 되어 이들의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하고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지원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각 기관마다 비용을 나눠서 조금씩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학교로 한 학생당 지원되는 비용은 한 학생당 일 년에 60만원, 한 시간 당 2만원으로 일 년에 30시간인데 아이들 필요한 물건 사주고,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은 몇 시간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가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아무도 못합니다.

#### ㉞ 탈북청소년의 학습동기와 기초학력 부족

탈북청소년은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학교의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동기가 약하고 또한 쉽게 좌절한다. 탈북청소년의 학업과 경험의 결핍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역사과목에서 많이 나타난다.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학업적인 측면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지만 공부할 만한 동기부여나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공부를 가르치는 일보다 아이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좌절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대체적으로 사회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용어가 생소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남한에서) 다녔던 아이들은 조금 낮지만, 초등학교학년이나 중학교부터 다녔던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회와 역사를 제일 어려워합니다. 사회과목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익혀져왔던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덧붙여지는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고생들이 가장 어려워했습니다. 사회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사회라는 것이 기본 상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탈북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왕 중심으로 시대를 나누어서 업적 중심으로 시대를 보는데, 공산주의 사회는 농민운동, 민중운동을 중심으로 시대를 나누기 때문에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달라 초등학교 때에 상위클래스에 있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져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㉞ 불안한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탈북청소년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 헤어져있으면서 느끼는 불안감과 외로움 또는 죄책감과 한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조급함 등으로 인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너무도 다른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 전○○(민간지원센터, 여교사): 북한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사회에서의 어려움은 한국사회가 아이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잘 살고 호화스럽게 보이는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부모들이 전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불안정한 직장에 다니다보니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등한시 될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 결국엔 탈선을 할 수도 있는 비율이 높아지고...

탈북부모와 자녀 간에 남북한의 문화차이가 그대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부모는 북한식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 비해 자녀는 한국학생과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면서 가정 내에서 남북한 문화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이 나타나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또래 및 가족 간에 어려운 점은 어디나 마찬가지로인데, 부모님과 아이의 차이가 큰 것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나라의 7080년대의 부모님들처럼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과 코멘트를 못하면서 강압적으로 공부하라는 일방통행으로 일관하시고, 아이들은 그들대로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는 욕구들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공개수업을 한 번도 안 왔어요.”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간·기말고사를 언제 보는지 모르는 부모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성적표만으로 본인의 학교생활을 평가하는 것에 힘들어하고, 남한의 부모님과 비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소통이 없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우리아가 남한아이들과 잘 지내는지 평가를 하는 것은 성적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족캠프나 가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한가정을 섞어서 모델링하는 작업도 합니다.

㉟ 탈북 정체성 문제와 콤플렉스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슈가 바로 탈북정체성의

문제이다. 탈북자인 것을 주변의 친구들에게 알릴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남한사람으로 보일수 있도록 외모와 말투를 교정하고 자신의 출신을 숨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탈북학부모의 대부분이 자녀가 학교에서 북한출신임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실제로 현재 70%이상이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남한학생들의 왕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장애가 될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에 있어서도 늘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봐 전전공공하기 때문에 건전한 관계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고 혹시 잘못되어 본인의사와 반하여 외부적인 이유로 자신의 출신이 드러날 경우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되어 친구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출신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이 편견에 의해 차별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피하고 자신을 숨기면서 위축되어 사회생활에 제한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출신과 정체성을 밝혔을 때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의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정신적인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사람들의 반응과 대우에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학교와 사회생활을 해 나갈수 있는 힘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탈북청소년이 또래와 못 어울리는 것은 위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청소년이) 자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위축되어 있고 무조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울고불고하면서 학교에 못 다닌다고 말합니다. 위축되어 있어서 아까 그 친구같은 경우에도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굉장히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그냥 똑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본인을 인정하고 노출할 수 있는 것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성인이 되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싸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본인이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고,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감싸안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는 ...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한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부정적 한국사회의 편견을 탈북자 스스로도 내면화하여 이를

콤플렉스로 갖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콤플렉스로 인해 남한사람들이 자신을 차별하고 무시한다는 피해의식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은 외모와 외양으로 드러나는 부의 상징에 집착하고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물건을 쉽게 소비하고 이를 과시하는 경우이다. 탈북청소년의 경우도 주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유행하는 전자제품이나 값비싼 물건들을 소유하고 과시함으로써 북한출신이라는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콤플렉스를 갖지 않도록 교육적 지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그런데 탈북청소년 중에서 자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본인이 가진 것보다)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20-30만원 정도 하는데, 남한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진 않은데 탈북아이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가장 최신형 스마트폰을 사주고, 옷도 비싼 브랜드옷을 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자체도 물질적인 것에서 밀리면 진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콤플렉스를 극복해주는 것이 저는 먼저인 것 같습니다.

## 5) 탈북청소년이 학교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과 필요한 지원 사항

### (1) 탈북청소년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

탈북청소년이 한국의 학교나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요소는 남북한의 언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또래관계형성, 학업부진, 심리적 불안감과 자존감 부족, 결손 가정환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의 돌봄 기능 결핍 등으로 나타났다.

#### ① 언어와 가치관의 차이

탈북청소년이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할 때 부딪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다. 북한에서 출생하여 북한식 말투를 사용하는 아이는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한 두드러짐이 가져오는 왕따 등으로 또래관계형성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두려워하여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된다. 중국출생의 청소년은 아예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생활 초기 학교 수업시간에 북한출생 탈북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말을 잘 못알아 듣는 상황이고 중국출생의 경우는 전혀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업시간에 전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언어 문제가 탈북청소년이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첫 번째 어려움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언어지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잘 알아들어야 60%예요. 40%는 못 알아들어요. 그 시행착오가 한 3년 걸리더라고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중국에 있던 애가 한국말을 못해 가지고 아이들과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오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 김○○(대안학교, 여교사): 언어가 되기 전에는, 소통이 되기 전에는 애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북한에서 직행 한국으로 금방 온 애들은, 아니, 중국에서 금방 온 애들은 한국 애들 하고 말을 안 해요. 자기 말이 이상한 걸 자기가 느끼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6개월이 되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00학교 애들하고는 그나마 소통이 되는데, 나가서는 절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북한에서 온 애들은 자기 본 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음을 바꾸기가 힘들더라고요....

또한 남북한의 체제 차이에 따르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사회의 획일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탈북청소년은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유일사상체제인 북한에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의 정답만이 있다고 배우고 생활해왔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가치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의견만이 옳고 자신과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의견은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남한학생들과의 의사소통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또래관계 문제로 확대되게 된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 북한의 교육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혼돈스러워하고. (남한 아이들은 이게 답일 수도 있고, 저게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북한 아이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내 답이 맞는거야. 네 답이 틀렸어’라고 하면서 싸우고. 그게 중점적인 현상이잖아요. 일반 아이들은 ‘왜 틀렸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니’ 하는 게 이 아이들의 사고방식인데. 탈북 아이들은 ‘아니야, 틀렸어.’ 이런 차이...

## ② 또래관계

탈북청소년이 아주 어린 나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처음부터 다니기 시작한 경우는 남한청소년과 별로 다르지 않고 한국사회 적응에 비교적 문제없다고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시기적 특성상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또래관계가 어려운 것은 한국학생들과 외모나 언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함과 학교급수들보다 보통 1~2년 정도 많은 나이, 그리고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 등에서 기인한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초등에서도 학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또래문제 같은 게 있고.....

- 김△△(중학교, 여교사): ... 친구관계에서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00이 경우, 처음에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제자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 그런데 본인이 노력을 했습니다.... 00인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드라마도 보고, 매니큐어도 칠하고, 머리염색도 약간하면서 본인이 희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00이가) 친구관계로 어려워할 때는 이곳의 간식을 주면서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아이들의 같은 학년에서도 나이대가 몇 년 씩 일이년 차 정도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길게 몇 년 차 더 이상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서 나오는 아이들하고 친구들 하고 관계도 있는 거고. 요즘에 왕따부터 시작해서...

- 전○○(민간지원센터, 여교사): ...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가 없는 점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무 한정된 정보를 갖고 있으며, 또한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자체가 올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 ③ 학업부진

탈북청소년은 대부분의 경우 학업을 가장 어려운 문제로 느끼고 있다. 초기에는 선생님 말씀도 알아듣기 힘들고 교과용어의 차이 뿐만 아니라 교과내용도 다르고 수업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학교급이나 학년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모든 탈북청소년들에게 공통되는 문제가 바로 학업부진이다. 특히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 장기간 교육공백이 있는 경우는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여 학교공부를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한 장기간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학교의 규칙적 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업향상은 더욱더 힘든 과제이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초등에서도 학년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또래문제가 있지만, 항상 학업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학업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기초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고.

- 김△△(중학교, 여교사): ... 학업은 전반적으로 어려워합니다. 몇 명을 제외하곤 대부분 하위권입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학업하는 게, 공부하는 게 힘들대요. 아까 얘기했지만 멘토가 있어도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거든요. 일주일 과정을 다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남북한의 교육과정도 다르잖아요.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우선 학업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 ④ 심리적 불안과 자존감 부족

탈북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자존감도 낮아 적응과정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에서부터 북한 사회체제의 특성과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공격적이고, 심리적

인 상처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부모와 오랜 기간 헤어져있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은둔생활과정에서 겪은 일들로 받은 정신적 충격 등으로 한국에 들어와서도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상처와 정신적 불안정은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별 문제 없이 적응하고 있지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극단적인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탈북자들은 대체로 ‘자존심은 세지만 자존감은 낮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적 자존감은 낮으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 싫어하고 무시받는다곤 느끼면 극단적인 공격적 행동을 하는 등 자존심은 매우 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적 특성들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에도 나타난다.

- 이○○(중학교, 남교사):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거지요. ...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보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이... 어떤 자존감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탈북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그 (상처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학교의 입장에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경우의 아이들을 보면, 보통 80-90%는 그냥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탈북 아이들은 굉장히 두드러지더라고요. 6학년을 맡았을 때 저희 학교 일장이 탈북학생이었어요. 남자애였는데 눈화장을 하고 다니고. 거의 의자에 앉아 있지를 앉아요. 개가 떴다 하면, 굉장히 힘들었고... 제가 4학년 때 맡았던 아이도 탈북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ADHD인데 누가 때리면 개를 반드시 막 죽일 듯이 때려야지 되는, 그래야 성이 풀리고. 못하게 하는 선생님하고는 몸싸움...

#### ⑤ 가정의 불안정으로 인한 지지 및 지원 부족

한국에 와서도 가정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가족이 해체되거나 재혼 등 복잡한 가족관계 등의 원인으로 가정으로부터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고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가족의 안정된 돌봄과 정신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업 뿐만 아니라 행동과 인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적응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중학교, 남교사): (구체적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온 친구(학생)들은 거의

상당수가 야간 보호가 안 돼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 엄마가 며칠 제 안 들어와서 아이가 초코파이로 아침을 해결하고, 점심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계구나.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 김△△(중학교, 여교사): ...공부는 잘해도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기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가족관계는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부모가 다 있어도 맞벌이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탈북과정에서 (매를) 맞아 정규적으로 일을 못하고 ...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엄마도 있습니다. 생활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엄마의 경우도 120만원씩 벌어서 임대아파트의 임대비 내고, 통신비 내고, 친정조카까지 데리고 와서 같이 살기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가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언어와 동시에 찾아오는 게 사랑이 애들한테는 많이 그리운 상대고. 언어와 사랑을 동시에 그리고 그게 좀 케어가 되면 애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 일단은 시간이 모든 걸 해결을 해주니까 언어가 되고, 애가 어느 정도 마음을 여니까. 틀려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안다고 해도 아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 언어나 사랑이 부족한 애들인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애들은 절대로 표현 못하더라고요.

(2)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원

① 언어교육 지원

탈북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언어교육지원을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입국초기 3개월간 하나원에서 표준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지역에 정착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하면 또래와 본격적인 언어생활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언어, 또래의 언어를 익혀나가야 한다. 교사들은 한국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한지 빠르면 3개월부터 늦게는

3년까지는 언어적응이 가능하므로 초기 적응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집중적인 언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교육의 내용도 일반적인 한국어 표준어가 아니라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학습용어나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의 기본적 개념어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도방법은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교사1:1멘토링 등을 이용하거나 봉사활동을 활용하여 각급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목 개념어를 알려주는 등 보충학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며, 언어교육지원은 초기 학교의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언어교육 지원이 필요하지요... 한 3년 걸리더라고요.

- 이△△(초등학교, 여교사): 담임선생님이나 다른 교사가 학교에서 한 학생씩 맡아서 하루에 30분이라도 학습지도를 해 주면 좋아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 북한에서 4, 5학년까지 공부하고 온 애예요. 그 아이 같은 경우... 우리학교로 왔을 때, ...원래 4학년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4학년에 넣으면 어떡시겠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3학년으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학습)용어를 잘 모른다고, 용어가 북한의 학습 용어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학을 가르쳤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았는데, 설명해 주고 하니깐 애가 굉장히 열심히 따라왔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의 같은 거 알려주고 설명해 주고 이러면 아이가 잘 알아듣고 하더라고요.

## ② 가정기능 지원 및 가정을 대신한 사회적 돌봄 기능 지원

가족의 안정된 돌봄과 정신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교사나 지역사회 복지사들도 가족을 대신하거나 가정의 지원을 대신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아 가정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을 대신 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높고 집중되고 있지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나 전시성 행사, 일회성 사업에 동원되어 탈북청소년임이 특별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신분의 특성임을 확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가정의 따뜻함과 돌봄 기능을 평소에

일상적으로 지원해주고 가족의 사랑을 대신할 지역사회 사람들의 보살핌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신체적인 돌봄과 심리적 보살핌이 단기적으로는 아직 성인이 아닌 탈북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 사람의 완전한 성인으로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자립하고 다른 사람과 안정적으로 심리적 정서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 제일 중요한 건 가정의 안정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라는 생각이 들고.

- 진○○(초등학교, 여교사): 학생관리, 방과후 돌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벌이가정 때문에 돌봄(지원)이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돌봄 친구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해야 합니다. 학교 안에 지역활동가를 불러서 학교 안에서 방과후 활동을 같이하게...

### ③ 심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학업부진, 또래관계형성의 어려움, 일탈행동 만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만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드러난 문제의 저변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학업과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이 밑바닥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들이 잘 표현되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거지요. 현실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점만 해결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지, 그냥 일 생기면 해결해 주면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 ④ 지도교사의 사랑을 통한 정서적 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생님이 선생님인 것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비중은 매우 높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회적 관계와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부터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과 권위에 대해 복종하고 의지하는 의식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많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 참을성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기본은 선생님이 (먼저) 바뀌어야 되고, 선생님은 (정상적인 다수의)애들을 바뀌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다수가 바뀌는 게 더 쉬워요. 하나가 애들을 다 맞추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수의 애들한테 ... '선생님을 생각한다면, 개를 이해해 줘봐' 이런 상태로 말썹꾸러기 애보다도 괜찮은 애를 바뀌게 하니까 더 쉽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많이 잘 해 주시면 그나마 6개월 안에는 바뀔 것 같아요. 기본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애들이 아니고.

- 박△△(초등학교, 여교사): (심각한 일탈행동을 하던 탈북학생) 담임선생님을 지난번에 만났는데 계속 연락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찾아오고. 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개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너가 탈북이기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염두에 두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개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 ⑤ 인식 개선교육 및 통합프로그램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적응교육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기회를 넓히고 일상적인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 필요한 지원사항은 북한사람들을 교육하기에

앞서 한국 사람들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접촉을 많이 해야 합니다. 통합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이유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모델링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정말 단순한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족캠핑을 갔었는데,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아서 남한가정과 저도 제 가족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못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어울렸습니다. 순수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니 굉장히 자유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도 긴장감이 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6)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적응)수준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수준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고 통합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매우 통합수준이 낮고 적응에 힘들어한다는 대조적인 의견이 공존한다.

### (1) 사회통합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사회통합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학업이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으로 평가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집단은 근무하는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한국교사들이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탈북한 부모를 둔 학생이지만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적응에 문제가 없고 북한에서 또는 중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왔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적응속도가 빨라서 별 문제 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북한을) 경험하고 온 애들이 많잖아요. 00초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60, 70% 아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예요. 그래서 ‘과연 탈북청소년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도 대체로 안정감 있게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적응에) 별 문제가 없어요.

- 김△△(중학교, 여교사):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부모님들은 북한사투리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습득하기 때문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그들(탈북청소년)의 부모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멘토선생님이 수업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의 영어성적이 오른 것 같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1단계적으로 외적인 적응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해 배워나가고 안착해 나가는 것들을 잘하든, 못하든 익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체도 어려워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전에는 중·고등학교의 나이에 (한국에) 오면 무조건 대안학교에 가야한다고 생각하거나 (일반학교에 진학해도) 탈락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제도권 안에서 유지하고 이겨내려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방과후 공부방하고 독서실을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적응을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적응한다는 얘기는 공부를 잘 한다는 거 플러스, 본인들이 필요한 거는 찾아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니까 잘 적응하고 있어요.

## (2) 사회통합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탈북청소년 모두 획일적으로 통합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탈북교사도 학업성적이 좋고 성격이 활달하고 적극적인 탈북학생의 경우는 적응에 문제가 없지만 학업이 부진하고 사교적이지 못한 탈북학생의 경우에는 적응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교사 중 통합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경우에도 그 원인이 탈북학생의 개인적인 문제와 특성 때문이라고 공통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사회의 시스템을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하는 데는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원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므로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통합에 대한 조급한 시도를 경계하기도 한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아직 멀었지요. 아직도 편견이 많아요. 아이들도 편견이 있고. 초등은 꼭 부모(의 편견)가 있어요.

- 김○○(대안학교, 여교사): 고등학교 정도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상류층은 아니어도 중까지는 가더라고요. 한국 온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성격이 쾌활하고, 공부를 잘 하더라고요. 고3인데 서울대를 지망하더라고요. 애들은 학력에 따라서 좌우가 되더라고요. 공부 잘하면 그 또래 애들이 좀 같이 놀아주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고 성격이라도 쾌활하면 그나마 애들이 같이 어울리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애들은 정말 그냥 바닥에서 외롭게 살지요. 모든 걸 다 포기한 상태에서...

- 진○○(초등학교, 여교사): 적응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가 없고, 안 되는 친구들은 본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경우입니다. ... 여러 이유로 인해서 탈북청소년들이 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탈북청소년들이 일반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남한청소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반에서의 적응수준은 물과 기름. 따로.

- 이○○(중학교, 남교사): 제 생각에는 5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입국한 지 5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적응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을수도 있지만, 외모가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막 동화된 것 같아도 다른 것 같아요. (5년이 지나면) '완전하게 적응했다' 라기보다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알 정도?

## 7)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장애(저해)요인과 해소 방안

### (1)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장애요인

#### ① 정부 지원정책 중 장애요인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밀집거주정책과 탈북학생만의 선별적 분리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과잉중복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립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밀집거주정책

북한이탈주민에게 무료로 임대주택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안정과 정착에 매우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취약층과 함께 거주하는 밀집지역을 형성하게 되면서 지역사회와 화합하지 못하고 갈등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이 밀집하여 살면서 북한이탈주민들끼리만 어울리고 한국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기회가 적어서 북한에서 형성된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못되기도 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중 북한에서 사회계층이 비교적 높았던 경우는 밀집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 대개가 임대 주택단지 위주로, 그 탈북하신 분들이 살게하는 건 되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본주의 사회의 긍정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 사회에 와서 보고 배워야 하는데, 북한 사회에서 조금 지식인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한국에서 사는) 동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살고는 있지만...

- 이○○(중학교, 남교사): ... 남북한이 대립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져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남북한의 사이가 나빠지고, 뉴스에 많이 나올수록 아이들은 굉장히 위축되요. 긴장하고. ... (천안함, 연평도 사건 같이 남북상황이) 그러면 빨갱이 새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역사회 자체가 아주 긴장이 되요. ... (임대아파트 주민들도) 서로 어쨌든 이 사회에서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폭발할 수가 있는 거지요.... 호터트려보아야지요. 밀집지역 특히 임대주택 단지에 밀집지역을 만들어 주는 거는 별로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 탈북청소년만의 분리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대부분은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고 하루종일 대안학교에서 공부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대안학교에서 분리교육을 받는 것은 남한학생들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통합교육

을 받는 것보다 남한사회 적응과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의 입국초기의 남한에 대한 지식부족과 교육공백기간으로 인한 학업결손 등의 상황이 대안학교에서 특별한 교육과 배려를 받는 것이 초기 적응과정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나 탈북청소년들만의 방과후 공부방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탈북학생만의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교사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분리 교육지원정책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00복지관에서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과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부방을 따로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하여 저학년반과 고학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상호이해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적응과 통합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교사와 현장 지도자가 판단하면서도 통일부의 예산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위한 예산이므로 그렇게 운영하면 정부지원예산의 전용이 되기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한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저희가 방과후 공부방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일반 아동들이 있고 탈북 아이들이 있고. 그런데 개네들이 섞여서 문화체험도 다니고, 섞여서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이리다 보니까 어울리는 건데. 또 애네들하고 학교도 같이 다녀요. 00,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는데 일반은 x층 y층은 탈북. 이게 또 아이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돈을 주는 사람들이 못 합치게 하시니까. (북한학생들 공부방은) 통일부에서 탈북아동들한테 주는 돈은 ‘일반 아이들한테 주는 예산이 아니다. 일부 프로그램을 돌릴 수는 있으나 모든 예산을 같이 쓰기에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지요. (정책적으로 정부 정책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통합에 저해하는 상황이 되는 수가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도 탈북청소년만이 모여있는 방과후 공부방이 결코 자녀들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남한학생들과 함께 하는 학원 등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은 없고 어쩔 수 없이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이나 대안학교에 보내게 된다고 한다. 초기 1~2년은 분리되어 특별한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적응에 독이 된다고 평가하는 현장전문가가 많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정규학교로의 일시적인 브리지(bridge)학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적응에 소극적이거나 실패한 탈북청소년만의 도피처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결국 탈북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의 존재가 오히려 남한사회와의 교류기회를 제한하고 통합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초기에 오는 아이들은 공부방이 굉장히 필요했는데...우리 공부방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과연 이게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초기 1년, 적응이 안 되면 길게 2년까지로 제한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독이라고 봅니다. 권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이 빠른 부모님들은 (자녀가) 이곳(탈북학생 공부방)에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셔서 자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료서비스는 질적으로 (수준이) 낮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청소년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보낸다.”라고 내놓고 말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 대부분 남한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학원을 보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원 또는 과외를 시키는 것인데, 과외 같은 경우,해보면 아이의 실력이 확 늘줄 알았는데, 늘지 않는 것입니다.

김△△(중학교, 여교사): 탈북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들에게는 독과 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 살려고 왔는데, 왜 탈북이라고 모으느냐?”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탈북이라고 보호하고 지원해주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분류가 되어서 그들에게는 거부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장애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㉔ 탈북청소년에 대한 시혜적 과잉 중복 지원 정책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은 현재 충분히 많다고 대부분의 평가하고 있다. 지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관심이 많아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정도이다. 지나친 관심과 다양한 정부부처와 기관 및 민간단체의 형식적 지원과 실적중심의 중복된 지원이 결국은 탈북청소년이 밀집된 것으로 알려진 상징적인 지역에는 과잉되고 중복된 일회성 지원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사항들은) 지금 애들도

충분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탈북사업 때문에 외부 나가서 얘기할 때도 관심을 좀 내려 놓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탈북청소년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나 복지관 등에는 이들을 위한 교육적 지원이 과잉되고 중복되어 탈북청소년이 이러한 과잉중복지원에 지겨워하고 예산이 낭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학교와 복지관 및 다양한 기관에서 형식적이고 실적중심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래프팅과 요트 같은 한국의 상류층에게도 일반적이지 않은 고급스포츠 활동을 지겨워할 정도로 일회성행사 위주의 중복 과잉지원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정 지역의 특정 집단에 대한 과잉중복지원이 예산의 낭비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 사이에도 불공평한 지원 상황에 대한 불합리함을 느끼게 하고 있고 수혜자의 실제적인 필요에 조응하지 못하고 지원기관 중심의 실적을 위한 일회성 지원에 그다지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여기서 저희와 같이 일하던 북한이탈주민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자기 여기서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며 한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데 혜택이 지날 칠 정도로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원이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넘치는 것이고... 교육 분야를 본다면, 00구 같은 밀집지역은 혜택이 너무 많습니다. (남한의) 상류층 아이들도 요트를 많이 타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쓸데없이 돈을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에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은 화가 난다고 하면서, 남한주민들한테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들과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립이 아닌, 남들이 하는 것을 한 번 체험하게 해주는 지원은 도움이 안 됩니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시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연간 30시간씩 공부시킬 수 있는 멘토링 비용이 나옵니다. 한시간당 2만원 30시간이면 연간 60만원입니다. 연간 30시간이면 한 달에 3시간인데, 3시간 가르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입니다. 그런 지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탈북자지원정책을 직접 경험하고 온 조사대상자는 매우 지나치게 많고 허술한 한국지원정책보다 미국의 엄격한 지원정책이 훨씬 더 정착과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자립하려는 의지보다 복지지원에 의존하

러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탈북청소년들의 자생력을 키워줘야 하는데, 복지 위주의 지원을 하다 보니, 이들이 통합되기 이전에 수급자로 남아버리는 (현)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혜적 복지보다는. ...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미국사회에서 살면서 미국이 탈북자한테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선 그들에게 3개월 이상 지원하지 않으며 그럴 경우에 (스스로)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은 의존하게끔 합니다. 미국은 3개월만 지원하고 중단하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미국에 온 탈북자에게 3개월만 임대아파트를 지원합니다. (미국은) 정착금 없이 3개월 임대료만 지원하는 대신 직업학교를 보내줍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병원도 갈 수 없고 모든 게 깎입니다. 직업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으면 임대료도 깎입니다. 미국의 병원에선 의사처방이 까다롭지 않습니까? (만약) 의사처방이 없으면 직업학교의 결석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직업학교의 결석을 인정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며, 직업학교를 성실하게 다니면 취업, 월급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은 정착하는데 있어서 성공률이 높습니다.

## ② 학교 교육방침 요인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교육방침이나 학교운영 방침으로 인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통합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반학교의 진로지도의 획일성과 민간교육시설의 학생안전보호중심의 엄격한 규정이 한국학생과의 교류기회를 차단한다는 내용이다.

### ㉠ 획일적 진로지도

일반학교의 학업중심 분위기와 대학진학 위주의 획일적 진로지도는 탈북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는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에게는 그 신분의 특이성으로 인해 특정한 직업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더욱더 개인에게 적합한 진로지도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탈북아이들은 군대도 안가고, 경찰관이나 직업군인도 못하는 등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공부 위주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적성과 진로를 빨리 찾아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0이는 7, 8번 떨어져도 요리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여건을 제공해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꽃을 피울 수 있는 흙과 비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한국학생과의 교류를 제한하는 학교방침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 있는 탈북청소년을 교육하는 기숙형 대안학교의 경우는 부모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책임지기 때문에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 때문에 매우 엄격한 생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이 허락되지 않고 한국친구들이 방문해도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방문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한국학생의 집에 가는 외출이나 친구들의 방문이 차단되어 한국학생과의 교류기회가 너무 제한된다는 것이 또래관계형성에 제한요인이 되고 결국 한국사회 적응과 통합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애들을 방과 후에 붙들어 놓고. 주말에는 애들을 내보내주지 않아요. 주말에 친구들끼리 서로 노는(게 없어요). 집에 가고 00학교 가고 이것 밖에 없잖아요. 주말에는 한국 애들이 놀러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내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호자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까봐. 그걸 좀 깨야되는데... 애들을 그냥 놔주어야 하는데... ‘같이 놀아.’ 학교에 애들이 찾아와서 놀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③ 지역사회 및 가정 요인

탈북청소년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북한에서 형성된 의식, 정체성 그리고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의 문제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이나 통합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다.

㉡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정체성

탈북청소년의 가정이 안정되지 못한 경우 사회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족

없이 무연고청소년일 경우에도 불안하고 외로워하는 등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될 수가 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이 있을 경우 그 가족을 데려오기 위한 부담감으로 심리적으로 늘 조급하고 불안해 하기도 한다. 다 함께 탈북하였다 하더라도 탈북과정에 붙잡혀서 송환되어 헤어지거나 중국에서 부모가 헤어지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와서 부모가 헤어지고 재혼하는 등 다양한 가정사정이 한국가정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복잡한 가정환경에서 새로 형성된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친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떨어져 살거나 같은 집에 살아도 직장 때문에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가족관계의 친밀도 등으로도 불안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탈북청소년의 불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학교와 사회적응과 통합에 가장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일단 가정환경이 제일 문제지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 환경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또한 탈북청소년이 한국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남한이나 남한사람을 자신과 대결하는 집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응과 통합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다. 탈북청소년을 지도한지 1년 정도 되는 남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는 나름대로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통합되었다고 평가되는 탈북대학생이 자신들의 후배를 대상으로 성공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연에서 한 말을 듣고 이들이 북한과 남한을 구분하고 자신을 북한과 동일시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신의 출생지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출생지에 대한 애정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과 이들이 계속 북한과 남한의 대립 속에 자신을 남한 또는 남한사람으로 범주화된 집단 전체와 경쟁하고 대립하는 북한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구분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측면에서도 개인적 적응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 김△△(중학교, 여교사): 지난 7월에 서울대, 서강대 탈북대학생 2명과 만남을 주선해서, 공부방법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살짝 들은 이야기가“남한아이들 별 거 아니야, 우리가 확하면 이길 수 있어.”란 말이 서강대 학생한테 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아이들이 뻗

속까지 남한에 동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모님들의 언어방식과 사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북한이 사고방식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남한의 방식을 서서히 따라가긴 하지만, 본인만의 생각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㉔ 탈북청소년 개인적 특성 요인

탈북청소년이 학교에서 남한학생의 편견에 의해 아무런 이유없이 오직 탈북청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로 차별받고 왕따당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지만 현장교사들은 탈북청소년 개인적 성격이나 행동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남한학생들은 탈북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그다지 별 문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초기에 탈북사실이 알려지면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보이지만 금방 일상적 삶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탈북청소년이 적응하지 못하고 관심의 사라짐을 차별이나 왕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남한학생들은 탈북이라는 것이 그냥 특출한 하나의 특징이기는 하나 그것 자체만으로 탈북청소년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탈북청소년의 행동이나 성격적 특성에 문제가 있어서 잘 어울리지 못할 때 그러한 현상이 '탈북'이라는 특징과 중복되면서 차별이 두드러질 수는 있겠지만 탈북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왕따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 이○○(중학교, 남교사): 남한학생들이 탈북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다른 의식을 갖고 있어서라고 얘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상황 속에서 부딪히면 서로 다르다는 게 느껴지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은) 어, 북한에서 왔네, 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티비 등에서 보여지는 모습처럼 탈북한 사실만으로 왕따를 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탈북 학생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탈북학생이 우수하다거나 그러면 절대로 왕따 당할 일이 없겠지요. 거기에 잘 적응을 하니깐. 그런데 왕따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 그룹 주변에 있게 되면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기는 해요. 개인 생각으로는 미국 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과 북한 애가 한국 와서 적응 못하는 것이 비슷할 거라고 봐요.

- 진○○(초등학교, 여교사): 본인이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자기를 과대포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 여러 이유로 인해서 탈북청소년들이 과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로 탈북청소년들이 일반적인 행동을 보이는데 남한청소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편견으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

#### ④ 사회인식 요인

한국사람이 살기에도 피곤한 매우 경쟁적인 한국사회 분위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특징이 탈북청소년이 적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은 그다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학부모의 편견과 차별의식이 가정 속에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결국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차별을 재생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여 ‘탈북’이라는 또 하나의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는 점 즉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 ㉞ 배려가 부족하고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이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극심하여 한국 사람들도 살아가기 힘든 현대 한국사회는 예전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매우 약화되어 있고 전통적인 가족관계도 상당히 무너져 있어 낮은 사람에 대한 시민사회적 배려의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한국사회 분위기속에 가장 적대적인 대상이고 현실적 위협이 되는 북한 출신의 주민이 이주하여 정착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은 대학입시를 위한 무한경쟁에 내몰리기 때문에 학교의 급우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고 특히 주류와 다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한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는 탈북청소년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가장 기본적인 장애요인일 수도 있다.

- 이○○(중학교, 남교사): ... 현실적으로 워낙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자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배려심이 별로 없는 거지요.

#### ㉟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편견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과정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한국사람들의 편견을 장애요인으로 지적한 교사들은 모두 한국출신 교사였는데 이들은 모두 남한의 청소년이 북한이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가지게 되는 과정은 부모의 편견에 의한 영향과 내면화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남한의 청소년은 아직 탈북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편견이 없는데 부모의 편견에 노출되고 지역사회 어른들의

편견 확대재생산에 의한 영향을 받아 결국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차별을 재생산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한국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북한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것도 없고. 온정적인 부분 정도고, 또는 굉장히 적대감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아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 진○○(초등학교, 여교사): 아이들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주입하는 게 큼니다. 그리고 사회의 (언론)보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탈북민이 위해행동, 거친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소문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데, 그 내용이 더욱 과장돼서 전달이 됩니다. 탈북민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탈북민들이 물질의 여유를 누리는데 모습을 못보고, 없이 살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아이들에게 말하게 되는 기회라고 봅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지역사회주민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남북청소년간의 상호인식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남한아이들은 북한아이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깐 신기해만 할 뿐입니다. 본인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탈북아이들이라서 특별히 왕따를 당하고, 적응을 못한다고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교류를 거의 안합니다. 그나마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금 교류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전혀 교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전혀 없어서 고립되어 가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보다는 어른의 고립이 더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북한이탈주민의 사례가 많아져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탈북청소년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인물이 북한이탈주민 중에 보다 많이 배출된다면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김△△(중학교, 여교사): 탈북출신의 주요인사가 많이 나온다는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㉔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부족하여 ‘탈북’이라는 또 하나의 다문화 현상을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것도 장애요인으로 보고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다양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어린이들도 많듯이 탈북가정도 그 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가 그들을 자연스럽게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사회통합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지원정책 및 과제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의 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이 재학하는 학교 안에서의 맞춤형교육 지원 강화, 불안정한 가정과 돌볼 수 없는 상황의 부모를 대신하여 지역사회가 탈북청소년의 돌보는 방과후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 행정기관의 실적을 위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탈북청소년의 통합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지원과 엄격한 집행, 한국사회와 주민 대상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해소교육 실시,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 탈북주민의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① 학교 내 맞춤형교육 지원

탈북청소년의 학업보충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밀집학교에 파견하는 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개 맞춤형 교육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코디네이터와 담임교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확실적인 지원이 아니라 탈북청소년 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탈북청소년의 학업과 가정환경 및 심리적 상황은 개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다. 학업성적의 경우는 정말 그 편차가 극심하여 한 집단으로 동일하게 언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이들의 출생국가마저도 중국이 더 많아지면서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여 이제 더 이상 동일집단으로 획일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이 더욱더 다양해지는 상황변화에 맞추어 지원정책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코디와 담임 간의 어떤 그런 긴밀한 아이에 대한 맞춤형으로. 개개인의 문제들이 좀 다르잖아요. 맞춤형으로 코디와 담임 양측에서 같이 협력해서 아이를 케어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쪽으로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 ②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탈북청소년 가정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직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호와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밀집거주지역 또한 돌봄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사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야간보호프로그램도 밤 9시면 끝이 나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부모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방치된 청소년은 새벽 1,2시가 되도록 귀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탈북청소년 개인이 특별히 강한 의지가 없는 한 지역사회내의 이런 방치된 청소년 그룹에 휩쓸릴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지역사회돌봄센터 등을 개설하여 야간에 방치되는 청소년을 돌봐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야간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보호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 부모님들이 2-3일 집을 비워야 되는 경우에도 아이들이 숙식을 해결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학습에서 뒤처지는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있는 집이 되면 거의 우범지대가 되거든요. 매일 아이가 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는 것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컴퓨터 게임 하는 것뿐이라는 거지요. 복지관에서는 희망의 등대라고 해서 야간보호프로그램이 있지만 아홉시까지만 해요. 그럼 아이들이 아홉시까지 하고 나서 그 때부터 놀아요. 밖에서 한 시, 두 시 까지...

### ③ 실질적 지원 및 엄격한 집행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이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의 실질적 필요에 근거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형식적인 지원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고, 좀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값싼 뷔페식당처럼 늘어지는 프로그램은 좀 더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든, 지역사회든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이 됐으면...

- 박△△(초등학교, 여교사): 또래관계 형성을 위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재정적으로 지원금의 폭을 넓혀 주는 것도 필요 하지요.

한편 탈북청소년이 한국사회 입국하여 적응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특별한 지원과 특혜가 필요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집행과정은 제시된 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관리되어 지원정책이 목적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 전○○(민간지원센터, 여교사): 분명히 학생들이 시작할 때는 특혜를 줘야 하지만, 과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④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확대실시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나 상호이해교육이 학교단위나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와 아울러 상호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이△△(초등학교, 여교사): ...상호인식이 중요하지요.(학부모의 탈북학생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한데 이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학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는) 우수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해요.

- 박△△(초등학교, 여교사):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의 탈북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연수 등을 통해 높일 필요가 있어요. ... 선생님들이 탈북학생의 심각성이라든지 교육의 필요성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탈북학생들 자체만을 케어 하는 것보다 상호인식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 ⑤ 통합프로그램 확대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일반학교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에도 남한청소년을 초대하여 탈북청소년과 대안학교 안에서 함께 놀거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함께 주말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김○○(대안학교, 여교사): 남한 친구들이 놀러올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해 주면, 함께 뛰어 놀고... 방과 후, 기숙학교 특수성이기 때문에 아이들(남한친구)하고의 개인적 시간을 주말을 이용해서 가질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북한이탈주민 밀집주거 지역사회에서는 남한가정을 멘토가정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법이므로 직접 교류하면서 모델링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용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이□□(지원센터, 여교사): 예전에도 가정 대 가정으로 멘토링하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남한가정을 찾을 수 있느냐는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탁가정에 정부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멘토링을 해주는 남한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탈북주민들이 가깝게 지내는 남한주민이나 가족 하나만 있어도 확실히 다릅니다. 자존감도 확 높아집니다.

북한이탈주민을 특정지역에 밀집거주 하도록 주택을 배정하면서 정부가 기존의 지역사회주민들에게 새로 정책적으로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사는 방법과 이들에 대한 이해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정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선주민에게 정부가 사전에 이해교육을 한다거나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면 민간단체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서로 원만하게 지역공동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상호교류와 통합을 위한 지원이나 배려가 있어야했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나 정책이 없었으므로 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해서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진○○(초등학교, 여교사): 00아파트에 탈북민을 배치하면서 그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떤 지원을 했을까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먹거리를 나눈다고 해도 00아파트 주민 전체가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역민들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 8) 통일대비 교육과 정책에 대한 인식

청소년 대상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 일상적 통합교육을 통한 통일기반 형성,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통일의지 강화 그리고 흥미중심의 통일교육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1) 통일의 긍정적 영향과 편의 중심의 통일교육 내용 변화

통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고 통일비용만이 아니라 통일이 가져올 장점과 편리한 점, 긍정적인 점을 교육하는 통일교육의 내용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이○○(중학교, 남교사): 통일이 가져다주는 의의랄까, 현재의 비정상적 체제에 대한 정상적인 해결 방법 등 통일에 대한 긍정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탈북학생들이, 탈북자들이 갖는 의미도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 김○○(대안학교, 여교사): 애들이 경제적 개념이 빠삭하잖아요. 애들이. 통일이 되어서 이익이 난다면 바라는 거예요. 이익 쪽으로 많이 (이야기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북한에 자원이 많다. 통일이 되면 너랑 나랑 진짜 지금의 삶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통일되면 북한사람들이 진짜 빈 배에 숟가락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생각해요.

- 전○○(민간 지원센터, 여교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대비해서 지금까지 시행했던 교육을 누구든지 한 번 되돌아보는 과정이 이 시점에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 (2) 일상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통일의 기반 형성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이 복지관의 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지역주민들과 북한이탈주민이 서로 함께 하는 지역사회 통합이 곧 작은 통일이고 통일마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너무 목적의식적으로 말로 통일교육하는 것은 사업일뿐이지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는 의견이다.

- 박○○(종합사회복지관, 남교사): ...통일에 대한 문화도 어쨌든 저희가 (공식적으로)안 건드려도 계속 (자연스럽게)건드려주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친구들이 일반 아동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아동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자체가 작은 통일의 마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내놓고 (통일교육)하는 거는... 너무 좀 사업적으로 보이잖아요.

### (3)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통일외지 강화

사회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고 통일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이 성숙할 때 통일이 오는 것이므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의지를 강화하는 교육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박△△(초등학교, 여교사): 독일사례를 보면 사회분위기가 굉장히(중요한 것 같아요) 통일교육이 교과서 안에서의 통일교육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서독의 (통일교육을) 보면서, 통일에 대한 사회적기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구나. 그리고 그러한 인식들이 저변에 이렇게 깔려있구나 싶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동독과 다르게 북한을 적대적으로 인식해서 분위기 형성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 인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직 잘 안 찼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저변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김△△(중학교, 여교사): 일단은 관심입니다. (북한의) 사회, 문화가 변화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다면 아이들도 “곧 통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 (4) 통일교육 방법의 다양화

통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방법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다 재미있게 다양하게 문화적 콘텐츠를 통해 실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김△△(중학교, 여교사): 학교에서 딱딱한 교육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최근에 본 뮤지컬이 왕따, 자살,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난타와 접속 시켜서 퍼포먼스로 표현하니까 힐링도 되고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일도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 다가가면 좋지 않을까...

## 5. 소결 및 시사점

탈북청소년, 일반(남한)청소년, 탈북지도교사(지도자) 대상 상호인식 및 통일의식 관련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5-1. 소결: 설문조사

#### 1)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상호인식 및 적응수준

**탈북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53), 깔끔하다(3.47), 적극적이다/성실하다(3.3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35), 공평하다(3.34)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성실하다(3.36), 돈을 잘 안 쓴다(3.26),

친절하다(3.18), 적극적이다(3.15),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09), 공평하다(3.07)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적극적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깔끔하다,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 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즉,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바라보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보다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남한)청소년의 자기인식과 상호인식 차이수준:**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자신을 포함한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대해 대부분 경쟁심이 많다(3.78), 깔끔하다(3.59),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7), 적극적이다(3.54), 불만이 많다/친절하다(3.27),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3.25)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에 대해 대부분 친절하다(3.69), 경쟁심이 많다(3.62), 적극적이다(3.58),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3.56), 깔끔하다(3.51) 등의 항목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친절하다, 경쟁심이 많다, 공평하다, 거칠다, 돈을 잘 안 쓴다, 이기적이다, 불만이 많다 등의 항목에서는 자기인식수준이 상호인식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이 바라보는 남한청소년들에 대한 이미지가 스스로 인식하는 이미지보다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정체성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자기인식 및 상호인식:** 탈북청소년에게는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일반(남한)청소년에게는 탈북청소년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 ⅓이상(38.8%)은 자신을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나, ⅓정도(26.9%)가 ‘잘 모르겠다’, 또 다른 ⅓정도(24.3%)는 ‘한국사람이지만 근본은 북한사람(12.4%)’,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11.9%)’, ‘북한사람(4.5%)’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남한)청소년 ⅓정도(29.4%)는 탈북청소년은 ‘북한사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4.0%는 ‘한국사람이면서 동시에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을 한국 사람으로 인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변화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의 생활변화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한국어를 잘 못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다’, ‘경쟁심이 많아졌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해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었고, 의사소통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입국 후 생활적응에 대한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인식차이:** 탈북청소년들의 입국후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나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한다’, ‘남한생활이 재미있다’,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낸다’,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노력하면 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혼자라고 느낄 때가 많다’,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할 때가 가끔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있으며, 남한생활이 재미있고, 남한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으며, 북한사람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지 않으며,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나 어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관계적응에 대한 인식수준:**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공부)(3.12), 탈북한 친구들과의 관계(3.62), 이웃과의 관계(3.73), 가족과의 관계(3.83), 학교선생님과의 관계(3.90), 남한친구들과의 관계(3.96) 순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공부)(3.07), 이웃과의 관계(3.71), 탈북친구들과의 관계(3.80), 학교선생님과의 관계(3.92), 친구들과의 관계(3.98), 가족과의 관계(4.02) 순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 탈북청소년에게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중복응답), 50.7%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남한 친구(45.8%)’, ‘탈북친구(17.9%)’, ‘담임선생님(17.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응답비율도 7.0%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반(남한)청소년**의 고민 의논상대(중복응답):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학업, 진로, 친구 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친구(66.6%), 형제자매(13.9%), 담임선생님(11.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 공개 여부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들에게는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는지,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는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의 경우 과반수이상(55.2%)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며, 1/3정도(38.8%)만이 ‘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자신이 탈북청소년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남한)청소년** 역시 과반수(50.2%)가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응답 역시 과반수정도(48.9%)인 것으로 나타나 두 의견 차이가 많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청소년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111) 대상으로 ‘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과반수정도(42.3%)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 받는 것이 싫어서(15.3%)’, ‘말할 용기가 없어서(7.2%)’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19.8%) 세부응답으로는 친구들이랑 멀어질까봐, 말하기 싫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404)에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정도(64.1%)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23.5%)’,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6.9%)의 세부응답으로는 한민족(같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상처 받을 것 같아서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응집)수준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주변사람들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3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나의 가족(4.23)’을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은 2.69)’을 가장 못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은 ‘나의 가족(4.53점)’과 ‘나의 친구(4.20점)’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 내가 모르는 탈북청소년(2.35)’, ‘내가 모르는 탈북 어른(2.19점) 순으로 신뢰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생활 주변의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는지 10항목에 대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학교(3.63)’를 가장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찰(3.59)’, ‘법원(3.50)’, ‘정부(3.42)’, ‘지방자치단체(3.36)’, ‘국회(3.35)’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남한)청소년**은 ‘경찰(3.61)’을 가장 많이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교(3.60)’, ‘법원(3.44)’, ‘학원(3.24)’, ‘군대(3.20)’ 순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인식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들의 공동규범 및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남한)청소년 2.59, 탈북청소년 3.3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두 집단 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과 꿈이 깃들어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등의 항목에서 유의미한 차이( $p < .001$ )를 보이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들은 일반(남한)청소년들보다 부모와 나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으며, 직업선택 시 명예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전통문화는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등의 도덕윤리적 가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러운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은 ⅔정도(61,2%)만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남한)청소년은 ⅔정도(74,3%)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탈북청소년(3.0%)에 비해 일반(남한)청소년(4.8%)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떠나고 싶은 의향 및 이유:**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에게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지’ 질문한 결과, 일반(남한)청소년(36.1%) 보다 탈북청소년(37.3%)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탈북청소년(N=75)과 일반(남한)청소년(N=291)에게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N=75)의 ⅔정도(60.0%)와 일반(남한)청소년(N=291)의 과반수정도(45.0%)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라고 응답하였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필요요인에 대한 인식(중복응답):**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이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질문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이라는 응답이 4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46.8%)’,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35.3%)’,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4.9%)’,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13.9%)’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52.5%)’,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48.6%)’,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38.8%)’,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23.5%)’,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21.6%)’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탈북친구와의 만남에서 가장 어려운 점과 좋은 점에 대한 인식:**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남한)청소년(N=86)에게 탈북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⅓정도(30.2%)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심분야가 다른 것’/‘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24.4%)’,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11.6%)’, 기타 5.8%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세부응답으로는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다, 탈북 친구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어 좋다'는 응답이 22.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친구가 더 생겼다/친구가 되었다(10.5%)', '북한말을 배울 수 있다(9.3%)', '새로운 것을 알 수 있다(5.8%)',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다(3.5%)'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다'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좋은 이미지로 통일도 기대할 수 있다' 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통일 세대로서의 준비도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탈북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자유응답 하도록 질문한 결과, 연예인이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관련직업(10.4%), 경찰/군인관련직업(9.0%), 음식관련직업(8.5%), 법조계/디자이너관련직업(6.0%), 운동관련직업(5.5%)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직종으로는 요리사(14명), 경찰(13명), 가수(11명), 과학자(10명), 교사/디자이너(9명), 검사(8명), 의사(7명) 순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중매체의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일반(남한)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직업에 대해 자유응답 하도록 질문한 결과,** 교사, 공무원 등이 20.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과학관련직업(15.4%), 운동관련직업(7.3%), 예술관련직업(6.5%), 음식관련직업(6.2%), 연예인(6.0%), 디자이너관련직업(5.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탈북청소년들의 희망직업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직종으로는 교사(79명), 의사(53명), 요리사(35명), 과학자(38명), 디자이너(35명), 경찰/경찰특공대(31명), 프로그래머(20명) 순으로 많이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형적인 전문직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3)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인식수준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준비 및 방법에 대한 인식 차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은 통일에 대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더 자주 이야기 하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에 비해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그러나,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 모두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대비 상호교류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 $p < .01$ )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이 될 때 까지는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탈북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일반(남한)청소년들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 탈북청소년과 일반(남한)청소년의 통일이후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것이고, 더 잘 살게 될 것이며,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 $p < .05$ 수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사람들 간에 갈등이 심할 것이다’에 대한 생각도 탈북청소년들이 일반(남한)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5-2. 소결: 면접조사(일반청소년)

### 1)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및 인식변화

**학교에서의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일반(남한)청소년이 탈북청소년을 처음 만나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곳은 우선 학교로 같은 반이 되어서 알게 되거나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이 원래 친하게 지내던 남한 친구가 탈북청소년을 새로운 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친구가 되는 과정은 학교생활과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담임선생님이 탈북청소년을 잘 챙겨주라고 특별히 한국청소년에게 또래 도우미의 역할을 부탁해서 관계가 처음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 형성 과정과 특성:** 학교 다음으로 탈북청소년과 만나

또래관계를 형성하는 곳은 지역사회복지관이었다.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함께 공부하거나 단체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학교에서 안면을 익힌 탈북청소년과 보다 친하게 되고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 탈북청소년과 알고 지내온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이고 최장 7년 정도로 길었고 알고지내는 탈북청소년의 수도 2~4명 정도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전학 가게 되면 관계는 소원해 지기도 한다.

**탈북청소년과의 또래관계로 인한 북한과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변화:** 대부분의 청소년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북한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거나 열등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탈북청소년의 부적응 사례를 접하면서 탈북청소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다르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알고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도 기본적으로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친해질 수 있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차이와 의식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청소년과 다른 탈북청소년의 의식과 행동방식의 유형이 있음을 간파하게 되는 학생도 있다.

## 2)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의 좋은 점과 어려운 점

**학업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공부를 잘 하고 못하고가 그 친구가 중국에서 또는 북한에서 출생해서 한국에 왔다는 사실과는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 일뿐이라고 느낀다. 오히려 탈북청소년이라는 존재의 특성이 학업과 관련해서는 이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모르는 것을 묻고 도움을 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탈북청소년과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거나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발표를 한국학생보다 더 잘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또래관계 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일반 학생과 같이 특별히 어려운 점도 특별히 좋은 점도 없으나 학습의 분위기에 따라 또래관계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인기가 많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말투가 다르고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는 초등학교 탈북아동의 경우 주로 혼자 노는 외톨이가 되거나 친구들의 놀림을 받는 등 또래관계 형성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도 있다.

**교사관계 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점은 거의 없고 오히려 탈북청소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호의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질투하지는 않는다.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학교 내 방과후활동 시 좋은 점 및 어려운 점:** 학교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방과후 활동을 탈북청소년과 함께 해 본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일반청소년들 대부분이 방과 후에는 학교 밖 학원 등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 내 방과후 활동 참여율이 낮고 탈북청소년 또한 탈북청소년 전담코디네이터가 있는 경우 따로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보충학습을 받기 때문에 방과후에 학교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현실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방과후 활동을 함께 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좋은 점이나 어려운 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 3) 탈북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 및 적응 노력

대부분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정도로 탈북청소년들이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업향상을 위해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고 해서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거나 모든 남한학생의 이해와 공감을 얻는 것은 아니다.

### 4)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 및 지원정책

**탈북청소년이 노력해야 할 점:** 일반(남한)청소년들은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은 적극적으로 친구 사귀기,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하기 등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남한)청소년들이 노력해야 할 점:**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남한)청소년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점은 친구 되어주기, 편견을 버리고 소외시키지 말고 같이 어울려 주기 등이라고 생각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 및 학교지원정책:**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국가지원정책으로는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과 함께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배려와 탈북청소년에 대한 언어교육 및 학업보충교육, 탈북청소년 멘토 친구 맺어주기,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 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 7)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

탈북청소년들과 함께하면서 좋았던 점은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가끔 알아듣기 힘든 경우와 처음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노는 것을 싫어했던 점 등을 어려웠던 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 8) 통일관련 의식

**통일에 대한 관심 및 통일이유:** 교과시간이나 뉴스 등을 통해 북한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피상적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한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과 이산가족을 위한 인도적 차원, 남한의 군사적 평화와 안전, 경제 발전, 국토 확장 등 국력 신장과 편익을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람직한 통일 방식:** 전쟁이 아닌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을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 통일관련 글이나 동영상 등을 통해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거나, 남북교류프로그램이 있다면 참가하고 탈북자들에게 잘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만남과 타협 등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지만 시간 또한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5-3. 소결: 면접조사(탈북청소년)

#### 1) 입국 및 정착과정

**입국 시 제3국 경유 유무 및 가족유형:** 입국 전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엄마가 탈북 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태어난 후 입국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일부는 2~3개국을 거쳐(중국과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입국한 경우도 있었고 탈북과정에서 발각되어 감옥행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 현재 가족관계는 탈북한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입국 전 또는 입국 후 가족이 해체되어 새로운 가족이 구성된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입국 전,후 교육경험 유무 및 교육기간:** 탈북이후 입국까지 중국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닌 경우, 입국하기까지 옮겨 다니는 동안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북한에서의 학교경험만이 전부인 경우도 있다. 입국 후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해서 잘 적응해 가고 있지만 일부는 학교적응이 쉽지 않아 여러 학교를 전전하기도 한다.

#### 2) 한국에 대한 생각

입국하기 전에 부모가 좋게 말해주어 좋은 인상을 가진 경우와, 중국에서 위성TV 등으로 한국에 대해 미리 알고 좋은 인상을 가진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었던 경우, 한국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졌던 경우, 한국입국 후 실망한 경우도 있다.

### 3) 학교생활에 대한 인식

**학과공부:**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것은 학과공부로 그 중에서도 수학과 영어를 힘들어 하고 있다.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경우가 많지만 중국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 1년마다 선생님이 바뀌고, 선생님들마다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 힘들어 하고 있으며 간혹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래관계:**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소외당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서로 배려해주는 과정을 통해 나아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힘들어하고 조금은 더 노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방과 후 학교 내에서의 활동:** 연극, 밴드, 운동, 중국어 동아리 등에서 재미있게 열심히 활동하기도 하지만 이해속도가 느리거나 진도가 빨라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들이 그 시간에 공부를 하기 원하기 때문에, 간혹은 동생을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4) 학교 밖 생활에 대한 인식

**학교 밖 방과 후 활동 시 재미있는 점:** 학교 밖 방과후 활동은 중학생의 경우 주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하고 있다. 운영프로그램을 재미있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아니다. 집에 있지 않고 나와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밖 방과후활동에서도 공부하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 탈북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처음 온 탈북친구들이 잘 적응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중학생이 되어서는 혼자서 또는 개인교습 등을 통해 자기에 맞는 활동들을 하면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학교 밖 방과 후 활동 시 어려운 점:**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활동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어 흥미를 잃기도 하고 지도교사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 서운해 한다.

### 5) 가족 및 주거환경관련 만족수준

가족구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고 함께 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을 걱정하고 이해하

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이가 안 좋아 다툼이 많은 경우 힘들어 하며, 동생을 돌보아 주어야 하거나 엄마의 잔소리가 심할 때에도 힘들어 한다. 입국이전에 힘든 생활을 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워 하고 있지만, 언어문제 특히 어른들이 사용하는 언어보다 또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잘 못 알아 듣는 것, 중국을 경유해서 온 경우 중국과 달리 이웃과의 교류가 별로 없는 것, 밀집지역 특성상 환경적인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

#### 6)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수준

**학교생활 적응노력:** 중국말을 사용했던 경우에는 한글을 좀 더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고, 학과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려워져 힘들어 하고 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 극복해 가고 있기도 하며, 대중문화와 운동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래관계 적응노력:** 친구들과의 소통을 위해 소극적인 성격을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친구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포기하고 자기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다.

**교사관계 적응노력:** 새 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생님들이 잘 대해 주시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다고 한다. 반면 중학생이 되면서 초등학교 때보다 적응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웃과의관계 적응노력:** 이웃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는 등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히 신경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변하는 선배들의 모습에서 자신을 지키려 노력하기도 하며, 중국을 경유해서 입국한 청소년들은 중국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와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한다.

### 7)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 및 지원

탈북청소년 스스로 해야 할 노력: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문도 먼저 열고 다가가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적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청소년들과 운동이나 여행, 캠프 등을 함께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나친 관심을 받는 것도 싫고 함께 하는 것을 서로 싫어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학교나 지역사회,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지역사회나 정부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탈북학생들에 대한 이해교육 기회를 주어 자신들을 편견 없이 바라보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들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지 않기를 희망하기도 한다.

### 8) 한국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

가장 좋았던 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학생은 자신이 점점 예뻐지고 있다고 느낀다.

힘들었던 점: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는 공부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과 학습이나 활동을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는 것 남한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것이라고 느낀다.

### 9) 통일관련 인식

통일에 대한 생각과 관심, 필요성: 통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통일이 될 수 있다면 통일이 되길 원하지만 어떻게 한 나라가 되어서 잘 어울려질지 고민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아직도 북에 남아있어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가족들을 보기 위하여 통일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람직한 통일방식: 통일을 하기 위한 전쟁은 절대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민족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남북간에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 외에도 탈북과정을 알려주어 통일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 5-4. 소결: 면접조사(탈북청소년지도교사 및 지도자)

##### 1)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학교 내 교사:** 근무하던 학교에 탈북청소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여기에 더하여 교사의 전공이나 학문적 배경에 의한 개인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소수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밖 교사(지도자):** 근무하던 기관의 업무 배정에 의해, 대학생 때부터 북한에 대한 관심으로 북한주민지원활동을 하다가 탈북청소년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우도 있다. 탈북지도자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탈북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NK교사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탈북청소년이 밀집한 학교의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배정받은 경우와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에 근무하게 된 경우가 있다.

##### 2) 탈북청소년 지도(지원)내용과 교사(지도자)의 실제 지도사례

**탈북청소년 멘토링:** 교육청에서 탈북청소년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탈북학생멘토링사업’으로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를 탈북학생의 멘토로 정하여 지도하는 것이다. 연간 학생 1인당 30시간의 개별지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멘토링사업은 대체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탈북학생의 학업지도를 1대1로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나 많은 학교에서 초기에는 멘토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면서 북한에서 배우지 못했던 한국의 문화나 거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일회용 활동으로도 진행되었다. 탈북청소년 멘토링사업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탈북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보충학습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상당한 학업향상 효과를 보기도 한다.

**탈북청소년 학습보충 캠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하고 탈북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단체가 주관하는 탈북청소년학습보충 캠프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에 열리고 있다. 4박5일 일정으로 실시되는 집중학습캠프로 청소년들이 보충학습을 원하는 과목을 전공교사가 1:1로 지도하는 캠프이다. 면접대상자 중 오랫동안 탈북청소년 교육업무를 담당해온 초등학교 교사(여)는 이 단체의 임원으로 방학마다 학습보충캠프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탈북학생전담코디네이터의 교육활동 지원(통일교육 포함):** 탈북청소년 밀집학교에는 전담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탈북청소년들의 학업보충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남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와 북한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공통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나타났다. 공통활동은 탈북청소년과 학부모 상담활동과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교육지도 활동이다. 남한 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경우 북한교육에 대한 전공지식이 있는 전문가이거나 다년간 탈북청소년 교육업무에 종사한 현장전문가가 아니라면 보통 초임의 경우는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간의 편견을 해소하는 상호이해교육을 하기는 어려워 1년 정도 근무한 남한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교육지원 활동은 학생에 대한 학업지원과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이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가진 북한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는 학교의 교사와 학생 및 남한학부모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교육의 특성과 탈북학생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하고 있다. 탈북교사 출신 전담코디네이터의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은 교사와 남한학생과 남한 학부모의 탈북청소년과 탈북학부모에 대한 편견 해소와 상호이해 및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탈북청소년 학부모 상담 및 남북청소년 상호이해를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업무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육활동이외에도 자발적으로 탈북청소년 학부모부모들이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으면 들어주고 고민도 해결해 주는 등 탈북청소년대상 상담뿐만 아니라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상담과 가정방문을 하기도 하고 남북학생간 상호이해와 어울림을 위해 다양한 방과후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3) 탈북청소년 지도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교육현장 사례중심의 연수내용 강화 필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 의견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현장교사가 부딪치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상황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기관이나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나타났다. 처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를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의 연수여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례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지도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지도방법을 탐색해가는 방식의 연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 내용이나 형식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연수내용 변화 필요:**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의 다양한 변화가 가져오는 탈북청소년 교육지도 현실의 변화에 알맞은 교육 지침과 연수 내용의 변화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도 시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수요와 연구기관 및 정책기관의 공급 내용 차이가 연수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 평가와 개선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및 연수 시 다양한 구성원 참여 필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사업을 운영하던 2012년까지는 전담코디네이터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한국의 교사나 복지사, 북한출신 교사 등으로 다양했는데,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재단으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북한출신 교사만이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변경되었다. 다양한 배경의 전담코디네이터가 함께 연수를 받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탈북교사출신 전담코디네이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북한이탈주민의 고용확대를 위해 탈북교사만으로 전담코디네이터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전담코디네이터의 직무연수나 워크숍의 경우에는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한국출신 교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율적인 토론이나 실제 교육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활용하여 교사들의 교육실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평적이고 실무중심의 교육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민간교육시설 지도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의 체계화 필요:** 민간교육시설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와 교육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주로 관계기관의 협의회와 워크숍 형태로 실시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정형화된 교사용 지도매뉴얼 개발보급,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학교 밖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4)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보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보람:**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보람은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하나는 지도하는 탈북학생의 학업성적이 향상되었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래친구와 잘 지내고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이다. 마지막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던 학생들이 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정을 찾아 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후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할 때이다.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사(지도자)로서 느끼는 어려운 점:** 목적인 교육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탈북청소년과의 관계형성 어려움과 탈북청소년의 태도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근무여건의 열악함, 예산지원 부족, 탈북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심리불안정으로 인한 어려움, 탈북학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교육관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호소한다.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보람:** 탈북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학교생활을 유지하고 진학하는 경우나 선생님의 노력으로 결국은 문제행동이 수정되거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통합되고 있다고 느낄 때 보람을 느낀다.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편견,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비전 부재 및 교사 지도 능력의 한계, 탈북청소년의 북한식 학교생활 태도로 인한 교우관계 지도의 어려움, 예산지원 부족과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부족, 탈북청소년의 학습동기와 기초학력 부족, 불안한 가정환경과 부모-자녀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도의 어려움,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 문제와 콤플렉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에 부딪칠 때 지도의 어려움을 느낀다.

### 5)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지원

**언어교육 지원:** 탈북청소년의 초기 한국사회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언어교육지원을 매우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현재 입국초기 3개월간 하나원에서 표준어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의 집중적인 언어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어교육의 내용도 일반적인 한국어 표준어가 아니라 학교수업에 사용되는 학습용어나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교과의 기본적 개념어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기능 지원 및 가정을 대신한 사회적 돌봄 기능 지원:** 가족의 안정된 돌봄과 정신적 지지 및 경제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교사나 지역사회 복지사들도 가족을 대신하거나 가정의 지원을 대신할 수는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계가 많아 가정의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가정을 대신 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돌봄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심리적 치유와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정서적 지원:** 탈북청소년의 적응과정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학업부진, 또래관계형성의 어려움, 일탈행동 등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드러나는 문제만을 일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의 드러난 문제의 저변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여 학업과 삶에 대한 자신감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식 개선교육 및 통합프로그램 지원:**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적응교육도 필요하지만 먼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과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이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장애(저해)요인

**정부지원정책 중 장애요인:** 탈북청소년의 적응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오히려 북한이탈주민과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 통합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밀집거주정책과 탈북학생만의 선별적 분리지원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시혜적 과잉중복지원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통합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한하거나 자립하도록 도와주기보다는 지원에 의존적으로 만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교 교육방침 중 장애요인:** 일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교육방침이나 학교운영 방침으로 인해 탈북청소년의 한국사회통합이 오히려 방해를 받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일반학교의 진로지도의 획일성과 민간교육시설의 학생안전보호중심의 엄격한 규정이 한국학생과의 교류기회를 차단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사회 및 가정의 장애요인:** 탈북청소년의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북한에서 형성된 의식, 정체성 그리고 개인적 성격이나 특성의 문제로 인해 남한사회 적응이나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인식 장애요인:** 한국사람이 살기에도 피곤한 매우 경쟁적인 한국사회 분위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등이 탈북청소년이 적응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7) 탈북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정책 및 과제

**학교 내 맞춤형교육 지원:** 탈북청소년의 학업보충지도를 위해 탈북청소년 밀집학교에 파견하는 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개개 맞춤형 교육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코디네이터와 담임교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확실적인 지원이 아니라 탈북청소년 개인마다 다른 상황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탈북청소년 가정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직장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보호와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밀집거주지역 또한 돌봄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돌봄센터 등을 개설하여 야간에 방치되는 청소년을 돌봐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지원 및 엄격한 집행:**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생색 내기식 또는 구색 맞추기식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의 실질적 필요에 근거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확대:**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나 상호이해교육이 학교단위나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와 아울러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개선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합프로그램 실시 확대:** 탈북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밀집주거 지역사회에서는 남한가정을 멘토가정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법이므로 직접 교류하면서 모델링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용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8) 통일대비 교육과 정책에 대한 인식

청소년 대상 통일대비 교육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으로의 변화, 일상적 통합교육을 통한 통일기반 형성,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와 통일의지 강화 그리고 흥미중심의 통일교육 방법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5-5. 시사점

이상의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탈북청소년 개인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의 인구학적 배경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개인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탈북청소년의 학업수준과 가정환경, 심리적 상황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출생국도 중국이 더 많아지면서 문화적 배경도 다양하여 이제 더 이상 동일집단으로 획일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다. 지원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이 다양해지는 상황변화에 맞추어 지원정책도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둘째,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은 학습지도, 생활지도, 가정문제 상담,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담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멘토교사 지원, 사례관리, 학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일반학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탈북청소년에 대한 중복서비스를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인 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다.

### 셋째, 탈북청소년대상 대안교육시설 지원 및 정규학교와의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중에는 정규학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연령차이,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대안교육시설에도 다니고 있음을 감안하여 양쪽을 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중도탈락율을 낮춰야 할 뿐 만 아니라 대안교육시설 학생들도 정규학교로 갈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좋은 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또는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규학교 진학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학교 또는 위탁학교의 운영,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간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절차와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넷째, 탈북청소년대상 진로·직업지도 내실화 및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교육 제도화가 필요하다

미래 통일시대 주역인 탈북청소년의 진로·직업지도는 학업지도와 함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탈북청소년의 학부모는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가정에서의 준비사항, 자녀지도 지침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 필요하다.

#### **다섯째,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특히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처간, 기관간 정책 조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족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규정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섯째, 제3국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늘어나므로 이들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여러 가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일곱째,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운영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생색 내기식 또는 구색 맞추기식 형식적 지원이 아니라 수요자의 실질적 필요에 근거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착단계별 탈북청소년의 원만한 정착지원을 위해 부처 간, 관계기관 간, 거주지 학교와 지역사회단체간 긴밀한 연계와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건립이 필요하다.

#### **여덟째,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친구 여부에 따라 상호인식에 차이가 있는 청소년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탈북청소년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이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영향력이 큰 학부모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이나 상호이해교육이 학교단위나 지역사회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 교사에게도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와 아울러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의 상호인식개선과 이해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실시해야한다.

**아홉째,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여 자녀에 대한 보호와 돌봄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며, 거주지역 또한 돌봄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시설등과 연계한 청소년활동을 활성화 하고, 지역사회돌봄센터 등을 개설하여 야간에 방치되는 청소년도 돌봐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열째, 청소년수시설 등을 활용한 사회통합프로그램 확대 실시 및 통일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과 남한청소년,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통합프로그램을 청소년시설 등을 활용하여 확대 실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밀집주거 지역사회에서는 남한가정을 멘토가정으로 연결해주는 것도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법이므로 직접 교류하면서 모델링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용하고 정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왜 남한으로 이주해왔는지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관점의 통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제 5 장

---

# 정책제언: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1. 탈북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
2.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제 5 장

# 정책제언: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1. 탈북청소년 지원정책 현황 및 문제점<sup>44)</sup>

#### 1)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 (1) 정부차원의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현황

탈북청소년 교육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처로는 통일부와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통일부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는 초기 적응지원과 거주지 보호기간 5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착의 전 지원과정을 담당하는 부처이다. 초기 정착교육지원은 하나원 사회적응교육과 이후 거주지 학교 편입시 학비지원과 학력·자격 인정, 민간교육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으로 표기) 운영을 통해 거주지에서의 학교 생활적응 및 교육지원과 관련한 체계적·통합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는 입국 초기 3개월간 남한생활 적응을 위한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나원 거주 초등학교 연령의 탈북아동들을 위해서는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죽초등학교에서 취학전 아동들은 남한 유치원생과 함께 통합수업을 받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학생들과 함께 통합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탈북학생만을 대상으로 학력이나 생활적응교육을 보충하고 특별수업을 받는다.

하나원내 14-19세 연령의 탈북청소년들은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하나둘학교’는 2009년 9월에 하나원에 개교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예비학교로 전환하였다. 하나둘학교에서는 입학과 편입학 전 준비교육과 보충학습, 학력진단과 진로진학 상담, 심리 진단과 상담 등을

44)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발표자료 중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신효숙, 2013: 85-10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통해 탈북청소년의 정규학교 진학과 사회생활 적응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의 협력으로 2013년 현재 교육부에서 파견한 교사 8명이 하나들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거주지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으로는 공교육 학비지원, 특성화학교 운영사업이 대표적이며, 학교밖 민간교육시설, 무연고 청소년 그룹홈 운영, 장학지원 사업 등은 2010년 신설된 지원재단을 통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 지역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지역안내 교육과 관리를 통해 탈북청소년 지역정착 교육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통일부는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체제 내에서 초·중등학교 및 대학 진학 시의 교육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진행하고, 고등학교도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탈북청소년은 대학 진학시 정원의 특례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국·공립 대학교는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입학,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면제하며, 사립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정부가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의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및 해당 자녀로서, 대학 및 교육대학(대학원 제외) 등에 입학·편입학할 경우는 만 35세 미만으로서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이거나 고졸학력 구비 이후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은 만 35세 이상도 가능하다. 특히, 2009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과 동 시행령 제45조의2를 신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통일부, 2013a: 51-62, 141-145).

통일부는 교육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입학 지원과 학력 인정을 실시하고 있다. 탈북청소년은 각급학교에 편입학시 학력인정서를 구비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북한 학력은 통일부에서 발급한 학력확인서를 구비하여 고등학교 이하 학력인정서는 시도교육청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인정서는 통일부에 신청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교육부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통일부, 2013a: 51-62). 이와 함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예비학교 졸업시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일부는 교육부,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한겨레중고등학교를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로서 중점 운영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남한사회 및 학교 적응력을 제고하고 부족한 학력을 보충해 주기 위한 특성화 학교로 설립되었다. 2005년 7월에 120명 정원의 특성화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년 12월에 증설 허가를 받아 200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겨레중고등

학교는 기숙형 중·고교 통합학교로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에 비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규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 학교는 부족한 학력 결손을 보충하고 제도권 편입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규학교 편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운영됨에 따라 다른 학교와 달리 학교 자체 심의위에서 탈북학생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와 관련해 하나원을 통해 초기 정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지만 하나원 퇴소 이후 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나원 이후 지역차원의 정착지원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정착을 위한 초기 지원기관과 관련하여 정착도우미 제도, 전문상담사 배치 운영, 통일부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 운영되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서비스 기관이 갑작스럽게 확대되면서 시스템과 사업의 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2013년 들어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기 탈북청소년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하고 탈북학생의 학교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통일미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009년 8월에 탈북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교육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로 표기)를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한만길 외, 2010b: 3). 현재 교육부의 탈북청소년 교육 정책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센터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육부는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력심의위원회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의 취학 상황 개선 및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을 위해,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6-98조를 개정하였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 교육감 산하에 학력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학력인정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학력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한만길 외, 2010b: 32). 2010년경까지는 학력인정을 받지 않고 하나원을 퇴소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학력인정을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학력확인 후 다시 학력인정서를 받는 문제, 소수 신청자를 위해 학력심의위원회가

수시로 소집되기 어려운 상황 등에 부딪쳐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2011년 3월부터는 통일부 하나원 하나둘학교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협조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무엇보다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정규학교의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특성 및 탈북청소년 분포, 지역자원 활용 여건 등에 맞는 지원사업을 기획·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학생 지원사업은 학습 지원, 멘토링, 진로탐색 지원, 심리정서 지원, 문화체험캠프 등이 있으며, 교사 지원사업은 교사연수, 교재 개발, 장학자료 발간·보급 활동 등이 있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추진하는 학생 중심 맞춤형교육 사업 중에서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은 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착지 학교에서는 탈북학생의 학교생활을 적응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별로 1대1 맞춤형 학습 및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담임교사 멘토링, 중·고교는 담임 및 교과교사 협력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멘토링을 담당하는 정착지 학교의 담임교사는 초기적응 교육기관의 자료를 참고하여 학생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지원을 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멘토링 지원사업은 주로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의 생활적응지도, 교과 부진과목을 보충하고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지도,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통한 남한사회 적응 및 대인관계의 원활한 소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각 교육청은 멘토링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으로서 탈북학생 담당교사 및 관련 교직원 등이 연계하는 교사연구회 등을 통해 멘토링 지원프로그램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탈북학생 다수재학 학교를 정책연구학교와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탈북학생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고 있다. 2012년 탈북학생 정책연구학교로는 서울거원초(서울), 인천장도초등학교(인천), 삼죽초등학교(경기), 하안남초등학교(경기), 온양초등학교(충남), 자여초등학교(경남), 금옥중학교(서울), 인천논현중학교(인천), 별망중학교(경기), 인천논현고등학교(인천), 송우고등학교(경기) 11개교가 지정 운영되었다(교육부, 2013.3.13).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통일부와 연계하여 탈북청소년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중·고등학교를 설립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규학교에서 통합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보충하고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서울지역에 하늘꿈학교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하였고, 인천지역에는 인천논현중학교에 특별학급 운영을 통해 예비학교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표 V-1 정부 부처의 교육지원 현황

정부 부처	지원 내용
통 일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운영 : 초등 위탁교육(삼죽초), 하나돌학교 운영</li> <li>-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li> <li>- 하나센터 운영</li> <li>-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li> <li>- 학력 인정</li> <li>- 대학특례입학 및 장학금 지원</li> </ul>
교 육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li> <li>- 하나원 하나돌학교 교사 파견 및 협력학교 지원</li> <li>- 한겨레학교 운영 지원</li> <li>- 초중등교육기관(학교)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li> <li>- 학력심의위원회 운영</li> <li>- 일반학교 편·입학 및 교육비 지원</li> </ul>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운영</li> <li>- 하나원 통합문화캠프 교육지원</li> <li>-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비보호) 교육지원</li> </ul>

(2) 공공 및 민간기관의 탈북청소년 교육 현황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민간기관들은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정부 차원의 정착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으로 집행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되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원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동 법률 제30조에 따라 동년 11월 22일 지원재단이 정식 출범하였고 2011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응, 자립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기능과 정착지원 네트워크의 거점과 가교역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선상에서 통일부는 지원재단 설립 이전에 북한이탈주민후원회(지원재단의 전신)와 통일

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탈북청소년 사업, 그리고 민간단체 연대 등을 통해 진행하던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을 지원재단으로 일원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원재단의 교육사업은 크게 학습 및 장학지원 사업, 민간교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탈북청소년 지원실무자 직무교육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학습 및 장학지원 사업은 탈북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하도록 생활비 보조형태의 장학금 지원, 영어화상교육과 학습지 지원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교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그룹홈 지원 등 정규학교 바깥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 사업으로는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진로진학 정보와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원재단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센터(24시간 종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들도 취업, 진학, 학업, 심리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규학교 지원사업으로는 탈북교사를 전담코디네이터로 선발하여 탈북학생 다수 재학학교 14개교에 배치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및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지원실무자 교육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는 지역적응센터도 탈북청소년의 지역 정착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지역적응센터는 거주지 편입 초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지역학교 편·입학 정보 제공, 학비 및 장학금 정보, 학부모 상담,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적응센터는 탈북청소년 편입학 지원과 사후 교육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으로 ‘학교 중심의 통합교육 체제 강화’와 ‘탈북학생 역량개발과 교육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육체제, 통일대비 교육 기반 구축’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학교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사업으로는 탈북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표준안과 교재 개발, 학습 지원을 위한 보충교재 개발, 하나원 하나둘학교 지원, 예비학교 운영지원을 들 수 있다. 맞춤형 교육지원으로는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 탈북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장시키는 HOPE(Harmony, Optimum, Potential, Education) 프로그램, 그리고 탈북학생의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캠프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탈북학생들이 단계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업들이다.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와 관리자들의 지도방법과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 그리고 탈북주민 및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운영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즉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 상호이해교육 강화, 교육지원인력 연수 등이 포함한다. 이와 함께 연구 개발과 조사 사업으로는 각종 교육과정, 맞춤형 교육자료, 매뉴얼 등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와 지침서를 개발하는 사업과, 탈북학생들의 적응 실태 및 문제점을 세부 주제별로 심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김정원 외, 2013:20-23).

**표 V-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전담기관의 현황**

지원전담기관	현행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생활비보조 장학금 지급</li> <li>- 민간교육시설 운영 지원 : 대안교육시설, 방과후공부방, 무연고탈북청소년 그룹홈</li> <li>- 학업역량 지원 : 영어화상교육, 학습지 지원</li> <li>-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운영 : 학생 지도 및 학부모 상담</li> <li>- 진로진학 지도 : 대학입시박람회, 전문대학입시설명회</li> <li>-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경진대회, 예비대학 운영</li> <li>- 민간교육시설 실무자 연수</li> <li>-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연구 개발</li> <li>- 종합상담센터·취업지원센터 운영 : 교육·진학·취업 상담</li> </ul>
탈북청소년교육 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하나둘학교 교재개발과 교육 지원</li> <li>- 예비학교 운영 지원과 컨설팅</li> <li>- 교재 개발 : 통일대비 표준교재, 기초학력 향상 보충교재</li> <li>- 진로지도 및 역량 강화 : 진로상담매뉴얼 개발, 진로상담지원단 운영, HOPE 프로그램 운영</li> <li>- 탈북학생 지도 교원 연수</li> <li>- 상호이해교육 자료와 영상 개발</li> <li>- 탈북학생 실태분석 및 교육지원 관련 연구</li> </ul>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청소년센터)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프로그램은 정착과정에 따라 입국초기 하나원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과 이후 지역사회정착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비교문화체험프로그램은 하나원을 퇴소하기 바로 전에 2박 3일 외부에서 버스 및 지하철 타보기, 국회 탐방, 학교 및 도서관 방문, 경찰서 및 주민복지센터 방문 등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하나원 퇴소 이후 전국적으로 분산되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보 안내, 온오프라인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프로그램 중 특징적인 것은 탈북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자녀 등 이주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다(신현옥 외, 2012:67-69).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 예산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탈북청소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대안학교와 민간교육시설들은 아래와 같다. 이 외에도 지원재단은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 18개를 지원하고 있다. 무연고 탈북청소년 보호시설이 과거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어 있었으나 현재 재단은 전국에 걸쳐 위탁운영 15개소, 공동운영 3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룹홈이 탈북청소년 개개인 및 기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V-3 탈북청소년 민간대안학교 현황(2013년)**

학교명	개교일	소재지
두리하나국제학교	2009.10	서울 서초구
우리들학교	2010.7	서울 관악구
여명학교(인가)	2004.9	서울 중구
여명학교(미인가)	2001.9	서울 중구
하늘꿈학교(서울)	2003.3	서울 송파구
드림학교	2003.3	충남 천안
한꿈학교	2004.4	경기 의정부
한울학교	2008.3	경기 남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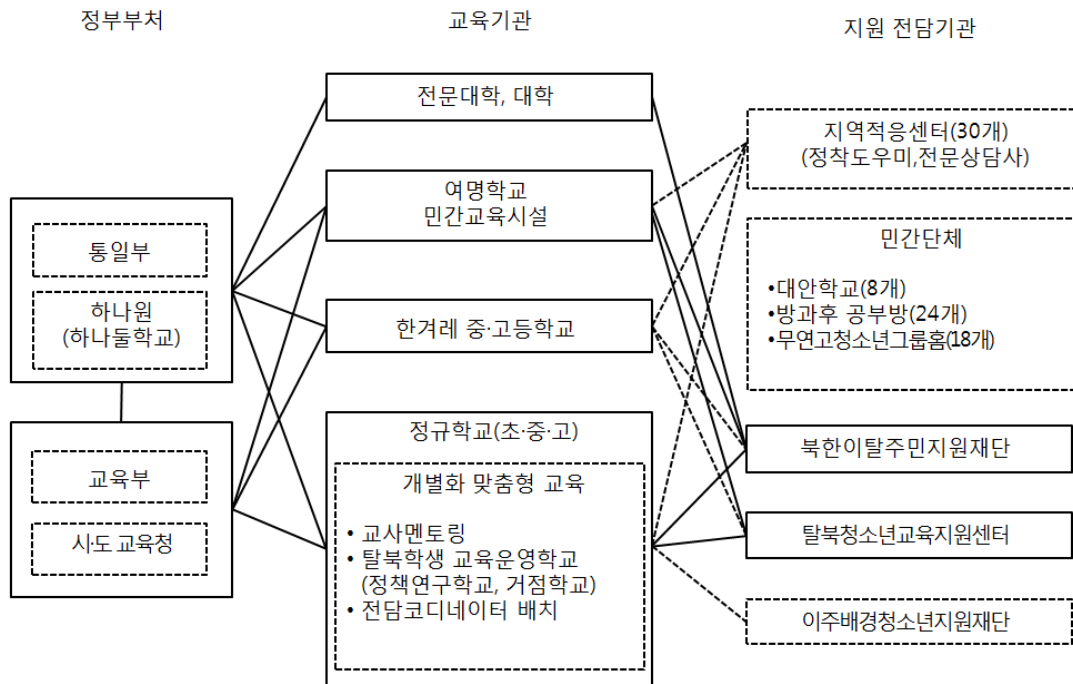
표 V-4

탈북청소년 방과후공부방 현황(2013년)

구분	단체명	대표	소재지
위탁운영 (13)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김장훈	서울 강서구
	겨레얼학교	최동현	서울 양천구
	느헤미야코리아	전 존	서울 서초구
	반석학교	하광민	서울 강남구
	북한이탈주민 대전광역시연합회	하철진	대전 유성구
	금강학교	정팔용	서울 서초구
	성비전교회	류언근	평택 비전동
	에덴가족복지센터	장유화	수원 팔달구
	자유탈북민협회	박영학	서울 강남구
	자유터학교	김경희	서울 동작구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진선하	포항 북구
	한누리학교	김영우	서울 양천구
	한민족학교	최화순	서울 영등포구
공동운영 (11)	새맘길심리치료센터	주정옥	전남 여수시
	부천시 덕유사회복지관	최유호	경기도 부천시
	북한이주민지원센터	허영철	대구 달서구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정병오	경기 광명시
	하늘동지 지역아동센터	김순원	인천 남동구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원요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종합사회복지관	정은옥	부산 해운대구
	창원 YMCA	이승창	경남 창원시
	대전생명종합사회복지관	이재현	대전 동구
	전주YWCA	이영희	전주 완산구
	청주YMCA	안덕호	청주 흥덕구

## 2) 탈북청소년 지원체계의 문제점

2013년 현재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단체, 학교를 포함하는 탈북청소년 지원체계는 [그림 V-1]과 같으며 지원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그림 V-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

첫째, 탈북청소년의 적응단계별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하나원 교육, 초기 정착지 교육, 이후 정착지 교육기관 간에 보다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하나원 하나둘학교,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후 탈북학생 개개인의 선택에 의해 정착지 정규학교, 특성화 학교, 대안학교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의 이력과 정보가 연계되지 않고 있다. 하나원의 하나둘학교, 삼죽초등학교의 위탁교육 기간에 탈북학생의 학력수준, 가정배경, 상담자료 등이 작성되는데 이 자료들은 초기 정착지 학교,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시 전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학생을 맡은 학교와 담임교사들은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 지도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지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통일부와 교육부의 협이에 의해 탈북학생 담당교사가 학생의 기본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관심을 가진 교사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전제를 준수하면서 최소한 탈북학생의 개인별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 개인 교육이력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하나원 퇴소 후 정착지 교육과 관련하여 통일부·산하 기관과 교육부·학교의 지원기관 간에 체계적인 협력적 정착지원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못한 상황이다. 부처간 협력 노력에 의해 탈북청소년 지원정책과 관련해 통일부와 교육부, 지원재단과 센터간에 사업의 중복성을 없애고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선 탈북청소년이라는 동일대상을 두고 부처별 정책의 고유성과 전문성을 살리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협의와 조정의 기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부처 차원에서는 통일부-지원재단-지역적응센터, 그리고 교육부-시도교육청-학교의 연계를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지만 통일부와 교육부의 하부 조직간 연계, 그리고 중앙과 지역 단위 간에 소통하고 연계하는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 단위에서 추진할 교육지원정책이 지역단위에서 실행되려면 중앙과 지역단위의 조직들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종적, 횡적으로 소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체계들을 여러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 본인의 심리정서적, 생활환경적 문제나 가족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통합적 지원체계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나 대안학교 내에서 탈북학생의 학력보충,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문제 등과 관련해 학교 안의 지도교사나 상담사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거주지 정착지원 차원에서 지원재단, 하나센터의 전문상담사나 관련 지원전문인력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교와 지역 지원체계간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까지 통일부 산하 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간에 관계설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에서도 지역적응센터 - 정착도우미 - 전문상담사 간에 각각 별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2013년부터 통일부 - 지원재단 - 지역적응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일원적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지역적응센터 관련 법령인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보조사업 집행지침”(2013.4.30.) 개정을 통해 지원재단과 지역적응센터간 이원적 관계를 초보적 수준에서 일관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였다. 즉 지역적응센터의 지역적응지원 기간 1년 이내를 폐지하고, 지역적응센터 업무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실무자 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하였다(통일부, 2013a:214-220). 또한 지원재단이 지역적응센터와 별개로 진행하던 정착도우미 사업을 2013년부터 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적응센터 내에 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부 산하 정착지원체계는 지원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통합적 지원체계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별 학교는 해당 지역의 지역적응센터와 연계하여 거주지역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체계는 탈북학생의 ‘교육권’또는 ‘학습권’의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대안학교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관련한 편입학 절차가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의 국가는 대부분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의하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것은 모든 아동이 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취학권’과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이 그들의 소질을 최대한으로 개발할 수 있는 ‘학습권’이 모두 보장되어 있다.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남한 청소년들과 비교할 때 청소년기의 기본적인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서승희, 2010). 따라서 탈북청소년은 학력, 연령, 성별, 여건, 학업능력 등을 고려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권을 가진다. 탈북청소년들은 우선적으로 정규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한 학력 및 심리정서적 문제 등으로 정규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경우에 대안학교, 특성화학교, 예비학교 등 다양한 교육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편입학 관련 법규는 귀국자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전체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채워야 학년을 진급시키고, 수업일수가 부족할 경우에 2학기 편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원 퇴소 후 탈북청소년이 곧 바로 지역의 일반학교에 2학기 편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탈북청소년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공부를 지원해 주는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탈북청소년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상황에서 지역의 일반학교로 다시 전학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대안학교에 다닌 탈북학생이 학력과 심신의 안정을 되찾은 후 다시 정규학교로 편입학 하고자 하지만 2학년 1학기 이후에는 정규학교 편입학 불가능 규정에 의해 대안학교를 졸업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탈북학생의 취학권이나 학습권이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 법규에 대한 보다 유연한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비보호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규정이 부처와 기관별로, 사업별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현재 탈북청소년은 보호와 비보호로 구분되어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은 모든 교육적 지원과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모는 북한사람이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은 ‘비보호대상자’로서 교육적 배려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탈북학생과 동일한 지원 대상자는 아니다.

2012년 교육부의 탈북학생 통계에 의하면, 전체 탈북학생 1,992명 중 708명인 36%가 중국 등 제3국 출생이며, 초등학교의 경우만 보면 북한출생 580명에 비해 제3국출생이 624명으로 절반을 넘고 있다(교육부 통계, 2012.4). 이들은 사선을 넘는 탈북 과정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부모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가족 해체를 경험함으로써 심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입국한 후에 한국어와 한글 능력이 없어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중고를 겪고 있다(유시은, 2013:45).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시작한 2009년부터 중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정책대상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통일부의 경우는 하나원을 수료할 시 한 부모 가산금 지급에 있어서 보호·비보호 자녀의 구분없이 가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정착지에서의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에 있어서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영어화상교육, 아동학습지 지원 혜택에 있어서 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비보호대상자’도 포함하고 있다(구병삼, 2013). 그러나, 무연고 탈북청소년 그룹홈은 비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별로 정책이 다르고 사업별로 지원 내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자녀는 엄마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적용되고, 미성년자인 아동에게는 동일 가족임에도 다문화정책이 적용되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입국의 어려움으로 인해 탈북가정 안에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 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저소득 탈북가정의 가족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관련 기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정책과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와 우리사회 내의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원활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중도탈락하는 현실을 야기하고 있다. 부정적 인식 실태를 보여주는 설문조사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주민으로 하여금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 후 남북한 통합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는 질문에 대해, 기여한다(26.5%), 기여하지 않는다(32.7%)로 부정적 평가 높다. 또한 여러 소수자집단에 대한 남한주민의 친밀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 → 여성 결혼이민자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동성애자 순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밀도가 이주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윤인진·채정민, 2010:80-87).

## 2.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 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sup>45)</sup>

교육은 인간의 내면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통일 후 국가 통합의 진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 혹은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통합의 도약점 단계를 가능케 하는 것에 대해 도이취는 공동체 의식을 들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간에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남북 통합의 도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한만길 외, 2012 : 51). 사회통합방안으로서 교육지원은 탈북청소년이 남한의 정착단계에서 오는 배제와 갈등의 경험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은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 교육시스템의 붕괴, 오랜 탈북과정의 학습 공백, 제3국에서의 장기 은신 등으로 기초학습 능력이 부진하며, 탈북 과정에서 공포스러운 상황을 겪게 되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갖기도 한다. 또한 가족의 죽음, 이산, 해체 등의 경험과 가족간의 남한사회의 적응속도의 차이로 인한 세대차이로 안정감을 차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들의 대한 교육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탈북청소년의 성공적인 정착과 남한에서의 자아실현 경험은 통일후 남북한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은 다음과 같다.

45)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발표자료 중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박혜숙, 2013: 35-61)’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정책 제언 1-1: 멘토교사 사전연수 실시 및 일반청소년과의 1:1멘토링 사업 활성화

탈북학생들의 심리적 지지망으로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지지자로서 교사와의 1:1 멘토링 사업을 지속시켜야 하며 일반학생과 단짝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멘토링 사업 시작 시 멘토 교사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해야한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 및 멘토링의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다. 멘티의 선정에 있어서도 입국시기를 고려하여 학생의 적응상태에 따라 멘토링의 내용 등을 조절해야 한다.

### 정책 제언 1-2: 전담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전담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멘토교사지원, 사례관리, 학부모상담 및 교육,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일반학생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담코디네이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멘토교사 사전교육과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교육, 탈북멘토링과 관련된 자료 등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의 사례관리와 학부모 상담, 가정방문을 통해 얻게 된 탈북학생에 대한 정보를 담임교사와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지도와 교실 안에서의 지도를 용이하게 하여 탈북학생의 적응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또한 전담코디네이터의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탈북학생사례관리’를 통해 학생의 변화를 파악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 연결시키는 ‘맞춤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지도, 생활지도, 가정문제, 건강문제, 상담, 진로, 정서안정 등 다중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탈북학생의 특성상 전담코디네이터를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탈북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일반학생을 상대로 탈북학생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탈북학생의 안정적 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중복서비스를 조절함으로써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안정적지지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탈북학생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설명회, 학부모연수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학부모의 남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남한학교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에 대한 숙지,

자녀교육 등을 연수함으로써 탈북학부모의 남한 적응을 높이고 긍정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정책 제언 1-3: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정규학교와의 연계 강화

탈북학생 대상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정규학교와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탈북학생 가운데는 정규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연령차이, 학습부진 등의 이유로 민간교육 시설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음을 감안하여 양쪽을 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 학생의 학교적응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중도탈락율을 낮춰야 할 뿐 만 아니라 민간교육시설 학생들도 정규학교로 올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점검하고 좋은 교육시설과 양질의 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 정책 제언 1-4: 탈북청소년대상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대상 진로·직업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통일시대 주역인 탈북학생의 진로지도는 학업지도와 함께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올바르게 제공해야 하며, 탈북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 2)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sup>46)47)</sup>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정책 제언 2-1: 탈북청소년 교육이력시스템 구축

탈북청소년의 적응단계별 지원체계의 관점에서 하나원 - 초기 정착지 학교 - 정착지 학교간

46) 정책제언 2-1~5는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발표자료 중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신효숙, 2013: 85-105)'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47) 정책제언 2-6~8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발표자료 중 '탈북청소년 사회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윤상석, 2013: 63-83)'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긴밀한 협조 속에 탈북학생 교육이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하나원(하나둘학교, 삼죽초등학교)과 초기 정착지 학교(정규학교, 대안학교), 정착지 학교(진학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탈북학생의 교육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가 연계해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가정배경, 출생국, 입국후 정착기간, 학력수준 등 기초 정보가 정착지 학교로 연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담임교사나 학교가 바뀌는 것에 상관없이 탈북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이 이루어지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정착단계별 기관 연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교육부에서 2013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북학생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별 학습관리 프로그램에 관련 교사나 전담코디네이터가 학생의 기본정보, 학습지도, 상담활동, 진로지도 등을 입력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즉 탈북학생 입국초기부터 정착지 학교까지 학생별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학업, 정서, 진로 등을 포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가능할 것이다(김정원 외, 2013).

**정책 제언 2-2: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전담기관 건립·운영**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통일부와 교육부의 업무 협력과 정책 조율 기능을 보다 강화할 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교육부 산하 기관과 학교간 정착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통일부와 교육부, 지원재단과 센터가 각각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부처 및 관련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연계 속에 탈북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정착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와 교육부는 하나원 교육과 관련하여 업무 협력과 정보 공유를 해왔지만 아직은 미진한 편이다. 통일부는 유관부처와의 범정부적 협조체제를 강화해 왔지만 이는 5년간의 거주지 편입지원과 보호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행안부(주민등록, 거주지보호), 노동부(취업지원), 복지부(생계·의료)를 위주로 한 협조체제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이는 관민 협력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거주지보호담당관, 민간단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역적응센터 등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과는 연계가 느슨하였다. 정착지원정책의 방향이 수혜적 보호 정착지원에서 자립자활 중심의 정착지원으로 전환하고 정착단계별로 다양한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연령별·유형별 다양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학교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정착단계별 탈북청소년의 원만한 정착지원을 위해 부처간,

관계기관, 거주지 학교와 지역 사회단체간 긴밀한 연계와 정보교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역할을 담당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재단이 탈북청소년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 정규학교 대상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사업, 학교밖 민간교육시설(대안학교, 방과후공부방, 무연고그룹홈) 지원, 지역적응센터(정착도우미, 전문상담사) 사업을 일정부분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2-3: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교육시설 지원 강화**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체계는 탈북학생의 ‘교육권’또는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정규학교 진학을 제고하기 위한 예비학교 또는 위탁학교의 운영, 정규학교와 대안학교 간 유연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편입학 절차와 관련 법규 개정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탈북청소년은 남북한 교육 격차, 탈북과정에서의 학력중단 등으로 일반학교 직접 편입학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거주지에 곧 바로 편입학하기에 앞서 일정기간 준비와 보충 학습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제고하는 예비학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비학교에서는 탈북청소년의 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학력을 보충하고 학기제에 맞추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고 개인별 진로진학 상담 등이 가능하다.

또한 위탁형 대안학교에서는 정규학교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탈북학생이 일정기간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탈북학생들의 교육권과 보다 나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들이 학력인가 대안학교로 또는 위탁형 대안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제언 2-4: 탈북청소년 가족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집단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지원체제 마련과 관련하여 특히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교육에 대한 부처간, 기관간 정책 조율과 함께 북한이탈주민가정의 가족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규정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탈북청소년 지원사업이 지역거주 탈북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원체제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국적 지원체제를 기반으로 탈북청소년의

배경과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증진 방법과 진로개발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규학교,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 무연고 그룹홈 등 각 교육기관에서는 탈북학생의 집단별·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운영 방식과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실시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지원체제를 갖추어 주어야 할 것이다. 지원재단은 대안학교,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있는데 방과후 공부방에서 교육을 받는 탈북학생의 절반 정도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이다. 이러한 교육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방과후 공부방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탈북청소년과 제3국출생 청소년과의 통합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공교육기관인 일반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운영지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규학교의 제3국출생 탈북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에 중국어를 사용하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를 배치하거나 학교의 일반복지시스템과 연계하여 이중언어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레인보우 스쿨’에서 한국어와 우리사회 이해교육을 받도록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신현옥 외, 2012:54-56).

#### 정책 제언 2-5: 탈북청소년 이해교육 및 연수 강화

남북한 청소년 통합 및 효율적인 서비스전달을 위해서는 탈북청소년 관련 학교와 공공기관의 실무자들은 물론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적 측면에서의 탈북청소년 이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통일교육 프로그램에서 남북한 청소년 이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남한사회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극히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 통일대비 뿐 아니라 현재 사회통합적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실무자와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학교내 탈북학생 담당교사와 관리자, 일반학생들과 학부모들, 더 나아가서는 관련 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탈북청소년 이해 통합교육을 제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교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적응을 도와주는 데 있어 교사와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들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교사와 관리자들의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강화해야 한다. 교원들이 심리상담기법이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의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지도역량을 강화해야 하고, 같은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탈북학생 지도 교사 또는 다른 지역의 모범적인 지도 교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탈북학생이 일반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친구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점에서 학교 차원에서 남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해교육이 필수적이다. 남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탈북 학생에 대한 이해교육을 통해 이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신효숙, 2010). 남한주민의 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 이해 교육은 통일교육과 별개로 북한생활 및 탈북과정 이해, 남한사회 정착지원정책과 제도, 체제문화 적응 이론과 기법 이해 등을 포함한다. 탈북청소년·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가 이를 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언 2-6: 탈북청소년 학부모 대상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제도화

한국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탈북청소년의 학부모 또는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학부모는 우리나라 학교의 체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 가정에서의 준비사항, 자녀지도 지침 등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이는 하나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정책 제언 2-7: 제3국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수립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통한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적자와 외국국적자 간의 혼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고, 중국에서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이 되고, 그 자녀는 다문화청소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에게 다문화가족은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여러 가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 대한 특별한 법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지원정책에 포함시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V-5 탈북청소년 관련 용어

용어	설명	대상 및 연령 범위	비고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38조의2(공동생활 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 청소년"이라 한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이하 정착지원법) 제 2조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일컫는 용어	정착지원법 시행령 제47조의2(예비학교의 교육기간 등) ② 예비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정착지원시설에서 기본 교육을 받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 중 입학할 희망하는 만 6세 이상 만1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정착지원법 제 24조의 2에 '탈북청소년' 이라는 명칭을 사용
새터민(새터민 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 길고 복잡한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어로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이라는 의미임		2005년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용어 중 선정 근거 법령 없음
탈북학생	탈북청소년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집단을 일컫는 용어	비보호청소년을 포함해 통상 학령기(만 6세~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 일반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의미함	근거법령은 없으나 교육부에서 정책용어로 사용
비보호 청소년(제3국출생북한이탈주민 자녀)	통상 정착지원법에 따른 보호결정이 안된 청소년으로 중국 등 제 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음	탈북학생으로 분류할 때는 학령기(만 6세~18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분류할 때는 (9세~24세)	-
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한 청소년을 통칭하는 용어로 탈북청소년도 이주배경청소년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24세 이하를 의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

### 3) 청소년활동 및 시설을 통한 탈북청소년 사회통합방안<sup>48)</sup>

청소년수련시설은 여성가족부의 2012청소년백서에 의하면 2011년 12월 31일 기준 청소년수련

48) 이 절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워크숍(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발표자료 중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자원과 전략과제(김지수, 2013: 107-123)'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관 176개소, 청소년문화의집 215개소, 청소년수련원 176개소, 야영장 43개소, 유스호스텔 121개소, 특화시설 7개소 등 총 738개소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활권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수련활동 중심에서 문화활동과 교류활동,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 최근에는 진로개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은 “일부 특정 청소년”에서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후처방”에서 “예방적 접근”으로 전환되어 왔으며, 청소년의 권리와 자율적인 참여의 기반 확충과 함께 자기 자신의 “잠재역량 개발”을 강조하는 것으로 진전되어 왔다. 그러면서 특정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탈북청소년이나 통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은 거의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나마 8.15나 6.15 등에 통일 관련 또는 북한 알아보기 등의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단체들이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 등에서 있어왔지만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해왔다는 사실들로 볼 때, 이러한 노하우들을 접목시켜 사회통합자원으로의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참여활동 등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들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청소년과의 파트너십 형성의 노하우와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을 활용한다면 탈북청소년들과 남한청소년들 간의 조화로운 활동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청소년자치조직들과의 연결을 통한 자연스러운 활동은 서로의 차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제언 3-1: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활동 활성화

국제성취포상제,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프로그램 등과 연결한 활동 지원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관리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동아리들과의 연계성을 통해 남한청소년들과의 자연스런 만남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참여기구와 연결해 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탈북청소년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활동들을 남한청소년들과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책 제언 3-2: 탈북청소년 대상 청소년시설활용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 보급**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해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감각적으로 배우는 활동**: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헌법과 국제인권문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10조), “모든 사람은 내재된 존엄성을 가지며 그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남아공 헌법),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세계인권헌장 1조), “모든 인류 구성원의 내재된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함...”(세계인권선언 전문) 등과 같이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오늘 날의 인간 존엄성은 ‘평등’에 기초해있으며,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임으로 해서 존엄하다. 사회적 지위, 인종, 성, 국적, 다른 어떤 사회적 지위의 표시에 상관없이 사람은 존엄성을 갖는다. 존엄성을 갖는다는 것은 ‘존엄에 대한 감각’을 갖는다는 것으로 존엄성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굴욕과 인간성 말살을 참을 수 없기에 거기에 맞서 싸운다. 뿐만 아니라 존엄성은 한 개인으로서 남이든 북이든, 구호, 이념, 상상 밑에 있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만든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활동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들에게도 동시에 필요한 활동이다. ② **다양성에 대한 관용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활동**: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다수자를 위한 반편견, 반차별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청소년을 포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진 활동을 찾아내야 한다. 다문화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는 차이의 문제이다. 이는 사회학적, 인구통계학적 차이이며, 또한 철학적 범주로서의 차이이다. 차이의 경험은 권력분배에 대한 갈등, 경제적인 재원, 생산방식, 사회통제처럼 전적으로 사회정치적 시각에서 분석될 수 있는 긴장과 저항을 낳는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는 ‘상부’에 의해서 조종되지도 않고,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 진정한 차이를 통합하는 사회체계의 역량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서로 같음을 찾아내고,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며,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단순히 남과 북의 차이를 넘어서 지구촌의 60억이 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 삶에 대해 알아가려고 할 때 차이는 차별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인정함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③ **북한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활동:** 북한체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들여다봄의 교육이 있어야 하며, 남북한의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몸으로의 활동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무지개센터 등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이외의 청소년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북한의 음식, 놀이, 말에 대한 단순한 지식들을 일회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운영하는 정도의 활동들을 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마저도 하고 있지 못한 시설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피상적으로 북한에 대해 이해할 수밖에 없고, 북한에 대한 다양한 편견들이 자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북한을 보여지게 만드는 일, 다시 말해 북한의 역사를 비롯한 체제와 문화,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것들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활동들은 왜 다른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들을 발견하고, 다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왜 남한으로 이주해왔는지에 대한 생각과 현실의 차이를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북한에 대한 이해교육은 단순한 체제의 다름에 대한 나열이 아니라 변해온 삶의 역사와 지구환경과의 연결점들이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새로운 관점의 통일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현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는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이런 관점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국체로 하고 있는 남한 사회가 통일에 대해 선도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제는 ‘남북협력 및 상생통합’이라는 과제 이상으로 통일문제와 관련된 ‘남남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통일교육 거버넌스 측면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기가 되었다. 어떠한 통일을 원하는가에 대한 말들이 오갈 수 있도록 통일을 하려는 구체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그 현실과 당위의 거리를 제대로 측정하려는 노력을 보다 성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일상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처럼 8.15날에나 불러지는 박제된 통일교육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간 기존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현실성 있는 대안을 탐구할 수 있는 여건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립되면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구조 창출과 남북관계 발전을 일관성 있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화해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로 하여 신뢰로운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현행 학교 통일교육은 입시위주로 편성된 교과과정 속에서 시간부족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부족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탈북청소년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미디어나 영상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활동:** 놀이를 서로 오래 하다보면 따뜻한 사랑과 이해와 우정이 생긴다. 사랑, 이해, 우정은 말로 마음에 새기기 어렵다. 놀이로 서로 부대껴야 사랑과 우정의 싹을 틔울 수 있다. 사랑과 우정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필요한 활동은 서로가 만나는 놀이 활동을 통해 우리, 함께라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⑥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활동:** 각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묻고, 찾아보는 활동을 해야 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도록 만들고, 그 고민들을 스스로가 활동으로 연결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통해 스스로의 관계 회복과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참고 문헌 ]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 5-24.
- 교육부 (2013a). 「고등교육법」.
- 교육부 (2013b). 「초중등교육법」.
- 교육부 (2013c). 「초중등교육법시행령」.
- 교육부 (2013.3.13). 시·도교육청 탈북학생교육업무담당자 협의회 자료집. 서울: 교육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지원국 (2012). 2012년 탈북학생 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구병모 (2011). 우리나라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모색. *한국 행정언어 및 질적 연구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1-209.
- 구병삼 (2013). 토론문.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3.6.10.). 국회의원 심윤조 의원실.
- 권효숙 (2006).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의 적응교육: 문화기술적 사례연구. *한국교육* 33(3). 89-120.
- 금명자·권해수·이희우 (2004).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2). 295-308.
- 길은배 (2001).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문화적 동질성 증진 방안: 청소년의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통합적 관점 (협동연구총서 01-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길은배·문성호 (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03-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이수정·김현아·원재연·윤상석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정규학교 재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탐색에 대한 질적 연구 (연구보고 08-R13-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경준·정병호·김찬호 (2008).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Ⅲ: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연구보고 08-R13-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국현 (2003). 남북한 청소년의 고정관념과 심리적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53, 225-255.
- 김남국 (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97-121.
- 김명성 (2009). 사회통합 차원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실천**, 8, 5-29.
- 김미숙 (2005).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보고 KP2005-0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신희 (2012).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연희 (2009).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중도탈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1(4).
- 김유정 (2012). **북한이탈청소년의 이산 경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나 (2008a). **북한이탈청소년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유연성에 관한 통합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윤나 (2008b).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12(4), 401-420.
- 김정원 외 (2013).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 4차년도 사업결과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수 (2013). 탈북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자원과 전략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13-S36**, 107-123.
- 김학성 (1996). **동·서·독 인적 교류 실태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형태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비교 및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17(9), 27-59.
- 노대명 (2009). 사회통합의 현황과 향후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50, 6-19.
- 노정옥 (2011). **한국 다문화사회 통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 박사학위 논문.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박명숙 (2006). **탈북청소년 학교적응교육을 위한 과학과 교수·학습모형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우순 (2008).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한국 이민정책의 한계와 전망.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이민정책 릴레이 포럼**.
- 박윤숙 (2006).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정서 (20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 정치효능감과 정치신뢰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진경 (2009). **한국중앙정부 공무원의 다문화정책 정향성 영향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진경 (2010). 한국의 다문화 주의와 다문화정책 선택적 적용. **한국정책학회보**, 19(3), 259-289.
- 박하나 (2007).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대한 탈북 청소년의 경험 이해: 초입 중학생의 평가 경험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숙 (2013).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전문가 워크숍 자료집 13-S36, 35-6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백혜정·길은배·윤인진·이영란 (2006).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 남한사회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06-R04).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서승희 (2010). **북한이탈 청소년 전환교육 모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현옥 외 (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신효숙 (2010).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체계의 종합적 고찰. 충청권 탈북학생 지도 담당교원 연수 자료집(2010.6.25.-26.)**.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신효숙 (2013). **탈북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워크숍자료집 13-S36, 85-106.
- 심 원 (2006). **새터민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계민 · 정진경 (2008). **사회통합을 위한 청소년 다문화교육 활성화방안 연구** (연구보고 08-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지원법**. 서울: 여성가족부.
- 오명도 · 박순용 · 양희창 · 박형동 · 조명숙 · 채혜성 · 김신동 (2008).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오화영 (2010).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과제와 홍익인간 사상의 의미. **선도문화**, 9, 359-397.
- 유시은 (2013). 통일한국의 자산, 탈북청소년 학력증진 대안 및 정책 제언.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3.6.10.)**. 국회의원 심윤조 의원실.
- 윤상석 (2013). 탈북청소년 사회지원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가 워크샵자료집 13-S36**, 63-84.
- 윤인진 (2007). 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의: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한국사회학회 동북아시아대위원회 7(7)**, 251-291.
- 윤인진 · 채정민 (2010).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상호인식: 정체성과 사회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010-04).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윤혜순 (2013).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콜로키움자료집 13-S12**.
- 이강주 · 한만길 · 이향규 · 김윤영 · 윤보영 · 김은옥 · 안병훈 · 장지영 (2012). **탈북청소년의 교육중단연구Ⅲ**(연구보고 RR2012-0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기영 (2001).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부적응문제에 관한 유형분석** (연구보고 01-R21)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로미 · 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순형 · 조수철 · 김창대 · 진미정 (2007). **탈북 가족의 적응과 심리적 통합**.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2006).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사회의식 비교 연구: 분배정의와 평등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태주 · 김도혜 · 윤상석 (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심층연구: 학교 밖 탈북청소년 이야기**

- (CR2010-08-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향규 · 김윤영 · 조난심 (2010). **하나원 하나들학교 중등학생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향규 · 이강주 · 김윤영 · 한만길 · 김성식 (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중단연구 II** (연구보고 RR 2011-3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현주 · 강신욱 · 최슬기 · Kadir Ayhan · 박형준 (2012).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연구보고서 2012-34).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진경 · 정병호 · 양계민 (2004). 탈북 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정병호 · 양계민 · 이향규 · 임후남 · 황순택 (2006a). **새터민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2006 교육정책연구결과보고서. 경기도교육청.
- 정병호 · 전우택 · 정진경 (2006b). **웰컴투코리아: 북조선 사람들의 남한살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 정향진 (2005).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11(1), 81-111.
- 조명숙 (2013). **북한이탈청소년 대안학교 학력인가 후 학생의 변화연구: A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아 · 임순희 · 정진경 (2006). **새터민의 문화갈등과 문화적 통합방안**(협동연구총서 06-02-06). 서울: 통일연구원.
- 최경자 (2008). **새터민학생의 학습적응력신장을 위한 교육과정 탐색: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학교 외적으로 접근 탈북청소년의 특성에 알맞은 학습적응력에 효과적인 교육과정을 밝히는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연주 (2009).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적응 실태 :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호 (2010). 북한 새터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 독일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정보연구**, 13(1), 161-190.
- 통일부 (2013a).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통일부 (2013b). **2013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 통일부 (2013c).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통일부 (2013d).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 통일부 정착지원과.
- 한국교육개발원 (2011). **탈북학생 밀집학교·밀집지역 통합적 교육지원체제 구축 사업결과 보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전문가워크숍자료집 13-S36**.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만길 외 (1999).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연구보고 RR-1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 (2000).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 연구: 탈북학생의 학력수준 비교 연구**(수탁 CR2000-47).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윤종혁·이향규·김일혁·이관형 (2009). **탈북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연구보고 RR2009-1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이향규·김윤영·채정민·김유나·김일혁·유제민·이슬기·김지혜 (2010a). **탈북청소년의 교육종단 연구 I** (연구보고 RR2010-1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이향규·신효숙·김윤영 (2010b). **탈북청소년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 연구-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1차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만길 외 (201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순혜·원미순·이윤선·방진희 (2010). **학교 밖 탈북청소년 교육·적응 실태** (연구총서 2010-02). 서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Barry, B. (2001). *Culture and Equality*. Cambridge: Polity Press.
- Bade, K. J. (2006). Integration und Politik – Aus der Geschichte lerne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Hg.)(2006).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40-41/2006, Beilage zur Wochenzeitung Das Parlament, pp. 3~6.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bpb).
- Bernard, Paul (1999). Social Cohesion: A Critique. CPRN discussion paper,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Hg.) (2007). Kinder- und Jugendhilfe. Achtes Buch Sozialgesetzbuch. Berlin: DruckVogt GmbH.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 (1994a). Neunter Jugendbericht. Bericht über die Situation der Kinder und Jugendlichen und die Entwicklung der Jugendhilfe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onn: Bonner Universität-Buchdruckerei.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Senioren-Frauen und Jugend (1994b). Situation der Jugend in Deutschland. Antwort der Bundesregierung auf die Große Anfrage der Fraktion der CDU/CSU und der F.D.P. Bonn: Thenée Druck Bonn.
- Castles, S. & Miller, J.. (2003).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3r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Central bureau of Statics (2012). *Immigration to Israel 2007–2010*.(No.1483). State of Israel, 9–10. Retrieved April 7, 2013, from [http://www1.cbs.gov.il/publications12/1483\\_immigration/pdf/e\\_print.pdf](http://www1.cbs.gov.il/publications12/1483_immigration/pdf/e_print.pdf).
- Chan, J. ·To, H. Chan, E. (2006). *Reconsidering Social Cohesion: Development a Definition and Analytical Framework for Empirical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75, 273–302.
- Council of Europe (2005). *Concerted development of social cohesion indicators: Methodological guide*.
- Danna Harman (March, 6, 2013). Beyond Birthright: Jewish students return to Israel to do some good. *Haaretz*. Retrieved April 6, 2013, from <http://www.haaretz.com/jewish-world/jewish-world-features/beyond-birthright-jewish-students-return-to-israel-to-do-some-good.premium-1.507363>
- Heater, D. (2004).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김해성 옮김(2007). 시민교육의 역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 Institute for Immigration and social Integration (2010). *The Rupin Index for the Integration of Olim in Israel*. (pp.2–5) Emek Hefer: *the Rupin Academic Center*.
- Institut für praxisorientierte Sozialforschung(IPOS) (1993). Jugendliche und junge

- Erwachsene in Ostdeutschland Februar/März 1993. Ergebnisse einer repräsentativen Bevölkerungsumfrage. Mannheim.
- Israel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7). The Land of Promise: The Journey Home <http://mfa.gov.il/MFA/MFA-Archive/2003/Pages/The%20Land%20of%20Promise-%20The%20Journey%20Home.aspx>. Retrieved April 6, 2013.
- Jenson, Jane (1998). Mapping Social Cohesion: The State of Canadian Research. *Ottawa: Canadian Policy Research Networks*.
- Jewish virtual library (April 6, 2013.) *Law of Return 5710-1950*.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olitics/Other\\_Law\\_Law\\_of\\_Return.html](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Politics/Other_Law_Law_of_Return.html)
- The Jewish Agency for Israel (April 6, 2013). *History of the Jewish Agency for Israel*. <http://www.jafi.org.il/JewishAgency/English/About/History/>
- Larissa Remennick (2003). What does Integration Mean? Social Insertion of Russian Immigrants in Israel. *JIMI/RIMI 4(1)(Winter)*, 23-49.
- Larissa Remennick (2004). Language acquisition, ethnicity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former Soviet immigrants of the 1990's in Israel. *Ethnic and Racial Studies*, 27(3), 431-454.
- Leonard Saxe, Michelle Shain, Graham Wright, Shahar Hecht, Shira Fishman & Theodore Sasson (2012). *Jewish Futures Project. The Impact of Taglit-Birthright Israel: 2012 Update*. Maurice and Marilyn Cohen Center for Modern Jewish Studies, Brandeis University. *Retrieved April 6, 2013*. <http://www.brandeis.edu/cmjs/researchareas/taglit-birthright.html>.
- Lissitsa S. (2007). "Russian Israelis" - the Emergence of a Transnational Diaspora" in A. D. Epstein, V. Chanin (Eds.). *Every Seventh Israeli: Patterns of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of the Russian-Speaking Immigrants*, Jerusalem-Ramat Gan: University Bar-Ilan, 231-256.
- Maesen v.d., L.J.G., and Walker, A. (2005).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Outcomes of the European Scientific Network.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5(1-2), 8-24.

-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09). *Absorption Patterns of Olim between 2000–2006: a comparative report of 4 groups by origin: Russian, French, Spanish, and English-speakers*. Public Opinion and Marketing Research in Israel, Ltd.
- Ministry of Immigrant Absorption (2012). *Absorption – First Steps, (8th Ed.)* Retrieved April 6, 2013 [http://www.moia.gov.il/Publications/steps\\_en.pdf](http://www.moia.gov.il/Publications/steps_en.pdf).
- Reuven Kahane (1975). Informal Youth Organizations: A General Model, *Sociological Inquiry*, 45, 17–28.
- Reuven Kahane (1986). Informal Agencies of Socialization and the Integration of Immigrant Youth into Society: An Example from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0(1), 21–39.
- Rivak A. Eiskovits and Robert H. Beck (1999). Models Governing the Education of New Immigrant Children in Israel. *Comparative Education Reviews*, 34(2), 177–195.
- sikum peilut (April 6, 2013). 2006 techum masad kelita weshelub olim. Retrieved April 6, 2013, from <http://www2.jdc.org.il/files/olim/masad-2006.pdf>, p.47.
- <http://www.dongposarang.com/>(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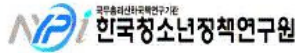
---

# 부 록

1. 설문조사지: 탈북청소년용
2. 설문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3. 면접조사지: 교사(지도자)용
4. 면접조사지: 탈북청소년용
5. 면접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 부록1. 설문조사지: 탈북청소년용



ID

## 상호인식 및 통일에 대한 의견조사(초·중학생용 II)

2013041503-0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원활한 연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5 ~ 06.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제 책임자 : 맹영임 연구위원 (☎ 02-2188-8814)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R&R)  
조사문의 : 김주연 차 장 (☎ 02-3484-3088)  
배재현 연구원 (☎ 02-6916-3504)

### 면접원 기본사항 (응답자는 이 부분에 기입하지 않아주세요.)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SQ1.	학생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당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1. 다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남한 청소년'은 북한이 아닌, 한국(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뜻합니다.

문1. 학생은 남한 청소년을 어느 정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거의 매일                      ② 일 주일에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④ 일년에 6-7번                      ⑤ 일년에 한두번                      ⑥ 만난 적이 없다

문2. 학생은 남한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남한 청소년을 만난 적이 없다면, 남한 청소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남한 청소년은 대부분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공평하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거칠다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돈에 인색하다 (돈을 잘 안 쓴다)	①	②	③	④	⑤
(7)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불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깔끔하다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남한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남한청소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3.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탈북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를 포함한 탈북 청소년은 대부분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공평하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거칠다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돈에 인색하다 (돈을 잘 안 쓴다)	①	②	③	④	⑤
(7)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불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깔끔하다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탈북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탈북청소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11. 학생은 다음 문항에 나오는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 믿지 못한다	하 약 못한다	믿 지 못 한다	보 통	믿 는다	매 우 믿 는다
(1) 정부 (교육부, 통일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등)	①	②	③	④	⑤	
(3) 국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관)	①	②	③	④	⑤	
(4) 법원	①	②	③	④	⑤	
(5) 경찰	①	②	③	④	⑤	
(6) 대중매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①	②	③	④	⑤	
(8) 학원	①	②	③	④	⑤	
(9) 종교집단 (교회, 절, 성당 등)	①	②	③	④	⑤	
(10)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12. 학생은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 참 가 않 았 다	하 약 참 가 했 다	일 년 에 한 두 번	세 달 에 한 두 번	한 달 에 한 두 번	일 주 일 에 한 번 이 상
(1)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종교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봉사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활동(연극, 독서, 영화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문13. 학생은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같은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 주위 여건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양심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도 받으며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행복한 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른 보다는 청소년에게 기대할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정신)과 꿈이 깃들여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명예(세상에 널리 인정받는)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와 나의 의견(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학생은 한국(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② 자랑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랑스럽다      ⑤ 매우 자랑스럽다

문15. 학생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문 15-1번으로**

문15-1.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② 한국이 싫어서  
 ③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④ 기타( \_\_\_\_\_ )

문16. 학생은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②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③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④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  
 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⑥ 기타( \_\_\_\_\_ )

III. 다음은 **동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문17. 학생은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통일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통일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과의 교류(주고 받음)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기대지) 않고 남북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 보다 강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통일이 된다면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 간에 갈등(적대시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이 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개인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DQ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DQ2. 학생이 태어난 해는? \_\_\_\_\_ 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태어났으면, '2000'이라고 적어주세요.)

DQ3. 학생이 태어난 곳은?

- ① 북한                       ② 중국                       ③ 기타( \_\_\_\_\_ )

DQ4. 한국에 들어온 연도는? \_\_\_\_\_ 년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의 년도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들어왔으면, '2000'이라고 적어주세요.)

DQ5.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 ① 일반 초등학교                       ② 일반 중학교                       ③ 대안학교

DQ6. 학생의 학년은?

-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기타( \_\_\_\_\_ )

DQ7. 학생이 한국에 있는 학교를 다닌 기간은 올해(2013년)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 ① 1년 안 되었다                       ② 1년 넘었고 3년 안 되었다  
 ③ 3년 넘었고 5년 안 되었다                       ④ 5년 넘었다

DQ8. 학생의 종교는?

- ① 기독교(교회)                       ② 불교(절)                       ③ 천주교(성당)  
 ④ 없음                       ⑤ 기타( \_\_\_\_\_ )

DQ9. 장래 희망 직업은(하나만 적어주세요)? ( \_\_\_\_\_ )

DQ10. 학생은 공부를?

- ① 아주 못 하는 편                       ② 못 하는 편                       ③ 보통                       ④ 잘하는 편                       ⑤ 아주 잘하는 편

DQ11. 학생의 가정형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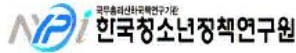
- ① 아주 어려운 편                       ② 어려운 편                       ③ 보통                       ④ 넉넉한 편                       ⑤ 아주 넉넉한 편

DQ12. 학생은 누구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언니/누나                       ④ 오빠/형                       ⑤ 남동생  
 ⑥ 여동생                       ⑦ 할아버지                       ⑧ 할머니                       ⑨ 친척                       ⑩ 기타( \_\_\_\_\_ )

◆ 긴 시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2. 설문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ID

### 상호인식 및 통일에 대한 의견조사(초·중학생용 I)

2013041503-0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는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결과는 청소년 관련정책 마련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여론조사전문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여 주신 내용은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에서 응답해주시는 정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거 조사 종료 후 파기**되오니 안심하시고 모든 문항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05.~06.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과제 책임자 : 명영임연구위원(☎ 02-2188-8814)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R&F)  
조사문의 : 김주연 차장 (☎ 02-3484-3088)  
배재현 연구원 (☎ 02-6916-3504)

#### 면접원 기본사항 (응답자는 이 부분에 기입하지 말아주세요.)

본 면접 조사는 면접지침 사항 내용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 ID \_\_\_\_\_

SV 확인 \_\_\_\_\_

검증원 확인 \_\_\_\_\_

에디터확인 \_\_\_\_\_

SQ1.	학생의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해당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대전	⑥ 광주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1. 다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 '탈북 청소년'은 북한에서 한국(대한민국)으로 온 청소년을 뜻합니다.

문1. 학생은 탈북 청소년을 어느 정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한두번                      ③ 한달에 한두번
- ④ 일년에 6-7번                      ⑤ 일년에 한두번                      ⑥ 만난 적이 없다

문2. 학생은 탈북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 탈북 청소년을 만난 적이 없다면, 탈북 청소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탈북 청소년은 대부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공평하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거칠다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돈에 인색하다 (돈을 잘 안 쓴다)	①	②	③	④	⑤
(7)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불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깔끔하다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탈북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탈북청소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3. 학생은 자신을 포함한 남한 청소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를 포함한 남한 청소년은 대부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쟁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공평하다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거칠다 (화를 잘 낸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돈에 인색하다 (돈을 잘 안 쓴다)	①	②	③	④	⑤
(7) 적극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이기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불만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깔끔하다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남한청소년)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남한청소년)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문7. 학생은 다음 문항에 나오는 생활이나 사람들과의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지금	매우 힘들다	힘들다	보통	힘들지 않다	전혀 힘들지 않다
(1) 학교생활 (공부)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3) 탈북한 친구와의 관계 (탈북한 친구가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4) 일반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이웃(동네사람)과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문8. 학생은 탈북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① 탈북 청소년이라고 말해야 한다      ② 탈북 청소년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문 8-1번으로**

문8-1. [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많은 관심을 받게 되므로      ② 차별받을 것 같아서  
 ③ 말할 필요가 없으므로      ④ 기타( \_\_\_\_\_ )

문9. 학생은 다음 문항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통 어느 정도 믿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혀 믿지 못한다	힘들지 못한다	보통	믿는다	많이 믿는다
(1) 내가 모르는 남한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모르는 남한 어른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아는 남한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아는 남한 어른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모르는 탈북 청소년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모르는 탈북 어른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아는 탈북 청소년 (탈북청소년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아는 탈북 어른 (탈북 어른을 만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주세요)	①	②	③	④	⑤
(9) 나의 가족	①	②	③	④	⑤
(10) 나의 친구	①	②	③	④	⑤
(11) 학원(방과후)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2) 학교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3) 이웃(동네 사람)	①	②	③	④	⑤

문10. 학생은 고민(학업, 진로, 친구 등)이 있을 때 주로 누구와 이야기 합니까? **두 명 까지만** **○표** 해 주십시오.  
 ① 친구      ② 선배      ③ 부모님  
 ④ 담임선생님      ⑤ 형제자매      ⑥ 학원(방과후) 선생님  
 ⑦ 이야기 할 사람이 없다      ⑧ 기타( \_\_\_\_\_ )

문11. 학생은 다음 문항에 나오는 기관들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 히 믿 지 못 한 다	하 지 않 다	보 통	믿 는다	매 우 믿 는 다
(1) 정부 (교육부, 통일부 등)	①	②	③	④	⑤
(2) 지방자치단체 (도청, 시청 등)	①	②	③	④	⑤
(3) 국회 (국회의원들이 모인 기관)	①	②	③	④	⑤
(4) 법원	①	②	③	④	⑤
(5) 경찰	①	②	③	④	⑤
(6) 대중매체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등)	①	②	③	④	⑤
(7) 학교	①	②	③	④	⑤
(8) 학원	①	②	③	④	⑤
(9) 종교집단 (교회, 절, 성당 등)	①	②	③	④	⑤
(10) 군대	①	②	③	④	⑤

문12. 학생은 다음과 같은 모임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 혀 참 가 하 지 않 다	하 지 않 다	일 년 에 한 두 번	세 달 에 한 두 번	한 달 에 한 두 번	일 주 일 에 한 번 이 상
(1)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등) 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2) 종교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봉사활동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활동(연극, 독서, 영화 등) 모임	①	②	③	④	⑤	

문13. 학생은 다음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해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같은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교통법규 등 사회질서는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에서의 성공은 개인의 능력보다 주위 여건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양심적인 사람이 결국에는 인정도 받으며 성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복지혜택(행복한 생활을 위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른 보다는 청소년에게 기대할 것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전통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의 얼(정신)과 꿈이 깃들여 있어 후손에게 계속 전해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명예(세상에 널리 인정받는)보다는 수입이 많은 직업을 택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와 나의 의견(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부모의 뜻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4. 학생은 한국(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①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② 자랑스럽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자랑스럽다      ⑤ 매우 자랑스럽다

문15. 학생은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고 싶습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① 아니다      ② 그렇다 **☞ 문 15-1번으로**

문15-1.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①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② 한국이 싫어서  
 ③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④ 기타( \_\_\_\_\_ )

문16. 학생은 남한청소년과 탈북청소년이 잘 지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② 함께 활동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③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것      ④ 차별이나 편견 없이 지내는 것  
 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      ⑥ 기타( \_\_\_\_\_ )

III. 다음은 **동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당 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문17. 학생은 다음 각각의 문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학생의 **생각과 같은 번호에** **○표**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 혀 아니다	아니다	보 통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통일에 대해 친구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통일에 대해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통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많은 준비를 한 다음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7) 통일이 된다면 국민 모두 더 행복해 질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통일이 될 때까지는 북한과의 교류(주고 받음)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통일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기대지) 않고 남북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통일이 된다면 나라의 힘이 지금 보다 강해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통일이 된다면 다른 나라를 더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통일이 되어도 처음에는 남한과 북한 사람들 간에 갈등(적대시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이 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개인 관련 사항입니다. 해당번호 하나에  표 하여 주시고, 직접 기재하는 난은 ( ) 속에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DQ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학생       ② 여학생

DQ2. 학생이 태어난 해는? \_\_\_\_\_ 년도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태어났으면, '2000'이라고 써주세요.)

DQ3. 학생의 학년은?

- ① 초등학교 5학년       ② 초등학교 6학년       ③ 중학교 1학년  
 ④ 중학교 2학년       ⑤ 중학교 3학년       ⑥ 기타( \_\_\_\_\_ )

DQ4. 학생의 종교는?

- ① 기독교(교회)       ② 불교(절)       ③ 천주교(성당)  
 ④ 없음       ⑤ 기타( \_\_\_\_\_ )

DQ5. 장래 희망 직업은(하나만 적어주세요)? ( \_\_\_\_\_ )

DQ6. 학생은 공부를?

- ① 아주 못 하는 편       ② 못 하는 편       ③ 보통       ④ 잘하는 편       ⑤ 아주 잘하는 편

DQ7. 학생의 가정형편은?

- ① 아주 어려운 편       ② 어려운 편       ③ 보통       ④ 넉넉한 편       ⑤ 아주 넉넉한 편

DQ8. 학생은 누구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을 모두  표 해 주십시오.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언니/누나       ④ 오빠/형       ⑤ 남동생  
 ⑥ 여동생       ⑦ 할아버지       ⑧ 할머니       ⑨ 친척       ⑩ 기타( \_\_\_\_\_ )

DQ9. 학생은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설문종료       ② 있다  DQ9-1, DQ9-2번으로

DQ9-1.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표 해 주십시오.

- 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②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  
 ③ 관심분야가 다른 것       ④ 기타( \_\_\_\_\_ )

DQ9-2. **탈북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와 만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긴 시간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부록3. 면접조사지: 교사(지도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협조 요청 드립니다.

면접조사결과는 귀교의 평가 또는 학교별 비교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 137-715

**[문의사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맹영임 연구위원    전화번호: (02) 2188-8814

2013. 6.

<b>면접 일시</b>	2013년    월    일                    시 - 시
<b>면접 장소</b>	
<b>피면담자 (소속, 성별)</b>	소    속(지역):
	직    위:
	담당과목(업무):
	성    별:
	연    령:
<b>면접 위원</b>	

## 교사(지도자)용 면접조사항목

### ○ 인적사항

- : 재직 학교급 또는 관련기관
- : 성별, 나이, 직위
- : 전공, 담당과목 또는 담당업무

### (1) 교사경력(기관경력) 및 탈북청소년지도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 ① 교사(기관) 전체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현재 학교(기관)에서의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 ② 탈북청소년지도 전체 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리고 현재 학교(기관)에서의 지도경력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 (2)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 지도하고 계십니까?

- ① 이 학교(기관)의 전체 탈북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몇 분의 교사(지도자)가 몇 명정도씩 지도하고 계십니까?
- ② 탈북청소년을 위한 지도(지원)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선생님이 지도하신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등에서 내려준 지침이나 학교(기관)에서 정해놓은 규정상의 지도범위가 있는지의 여부와 응답하는 교사(지도자)의 실제 지도사례
- ③ 학교(기관, 교장, 교감, 기관장 등)의 탈북청소년 지도에 대한 지원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④ 탈북청소년들을 지도하지 않는 다른 교사(지도자)들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지도에 대한 지원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⑤ 탈북청소년지도와 관련된 연수나 교육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 있다면 주관기관, 기간, 내용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3)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어려운 점과 보람을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 ① 탈북청소년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지도자)로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입니까?(개인역량, 지도여건 등)
  - ② 탈북청소년을 지도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보람은 무엇입니까?  
(학업, 생활, 또래 및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응, 남북한청소년의 통합을 위한 상호인식 등에 대한 지도 시 어려운 점)
- (4) 탈북청소년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적응하는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 생활, 또래 및 가족과의 관계적응 등에서 어려운 점과 지원 및 요구사항 등)
- (5) 탈북청소년들의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수준(적응, 동화 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6) 탈북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장애(저해)요인과 이들 요인 해소를 위해 우선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① 남북한 청소년들의 사회통합 장애요인을 정부(정책), 학교(교육), 지역사회/가정(생활 환경), 사회인식, 남북청소년간의 상호인식 측면 등으로 나누어본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 ②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없애기 위한 우선 지원정책 및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 (7) 통일에 대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정책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① 선생님의 학교(기관)에서는 통일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교육횟수(1년)는 어느 정도이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② 향후 통일에 대비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정책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 (8)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인으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북청소년개인, 학교, 사회 영역으로 구분해서 본다면?)

(9) 탈북청소년들의 적응과 성장을 지켜보면서 전환점(성장하다가 실패하는 지점 혹은 좌절하다가 극복하는 지점)을 지켜보신 경우는 있나요? 있다면 전환의 이유 또는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10)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 지도에 좌절보다는 보람을 느끼시나요? 좌절의 순간과 보람의 순간은? 계속 하실 건가요?



## 탈북청소년용 면접조사항목

○ 인적사항: 학교급(학년), 성별, 나이

(1) 언제 누구와 입국했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 탈북년도, 입국년도, 제3국 경유 유무 및 국가명

: 가족관계

: 입국 전 교육경험유무 및 교육기간(북한 또는 제3국에서의 교육경험)

: 입국 후 교육기간(대안학교 포함)

(2) 한국에 대한 생각이 ① 입국 전 ② 입국 직후 ③ 지금 각각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한청소년들과 함께 지낸 것도 영향을 주었나요?

(3) 학교생활은 재미있나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① 학업관련 일반적인 만족수준(1-5점척도로 한다면?) 및 어려운 점

② 또래관계관련(남한 및 탈북 청소년)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③ 교사관계관련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④ 방과후학교 등 방과후 학교 내에서의 활동 여부, 활동 종류,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4) 방과후 학교 밖 생활은 재미있나요?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① 학교밖(방과후) 활동 등 방과후 학교 밖에서의 활동 여부, 활동 종류,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② 가족관련 만족수준 및 어려운점

③ 일상생활관련(가사, 취미활동, 지역사회시설이용, 이웃과의 교류 등) 만족수준 및 어려운 점(탈북청소년으로서 일상생활하는 데 어려운 점)

(5) 입국 후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결과는? 느낌은 어떠했나요?

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② 또래관계(남한 및 탈북 청소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③ 교사와의 관계에서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④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한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6) 남한 청소년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① 자신 스스로 달라지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달라지기 위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학교, 가정, 일상생활 등에서)
  - ② 남한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③ 마지막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나라(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7)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갖고 싶은 것, 지원정책 등)은 무엇인가요?
- (8) 미래 희망은?
- (9)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았다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기를 바라나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개인 차원, 국가차원)을 해야 할까요?

## 부록5. 면접조사지: 일반(남한)청소년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에서는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협조 요청 드립니다.

면접조사결과는 귀교의 평가 또는 학교별 비교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접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임을 명시합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우) 137-715

[문의사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맹영임 연구위원 전화번호: 02) 2188-8814

2013. 6.

면접 일시	2013년      월      일                      시 -      시
면접 장소	
피면담자 (소속, 성별)	소    속(지역):
	직    위:
	담당과목(업무):
	성    별:
	연    령:
면접 위원	

## 일반(남한)청소년용 면담조사항목

○ 인적사항: 학교급(학년), 성별, 나이, 지역

(1) 탈북청소년 친구는 있나요? 있다면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나요? 그리고 몇 명정도 있으며 얼마나 친한가요?

(2) 탈북청소년과 알고 지내면서 북한이나 탈북청소년에 대해 달라진 생각이 있나요? 있다면 어느 점이 달라졌나요?

(3)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① 학업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점

② 또래관계관련(남한 및 탈북 청소년) 좋은 점 및 어려운점

③ 교사관계관련 좋은 점 및 어려운점

④ 방과후 학교 내에서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 여부, 활동 종류, 좋은 점 및 어려운점

(4) 탈북청소년과 함께 하는 학교 밖(학교공부를 마친 후) 활동은 있나요?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① 학교밖(방과후) 활동 등 방과후 학교 밖에서의 활동 여부, 활동 종류, 좋은 점 및 어려운점

(5) 탈북청소년들이 한국생활(특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한국생활(특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② 또래관계(남한 및 탈북 청소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③ 교사관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④ 이웃과의 관계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했다고 생각되는 개인적인 노력과 그 결과, 느낌
- (6)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청소년들과 잘 지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 ① 스스로(남한청소년, 북한청소년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② 달라지기 위해 스스로(남한청소년, 북한청소년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③ 탈북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함께 해야 하는(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④ 마지막으로 학교나 나라(국가)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7) 탈북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과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탈북청소년들에게 바라는 것, 함께 잘 지내기 위한 지원정책 등)은 무엇인가요?
- (8) 장래 희망은?
- (9)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보았다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통일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되기를 바라나요?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개인 차원, 국가차원)을 해야 할까요?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South and North Korean adolescents' mutual understanding and shared perspective and to pla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is study was prompted by the recent increase of North Korean migrants, especially adolescent refugees, in South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goals, the study analyzed empirical research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primary international cases related to adolescent refugees. In addition, the study implemented structured questionnaires to and focus group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outh Korean adolescents, close observers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including teachers and field specialists. The information was gathered to analyze the recognition and need for mutual perception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lso analyzed policies related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rough a specialized workshop and the policy advisory council.

Conclusions drawn through the surveys and interviews suggests the following needs: (1) personalizing education support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2) strengthening abilities of responsible North Korean migrant youth coordinators and building cooperative community networks; (3) supporting alternative educational facilitie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4) planning substantial career and vocational guidance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and institutionalized educational courses for parents; (5) building family integration support system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6) forming consultation groups for a North Korean migrant youth resettlement program that would build and manage special centers to address their needs; (7) strengthening education of understanding, study and training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8) strengthening functions of community involvement through encouraging youth activitie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9) expand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s in youth training facilities and unif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needs outlined above, various education and support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which include the following: the revitalization of preliminary training for mentors, teachers, and one-on-one mentoring services with South Korean adolescents; social integration Four-Plan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hrough education support by strengthening ability of responsible North Korean migrant youth coordinators and building a cooperative community network; personalized education and career support system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family integration support system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ocial integration Seven-Plans institutionalizing educational courses for parents that will improve the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social integration Two-Plans for North Korean migrant youths to develop and distribute social integration programs and activities in youth facilities.

Key words: North Korean migrant youth, Social integration



##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헌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혜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혜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분석 - / 황진구

##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김형주·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표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김미숙·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강석영·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황여정·이준일·방은령·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개발 / 김은지·김동식·최인희·선보영·김나연·정다운 (자체번호 13-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이상림·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자체번호 13-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 전영실·김지영·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 수시과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김유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미나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트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 집필진 ◆

- 김정환 University of Haifa 연구원  
윤혜순 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이민희 평택대학교 교수

◆ 전문가워크숍 발표자 ◆

- 김지수 당동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박영자 이대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  
박혜숙 중원초등학교 교사  
신효숙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연구센터 팀장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허수경 무지개청소년센터 통합지원팀장

◆ 자문위원 ◆

- 고형복 서대문 청소년수련관 관장  
김선화 북부하나센터 부장  
김신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문진 교육부 탈북학생교육지원담당 교육연구사  
신정애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이돈집 삼장중학교 교사  
이성희 거원초등학교 전담코디네이터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정옥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조정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고 13-R05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671-3 93330